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개선 운동

2014.10.10.(금요일) 9:30~17:45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시청각실, 세미나실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 기조 강연1 :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 기조 강연2 :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 [1분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과 실천
- [2분과] 국어 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
- [3분과] 언어문화개선 교육의 현황과 전망
- [종합 토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언어생태학적 접근 방향

- 주최 : 국립국어원
- 주관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

09:30 / 참가자 등록

[오전 기조 강연과 박물관 소개까지 국립한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

10:00 / 개회식

사 회 : 소강춘(전주대)
개회사 : 박창원(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공동대표)
환영사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축 사 :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20 / 기조 강연1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 송철의(서울대)

11:10 / 기조 강연2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 우한용(서울대)

12:00 / 박물관 소개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해설과 관람(한글박물관 관계자 인솔)

12:10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 총회

참석 대상 : 회원 학회의 회장 또는 위임을 받은 대표자, 이사진, 회장단
총회 안건 : 한국어문학술단체 사업 보고, 이사 교체, 정관 개정 등

12:30 / 점심 식사

국립중앙박물관 내 '다채움' 식당

[1분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과 실천		사회: 목정수(서울시립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시간: 13:30~17:10)
발표1: 황화상(서강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발표2: 최혜원(국어원)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발표3: 이정복(대구대)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발표4: 박덕유(인하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종 합 토 론	김성규(서울대),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김유정(고려대), 이찬성(선플운동본부)	

[2분과] 국어 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		사회: 김정우(이화여대)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세미나실(시간: 13:30~17:10)
발표1: 김석희(인하대)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발표2: 서인석(영남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발표3: 송희복(진주교대)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발표4: 임명진(전북대)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종 합 토 론	조광국(아주대), 송기섭(충남대)	

[3분과] 언어문화개선 교육의 현황과 전망		사회: 민병곤(서울대)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시청각실(시간: 13:30~17:10)
발표1: 허용(한국외대)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발표2: 최정순(배재대)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토론(1)	정희원(국어원), 심상민(경인교대)	
발표3: 이관규(고려대)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발표4: 조희정(조선대)	근대 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토론(2)	김혜정(경북대), 전은주(부산대)	

[종합 토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언어생태학적 접근 방향		사회: 강남옥(호서대)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시청각실(시간: 17:20~17:45)
경과보고	각 분과별 주요 발표 내용과 논의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	
종합 토의	언어문화개선 운동과 한국어문 학술단체의 역할 / 참석자 자유 건의와 토의	
	'2014 생태학적 언어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문' 발의	
폐회	폐회사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이삼형(한국어문 학술단체연합공동대표)	

목 차

축사 및 환영사

개회사	3
환영사	5
축 사	7
2014 언어 생태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	9

기조 강연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13
송 철 의 (서울대)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27
우 한 용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제1분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45
황 화 상 (서강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57
최 혜 원 (국립국어원)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73
이 정 복 (대구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93
박 덕 유 (인하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토론	119
김 성 규 (서울대)	
‘언어문화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121
남 영 신 (국어문화운동본부)	
‘북한 언어문화 운동사’에 대한 토론문	123
김 유 정 (고려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한 토론문	127
이 찬 성 (선플운동본부)	

제2분과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133	김 석 회 (인하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159	서 인 석 (영남대)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173	송 회 복 (진주교대)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189	임 명 진 (전북대)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에 대한 토론문	203	조 광 국 (아주대)
한국 현대문학과 생태비평에 관한 질문들	205	송 기 섭 (충남대)

제3분과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211	허 용 (한국외대)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227	최 정 순 (배재대)
‘다문화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249	정 희 원 (국립국어원)
‘한국어의 언어습득 환경 개선 전략’에 대한 토론문	253	심 상 민 (경인교대)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255	이 관 규 (고려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271	조 희 정 (조선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291	김 혜 정 (경북대)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에 대한 토론문	297	전 은 주 (부산대)

특별기고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301	권 재 일 (서울대)
--------------------------------	-----	-------------

한국어문 학술단체연합회

축사 및 환영사

개회사

환영사

축사

2014 언어 생태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학술대회를 열면서

본 연합회는 2012년 10월,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고 현재에 누적되어 살아 있는 것이며,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 민족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 조상들의 대처 방안을 오늘에 되새겨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어문학술단체들은 조선어학회 항일투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구성하여 국어와 국어생활의 문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선배 학자들의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본받아 우리말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그 창립을 선언하고 첫 발걸음을 힘차게 디뎠습니다.

본 연합회는 2012년 10월 12일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행사를 통해 창립 기념 강연을 열었고, 이듬해 2013년 10월 11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화 융합(소통과 통합)을 위한 국어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차 한국어문관계학술단체연합회 학술발표대회를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2차 학술대회를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라는 주제로 국립한글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면서 사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축사를 해 주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회를 개최하시는 민현식 국립국어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되시는 분들과 국립국어원의 관련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를 위해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과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실무를 담당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그 중에도 연구와 교육 등 공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이 진흥되고,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와 정책 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말글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한데 모였

으면 합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한류 바람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한국의 전통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공생과 조화의 철학적 가치관을 창조하고, 사교육 열풍 등 사회적 신분 전환의 욕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인터넷 등 매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관련된 언어 사용의 대중적 윤리관을 재무장하는 모든 과제들이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다 같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한국의 언어문화개선 운동이 실천적으로 활성화되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기대를 담아 2014년 제2차 학술대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1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박 창 원**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민현식입니다.

오백예순여덟 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새로 개관한 한글박물관에서 2014년 한국어 문학회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시경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100주기가 되고, 최현배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 120돌이 되는 해에,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조선어학회의 수난 72주년을 기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국어 교양의 증진, 국어 능력의 향상, 국어 소통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 어문 정책으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언어생활이 사랑과 믿음으로 소통하고 상생 화합하여 품위 있는 언어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공공언어 만들기, 방송언어 품격 높이기, 경어법 혼란 바로잡기, 건전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삼아 2013년부터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을 시작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학교, 언론, 공공, 기업 등의 영역에서 바르고 고운 말로 창조적 소통의 언어생활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비속어와 외국어, 선정적이거나 선동적인 언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언어, 품격과 배려를 갖춘 언어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갈등의 언어, 배척의 언어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통의 도구는 발달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어 환경은 거칠어져 한국어의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어문 관련 학술단체가 모여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주제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10대 무역대국에 들어 선진국에 진입하여 있기에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적 소통과 통합은 절실하며 문화 융성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의 언어문화 개선은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또한 한류의 열풍 속에 위상이 높아져 가는 한국어를 10대 국제어의 하나로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및 민간이 서로 힘을 합쳐 생산적이

고 창조적인 국어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가 우리말과 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한국어교육학회 이삼형 회장님, 국어국문학회 남기탁 회장님, 국어학회 박창원 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립국어원장 민 현 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오백예순여덟 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문학계를 대표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더구나 이번 학술대회는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처음으로 개관하여 국민 앞에 선보인 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깊고 큼니다. 또한, 올해는 주시경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100주기이고, 최현배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 120돌이 되는 해로서,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조선어학회의 수난을 기리고자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 발표를 맡아 주신 우한용 교수님, 송철의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어, 국문,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각 분야의 학계와 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10월 9일을 전후로 한 일주일은 한글주간입니다. 문화의 달에 맞추어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더욱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데 10월 9일 한글날이 있기에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한글주년을 별도로 정하고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 전 구성원이 원활히 소통하고, 개인과 사회가 치유되며,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고품격 언어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가정, 학교, 방송·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언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지난날 규범 중심의 순화나 정화 운동 차원을 넘어, 우리말과 글의 맛과 멋, 감성과 창조적 상상력까지 복돋는 즐거운 언어문화운동입니다. 이 운동에는 2013년 12월 18일 한글·국어, 방송·인터넷, 교육·청소년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식을 하고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학회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의 이상은 문화가 융성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는 한글이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온 백성이 언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애민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꿈꾸는 문화 융성을 이루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세종의 철학을 거울삼아 거듭 배우

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통은 우리 모두를 화합하게 하며, 그 화합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문화가 흥하고 국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소통과 화합의 언어, 쉬우면서도 품격과 배려를 갖춘 언어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갈등의 언어, 서로 이해하지 않는 배척의 언어가 만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통합과 소통의 언어문화를 만들고자 국내 어문 관련 학술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언어문화개선운동이라는 주제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여 우리 생활 속에 바른 언어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은 더없이 유익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정부와 학계, 민간 부문이 서로 힘을 합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국어정책을 마련하는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국어와 관련하여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중심의 국어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가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국어국문학회 남기탁 회장님, 국어학회 박창원 회장님, 한국어교육학회 이삼형 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노력하신 일들이 순조로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2014 언어 생태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

우리말과 글은 민족어 말살의 위기 속에서도 조상의 삶과 문화를 가꾸며 면면히 이어져 왔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국가 번영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음은 세종대왕이 자주, 애민, 실용의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덕분이며 이를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이어 받아 국어 연구와 사전 편찬에 헌신하면서 우리말과 글을 묵숨처럼 지켜온 덕분이므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온 국민이 높이고 기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글을 둘러싼 언어 생태 환경은 말글의 오염과 오용과 남용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의 언어, 소통을 막는 외국어의 남용, 생명 파괴의 막말과 비속어로 우리말과 글은 생명성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의 생명력과 건강한 생태 환경을 회복하도록 언어문화 개선에 한데 뜻을 모으고자 한다.

- 첫째, 가정에서는 언어교육이 모든 교육의 근본임을 믿어 언어폭력을 삼가고 격려와 배려의 가족 대화를 회복하며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언어예절 교육에 힘쓰자.
- 둘째,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사랑과 존경으로 신뢰하고 창조적 토론학습으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언어폭력이 사라진 학교로 가꾸자.
- 셋째, 언론과 인터넷과 기업의 언어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좌우하므로 막말, 증오, 선동이나 과장, 거짓 광고를 삼가고 진실과 품위, 경청과 공감의 언어문화를 이루자.
- 넷째, 정부는 문화융성의 기초가 올바른 국어사용에 있으므로 국어 연구와 운동에 지원을 강화하고 난해어와 외국어의 남용을 삼가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알리자.
- 다섯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앞날과 국어의 생태 환경에 심대한 파장으로 해악을 끼치는 발언을 삼가고 긍정과 존중과 배려의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자.
- 여섯째, 대학은 어문학과와 통폐합과 영어 강의 강요를 삼가고 전문가들은 외국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말로 번역해 한국어로 학문하기에 앞장서자.
- 일곱째, 한국의 세계화와 다원화에 맞추어 한국어를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의 보전과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지혜와 힘을 모으자.

우리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이 문화 융성의 첫걸음을 걸음하고 우리말과 글이 처한 언어 환경의 위기에 맞서 한국어의 건강한 생명성을 회복하는 데에 어문 학자들과 어문교육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 기를 호소한다.

2014년 10월 10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소속 44개 학회 일동

한국어문학회연합회

기 조 강 연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송 철 의 (서울대)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우 한 용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송 철 의(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 서론

올해(2014년)는 개화기의 대표적 선각자 중 한 분이었던 주시경의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는 어문민족주의자였고 애국계몽사상가였으며, 최초의 근대적 국어학자였다. 그는 또한 우리 어문을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해 헌신한 교육자요 어문운동가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편리한 어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문이 기울어 가던 암울한 시기, 근대적 학문이 이제 겨우 싹트려 하던 시기,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했던 시기, 그런 시기에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서를 공부하면 그만이지 언문은 그까짓거 무엇에 쓰려고 공부하느냐’고 조롱을 받으면서도(대한국어문법 26a),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국어와 국문의 연구에 매진하여 국어학의 초석을 놓았으며 현대 한글 표기법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주시경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뜻을 파악하기에도 효율적인, 이런 표기법(맞춤법)을 마련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리한 문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화기의 선각자 주시경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대체로 어떠하였으며, 그 시대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국어와 국문은 어떤 상태이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우리가 주시경으로부터 배울 것은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시대적 배경

개항 이후 선각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사대관계(事大關係)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며,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평등을 실현하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언어와 문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의 도구는 언어와 문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자 중에

서 당시의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하나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문자 체계를 재정비하고 표기법을 통일하여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기에 왜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거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수월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상층부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한자·한문은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그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널리 계몽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면 公私문서의 양이 대폭 늘어나고, 신문, 잡지, 각종 교과서의 출판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자의 기능이 급격히 증대되는데(이기문 1970:16), 이렇게 기능이 급격히 증대된 문자의 역할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하고 있던 한자·한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자·한문에 비해 한글은 배우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해 놓으면, 그것은 입으로 하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언문일치) 이해하기도 쉽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거의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명분상의 이유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오경장 직후 군국기무처는 그 첫 회의에서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쓰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에 고종은 종묘에 고한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에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고유 문자(한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중국의 글인 한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일일 수 없었다. 이에 종래 언문이라 불러 오던 한글을 국문이라 부르면서 공문서에서의 국문 사용을 법률(고종의 칙령)로써 공식화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를 앞서 말한 정치적 독립 선언에 비견되는 문화적 독립 선언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려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독립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우선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는 자주독립의 한 명분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로써 이 시기에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해야 할 당위성도 생기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문자체계와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한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사용 찬성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한글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찾으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와 국문(한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문자체계를 재정비하고 표기법을 새로이 정립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한글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거로 제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한글은 간편하고 글자수가 적어서 배우기 쉬운 문자이므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기의 사람들은 한글을 한자와 비교하면서 한자는 자수고 많고 배우기도 어려운데,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길준은 「世界大勢論」(1883년)에서 이미 “漢文은 字數 衆多 故로 學成 ㅎ기 甚難 且 久 ㅎ고 本國文은 字數가 些少 ㅎ故로 學得 ㅎ기 甚便 且 易”하다고 하였고,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1896년)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하였다. 주시경도 「국문론」(1897년)에서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서 어리석은 어린 아이라도 하루 동안만 공부하면 넉넉히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¹⁾.

둘째, 남녀노소 상하귀천 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기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무렵 서구의 만민평등 사상이 들어오면서 선각자들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토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흠이라”라고 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주시경도 비슷한 언급을 여러 번 하는데,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본래 의도가 ‘남녀노소 상하 빈부귀천 없이’ 다 일체로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다.²⁾

셋째, 한글은 우리나라의 國文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자기 나라 글을 통달한 후에야 타국 글을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국문인 한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주독립의 이치로 보더라도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과 글은 한 나라의 자주국이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독립국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글은 우리말의 음에 따라 만든 문자이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 나온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는 지구상의 육지가 천연으로 나뉘어 구역이 되고 구역에 따라 각종 인종이 생기고 그 인종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으며, 그 각각 다른 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주시경은 이런 맥락 속에서 세종대왕이 우리말의 음에 의거하여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³⁾.

1) 한글이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이미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서부터 언급되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은)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고 정밀하면서도 (잘) 통한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이 끝나기도 전에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簡而要 精而通 故 知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2)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慾使人人 易習 便於日用耳”라는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 듯하다.

3) “世宗朝게서 國音을 依 ㅎ여 國文을 作 ㅎ시니 國文의 發音이 곳 國語의 發音이라” (국문연구 ‘國文淵源과 字體發音의 沿革’)

여섯째,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실무상의 공부를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 한문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배우는 데 십년, 혹은 이삼십 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여가가 없는데,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배우기가 쉬워서 한자, 한문을 배우느라 허비하던 세월을 실무 공부를 하는 데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도 해야만 학문이 넓어지고 나라가 문명 부강하여질 것이라는 것이다.

3. 주시경의 언어관과 문자관

3.1. 주시경의 언어관

주시경의 언어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언어관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다.

주시경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던 시대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선각자들은 누구나 민족 자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었다. 거기에다가 서구의 어문민족주의 사상과 사회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주시경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러기에 그의 언어관은 당연히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주시경은 민족이란 域(지역), 種(인종), 言(언어)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어 형성되는 단체라고 보았는데,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 독립하는 데 있어서 ‘域’은 독립의 ‘基’요, ‘種’은 독립의 ‘體’이며 ‘言’은 독립의 ‘性’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性’은 ‘本性’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민족의 본질을 언어공동체로 보는 이러한 언어관을 민족주의적 언어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신용하(2014:9)에서는 주시경의 이러한 언어관이 콩트나 스펜서 같은 서구 사회학자들의 언어관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직접, 혹은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서구의 민족주의 이론이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이광린 1977, 신용하 1995), 주시경도 그러한 민족주의 이론이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주시경은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족(인종)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각기 다른 그 민족에 따라 各異한 언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주시경은 민족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던 그로서는 국가의 성쇠도 언어의 성쇠에 달려 있고, 국가의 存否도 언어의 存否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⁴⁾. 또한 그는 ‘文言을 갈고 닦아서 그 민족의 智術을 精하고

4) 『국어문법』 序

精하게 하는 자는 他衆을 복종시키며 흥성하고 文言을 갈고 닦지 않아서 그 민중의 智術이 不興하는 자는 他衆의 압제를 받으며 쇠망하게 된다'고⁵⁾ 하였다. 주시경의 이러한 언어관은 자연발생론적 언어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시경은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경영의 의사를 발표하여 그 인민을 연락케 하고 동작케 하는 機關'⁶⁾이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의 기능이 의사소통임을 인식하고서 사회가 성립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언어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주시경은 언어가 한 사회의 기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관, 즉 언어를 잘 修理하여 精鍊하면 그 사회의 동작도 敏活케 될 것이고 수리치 아니하여 노둔하면 그 사회의 동작도 막히고 필경에는 패망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을 가르쳐서 그 사회를 보존하며 발달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말과 글을 닦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3.2. 주시경의 문자관

주시경은 말과 글을 구별하려는 인식이 있었고 이와 평행되게 음(소리)과 문자를 구별하려는 인식이 있었다.⁷⁾ 그는 음(音)은 청각기호요, 문자는 시각기호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대한국어문법』 등에서 말은 '귀청을 울려서 듣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신경)이 깨닫고 아는 것'이요 글은 '눈에 비치어 보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신경)이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주시경이 음은 청각으로 인지하는 기호요 문자는 시각으로 인지하는 기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일찍부터 문자에는 두 가지 종류, 즉 表音文字(記音文字)와 表意文字(記事文字)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표음문자가 표의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표음문자는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며, 글자의 수가 적고 문리가 있어서 배우기와 쓰기에 쉽고, 근세의 문명한 시대에 서구 여러 문명국들이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표의문자보다는 우수한 문자라는 것이다. 주시경이 표음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폐지하고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 '음(音)은 천지(天地)에 자재(自在)'한 존재요 문자는 그 음에 바탕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천지에 자재한 음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그렇게 완전한

5) 「必尙自國文言」의 「人類競爭文言有關」

6) 『대한국어문법』 발문

7) 음과 문자를 한편으로는 구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과 문자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世宗朝게서 國音을 依호여 國文을 作호시니 國文의 發音이 國語의 發音이라”(국문연구 17ㄴ)

“國文은 國語의 影子요 國語의 寫眞이라”(국어문전음학 60)

존재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음이 문자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문자가 음에 부족한 경우는 있어도 음이 문자에 부족한 경우는 없다고 보았으며 음을 떠난 문자는 문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문자라야 진정한 문자라는 것이며 문자는 음과 1:1 대응을 이루어야 이상적인 문자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시경은 하나의 음에 두 개의 문자가 대응되는 것도,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음에 대응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음이 아니라 문자요, 言文一致란 ‘言’에 ‘文’을 일치시키는 것이지 ‘文’에 ‘言’을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주시경은 문자는 시각기호라는 문자관, 표음문자가 표의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문자관, 문자는 음과 1:1 대응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문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시경은 이러한 문자관을 가지고 한글의 문자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言’과 ‘文’을 일치시킬 수 있는 한글 표기법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4. 주시경의 국어연구와 표기법

4.1. 주시경의 국어연구(학문)

주시경이 국어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혼란된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이 국문을 접하면서 파악한 당시의 표기법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었다. ‘書書不同하고 人人異用하매’ 하나의 단어를 數十種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국어문법 26), 문자와 표기의 문제를 注意 밖에 들어 두어 ‘誤解誤書하는 弊’가 많은(대한국어문법 발문47), 그런 표기법이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였기에 주시경은 그 혼란된 표기법을 통일하고 잘못된 표기법의 習俗을 교정하여 새로운 표기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시경은 표기법의 혼란이 국어의 音理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어의 문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표기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스스로 국어학의 길로 들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주시경의 국어연구는 음운론에서 시작하여 형태론, 통사론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그의 학문은 매우 독창적이면서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국어학이 아직 싹도 트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국어학이라는 학문을 하기에는 매우 척박했던 풍토 속에서 주시경이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주시경이 그런 척박한 풍토 속에서도 독창적인 학문, 즉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대략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주시경은 논리적 사고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주시경은 15세에 국문을 처음 공부할 때 “조희와 붓과 먹과 벼루와 칩은 선비의 쓰는 물건이라”와 같은 문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와’가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가 쓰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스스로 탐구한 결과 받침이 있는 말 아래에서는 ‘과’가 쓰이고 받침이 없는 말 아래에서는 ‘와’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으며, 이를 미루어 다른 말들을 더 고찰한 결과 ‘은/는’, ‘을/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대한국어문법』 24ㄱ~25ㄱ). 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모음의 분합을 생각하다가 ‘ㅣ ㅏ’, ‘ㅣ ㅑ’, ‘ㅣ ㅓ’, ‘ㅣ ㅕ’의 합음이 있으면 ‘ㅣ ㅡ’의 합음도 있어야 할 터인데, ‘ㅣ ㅡ’의 합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ㆍ’가 ‘ㅣ ㅡ’의 합음을 나타내는 문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구조적 빈칸을 찾아 내기도 한 셈이다. 또 주시경은 한 때 ‘ㅏ’음의 음가를 ‘ㄹ’과 ‘ㅎ’의 합음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에서의 자음의 배열 순서와 격음은 ‘평음+ㅎ’의 합음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추론한 결과이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ㄹ’과 ‘ㅏ’이 같은 부류(半音)에 속하는 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ㄹ’과 ‘ㅏ’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버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상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경이 논리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신학문을 통해서 습득한 자연과학 및 수학의 기초 지식과 방법을 국어 연구에 응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말을 이루는 소리(말소리)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말소리는 청각으로 인지되고 문자는 시각으로 인지된다고 설명한 것이라든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單音을 元素로 설정하고 나머지 복합적인 음들은 모두 원소의 합성으로 기술한 것, 그리고 ‘ㆍ’가 ‘ㅣ ㅡ’의 합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증에서부터 제6증까지 제시하기도 했던 것 등등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기초 지식 또는 방법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기문·송철의 2014).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는 독창적인 자신의 학문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그런 독창적인 기술방식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에 평행되게 적용시켰다. 음운론의 기본 단위로는 ‘고나’, 형태론의 기본 단위로는 ‘씨’,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는 ‘드’를 설정하고서 나머지 복합적인 단위들은 각각의 기본 단위의 합성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은 체계적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었다.

셋째 전통 국어학을 계승 또는 수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시경은 우리의 어문에 관련된 책이면 무엇이든 열심히 읽고 참고하였다. 그가 언급한 문헌은 『화동정음통석운고』, 『훈몽자회』, 『훈민정음』(『문헌비고』 ‘악고’에 실린 것), 『용비어천가』, 『훈민정음도해』 등이다. 그는 어문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들 문헌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음운론에서 사용한 ‘본음’이라는 용어는 전통 국어학에서 사용해 왔던

용어였다. 그가 『언문지』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의 기술은 『언문지』의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각하(閣下)라 하면 그 소리가 가카와 갓흐니” (국문문법 11ㄱ)

“諸全清以作終聲而(중략)承以曉母次清生焉 如각하爲가카, 갓하爲가과” (諺文志 8ㄱ)

“웃즈의 종성이 … 모음을 만나 그 음이 런하면 각” 본음을 들어내니” (대한국어 문법 37)

“凡諸全清 以作終聲 而承以喻母 則本音生焉 如각아爲가가 갓아爲가바” (諺文志 8ㄱ)

그는 또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써야 한다는 자신의 표기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의 ‘終聲復用初聲’이라는 구절을 끌어 오기도 하고 『용비어천가』에서 ‘ㅈ, ㅊ, ㅌ, ㅍ’등이 받침으로 쓰이고 있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주시경은 전통 국어학을 부분적으로는 계승하거나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주시경 학문의 독창성과 체계성은 위의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2. 주시경의 표기법⁸⁾

주시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국어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한글 표기법을 확립하여 나갔다. 그의 업적들을 연대순으로 고찰해 보면 그의 표기법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처음에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표기법의 혼란이 문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문법에 맞는 표기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우리가 흔히 분철표기라고 했던 것을 의미한다. 물론 7종성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이미 분철표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연철표기와 중철표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표기법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주시경은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표기가 문법에 맞는 표기이므로 그런 쪽으로 표기법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주시경은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다가 음운론 연구에서 본음 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본음대로의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본음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흔히 ‘본음주의 표기법’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대략 다음의 (3)과 같은 표기법이였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표기법은 아래의 (1)과 같았고, 개화기에는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서도 대체로 (2)와 같은 표기법을 지향하였다. 지석영 같은 분이 지향했던 표기법이 바로 (2)와 같은 것이었다(송철의 2013). 지석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2)와 같은 정도의 표기법을 선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8) 이 부분은 이기문·송철의(2014)에서 가져온 것이다.

데 주시경은 본음 이론을 바탕으로 (3)과 같은 표기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1)	(2)	(3)
밥 :	바비, 바브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막-:	막고, 마ㄱ면, 마가	막고, 막으면, 막아	막고, 막으면, 막아
놓-:	노코, 노ㅎ면, 노하	노코, 노흐면, 노하	놓고, 놓으면, 놓아
놓-	놉고, 노ㅍ면, 노파	놉고,놉흐면,놉하	놓고, 놓으면, 놓아

주시경이 지향한 표기법의 특징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몇 백 년 동안 지켜져 온 ‘8종성법(八終聲法)’⁹⁾을 버리고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위의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면 받침이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면 족하다. 이를 ‘8종성법’이라 하는데, 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정해진 표기법 원칙이었다. 그런데 주시경은 한글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전통을 깨고 문법에 맞는 표기법, 나아가서는 본음대로의 표기법, 즉 (3)과 같은 표기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3)과 같은 표기법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으로서 한 마디로 말하자면 ‘형태음소적 분철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3)과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게 되면 8종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음(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경의 표기법이 생소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주시경 자신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벗들에게 누누이 설명해 보았지만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친구들조차 그의 표기법을 쉽게 받아들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 어문 연구, 어문 운동의 대가였던 지석영 같은 분도 주시경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주시경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¹⁰⁾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기법 이론을 정립하여 나아갔으며 제자들을 길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시경의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기법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너무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시경의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계승되어 현대 한글 맞춤법(표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주시경의 표기법이 본음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주시경의 표기법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

9) 개화기 당시에는 이미 ‘7종성’으로 바뀌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8종성’이라 하기로 한다.

10) “이 뜻을 꺾어코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근치지 안이하여”(대한국어문법 31ㄱ)

의적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형태소를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든 예들에서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보다 (3)과 같은 표기법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이러한 장점을 가졌기에 점차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음 이론에 바탕을 둔 주시경 표기법의 우수성은 현대 표기법 이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금 입증되기도 하였다(이익섭 1971, 이익섭 1985).

주시경은 한글 표기법을 정립함에 있어 “俗習을 改하고 音理와 語體에 正當하게 記用하여 可히 萬世에 法될 만흔 國文을 成게 하자 하였노라” (『국어문전음학』 59)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그러한 염원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5. 근대 어문개선 운동과 주시경

개화기, 또는 근대 계몽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이었다. 이 한글 사용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은 유길준일 것이다. 그는 일찍이 1885년 12월 28일 福澤諭吉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책만을 읽다보니 완고해지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작은 이익만을 도모한 지가 오래 되어 문제가 있으니 먼저 조선의 국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법을 시행하여 가르치고 배우는데 편리하게 하고 애국심도 가르치게 해야한다”¹¹⁾

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편지글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유길준이 일찍부터 한글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길준과 함께 한글 사용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박영효였다. 박영효는 『使和記略』 중의 1882년 11월 3일(양력)과 12월 18일자 일기에서 국한문혼용이긴 하지만 한글을 사용한 바 있으며, 1888년 2월에 올린 상소에서는 종래 가르치던 청나라 역사나 문장 대신에 우리나라의 국어·국문을 가르칠 것을 건의하였다. 윤치호도 공사관 통역의 일을 맡아 보고 있을 때 한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언문을 보급하여야 조선사람이 속히 깨이겠다는 뜻을 미국 공사에게 여러 번 진언하였다고 한다(김인선 1991:7). 윤치호는 2년 넘게(1887.11.25~1889.12.15) 한글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석영도 1891년 『신학신설』이라는 책을 순한글체로 저술하였는데, 비록 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을 통해 지석영도 한글 사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선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1894년 갑오경장 직후에 드디어 한글은 고종의 칙령으로 국가의 공식문서(공문서)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진 셈이며 한글이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가 된 셈이다. 한글 사용

11) “且念朝鮮人 自讀漢書以來 頑固成習 不知愛國心爲何等事 各自爲心 只謀小利者久矣 故務先行教育 法 而用朝鮮國文 以便訓習 使教以愛國” (『與福澤諭吉書』, 『유길준전서V』, p.278).

이 이처럼 법률에 의해 공식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갑오경장에서 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길준의 힘이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는 우리의 문자생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 문자 생활에 큰 변혁이 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표기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글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된 글을 읽기가 한문으로 된 글을 읽기보다 더 어렵다는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한글로 된 글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데다가¹²⁾ 표기법이 혼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글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실현하고 표기법을 정비해야 했던 것이다. 표기법 정비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지석영과 주시경이었다.

지석영은 표기법과 관련된 어떤 이론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였다. 지석영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최초의 한글 표기법 案이라고 할 수 있는 「新訂國文」을 지어서 국가로 하여금 공표하게도 하면서 자신의 표기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갔다. 지석영의 표기법이 정립되는 것은 『자전석요』(1909)에 이르러서였다. 대체로 7종성에 한하여 분철표기를 허용하면서 전통을 따르는 표기법이었다. 앞에서 제시한 (2)번과 같은 표기법이었다. 지석영이 지향한 표기법은 일반 대중이 배우기 쉬운 표기법이었다. 당시는 한글을 빨리 보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으므로 지석영은 배우기 쉬운 표기법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주시경은 이론적인 표기법, 이상적인 표기법을 지향하였다. 표기법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문법적)으로 타당한 표기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시경 역시 점차적으로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여 나갔는데, 그의 표기법은 『국어문법』(1910)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지석영은 『자전석요』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자전석요』는 한자 자전이어서 띄어쓰기 문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나 ‘나무를휘여동글게할권(圈, 21ㄱ)’ 같은 경우를 보면 띄어쓰기를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시경도 빈칸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권점을 찍어서 띄어쓰기를 대신하였다. 빈칸 띄어쓰기를 한 『독립신문』의 한글판 조필로서 『독립신문』에 깊이 관여하였으면 서도 주시경이 왜 자신의 글들에서 빈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시기에 또 하나 급한 일은 한글을 보급하는 일이었다. 한글 사용을 공식화했다 하더라도 한글을 읽고 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글을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재필과 주시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서재필은 순한글판 『독립신문』을 간행함으로써 한글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시경은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일요강습소, 하계강

12)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을 세이지 아니하고 그져 줄줄니려 쓰는 식뉘에 글조가 우회 부터논지 아리 부터논지 몰나서 몇번 일거본 후에야 글조가 어디 부터논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쓰편지 훈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논설』, 『독립신문』 창간호 1896. 4. 7.)

습소 등을 개설하여 국어 문법과 표기법을 가르침으로써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시경은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였다고 하니 그가 국어 국문의 교육에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어문생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자주 언급된 것은 국어사전 편찬이었다. 잘 편찬된 국어사전이 있어야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참조하여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국어사전은 또 표기법을 통일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들을 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같은 규범을 만들 생각을 못했던 때이니 사전이 그런 기능을 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시경은 조선광문회에서 몇몇 제자들과 《말모이》라는 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전은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시경은 한 단어의 변이형들 중에서 ‘좋은 몸’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규칙적인 언어를 지향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국어를 개선하고 표준화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개화기의 어문운동에서 주시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시경만큼 오로지 우리 국어국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6. 맺음말

국운이 기울어 가다가 결국에는 國亡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 어려운 시기에, 국어와 국문을 연구하는 일이 별로 환영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에, 주시경은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어와 국문을 연구하는 일에, 그리고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창적인 국어연구를 함으로써 근대 국어학의 초석을 놓았고, 합리적인 표기법을 마련하여 우리의 어문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으며, 한글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냄으로써 국어연구와 어문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말과 우리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줌으로써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국어국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게 하였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문자를 사랑하게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주시경이 남긴 족적은 매우 큰 것이기에 우리가 주시경으로부터 배우고 이어받아야 할 것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모든 일을 지성으로 일관했던 삶의 태도, 독창적으로 학문하는 정신, 우리말과 글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다(이기문.송철의 2014).

<참고문헌>

- 고영근(1988), 주시경 연구의 어제와 오늘, 『주시경학보』 1, 주시경연구소, 7~48.
- 고영근(2004), 유길준의 국문관과 사회사상, 『어문연구』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05~426.
- 권재일(2014),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새국어생활』 24 -3(2014년 가을호), 국립국어원, 61~76.
- 김민수(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 김민수 편, 1992, 『주시경전서』 (1-6권), 탑출판사.
- 김세한(1974), 『주시경전』, 정음사.
- 김윤경(1959/1971), 「주시경 선생 전기」, 『나라사랑』 4, 외솔회, 202~225.
- 김인선(1991), 갑오경장(1894-1896) 전후 개화파의 한글사용: 『독립신문』에서의 한글전용 배경, 『주시경학보』 8, 주시경연구소, 3~32.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조선어학연구회.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9책에 재수록]
- 박승빈(1936), 「조선어학회사정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대한 비판」, 『정음』 16호 부록, 조선어학연구회.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9책에 재수록]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한국문화』 33, 서울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소, 1~36.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2005,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재수록]
- 송철의(2008), 「주시경의 ‘本音’에 대하여」,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심악이승녕 선생 탄신100주년 기념논문집), 태학사, 967~993.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태학사.
- 송철의(2013), 지식영과 주시경,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0.
- 송철의(2014),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한글』 305, 한글학회, 5~34.
- 신용하(1977),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연구』 1, 서울대학교 한국사회학연구회, 13~58 .
- 신용하(1995), 「구한말 한국 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 『인문과학연구』 1, 동덕여자대학교, 5~35.
- 신용하(2014), 「주시경 선생의 애국 계몽사상과 한글」, 주시경선생100주기추모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7~19.
- 신창순(2003), 『국어근대표기법의 전개』, 태학사.
- 안병희(1988),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13, 국어연구소, 8~16쪽. [국어사연(1992, 문학과지성사)에 재수록]
- 이광린(1977),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세림한국학논총』 1, 세림장학회, 207~ 243.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이기문(1976),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학보』 5, 일지사, 39~58.
- 이기문(1977), 19세기말의 국문론에 대하여, 『어문논집 19.20합집(박성의박사환력기념논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이기문(1981), 「한한샘의 언어 및 문자 이론」, 『어학연구』 17-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55~165.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65~84.
- 이기문(1989),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학보』 4, 주시경연구소, 7~21.
- 이기문 편(1976), 『주 시경전집』(상,하), 아세아문화사.

- 이기문·송철의(2014),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사랑을 말하다(대담), 『새국어생활』 24-3(2014년 가을호), 국립국어원, 77~89.
- 이기문·이병근(1979), 주시경 학문을 다시 생각한다(학술대담), 『한국학보』 16, 일지사, 165~184.
- 이병근(1978), 「애국계몽주의시대의 국어관 : 주시경의 경우」, 『한국학보』 12, 일지사, 176~192.
- 이병근(1979),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늦씨」, 『국어학』 8, 국어학회, 29~49.
- 이병근(1985), 「주시경」, 『국어연구의발자취(I)』, 서울대학교출판부, 1~78.
- 이병근(1986), 「개화기의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4, 국어연구소, 24~45.
- 이병근(2003), 근대국어학의 형성에 관련된 국어관 : 대한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29.
-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 이익섭(1971),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이익섭(1985), 한글 맞춤법의 원리, 『대학국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희(1993), 「한글 맞춤법의 성립과정: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의 표기법 논의를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12, 주 시경연구소, 174~184.
- 임홍빈·이현희·고영근(1992), 「한힌샘 주시경」, 『한국인의 재발견』(기획:문화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47~166.
- 정승철(2003), 「주시경과 언문일치」, 『한국학연구』 1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49.
- 정승철(2005), 「근대국어학과 주시경」,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77~138.
-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0.
- 최낙복(1991), 『주시경 문법의 연구』, 문성출판사.
- 최현배(1971), 「겨레의 스승」, 『나라사랑』 4, 외솔회, 177~201.
- 허 웅(1971), 「주시경 선생의 학문」, 『동방학지』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3.
[허 웅(1979)에 재수록]
- 허 웅(1979), 『우리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국어 정책론)』, 문성출판사.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An Essay on the Earth of Language

우 한 용(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 니체 <짜라투스트라, 313>

1. 기본 관점 : 언어문화 생산론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다. 언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언어로 의미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의견을 조정하며, 아울러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념을 실천하기도 한다. 언어는 그 운용 양상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대화성을 지닌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 삶의 맥락을 총체적으로 움직여가는 막강한 힘이 된다.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데는, 좀 느슨하고 명료하지는 않지만 ‘규칙’이 작용한다. 그 규칙은 언어 자체의 규칙이기도 하고, 언어주체들 사이에서 행동의 지표로 작용하는 규범이 되기도 한다. (언어 자체라는 말은 모순이다. 인간의 운용이 전제되지 않은 언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규칙은 겉으로 명료화되기도 하고 잠재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언어주체들은 그러한 규칙을 익혀 일상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규칙을 따라 언어를 운용한다. 이를 넓은 의미의 언어문화라 함직하다.

언어문화를 개념화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주체들이 만들어낸 산물을 포함한다. 규칙이기 때문에 구조를 지니기도 하며, 주체들이 따라가야 하는 규제력을 지닌다. 그리고 주체들의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체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언어문화 안에서 그 언어문화를 향유하면서, 언어문화를 만들어간다. 문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고정적 원형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언어 운용의 규칙은 환경의 변화를 거둬들이면서, 언어문화 실체의 생산을 거둬들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재생산을 지속해 간다고 하는 편이 정당한 표현이다. 그런데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당성은 다른 말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치는 언어주체의 삶에 비익(裨益)되는가 하는 점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언어문화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언어문화의 재창조, 그리고 지속을 위해서는 언어운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운용이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언어문화 재창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언어문화에 대한 생태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생태론은 생태학, 환경론 등의 용어로 달리 불릴 수 있다.)

생태론은 이념적 지향으로 말미암아 생태 자체를 최종적인 가치로 상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을 최종적 가치로 부각한다. 그러할 때 자연은 이념화(이데올로기화)된다. 이념화된 자연은 자연 자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먹이사슬로 표현되는 정글의 법칙아래 움직여가는 자연의 본성에 대해 도외시하게 되어 오히려 부자연한 국면에 몰리기도 한다. 자연의 잔인함과 폭압성을 고려하지 않는 생태론은 자칫 가치의 절대화로 인해 사태를 왜곡할 가능성마저 있다.

언어생태론은 언어가 운용되는 제반 요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방향을 정당하게 잡아 나아가는 노력을 포함한다. 언어 운용에서 생태론은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언어가 자연생태의 산물이 아니고, 더구나 언어문화는 상징적 교섭의 체계란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2. 언어주체에 대하여

언어사(言語事)는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일이다. 언어 운용의 주체는 언중이다. 언중은 개별적 주체들로 구성된다. 구성된다는 것은 구조화되고 성층화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언어주체의 언어운용은 구조적으로 통제되고, 아울러 성층적 특성 때문에 계층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언중이 속한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복속되기도 한다.

언어는 대화적으로 운용된다. 이는 말이나 글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화적이라는 것은 상호적이라는 뜻이다. 대화의 주체는 모두 동질적 대화능력을 가진 존재일 수 없다. 친구간, 모녀간, 부자간, 사제간, 상사와 직원간을 상정해 보라.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화는 바흐찐이 지적하는 바처럼 전투적(戰鬪, la lutte) 속성을 지닌다. 이는 대화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부단한 합의와 화해만 이어지는 데서는 생산과 창조가 불가능하다. 창조는 극복이기 때문이다. 예술에서 양식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하는 사람의 자격이 규정되고, 그 자격의 규정을 지키면서 대화는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자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층위를 이룬다. 경제력, 지위, 권위, 전통 등에 따라 자격이 규정된다. 이들 자격을 규정하는 요인을 언어적 요인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약간의 상호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계층이나 계급의 층위가 언어에 의해 바뀌지는 않는다. 머슴이 주인의 말(명령)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머슴이 아무리 말을 잘 해도 주인의 칭찬을 듣거나 약간의 물질적 보상으로 끝난다. 말이 머슴을 주인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슴이 주인과 말로 경합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일련의 장치는 있다. 그게 바흐찐이 말하는 카니발이다.

대화의 양상은 주체들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의 위상이란 주체들이 가진 언어자본 또는 언어능력이다. 언어자본은 P.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이란 용어를 변용한 것이다. 언어자본(言語資本, capital linguistique)은 언어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개

인과 집단의 역능을 뜻한다. 고용주와 고용자는 언어자본으로 구분된다. 교사와 학생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경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평등은 능력, 인격 등의 평등을 전제한다. 그 반대로 외형상 평등한 관계로 비치지만 언어적 불평등, 언어자본의 불균형은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언어주체의 교체가 나타내는 극단적인 언어단절이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국체가 바뀌면 야훼가 하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알라를 하느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한다. 1453년 기독교국가였던 동로마제국이 이슬람에게 망해 종교를 바꾸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만하다. 중국 역사에서 원나라와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었던 세력이 건설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문화주체로서 나라는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소멸과 함께 언어가 소멸된 예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두고 문화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학문의 방법론 때문에 언어를 실체로 고정하고 운용 양상을 기술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그러나, 거둬들여지고 말의 주인은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 연관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운용의 실상을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 운용의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언어운용의 주체가 정당한 언어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윤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언어주체는 심리적 주체이며, 사회적 주체이고, 이념적 주체이다. 언어문화를 생태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언어운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언어주체의 복합적인 사회적 측면이 총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언어주체의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말을 잘 한다는 것, 글을 잘 쓴다는 것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언어능력이 발휘되는 장(場, le champ)에 따라 능력이 달리 규정된다. (언어장이란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직업 수행에서, 교수로서, 판사로서, 의사로서, 목사와 스님으로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실용적인 문장과 예술 영역에 속하는 글에서는 언어능력이 달리 평가된다. 일상에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우선 언어습득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언어습득능력은 기본언어 습득능력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언어습득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기본언어 습득능력은 거의 생득적이다. 학습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그러나 언어습득기라고 하는 3세에서 6세까지 언어습득 능력이 평생의 언어능력을 좌우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의 언어습득 능력을 길러주는 문제는 개인의 생애사(生涯史)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언어교육의 문화와 연관된다. 어린이의 언어를 길러주는 교육은 그 자체가 언어문화의 한 양상이다. 성인들의 언어습득은 대부분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학습은 공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개인적으로 자기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언어학습은 언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언어에 대한 민감성, 언어의 논리와 구조에 대한 흥미, 언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언어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는 사항들이다.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언어문화 주체들의 언어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주체가 언어문화 주체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은 언어문화의 생태적 자생력의 근간이 된다. 일상에서는 물론, 언어문화와 연관된 논의에서 언어주체의 자기인식은 거의 언급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언어문화를 넓게 규정하자면, 언중이 말하고 글 쓰는 모든 행위가 그 안에 포획된다. 그 언어사(言語事)가 누구의 일인가를 아는 것이 언어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다. 언어사는 언어주체의 자기 인식, 실천, 윤리, 평가를 포함한다.

개인의 언어사(言語事)는 다른 언어주체와 함께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사가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건이다.(사용이라는 말 대신에 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사용이라는 말이 환기하는 과도한 기능주의적 의미를 견제하려는 뜻이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가 사는 시대의 언어, 또는 언어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실천에 참여하는 일이고, 자기가 하는 말과 쓰는 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자신이 한 말과 쓴 글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아는 언어비평(critique du langage)이 요청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어비평이 남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적 실천은 넓은 의미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텍스트라는 용어는 가치 배제적이다. ‘바른말 고운말’은 한국어 텍스트의 정제된 영역을 가리킬 뿐이다. 개인들의 일상 담화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하고많은 말들,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수많은 글들이 모두 한국어텍스트에 포함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언어를 비롯해서, 종교언어, 군사언어, 정치언어 등이 모두 한국어 텍스트이고, 따라서 그러한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들이 모두 한국어 언어문화의 주체들인 것이다. 말하고 글을 쓰는 일체의 행동은 한국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언어능력, 혹은 언어문화능력에 해당한다.

창작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용운의 탁월한 시편만 한국문학사에 기록되는 언어문화가 아니라,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수많은 시편들이 한국의 언어문화의 산물이고, 그 필자는 모두 한국언어문화 창조 혹은 생산의 주체인 것이다. 이 주체들의 언어능력이 곧 한국언어문화의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들 언어는 언중의 언어가운데 특정한 맥락에 맞는 말이 선택되고 그 운용 패러다임을 약간 달리한 것일 뿐이다. 작가의 역할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 운용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그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작가는 언어문화의 창조와 재창조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언어는 문화실천의 한 국면이다. 문화실천이란 문화 안에 살고, 문화와 더불어 자신이 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체의 기획과 실천을 포함한다. 그 실천에는 막강한 힘이 실리게 마련이다. 특히 구두언어로 수행되는 개인적 소

통에서 언어는 막강한 에너지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언어가 작용하는 두 양상을 에르곤(εργον)과 에네르게이아(ενέργεια)로 설명한 것은 흄볼트였다. 에네르게이아를 작용, 행동 등으로 번역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될 때는 대단한 강제력을 가진 물리적인 힘(δύναμη)이 된다. 말 한 마디가 사람의 생애를 달리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단절하게도 한다. 나아가 어떤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문장 하나가 어떤 인간의 이념을 규정하게 한다. 집단에서 언어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어느 국가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우, 언어의 힘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일본의 제국주의 치하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서약한다든지, 독일의 나치정권하에서 일하던 관료들의 언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체제 아래서 수행된 전쟁의 언어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국가가 언어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우, 그 언어에 대한 언중들의 비판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 언어의 운용 결과는 홀로코스트로 나타난다. 공식언어 또는 국가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책임’이 권리로서 작용되지 않는다.(한나 아렌트)

한편 언어는 자기부정과 자기반성이 가능한 이데올로기 체계이다. 정치이데올로기나 신앙인의 신념은 자기반성의 언어적 장치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절대자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반성과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절대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반성과 자성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러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대개 언어외적인 힘들이다. 중요한 것은 언어외적인 힘이라도 그 힘을 발휘하는 양식은 언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언어능력은 한편으로 문화적 단절과 구별을 하는 매개역을 하기도 한다. 어느 집단이 자기들의 순수성을 강조할 때, 이는 다른 집단과 구별을 전제한다. 혹은 구별을 촉발한다. 중국어로 된 시, 영어로 쓰인 소설, 독일어로 창작된 희곡 등은 그 언어의 능력, 또는 역능을 실현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다른 언어로 창작된 언어문화와 연맥관계 속에서라야 정당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렇게 본다면 언어순혈주의는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허울이라 해야 한다. 문학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 언어적 특수성과 언어적 보편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민족개념을 성립하게 하는 요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 다문화시대에 언어의 민족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4. 언어규범과 언어운용의 창조성

언어규범의 체계 가운데 표준어는 매우 강력한 규범 역할을 한다. 표준어는 근대민족국가 형성과 맥을 같이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식의 단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적 과업 수행에 표준어는 필수 요건이다. 의식의 단일성은 국민의식의 주입으로 사고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언어가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그 강제력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규정하고 이를 교육과

행정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 더 나아가 표준어를 통해 국가적 동질성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이른바 국가적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규범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규범을 따르지 않는 언어 운용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경상도 사투리로 공문을 작성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이들은 반드시 표준어를 익히도록 교육과정에서 규제한다.

표준어는 어느 지역을 대표언어로 해서 거기다가 언어적 권위를 부여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어’라 할 수 있다. 이 인공어로 국민의 언어를 삼을 때 인공어의 범주를 이탈하는 언어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교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표준어에서 밀려난 언어는 능력을 상실한다. 공적인 장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집단의 언어적 다양성은 제한된다. 대신 능력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언중의 언어생활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직장에서는 표준어를, 가정에서는 방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언어 가운데 학술어를 들 수 있다.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가 학술어다. 그런데 학문은 개념어와 추상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보편성을 지닌 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감정가치’라든지 ‘문체적 가치’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해 학문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문을 추구해서 얻은 결과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의 장에서 수용자는 추상어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일상어와 비유를 동원하게 된다. 학문어는 대부분이 일상어를 사용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학문 특성에 따라 개념을 다시 규정하는(reconceptualization) 전문어가 된다. 그 전문어가 일상어 속으로 다시 들어와 일상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어(jargon)는 학파에 따라 개념을 달리 쓰는 경우가 흔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철학에서 쓰이는 리얼리즘과 문학에서 쓰이는 리얼리즘의 개념이 달리 규정되는 것이 한 예이다. 문학 내에서도 리얼리즘은 층위를 달리하여, 문학적 경향을 따라 개념이 달리 규정된다.

전문용어 가운데 의료용어나 공업, 농업, 제약 등의 산업 용어는 그 이용자와 소통이 안 되기도 한다. 이는 계층을 갈라놓는 데 기여한다. 의사의 말을 환자가 못 알아들을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일상생활에 전문어가 녹아들어 언어의 층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국어의 문법을 설명한다든지, 자신의 신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의료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자기가 듣는 음악의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언어의 풍부성을 높여줄 것이다. 철학용어 사회과학용어 등 일일상어에 대량 포함되어 들어와 사고를 풍부하게 하는 독일어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예술용어, 디자인 용어가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들어간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예도 언어가 풍부해지는 데 전문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례가 된다.

언어규범을 지키면서 운용되는 가운데 언어 운용의 체계가 잡힌다. 규범을 적용하

되 규범을 새로 규정하는 데서 창의적 언어가 생겨난다. 이는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함으로써 언어의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띤다. 시적인 비유의 운용에서 그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용운의 ‘님’이나 서정주의 ‘국화’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5. 언어의 윤리성과 언어문화

언어사는 가치개념을 포함한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소통에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상 가치개념을 개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치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언어운용은 있을 수 없다. 우선 화제의 선택이 가치지향적이다. 태풍을 이야기하지 않고 국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가치의 선택과 연관된다. 아울러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 어떤 문형으로 말하는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말하는가 하는 데 따라 가치개념이 개입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언표는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감성적 동물, 행동적 동물 등을 배제한다. “노력하는 자는 방황한다.”는 괴테의 말은,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가에 따라 의미(가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가치평가적인 요건을 전혀 배제한 언어사는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침묵까지도 가치 선택의 의미를 지닌다.)

언어가 인식과 소통에 가장 중요한 매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대상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도모할 때 언어적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등 언어의 한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언어의 한계는 나의 한계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은 언어적 존재로 인간을 보는 한, 예외가 없을 듯하다.

언어의 윤리 가운데 첫 항목은 언어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언어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언어적 존재로서 타자의 인정은 타자와 대화를 원하는 의욕이다. 윤리는 참여를 기본적 전제로 한다. 참여는 다른 말로 관심이다. 나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일은 자신이 관계존재라는 점을 확인하는 윤리적 행위이다. 언어사에 참여하는 일이 관심과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작가의 말대로, 침묵은 기억의 파괴인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지껄임은 에너지의 무한 방출이다. 언어사에 참여하되 그 언어사가 윤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언어윤리는 언어사의 주관성과 연관된다. 자신이 참여하는 언어사의 참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주관성을 드러낸다. 언어표현의 주관성은 언어사의 대단한 힘이기도 하다. 이를 이용하여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운용하는 이들이 있다. 이를 넓은 뜻에서 언어조작이라 할 수 있다. 조작된 언어의 주관성을 최대한 견제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언어윤리의 한 양상이다.

정치언어는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해 가끔 말썽을 빚는다. 정치언어는

정확성보다는 설득력을 추구한다. 설득력을 위해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이는 선동의 언어가 지니는 기본속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칭판단적인 용어를 자주 동원한다. “사랑하는 오천만 국민 여러분!” 등이 그 예가 된다. 전칭판단적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띤다. 듣는 사람이 그 오천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실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논리적 폭력이 드러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윤리가 결핍된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화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이의 극단적인 예가 음모론일 것이다. 어떤 사건의 잘못된 의도, 불합리한 과정,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 등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어떤 인물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 음모론이다. 음모론은 영웅화로 치달아가는 신화만들기와 영웅의 껍질을 벗겨내는 탈신화화(脫神話化, demythification) 양편으로 작용한다. 신화만들기는 어떤 대상을 극단적으로 상승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끌어올려 허상을 만들어 추켜올리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탈신화화는 대상이 지닌 가치를 무화하는 작업이다. 어떤 특정 대상을 못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윤리를 구축하는 기반은 자기의 존재 긍정이다. 니체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내 생을, 내가 운용하는 언어를, 그 언어가 자리잡은 환경을 사랑하는 일이 윤리의 시발점이다. 윤리의 타락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존재의 부정은 자신이 운용하는 말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말을 부정하는 태도는 언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말에 속고, 말에 상처받고, 말에 희롱당하는 경험이 축적되면 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되는 일이며, 아울러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현섭 교수 등이 도모하는 ‘상생화용론’은 언어윤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언어문화를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문화를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방법론은 재검토가 요망된다. 차별이 있을 뿐이지 가치를 변별할 수 없다는 인류학적 입장은 의문의 대상이 된다. 언어가 일방통행적으로 운용되는 나라와 대화적 쌍방성을 보여주는 나라의 언어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독재를 인정하는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하는 이념의 차이를 드러낸다. 상대방의 연령, 지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경어법이 과연 계층차별적인가 하는 의문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선배와 후배의 말의 층위(speech level)도 재조정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욕설에 대한 언어문화적 시각을 마련하는 일과 거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언어문화와 연관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박인기)

언어윤리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가 인간의 자기 존재 긍정과 개인, 집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기본 이념과 연관되는 점은 비껴갈 수 없는 사실이다.

6. 언어예술과 언어문화

언어예술이라는 말은 많은 전제를 달아야 정당한 개념설정이 가능하다. 예술의 구체성과 언어의 추상성이 본원적으로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문학은 형태상 언어텍스트이기 때문에 언어학의 하위 영역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논지가 널리 전개되었던 적이 있다. 또 문학과 언어학(국어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일도 의미깊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학과 언어학을 대체하거나, 역으로 언어학을 문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은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나 있는 셈이다. 대상의 속성과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이 언어문화의 실체를 구성하며, 언어문화 운용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언어문화 논의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

문학작품을 생산하고, 이를 연행(演行, performance)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창작이라고 한다. 창작이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말과 맞서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널리 보면 창작 가운데에, 창작에 관여하는 규범이 있다. 이를 장르의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학(詩學 poetics)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한다.

언어예술 혹은 예술언어의 창조성 혹은 법칙성은 장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술언어는 인간의 정서적 활동과 반응에 관여하는 언어활동으로 규정된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어사가 인간의 사유와 활동을 관장하는 한에서는 정서와 논리니, 이념과 실천이니 하는 양분법적 파악은 생산성이 없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의 경우 작중인물의 정서, 논리, 윤리, 성찰 등을 종합적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어딘 인간이나 사태를 정서적 측면만 한정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로만 야콥슨처럼 언어의 몇 가지 국면을 상징하고 각 국면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다 보면, 언어 자체 혹은 메시지 그 자체는 물질적 속성을 짙게 드러내고, 언어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언어를 시적 언어라 한다면, 시는 언어의 시적 기능을 중점적(重點的, dominant)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앞에서 암시한 대로 소설이라든지 희곡 등 다른 장르에서는 언어의 시적기능 일변도로 전개되지 않는다.

예술언어는 일종의 질문의 언어이다. 작가가 나는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을 작품을 통해 제기한다. 존 설 같은 화행론자들은 문학의 언어가 제안의 언어라고 한다. 제안은 영어의 프로포지션(proposition)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명령적 강제가 다소 포함된다. 그러나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의 언어고, 독자는 그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언어가 독자의 자유를 긍정하면서 작품 안으로 독자를 이끌어들이는 점에서는 질문의 언어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품에 대한 책임을 끌어안게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데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이 예술언어의 특징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가 세계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삶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게 한다. 여기서 독자의 안목이 작가의 안목을 이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독자가 의미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학언어 혹은 예술언어는 당대의 언어문화 한 국면을 담당한다. 낭만적인 분위기 가운데 죽음과 절망을 주로 노래하던 한국의 상징파 시인들의 작품은, 당대의 사회분위기 혹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노동소설 또한 당대의 언어문화를 형성했다. 문인들이 조성하는 문학의 분위기와 특성이 곧 그 시대 언어문화의 특성인 것이다.

예술언어를 통해 언중은 언어적 감각을 익힌다. 김소월 같은 시인이 한국적 정서를 형상화하여 당대의 시대 분위기와 함께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原型, archetype)을 발견해낸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예술언어는 새로운 발상법에 기초하고 운용된다. 이는 이전의 언어의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김소월이 <진달래 꽃>을 통해 사랑의 환희와 그 구원한 자장을 일궈낸 것이라든지, 한용운이 황금의 비유를 통해 민족 언어의 원형을 구축한 것 등은 언어를 새롭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감수성을 혁신한 예에 해당한다. 염상섭과 채만식이 구축한 산문예술로서의 소설은 한국언어문화의 층을 한결 두텁게 해 주었다.

이러한 언어의 혁신을 통해 한국언어문화의 특질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작가들은 계속하고 있다. 독자의 언어적 감수성과 언어능력의 성장이 작가들의 작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언어문화 교육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7. 언어문화와 국어교육

교육은 도야개념을 내포한다. 도야(陶冶, Bildung)는 교양, 형성, 교육 등과 상응하는 용어이다. 언어적으로 잘 도야된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언어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그 동안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능력을 국어능력으로 한정하여, 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해 왔다. 이 언어능력은 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한정된 느낌이 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어가 총체적인 인간의 기획이라면, 언어능력을 개인차원으로 환원하는 이러한 규정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어교육에서 국어라는 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국어는 국민국가 형성을 전제로 한다. 국어는 국민국가의 ‘국민들’ 의식을 단일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교양이며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되는 국어는 인간적 성숙이라든지, 인간의 자기성취 나아가 예술의 향유 등과 는 거리가 있는 인공언어이다. 종교적인 내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도 아니다. 국가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운용하는 언어인 것이다. 그러한 개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감없이 유효한가 하는 점은 재고되어야 하고, 국어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국어가 민족의 열과 혼이 담긴 언어라고 하는 국수주의적 언어관 또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민족개념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언어관

에서는 인간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다문화환경의 언어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의 도구성, 실용성을 강조해 왔다. 국어가 실용성을 띠는 과목인 것은 틀림없다. 개인적 생활의 도구,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 학문추구의 도구, 등이 국어의 도구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등의 역사-사회적 측면의 언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어교육의 언어관을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국어교육에 적용되는 언어관은 도구관이 주도했다. 이른바 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 사고의 도구 등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정신형성, 집단 차원의 상징체계 형성 등이 국어의 언어관이 될 필요도 있다.(김명순 -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관)

또한 언어예술의 측면을 소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교육을 상정할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익혀야 하는 언어교양은 언어규범을 익히는 범위를 넘어서나. 규범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규범을 넘어서서 창조되는 언어문화로 접근하는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국어를 운용하는 주체들은 왕조시대의 '백성'이 아닌 것은, 물론 국민국가의 국민으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탈근대기획의 주체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탈근대를 모색하는 시대에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참여할 줄 아는 존재라야 한다. 자아의 성취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의 언어가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현재 운용되는 국어교육의 영역 혹은 범주는 재고되어야 한다.(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되는 국어교육은 그 범주를 확대하고, 수준을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국어생활의 언어주체들은 실용적 생활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어를 운용하는 언중은 '국어문화 창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언어문화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학습자를 가르쳐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 소통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알아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공동체 집단의 감수성을 습득하고, 상징의 체계에 접근해야 하며, 의식(儀式)에 익숙해지고 참여하며, 공감과 배려 등 공동체 리더십 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인기, 박창원; 49-50) 나아가 언어로 이루어내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는 국어라는 개념이 자명한 것인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아울러 국어교육의 범주를 확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어교육이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서사문화 창출의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사는 삶의 언어적 전개를 뜻한다. 삶의 언어적 전개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계획, 실천, 의미화 등을 두루 아우르는 용어이다. 이 과정에서 서사연출이 주요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연출(敍事演出, narrative production)이란 삶을 이

야기하는 제반 기획을 포함한다. 이는 스토리텔링 개념을 포용할 수 있다. 서사주체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서사를 언어적으로 연출하는 것과 자신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두 층위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시를 낭송하는 것이나 소설을 읽는 것 등은 남이 만들어 놓은 서사를 내가 연출하는 일이다. 나의 생애서사를 쓰고 그것은 남과 소통하는 일은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한국 언어문화의 실체라는 점이다. 한국어어문화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하는 것처럼 국어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언어문화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기 짝이없는 국어교육의 기획이다.

국어교육의 교수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 등은 국어교육에 대한 재개념화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학습자가 한국 언어문화 창출의 주체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쓰는 글들이 한국언어문화의 실체라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 학습자는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이다. 그 성장의 주준을 확보해 주고, 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주는 일이 교육과정을 입안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이들의 몫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를 주체와 타자로 갈라놓아 소외시키지 않는다. 언어문화 창출 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의 주체가 되어 구두언어든 문자언어든 한국어 텍스트를 창출하는 문화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어교육은 총체적인 언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현실에서 겪는 국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이 입시용 교육이 되었다는 현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 틀에 갇힌 교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낡은 논의를 하는 이유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이상을 언어문화 창조의 국어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8. 언어문화의 생태론적 재생산을 위하여

언어가 생태학적으로 운용되는 최선의 양상을 상정할 수 있을까.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운용된다. 자연적 운용은 자생력으로 실현된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거대한 숲의 생태를 바꾸어 놓는 원인은 산불, 한발, 지진, 병충해 등의 자연재해다. 인위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를 인간적 재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자연적으로 운용되는 지구시스템의 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생태계라는 개념을 구성할 때,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컨대 잡초와 곡식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그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과 그렇지 못한 식물로 갈라놓는 것이다.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나무들은 제쳐두고 쓰임새가 크지 못한 나무들을 잡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인간중심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다. 화초와 잡초도 같은 분류법이다. 기생식물은 대체로 숙주를 죽게 하면서 번식한다. 그런데 기생식물 가운데 약효가 있는 것들

은 자연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단일 수종의 숲은 보기는 좋지만 종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 또한 인간적 가치기준으로 자연을 평가한 결과이다.

언어가 운용되는 시스템을 생태계에 비유하여 지칭할 때 언어생태계란 말을 쓸 수 있다. 언어생태계는 인공적인 문화상징의 체계로 변화를 거듭한다. 그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이 상징적 교섭작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체계이다. 그 체계가 역동적이고 자기생성적이라는 점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생태학, 언어생태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비유적 언어의 패러다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언어생태를 자연생태로 환원한다면 논리의 비약에 빠지게 된다.

언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언어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는 대체로 어문정책이나 언어정책으로 구체화된다.(민현식) 언어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경우, 가치가 개입된다. 가치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이념성을 띠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국어는 근대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 어문정책은 ‘민족의 독립, 근대화, 민주화 등과 호응하여 행해진다.’(민족문화대백과)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남북의 분단 등 정치현실의 변화는 어문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다. “현대국어의 어문정책 중 최대과제는 한글전용 여부와, 의사외래어(擬似外來語) 또는 외국어의 남용, 표준국어사전의 편찬, 국어정서법의 확립,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극복 등 국어순화문제로 집약된다.”(민족문화대백과) 국어순화는 국어가 잡스럽게 운용된다는 언어 현실태의 파악을 전제한다.

이들 과제 가운데 ‘외국어의 남용’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고 적용(適用)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결국 외국어 없는 순우리말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데 문화현상으로서 언어를 고려할 때, 그러한 순수성은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동차의 경우 순우리말로 이름이 붙는 경우는 없다. 은행 이름이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KB, NH, SH 등. 회사와 공사 이름들 또한 그렇다. LG, KT 간판은 어지럽기 이를 데 없다. 화장품 가운데는 세계적 명성을 얻은 시 구절을 원용한 것도 있다. innisfree 등)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 언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외국어는 경제논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논리만한 이념체계가 달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어를 통제하는 방법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언어순화는 한계에 봉착한다.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극복’의 문제에서, 이질화는 이념적 투쟁과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념적 대결이 끝나지 않는 한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언어의 이질화를 어떤 시가에서 보는가 하는 데 따라 문제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표기법의 차이, 차용하는 외래어의 차이 등은 기실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언어구조 즉 문법의 차이를 가져올 정도가 아니면 그 이질화는

정치적 통일 이후에 적절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의 언론 통제 정도라든지, 통신의 국가 점유 정도 등이 남북 언어 이질화의 핵심사항이 될지도 모른다.

언어와 현실은 상호연관되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경직된 사회는 단일논리적(monologic) 언어를 만들어낸다. 언어가 일방적으로 흘러간다. 상명하복(上命下服)식으로 언어가 수행된다. 언어폭력으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이러한 단일논리적 언어운용에 기인한다. 상대방 인격의 무시, 자존감의 파괴,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 등,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그러한 언어로 실현된다. 단일논리적인 언어가 사회적으로 운용되는 양상은 독재적, 전제적이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계급적 절대성을 전제하는 언어운용이다. 독재국가의 언어특징은 비대화적이라는 점이다. 정적의 숙청에 대화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언어가 대화적으로 수행된다. 이때의 대화는 얼마간 경합적 혹은 전투적인 특성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합적 에너지는 대상 문화를 자기 문화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동력이다.

문제는 언어와 사회, 언어와 권력, 언어와 국가이데올로기 등의 관계가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른말 고운말을 쓰면 그 사회가 바른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비리와 부조리가 척결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물론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교호관계를 형성하는 체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문화는 어느 사회나 국가의 문화 전반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체, 본능, 감성, 행동 그리고 그 위에 이들을 통괄하는 정신구조로 언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생태적 안정성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언어와 사회는 느슨한 연관관계 속에서 서로를 규제하는 열린 체계로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언어의 자기성찰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의 자기언급, 자기지시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탁월한 능력이다. 그림으로 그림을 설명하거나 음악으로 음악을 묘사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우리는 어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야기는 대상을 객관적 상태로 떠올리게 한다. 음악을 언어로 재서술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음악은 언어적 구조체가 되어 이해의 지평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그 음악을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른 예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무엇에 대하여(aboutness)라는 특징이 언어에 적용될 때, 이를 메타언어라 하는 것은 로만 야콥슨 이래 널리 용인되는 사항이다. 대상언어와 메타언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를 재서술하고, 구조화하여 설명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언어비평(言語批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개인들의 언어활동 가운데 자신의 언어를 그 언어가 운용되는 삶의 맥락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양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생태학적 관점을 도입이 가능해진다. 언어비평을 국어교육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한 경우도 이와 맥

락을 같이한다. (이은규, 2011) 국어교육에 언어비평을 도입한다기보다는 국어교육 가운데 언어비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언어비평은 결국 삶의 비평으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상황 가운데서 언어를 운용한다. 차라리 우리는 언어로 연맥화되어 존재한다고 해야 옳다. 나의 자아가 언어로 타자와 유대를 갖게 된다. 타자는 다른 인간, 자연, 사회, 학문, 이념,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가히 존재의 그물망 가운데 나의 자아가 자리잡는다. 이러한 언어의 고리를 섬세하게 세련시키는 것이 언어교육의 가치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언어 교양이라 해도 좋고, 어느 집단이 그 언어교양을 형성하고, 운용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언어문화라 규정할 수 있다. 언어문화 가운데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하여 언어문화 창조의 주역으로 상호교섭작용을 지속해가는 것이 언어문화의 주체로서 책임이기도 하다.

이 논의 끝에,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세계에서 운용되는 언어가운데 50%가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단도 있다.(Nicholas Evans,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언어의 제국주의적 운용이, 그리고 나치체제 하에서 공식언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데 대한 보고도 있다.(이연숙, 한나 아렌트) 그런데 인터넷 매체는 물론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 가운데 그야말로 팩스 아메리카나(미국말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평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어가 개별언어로 살아남는 일은 세계의 언어다양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목도하는 국어의 혼란상은 흘러가는 언어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언어생태학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도 필요하지만, 언어의 질적 향상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이 된다.(김혜숙) 한국인의 감수성과 이념이 형상화된 예술언어로서 한국어는 문학에 바탕을 두고 성장한다. 학문을 수행하는 학술언어로서 한국어는 한국의 학문발전과 맞물려 있다. 외교, 통상에 동원되는 언어는 물론, 관광을 활성화하는 언어도 한국어의 자장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김현승 시인의 표현대로 ‘검허한 모국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정신적 높이를 이끌어 올리는 자리에 내리는 축복과 은총이 아니겠는가. **.

제 1 분 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황 화 상 (서강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최 혜 원 (국립국어원)

북한 언어문화 운동사
이 정 복 (대구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박 덕 유 (인하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황화상)’에 대한 토론
김 성 규 (서울대)

‘언어문화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남 영 신 (국어문화운동본부)

‘북한 언어문화 운동사’에 대하여
김 유 정 (고려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한 토론문
이 찬 성 (선플운동본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황 화 상(서강대)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언어문화개선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학문 분야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학문 분야는 민족 언어학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을 언어의 차원을 넘어 문화(그리고 사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학문 분야는 생태 언어학(혹은 언어 생태학)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을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언어문화는 우리의 언어생활(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가지 언어 행동 면에서 본 우리의 생활, <표준국어대사전>에 관한 문화)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문화의 개선은 바르고 성숙한 언어생활을 지향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잘못 쓰는 말을 바로잡고, 품격이 낮은 말(비속한 말, 폭력적인 말, 모욕적인 말, 편견을 조장하는 말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외국어(혹은 외래어)의 남용을 막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쓰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의 개선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생활을 가꾸는 차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인 동시에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계승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에는 문화 전반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는 다른 종류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성을 가지며, 언어문화의 개선은 문화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전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문화의 개선은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곧 언어와 사용자들, 언어와 사회, 그리고 사용자들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2.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 언어학

민족 언어학(民族言語學, ethnolinguistics)은 언어학의 한 분과이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언어와 정신문화, 언어와 민족정신, 언어와 민족 창작 간의 상호관계, 그들 사이의 상호종속성,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언어학 내의 한 연구 방향이다. 민족 언어학은 언어학이나 민족학의 혼종 또는 사실적이거나 방법론적인 개별 요소를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며 많은 면에서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수리언어학 등도 내적 모순을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학문 분과가 아니며, 언어학과의 관계를 끊고 그 경계를 멀리 벗어난 학문 분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가 형성되고 기능하는 국면 또는 언어가 연구되는 국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이다.

-김민수 옮김(2014:21) 중에서-

민족을 전제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의 민족 언어학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에 등장했지만, 문화(그리고 사고)를 언어와의 관계¹⁾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언어와 문화는 인간을 특징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리고 민족 언어학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먼저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차이를 세계관의 차이로 설명했는데 이는 ‘세계관 가설’로 알려져 있다.²⁾

- (1) ㄱ. 언어의 차이는 단순한 소리와 기호의 차이가 아니다. 세계관의 차이이다. 여기서 모든 언어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Humboldt 1820:27, 윤영삼 옮김 2011:196)
- ㄴ. 한 국민의 영혼의 자취와 언어구조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알게 됐을 경우 그로부터 다른 쪽을 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언어는 국민의 영혼이 외부에 구현된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자신의 영혼이고 그들의 영혼은 자신의 언어이다. 따라서 어떤 것들도 이 둘보다 더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Salzman 2004, 김형중 역 2006:57)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20세기 초 바이스게르버, 그리고 사피어와 워프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훔볼트의 세계관 가설은 바이스게르버에서 언어적 중간 세계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곧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언어(모국어)를 통해 인식되는 세계, 곧 언어적 중간 세계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에는 세계관이 반영되며 언어가 다르면 세계관도 다르다.

- (2) 모든 민족에 있어서 자신이 언어 속에 하나의 세계관이 갈무리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언어공동체의 운명, 그 지리적·역사적 형세, 그 정신적 조건과 외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그 민족의 세계관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상태가 두 민족에게 동일하지 않듯이 두 언어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태에서 생겨나서 그 언어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세계상 역시 동일한 것일 수가 없다. 언어보다도 한 민족의 운명과 견고하게 결합된 것은 없으며, 한 민족과 그 언어와의 사이에서보다 더 밀접한 상호작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Weisgerber 1929, 허발 옮김 2004:151-152)

1)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개체나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나 생활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김진우 1996:97)

2) 언어와 사고(그리고 문화)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전통에 대해서는 김진우(1996:16-33)을 참조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은 사피어와 워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곧 그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문화적 상대성을 언어적 상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가설을 ‘언어 상대성 가설(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이라고도 한다.³⁾

(3) ㄱ. 인간은 객관적 세계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사회활동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행동 중 대단히 많은 부분은 이미 그들 사회의 표현의 매체가 되어버린 어느 특정한 언어에 의하여 항상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 개인이 본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상상하거나, 언어란 의사소통이나 내성(內省)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수적인 수단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의 허황된 환상일 뿐이다. 사실을 말할 것 같으면 현실세계는 그 큰 부분이 그 집단의 언어관습 위에 무의식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가 만들어내는 여러 모양의 세계란 똑같은 세계에다가 표지만을 서로 다르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종류와 성질이 아예 다른 서로 독특한 세계들인 것이다. (Sapir 1929:209, 김진우 1996:64)

ㄴ. 사실에 있어서 사고란 가장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우리 이해의 최대의 것은 역시 언어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사고 형태는 본인 자신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어느 확고한 유형적 법칙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이들 유형이란 곧 그 사람 자신의 복잡한 언어체계들인데 이것 역시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어체계의 특징은 다른 언어, 특히 상이한 어족의 언어와의 비교와 대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의 사고 자체는 한 언어 속에 있는 것이다. 즉 영어와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속해 있는 것이다. (Whorf 1956:252, 김진우 1996:185-186)

언어와 문화(그리고 사고)의 관계가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3) 사피어-워프 가설(언어 상대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강한 진술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약한 진술로 나뉜다(Kövecses 2006, 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70-71). 한편 Steinberg(1982:111-113)에서는 언어가 같아도 문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언어가 달라도 문화는 같을 수 있다는 점, 언어는 고정되어 있어도 문화는 변할 수 있다는 점,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는 점, 다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언어 상대성 가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진우 1996:215-230 참조)

4)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언어와 사고 가운데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사고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사고우위론), 언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언어우위론), 그리고 언어와 사고를 동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양자동위론)이 있다(김진우 1996:98-99). 이를 언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각각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도구관,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형성관, 언어와

을 수 있다.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전자에서는 언어가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후자에서는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슬라브 학자이자 민속학자로서 민족 언어학의 토대와 이론적 방법을 개발한 니키타 일리치 톨스토이(Никита Ильич Толстой)를 주목할 수 있다.

- (4)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는 다양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하다. 언어는 문화의 도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문학어, 종교언어 또는 민속언어는 문화의 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언어는 문화의 모든 현상에 공통적인 자질을 통해 기술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언어와 문화는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기호 체계로서, 많은 면에서 구조적으로 동형적이며 상호 추상된 것으로서 서로 대비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에 적용되는 개념들의 공통성은 언어와 문화를 하나의 동일한 논리적 도구로 기술될 수 있는 기호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공통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어와 문화 내의 체계와 텍스트 개념(계열론과 통합론), 형식과 내용(기표와 기의), 체계의 기능, 체계의 압력, 체계의 개방성과 그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톨스토이 1995, 김민수 옮김 2014:33)

언어문화와 관련하여 민족 언어학의 연구 성과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는 ‘남성/여성’의 대립 관계이다. 톨스토이(1995, 김민수 옮김:193-217)는 세르비아의 민족 전통에서 ‘남성적/여성적’ 유형의 이항대립 관계를 가지는 17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는 언어에 반영된 남성 중심적 사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⁵⁾ 이 가운데 일부를 구체적인 예는 유형별로 하나씩만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왼쪽 : 남성/여성

만일 모태 내의 아기가 왼쪽으로 더 치우쳐 있으면 딸이며,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 있으면 아들이다.

·오른쪽/왼쪽 : 좋은/나쁜

왼쪽 귓속에서 소리가 나면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오른쪽 귓속에서 소리가 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오른쪽/왼쪽 : 긍정적/부정적

사고가 하나라는 일체관이 된다(김민수 1964/1986:19).

5) 언어에 반영된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집갈 나이가 된 아가씨들이 식물의 한 뿌리에서 난 두 개의 줄기를 고르게 다듬어 두었다가 그 다음날 길이를 보아 오른쪽 줄기가 더 길면 시집을 갈 것이고, 왼쪽 줄기가 더 길면 시집을 가지 못할 것이다.

·오른쪽/왼쪽 : 산/죽은

환자의 옷 조각을 물이 담긴 큰 통에 던져 넣고 세 번 휘저은 뒤 옷 조각이 오른쪽으로 떠오르면 환자는 건강해질 것이고, 만일 왼쪽으로 떠오르면 환자가 죽을 것이다.

·남성/여성 : 위의/아래의

부삽에 계란을 깨어 놓고 불타는 화로에 넣었을 때 계란 노른자의 위쪽이 터지면 아들이, 아래가 터지면 딸이 태어난다.

·남성/여성 : 앞의/뒤의

여자의 임신한 몸 상태가 앞쪽에서 더 잘 드러나 보이는 경우에는 아들이며, 뒤쪽에서 더 잘 드러나 보이는 경우에는 딸이 태어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과 관련되는 개념들과 ‘여성’과 관련되는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유형적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5) ㄱ. 남성 : 오른쪽 : 좋은 : 긍정적 : 산 : 위의 : 앞의

ㄴ. 여성 : 왼쪽 : 나쁜 : 부정적 : 죽은 : 아래의 : 뒤의

언어가 문화 혹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로 흔히 드는 것은 무지개의 색깔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떴던 무지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뜨는 무지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를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어 인식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를 일곱 가지 색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의 색채어와 지금 우리의 색채어가 다르기 때문이다.⁷⁾

반대로 문화, 혹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언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동기(同氣)를 가리키는 친족어는 다음과 같이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는 물론 동기에 대한, 언어공동체(혹은 민족)의 인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언어가 달라서 인식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동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6) 이 밖에도 ‘남성/여성’은 ‘가까운/먼’, ‘안의/바깥의’, ‘들어가는/나가는’, ‘종/횡’, ‘앞면의/뒷면의’, ‘이른/늦은’, ‘흘수/짝수’, ‘동쪽의/서쪽의’, ‘해/달’, ‘포도주/물’, ‘집/숲’ 등과 관련된다.

7) 우리말의 고유어에는 ‘희다(하얗다), 검다(거멓다), 붉다(빨강다), 푸르다(파랑다), 누르다(누렇다)’ 등 다섯 가지의 기본 색채어가 있으며, 지금도 ‘오색 무지개’라는 말을 쓴다.

(6) 동기간 친족어 대조표 (윤평현 2008:91)

개념	영어	독일어	말레이어	터키어	한국어	중국어
ELDER BROTHER	brother	bruder	sudarā	kardes	형, 오빠	兄, 哥
YOUNGER BROTHER					아우, (남)동생	弟
ELDER SISTER	sister	schwester			누나, 언니	姊
YOUNGER SISTER					누이, 아우, (여)동생	妹

언어와 문화(그리고 사고)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방향적인 것이다. 곧 (문화의 산물로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며, 언어는 다시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거듭되면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진다.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고정된 틀로서 문화공동체(혹은 언어공동체)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Sapir(1921:17)는 인식의 고정된 틀로서의 언어를 ‘족쇄’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7) 낱말이란 우리가 아는 바 하나의 열쇠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족쇄이기도 하다. (김진우 1996:63)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언어가 제공하는 고정된 인식의 틀은 언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왜곡된 현실을 고착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왜곡을 가속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서 최근의 언어문화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8)과 같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들의 유행적 쓰임은 그것이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무관하지 않다.

(8) ㄱ. 왕따, 뺑셔틀

ㄴ. 얼짱, 몸짱, 꿀벅지, 복근남

이와 같이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는 다른 종류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성을 가지며,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그리고 사고)에 관련된 문제이다. 곧 언어문화의 개선은 다른 아닌 문화의 개선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은 우리 말에 반영된 우리의 문화를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문화의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때 언어문화의 개선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언어와 환경, 그리고 생태 언어학

생태 언어학은 인류학, 인종학, 사회학과 연계된 학문으로서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생태 언어학의 관심 영역으로는 언어의 생태학, 행동 언어학, 언어 갈등, 집단간 언어, 언어와 인간·동물·식물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한다.

“모든 흐름, 즉 물, 공기, 빛, 소리, 언어 등에는 오염 물질이 있기 마련이다.” 대기가 오염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시냇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언어가 오염되면 현실의 모습들도 불분명하고, 오염된 언어를 통해 현실이 왜곡되고 파괴된다.

...

생태 언어학은 오염된 우리 언어의 “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언어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생태 언어학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갈등보다는 공생과 협력을, 양보다는 질과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곧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관심을 둬으로써, 큰 것(국제어, 다수어, 표준어, 남성어 등)과 작은 것(국가어, 소수어, 방언, 여성어 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박육현 옮김(1999), 역자 서문 중에서-

생태 언어학은 ‘언어와 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Haugen 1972:325)이다. 언어 환경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 언어문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언어문화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고는 언어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매개로 할 때 추상적인 생각은 구체화되며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복잡한 생각들은 분명한 생각들의 조각들로 분절된다. 이러한 점은 언어가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Leibnitz(1949)의 다음 글에서 잘 드러난다.

- (9)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것은 이성적 추론을 하는 데 하나의 도구처럼 쓰이게 된다. 글로 쓰인 단어들은 추상적인 사고들을 기억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그러한 단어를 이용함으로써 추상적이고 희미한 생각들을 보다 뚜렷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김진우 1996:19)

언어가 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현상을 개념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을 그 자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언어화함으로써 이를 인식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곧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 (10) ㄱ. 낱말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이제야말로 그 개

념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가 기호를 갖기 이전까지는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느낄 수가 없다. 그 낱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죽거나 ‘이상’을 위하여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Sapir 1921:17, 김진우 1996:63)

- ㄴ. 어떤 사람이 서로 다른 모양의 선을 열두 개 정도 긋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을 ‘곧은’, ‘구부러진’, ‘꼬불꼬불한’, ‘갈지자형의’ 등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이들 단어의 의미 안에 그런 분류적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언어관습이 해석의 방법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Sapir 1949:69, 김진우 1996:185)

그런데 언어 혹은 그 언어에 내재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언어화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바이스게르버가 지적했듯이 언어는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일 뿐이다.

- (11) 나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명확히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해 어떤 것을 결코 진술하지 않으며, 오직 사물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를 알리는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끼어들어 간다. 그러므로 나는 앞에 든 우리의 보기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한 마리 개로서, 그것의 색을 갈색으로서, 그의 움직임을 달림으로서 해석하며(그 이상의 일들은 여기서 완전히 도외시한 채), 그리고 같은 것을 나와 함께 보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의 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상을 똑같이 파악해야 하거나 적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동일한 객관적 사태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동일한 견해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 아니고, 또한 순수한 인상도 아니며, 소화된 인상인 것이다. (Weisgerber 1929, 허발 옮김 2004:88-89)

바로 여기에서 언어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태학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선 세상에 대한 인식의 주체, 곧 언어화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Fill(1993, 박육현 옮김 1999:181-189)에 따르면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 명칭의 대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을 위한 유용성의 가치를 나타내며, 동물이나 식물에는 인간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 Fill(1993)에서 제시한 인간 중심적인 명명의 예 가운데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8) (12ㄷ)은 본문에서 제시한 단어를 이 글에서 일부 수정하고 추가한 것이다.

- (12) ㄱ. (식물) 독버섯, 식용버섯
 ㄴ. (장소) 건축부지, 휴양지, 황무지
 ㄷ. (인간/동물) 성교(성행위)/교미(흔레), 남자/수컷, 여자/암컷

이 가운데 동물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은 인간에게 전이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사람이 ‘교미’를 한다고 하거나 남자를 ‘수컷’이라고 하면 그 순간 사람은 ‘인간 존재’를 상실하고 ‘동물’이 된다. 다음의 단어들도 이와 다름이 없다. 곧 이 단어들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주로 모욕적인 의미를 갖는다.

- (13) 새끼, 대가리, 아가리, 짓다, ...

언어문화를 둘러싸고 생기는 다양한 생태학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인간들 사이의 힘의 관계가 언어화의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곧 언어화의 과정에서는 약자(여성, 소수)보다는 강자(남성, 다수)가 중심이 되며, 따라서 언어는 강자 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Fill(1993, 박육현 옮김 1999:155)에서 제시한 남성 중심의 언어(혹은 언어 현상)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남성의 인칭 대명사를 여성에게 사용함. 예) he, his
 ㄴ. 사람을 남성 형식으로 통칭함. 예) man, mankind라고 함.
 ㄷ. 합성어에서 남성 형식을 사용함. 예) fisherman, policeman
 ㄹ. 평가 절하된 여성접미사. 예) -ette, -ess
 ㅁ. 여자는 남자로 정의됨. 예) Mrs. John Smith

앞서 ‘남성’은 긍정적인 개념들과 관련되고 ‘여성’은 부정적인 개념들과 관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테면 범언어적으로 남성적인 개념 ‘오른쪽’은 긍정적인 다른 뜻을 가지며, 여성적인 개념 ‘왼쪽’은 부정적인 다른 뜻을 갖는다. 김동섭(2013:78-81)에서 제시한 것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⁹⁾

- (15) ㄱ. ‘오른쪽’의 또 다른 뜻
 라틴어 dexter: ‘자비로운’
 불어 droite: ‘곧은, 솔직하게’
 영어 right: ‘공정한, 도덕에 부합하는, 분명한, 적절한’
 독일어 recht: ‘공정한, 적절한, 강한, 잘, 매우’

9) 우리말의 경우에도 ‘오른’은 ‘옳하다(옳다)’, ‘왼’은 ‘외다(그르다)’의 어원을 가지며, ‘오른손’은 ‘바른손’이라고도 한다.

ㄴ. ‘왼쪽’의 또 다른 뜻

라틴어 sinister: ‘불행한, 반대의, 적대적인, 타락한, 야비한’

불어 gauche: ‘비뚤어진, 뒤틀린, 어색한’

영어 left: (어원적으로) ‘약한, 가치 없는’

독일어 linke: ‘서툴다’

여성을 나타내는 혹은 여성에 관련된 특별한 단어들이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언어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곧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사람을 통칭하는 언어로 남성을 지칭하거나 남성 지칭어를 특별한 표지 없이(곧 무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반영되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여성 지칭어를 별도의 표지를 붙여서(곧 유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다음에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말에서도 다르지 않다.

(16) 작가/여류작가, 의사/여의사, 서울고/서울여고, ...

이 밖에 문법적 성(gender)이 구별되는 언어에서 남자와 연관된 개념은 거의 예외 없이 남성이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는 여자와 연관된 개념 가운데 소녀(das Mädchen), 미혼 여자(das Fräulein) 등 중성으로 취급되는 명사들이 있다. 마크 트웨인은 ‘끔찍한 독일어’라는 글을 통해 독일어를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Deutscher 2010, 윤영삼 옮김 2011:289-291 참조)

(17) 독일어에서 젊은 여자는 성이 없는 반면 순무는 성이 있다. 순무는 경외하면서 소녀는 경멸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 실제로 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라. 아래 예는 독일의 가장 유명한 주일학교 책에 나오는 대화를 번역한 것이다.

그렛첸: 순무는 어디 있니?

빌헬름: 그녀는 부엌에 있어.

그렛첸: 성숙하고 아름다운 영국아가씨는 어디 있니?

빌헬름: 그건 오페라 보러 갔어.

다수와 소수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힘없는 소수는 힘있는 다수에 의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며, 이는 힘있는 다수에 의해 부정적 의미로 언어화한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8)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힘있는 다수를 지칭하는 언어는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따돌림을 당하는 소수를 지칭하는 언어는 있지만 따돌리는 주체인 다수를 지칭하는 언어는 없다.

(18) ㄱ. 왕따, 고문관

ㄴ. 절름발이, 외팔이, 똥똥이/똥보, 말라깽이

이와 같이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존재한다. 언어문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환경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언어를 개선하는 일인 동시에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의 개선은 우리의 언어 환경을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할 때 언어문화의 개선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맺음말

언어문화의 개선은 언어는 오염될 수 있다는 전제와 오염된 언어는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Bolinnger(1980)에 따르면 모든 흐름, 즉 물, 공기, 빛, 소리, 언어 등은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밤하늘이 공기 오염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현실의 모습들도 불분명하고 왜곡된 언어를 통하여 파손되고, 또는 아주 못쓰게 되거나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되거나, 또 다른 경우 완전히 은폐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냇물과 같이 언어는 정화될 수 있다. (박육현 옮김 1999:14)

언어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제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우리의 경우 ‘국어순화’(북한의 경우 ‘말다듬기’)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자연언어에 대한 인위적 통제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언어문화개선을 언어 자체의 차원에서 좁게 바라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언어문화의 개선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실례 하나를 들어 언어문화의 개선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서 글을 마친다. 이 글은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침표, 마침표.> 9월호(2014년 9월 17일)에 ‘말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국어 교수 최태림)에서 소개된 것이다.

지난 서울 성수고등학교 권정은 선생님은 아이들과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2개의 유리병으로 실험을 했다. 밥을 넣어 둔 한쪽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를 써 놓았다. 두 개의 유리병을 교실 뒤에 놓고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학생들이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등의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한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였다.

3주 동안의 실험 후, 실험 결과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놀랐다. “감사합니다”를 써 놓은 병을 열어 보니 밥에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짜증나”라고 써 놓은 병을 열어 보니 밥에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김진경, 2011년 10월 11일, 사랑밭 새벽편지 누리집 중에서-

<참고문헌>

- 김동섭(2013). 『언어를 통해 본 문화 이야기』. 신아사.
- 김민수 옮김(2014). 『언어와 민족문화 1, 2』. 한국문화사.
- 김민수(1964/1986). 『신국어학(전정판)』. 일조각.
- 김진우(1996). 『언어와 문화』. 중앙대 출판부.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Bolinnger, D.(1980). *Language, the Loaded Weapon: The Use and Abuse of Language*. London: Longman.
- Deutscher, G.(2010). *Through the Language Glass: How Words Color Our World*. 윤영삼 옮김(2011).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언어로 보는 문화-』. 21세기북스.
- Fill, A.(1993). *Ökologik: Eine Einführung*. Tübingen: Narr. 박옥현 옮김(1999). 『생태 언어학』. 한국문화사.
- Haugen, E.(1972). *The Ecology of Langu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övecses, J.(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10). 『언어, 마음, 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역락.
- Leibnitz, G. W.(1949). *New Essay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Chicago.
- Salzman, Z.(2004).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김형중 역(2006). 『언어, 문화, 사회』. 온누리출판사.
- Sapir, E.(1921). *Language*.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 Sapir, E.(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Language* 5.
- Sapir, E.(1949). *Culture, Language, and Personality: Selected Essay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Steinberg, D.(1982). *Psycholinguistics*. London: Longman.
- Weisgerber, J. L.(1929).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 허발 옮김(2004). 『모국어와 정신형성』. 문예출판사.
- Whorf, B.(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 L. Wohorf*. J. B. Carroll(ed.). NY: John Wiley and Sons.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최 혜 원(국립국어원)

1. 들어가며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지 두 해를 맞았다.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객관적 논증 없이 한글을 ‘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문자’로 평한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글 사랑과 국어 사랑을 다짐한다. 며칠 전에는 십진법에 기반한 한국어의 숫자 체계 덕분에 한국어가 영어보다 수학을 배우기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한 ‘역시 위대한 한글’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도 읽을 수 있었다.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여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받아, 민족의 선각자들은 한글과 우리말을 온전히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외래 글자의 간섭 없이 문자 생활을 하기 위한 한글 전용과 외래 단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말 다듬기, 우리말을 질서 정연하게 쓰고자 했던 어문 규범 정비 등이 소수 국어학자,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규범 중심적 정책과 운동이 하나의 문자와 언어를 공유하는 언중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 곧이어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휩쓸면서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과 개인의 권리, 자유주의 등이 사회 전면에 떠오르면서 일방적인 언어 규범의 강요는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다. 빼앗겼던 우리의 글과 말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정부, 전문가, 그리고 언중이 합의하고 따르고자 했던 어문 정책은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방언 사용을 규제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정책에 대한 민간의 위헌 소송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반발의 현시인 것이다.

표준어와 순화어 등 특정 언어 규범에 주목하는 사이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누고 있는 언어는 그만큼 풍부해지고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은 발전해 있는가를 보자.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에는 ‘소통’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유례없이 발달한 통신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신문, 방송,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수많은 통신 매체들이 있고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소통의 내용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대화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언어는 그 언어를 듣고 읽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진정한 소통의 장에서 멀어지게 한다. 난해한 문장과 비문으로 가득

찬 행정문서와 법률문서, 공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저속한 표현의 방송 언어, 청소년과 어른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거친 말로 대화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불필요한 욕설¹⁾을 쓴다.

욕설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고 그 나름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배척과 일방적인 계몽 운동은 또 다시 언중의 외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가고 자기표현의 역량을 길러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막말과 욕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것은 입시와 청소년 시기의 불안감에 눌린 일시적인 발달적 특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인 시기의 빈곤한 의사소통의 시초일 수 있어 미래의 우리 사회에 그늘을 던진다.

말이 거칠어지고 언어생활이 빈곤해지는 것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인 언어생활을 가로막는 억울하고 답답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제쳐둔 채 고운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의사소통을 하자는 구호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그렇다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대한 벽에 눌러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뿌리박힌 언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운동은 언어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하고 참된 의사소통으로 운동의 목표를 삼아야 한다²⁾.

2. 국어운동의 역사

국어 운동은 국어 전반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주목하여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 벌이는 실제적인 활동이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국어 운동을 “제 나라 말을 사랑하여 지켜 닦아쓰고 발전시키자는 운동”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 나라의 말을 존중하여 애용하자는 운동”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근대와 해방 이후 민간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어 운동이 주목하는 대상은 국어 자체의 존립과 정비에 관한 것이었다. 국어 운동은 우리 말과 글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필요와 배경이 있었지만, 시대와 배경에 녹아들어 풍부한 문화적인 자원으로서의 국어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한글로, 외래의 말 대신 국어를 쓰는 것을 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아 왔다. 일찍이 최현배 선생은 국어 운동의 목표를 ① 깨끗하게 하기 ② 쉽게 하기 ③ 바르게 하기 ④ 풍부하게 하기 ⑤ 너르게 번지도록 하기로 잡았지만 실제 국어 운동에서 힘쓴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60%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응답자는 4퍼센트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 장애인 차별 언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는 그동안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고 대안 언어의 사용을 통해 거꾸로 차별적인 사회 질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국어의 정체성과 편의성에 중점이 있었다³⁾.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일본어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의 언어 문자 수호 운동이 전개되어 한글의 보급과 연구, 그리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맞춤법 통일안 마련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건국 후 국어정책의 토대를 이룬다.

우리말 도로 찾기는 민족어의 회복, 언어 주체성 확립, 문화의 독립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미군정기인 1946년 정부는 ‘우리말 정화’를 목표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본어투 용어를 대신할 만한 우리말 목록을 만들도록 하였고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 찾기』⁴⁾로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민간단체와 학교는 ‘우리말 지켜 쓰기, 고운 말 쓰기 운동, 우리 말과 글 바로 쓰기’ 등 꾸준히 국어 순화운동을 실천하였다.

국어 운동사를 통해 우리는 각 시대가 안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언어 문제를 개선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언어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일부 성공하였고 말 다듬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국어 운동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가치를 보여주었다.

1948년 10월 9일에는 대한민국의 공용문서의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었다. 200명의 제헌 의원들이 헌법을 토의하자 조선어학회를 비롯하여, 헌법을 한글로 쓸 것을 건의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와 같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후퇴와 전진의 역사를 거듭하였다⁵⁾.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운동 주체 세력의 다변화와 운동 목적이나 영역이 다양화로 운동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한글전용 운동, 국어 순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언어의 민주화와 연계한 국어 운동, 국어 정보화 등도 일어났으며 최근 우리말의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의 추진에까지 이르고 있다.

1976년은 국어순화 정책 기획과 시행이 본격화된 해이다. 1976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리의 광고 간판이나 방송 용어, 심지어 축구 중계 해설 등에도 외래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또한 좌담하는 자리에서도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 이름의 90%가 영어”라고 하며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각 분야에 쓰고 있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시안을 문교부가 주관하여 만들도록 내각에 지시하였다. 같은 해 6월 정부에서는 외래어 간판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하여 상호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76년 문교부 국어심의회에 ‘국어순화분과회’가 신설되

3) 박병채(1977)는 국어 운동의 목표를 “제 나라 말을 정확히 발음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며, 또한 제 나라 글을 제 나라 말에 맞도록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만일 본래의 국어 속에 불순한 것이 침투하여 오염되었다거나 또는 본래의 국어 생활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어 운동은 먼저 이 오염된 원인이나 비정상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 찾기> 순화 대상어 943개의 대체어가 표준국어대사전 어휘와 비교하여 볼 때 순화된 경우는 85.7%라고 한다.

5) 2005년 1월 27일, 「국어 기본법」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조항이 제정되면서야 공문서에서 전면적인 한글 전용이 실행되었다.

기에 이르렀다.⁶⁾

언어 민주화 운동 차원의 국어 운동은 1980년대에 등장한 대학생 국어 운동에서 이후 한글문화연대 등의 시민 단체 운동의 현장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영어 공용어화론과 영어 몰입 교육, 원서 위주의 학문 전수 등의 현실을 비판하고 영어 위주 세계관의 허구성을 증명하여 언어문화의 종속화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 권리와 말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언어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도 공론화하여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노동법, 헌법 등 법률문과 공공기관의 안내문, 뜻을 알 수 없는 영어로 되어 있는 제품 사용설명서,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지식만을 뽐내는 신문 사설 등의 언어 현실을 고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동안 한글전용 신문인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각종 매체가 한글 전용체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글 전용은 물론 각종 언어 정책이나 국어 진흥 운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국어 정서법의 확립, 남북한 언어이질화 극복 등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말 수호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국어의 존립과 순결성 중심의 국어 운동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그 목적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사회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쉬운 말 쓰기,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의 언어 쓰기가 언어적 요청이 된 지금은 ‘대립의 언어’, ‘불통의 언어’에서 ‘화합의 언어’, ‘소통의 언어’로 공동체의 언어문화를 이루어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만들고 다수가 따르는 지난 시기의 수직적인 국어운동을 탈피하여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한 개개인의 성찰과 참여를 통한 ‘언어문화운동’으로 방향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3. 문화로서의 언어

문화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로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는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다.”⁷⁾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이다.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언어이다. 언어에는 그 사회의 모든 문화적 관습과 그것의 다양한 프리즘이 담겨 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모든 경험을 말하고 이해한다. 동일한 언어 구조, 발음, 어휘의 언어 체계를 습득하고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위

6) 순화 운동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1994년 토박이말로 제안된 ‘전산기 용어’의 순화어에 대한 반발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software) → 무른모 하드웨어(hardware) → 굳은모 커서(cursor) → 깜박이, 반디
스페이스바(space bar) → 사이띄우개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 전산 풀그림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게질서의 전통이 있어 상대방의 지위, 연령에 따라 언어를 달리 사용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⁸⁾. 이런 점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며 자기실현의 행위,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 자체이다.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이 들어 있어 궁극적으로 언어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⁹⁾

그동안 국어운동에서 대상으로 하는 ‘국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된 매체로서의 국어가 중심이 되었다. 제대로 된 언어생활을 위해 철자법과 문법에는 맞는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 등 의사소통의 도구로 대상화된 언어였다. 물론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의사소통이므로 도구로서의 언어를 갈고닦는 것은 언어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선행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공동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언어문화의 향유로의 디딤돌이 되지 않는다면 언어문화의 발동력이 될 수 없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밥이지 밥그릇과 숟가락이 아니다.

우리 시대는 의사소통 수단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소통에 굶주려 있고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빈곤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허기가 지고 상처를 받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언어의 밥과 식탁을 함께 나누며 배불리고 즐기지 않는다면 깨끗한 그릇과 숟가락은 오히려 이질적인 존재이고 외면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순화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의 정밀화에 국한한 이전의 국어운동보다 언어를 문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어휘 차원이 아닌 문장과 담화 차원의 언어문화 개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어를 통해 감성과 생각을 나누고 그것이 풍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 차원의 국어순화를 넘어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 말을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화법 또는 대화의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언어를 좀 더 넓은 폭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풍부한 정보를 언어화하고 모든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로운 재구성과 창조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가 그 사회의 문화라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이 창조하고 향유해야 한다. 소수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국어 운동(정책)만으로는 언어문화의 내용을 풍성히 채울 수 없다. 문화는 강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가의 노력은 그 영역과 역할을 분명히 한정하여야 하고 개인의 언어와 자유로운 표현을 어떻게 최대한 존중할 것인가, 개인의 자발성을 어떻게 자극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천착해야 한다.

8)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에 의한 방법이다. 언어는 본유적으로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사회적 집단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정체성 집단이다. 언어는 사고를 조직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B. Spolsky)

9)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은 말과 사람의 불가분성을 잘 나타내 준다. 때로는 사람이 말을 배반하고 말이 사람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말이다.

4. 언어문화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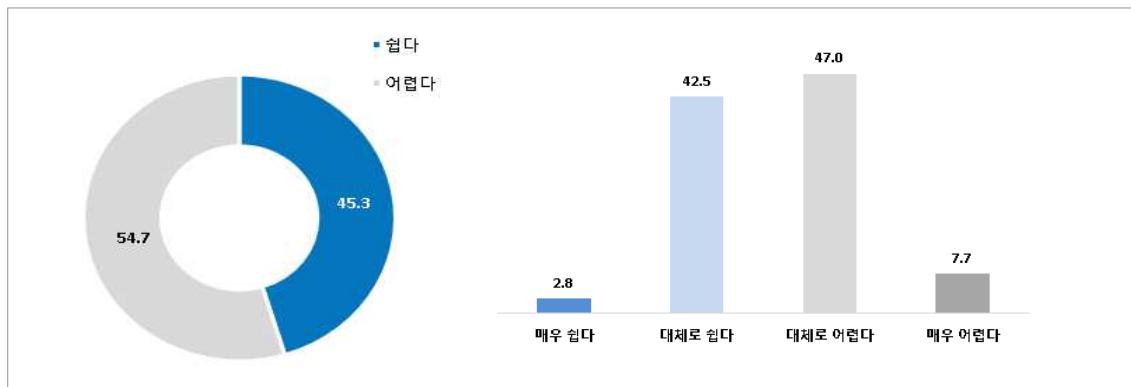
지금의 새로운 세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권위주의를 탈피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와 매체의 발전에 맞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름의 소통 방식을 찾아 새로운 언어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 문화, 세대 공동체간의 불소통과 어지러워진 언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소통을 가로막고 언어문화를 빈곤하게 만드는 언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①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패스트 트랙, 클린 교차 등 공공 부문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씌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 격차를 조장하는 현상은 공공언어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정책 용어)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코스콤, LH, NH, SH, 케이워터(K-Water)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7%가 민원서류나 금융기관 서류에 쓰인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② 품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언어

전파를 통해 소리와 영상을 전달하는 텔레비전 방송은 인쇄 매체보다 보편적이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방송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언어행위는 한 사회의 언어문화 형성과 시청자의 언어습관, 더 나아가 시청자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최근의 방송 환경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신조어들을 방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줄임말, 통신언어, 우리말 문법 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사적인 대화의 공간을 넘어 방송이라는 공적인 영역까지 확산되어 언어문화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락 프로

그램의 기본 역할인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하겠으나 방송 편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에도 이 같은 언어 사용의 형태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방송언어 지적(권고) 건수: '12년 1,267건 → '13년 8월 4,8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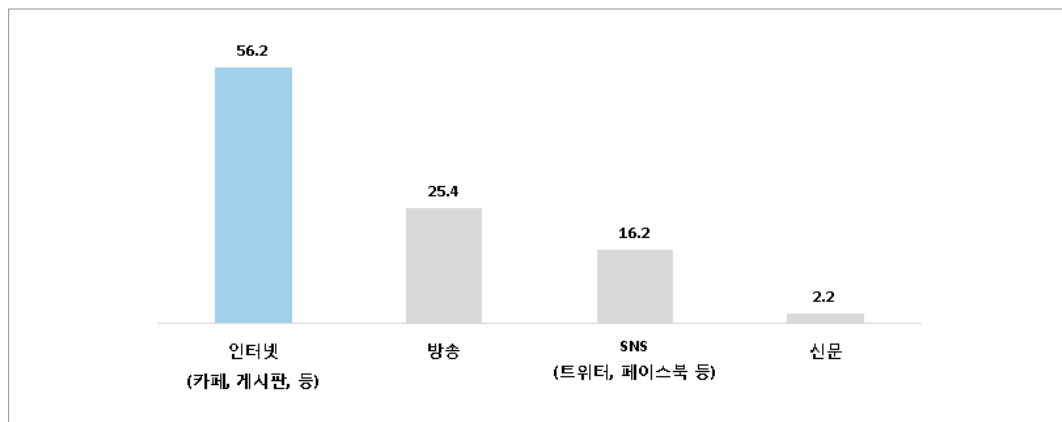
*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 쪽팔려, 꿀통, 장땡, 죽일 거다

* (외국어 남용) 캄 다운, 애플힙, 에이스 퍼펙트 가이 등

③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 명예 훼손과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는 가히 경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의 우울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도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욕설이나 상대 비방, 허위 정보 유포, 명예 훼손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



④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서 언어폭력은 청소년 삶의 전반에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욕은 이제 화의 표현이 아닌 일상 언어처럼 부담 없이 사용한다. 예전에는 불우한 환경의 몇몇 불건전한 청소년 위주의 현상이었으나 집안이 좋고 나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가릴 것 없이 습관적으로 또래집단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58.2%)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의 94.6%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욕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속어의 형태¹⁰⁾도 다양해지

10) 1986년 1월 28일 동아일보 기사는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언어 실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개 XX, 여우같은 X, 병신 같은 XX, 미친 X, 염병할 X 등의 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고 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 외에도 우리의 언어문화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이 막발, 반발, 욕설 등 정치적 견해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막말이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우리 시대의 병리적인 언어문화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화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가로막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며 공동체의 결속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일부 몰지각한 계층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에 사안이 더욱 중대하다. 또한 어려운 공공언어나 정치인의 막말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들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현상들은 대개 개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미묘한 점이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치한 결과 우리 시대의 언어문화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논의와 자율적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 말글을 스스로 가꾸는 노력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5. 언어문화의 개선 현황

그동안 민간과 정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여러 언어문화 현상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자 꾸준히 힘써 왔다. 사회 전반적인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언어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방법론의 개선을 향한 고민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깃들여 있는 것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의 몇 가지 발전적인 성과를 보이는 대표적인 개선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법령문 정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언어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분야는 법령문이다. 법은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며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민들은 법을 통해 자신의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자기가 관여한 여러 사회 제도의 절차적 방법을 배우며, 억울한 처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국민은 난해함과 낯설기 때문에 그 간격이 멀기만 하다.

법령 용어와 문장은 일제 강점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의 법령과 제도를 답습하면서 서양식 법령 체계와 용어 등을 빌려 법령 용어와 문장은 일반 국민에게 더욱 어려운 것이 되었다. 2000년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령 문장의 용어와 표현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하

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2006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5년간 총 982건의 법률과 1,200여 건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 이후에는 하위 법령에 대하여 매년 400건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3,000여 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우리나라 법령 용어와 문장 정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여전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장 실무자, 법학 전문가, 국어학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이견을 좁히고 국민 언어생활에 좀 더 가까운 법령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서울시가 지난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등이다.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안전문), 가드레일(→보호난간) 등 어려운 공공·행정용어를 발굴해 알기 쉽게 바꿔 쓰는 노력도 기울여 왔고 작년 10월 말부터는 공문서, 시민들이 접하는 자료, 홈페이지 등 모든 분야에서 순화된 용어를 쓰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에 행정 순화용어 검색·변환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극히 일부 용어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실천할 가치가 있다. 서울시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언어 환경 개선 등 제도화를 위한 국어진흥조례 표준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정부와 각 지역 국어문화원, 국어책임관의 노력과 협력이 깃들여 있는데 정부에서는 각 자치체에 조례안을 작성·보급하여 ‘13년 말 17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던 것이 ’14년 9월 현재 2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문 용어의 정비

최근 우리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상호 작용은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와 문화가 신속하게 확산·보급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전문 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한다. 현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 전문 용어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신문의 정치, 경제면에서 접하는 전문용어 외에도 동사무소, 세무서, 병원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 의학 용어 등이 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스포츠 전문 용어, 영화 전문 용어, 전자제품의 수리를 맡길 때에도 무수히 듣게 되는 전문용어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용어를 접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전문 용어는 전문가만의 용어라고 고집할 수 없고, 생활 속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의 영역에서 소통되던 형태의 난해함과 다양함은 쉽고 정리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40개 분야 학회가 참여한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학술단체연합이 수행한 1차 학술용어 정비 25만여 개와 합하면 77만 개를 훨씬 웃도는 용어가 정비된 셈이다. 자연 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용어집을 꾸준히 발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꾸준히 의학용어집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현재 제5판을 발간한 상태이다. 쉬운 우리말로 표준화한 것과 생소한 한글 용어에 불편을 느끼는 사용자를 위해 기존의 한자어 용어를 가능한 되살려 병기하고 있다. 현재 의학용어집 4집은 의사 국가시험, 전문의 시험, 의과대학 교육이나 한글판 교과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서 영한, 한영 검색이 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작업을 거쳐 현재는 총 57,246개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 운동 단체

우리말 문화의 개선에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 조직한 국어 운동 단체의 역할 또한 우리말 발전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글학회 등의 국어 연구 단체와 국어문화운동본부, 한글문화연대 등의 실천적 시민 단체는 국어 문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한글문화연대는 주로 말글 전문가들이 이끌어오던 우리말 운동과는 달리, 각계 각층의 국어 비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문화 운동을 전개해 갔다. 이 언어문화 운동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고자 하였다. 서울시 버스의 영문으로 도안했던 것을 한글로 바꾸게 했던 일, 스크린도어로 안내되던 방송을 안전문으로 바꾸는 데에 기여를 하였고, 대전의 테크노동으로 동명을 바꾸려던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시민 운동이 주장할 수 있는 분야를 부지런히 개발하였다.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지키게끔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매년 한글문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글 간판 보급 운동, 한글 티셔츠 보급 운동을 부지런히 펼치고 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은 학계와 민간 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노력에서 숨은 공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언어문화 발전과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원래는 국민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부딪히는 궁금증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국어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전국 14곳의 대학교, 민간단체 등이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국어문화원은 국어상담 업무를 기본으로 국어와 한국어 교육, 지역어 보존 사업, 지역 사투리 대회, 토론 대회 등의 행사, 지자체 공공언어 사용 감시 활동, 국민 언어의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중심으로 활동을 탈피하고 지역 언어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국어책임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별로 ‘국어진흥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

6. 언어문화운동의 방향

언어문화는 일부 상위 계층이 어느 특별한 때에 누리는 고급한 문화가 아니다.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를 통해 삶을 나누고 언어문화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므로 언어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나 일부 전문가 등의 위로부터의 가치 주입과 계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전문적인 지원 없이 오직 자발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민간 그리고 언어의 사용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협업을 통해 가치와 기준을 합의해 나가며 이를 언어문화로 꽃피우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2013)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국어문화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 대중 중심의 운동

공무원 중심, 기업 중심, 전문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의 운동으로 추진될 때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의 개선과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국가 및 정부의 관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언어문화를 개선할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제재 조치나 처벌 규정을 제대로 갖출 때에 언어 정책이 대체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③ 민간·유관 기관·사용자 등의 협력

언중의 폭넓은 합의와 참여, 행정부·유관 기관의 협조와 감독, 서비스 제공자 측의 규정 준수 등의 요인이 결합할 때 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④ 법 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

법 제정 후 세부 수행 지침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더욱 성공적인 결과가 가능하다.

⑤ 세부 지침 제공

방송언어의 품격성 기준, 문서 작성의 세부 지침, 쉬운 언어의 요건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7.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사업

정부에서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작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융성 토대로서의 우리 말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와 국어, 방송·인터넷, 교육·청소년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그야말로 민관이 각 분야별로 실천 과제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국어의식을 일깨우고 다양한 담론으로 국민 스스로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문화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문제점 중 공공언어 분야, 방송·인터넷 언어 분야, 청소년 언어 분야의 크게 세 분야를 중점 목표로 하여 어려운 용어 사용, 무분별한 비속어와 폭력적 언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장에서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고 지역과 민간 부문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간 어문 규범 위주의 행정기관 문서 진단에서 벗어나 공문서의 쉬운 언어쓰기를 강조하고 올해 4월부터는 정부 홍보 부문 평가에서도 쉬운 보도자료 쓰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¹¹⁾’을 두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해당 부처 및 기관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7조,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12조의 조항을 활성화하여 각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로 전국 20개소가 된 국어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내 언어문화개선 운동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광고문 등의 언어 개선도 지원하여 언어문화개선운동의 민간 부문 확산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의 공공언어 상시 감수 지원 활동과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를 도입하여, 문서 및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 표지(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법·제도적 기반 강화	국어기본법 개정	쉬운 공문서 쓰기 강조, 국어전문관 제도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문서, 서식의 쉬운 공공언어 인증 마크 부여
	전문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활성화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직원 국어능력 강화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역 확산	지역 언어문화운동의 거점 활동 지원
	민간 부문 확산	약관, 해설서, 광고문 등 언어 개선 지원
공공언어 상시 감수 및 개선 지원	상시 감수 및 점검	국립국어원 전문 감수
	맞춤형 교육 지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 부처 참여

11) 알기 쉬운 용어 개발·보급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국어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제10조)’을 보좌

② 흥미를 넘는 품격 있는 언어사용 의식운동 통한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인터넷, 디지털 기반 시대에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여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흥미를 넘는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하고자 한다. 시청률 위주의 자극적인 방송 풍토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분야별(드라마, 오락, 시사 등) 방송 언어 자율 지침 마련과 준수를 권고하고, 방송심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막말 및 선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 관계자의 바른 언어 사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 현장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댓글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방송·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한글맞춤법 교육 등, 표기 차원의 교육을 넘어 화법 교육 등, 실무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표현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 및 인터넷에서의 언어생활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것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자율 점검 체계 마련	방송 언어 지침 마련	분야별 방송언어 지침 마련 준수 권고
	방송언어 평가 시상	방통위 ‘바른 방송언어상’ 시상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실시간 검색 및 접근이 쉬운 모바일 개발
	인터넷 댓글문화 개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전개
언어의식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언어생활 자가 점검 프로그램 개발
	방송언론 관계자 교육	분야별 의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화법 교육
	인터넷 언어 사용 교육	청소년 학부모 대상 교육 개발
언어 개선을 위한 점검 기능의 활성화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막말 선정적 프로그램 제재 강화
	방송언어 사용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참여

③ 존경과 배려의 가치 알려주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청소년 언어’ 개선

청소년 언어는 ‘문제’와 해결책만을 주장하기보다 사회적 협업을 통한 ‘문화’ 치유의 접근으로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 and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에 기반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가 언어생활에 투영된 복합 현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뜻도 모른 채 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 언어 개선은 교육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언어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제를 활용하여 언어문화 교육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자가 진단표를 개발, 보급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

해 강화할 계획이다.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속에는 단순히 언어 예절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시 창작, 연극 등이 포함되어 언어 치유 문화 예술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운동(욕설 없는 날, 높임말 사용의 날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분야 전문 강사를 집중 육성한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치유 프로그램에도 언어예절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도 실시한다. 각 초·중·고교에서는 언어순화게임, 칭찬 릴레이, 언어문화개선 캠프,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 다양한 학급 및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에서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바른 언어 교육 기반 강화	교육 과정 연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반영	언어생활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언어교육 강화 실시
	언어습관 진단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개발 보급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청소년 바른 언어 수련	청소년 수련시설의 '언어순화' 프로그램 보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학급 단위	언어문화 개선 학급 프로그램 공모, 교실벽·복도 등에 언어 순화 문구 게시, 언어순화게임 전개, 칭찬 릴레이, 존댓말 쓰기 등
	학교 단위	아름다운 언어 편지쓰기, 아름다운 시 낭송, 건전 언어 CM송 제작 발표, 우리말 겨루기, 시화전 및 언어문화개선 캠프 등 개최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언어 치유 문화 활동	시 창작, 연극 활동 등 언어생활 치유 목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생 청소년 참여 활동	학교·학급·동아리 단위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바른 언어 사용 운동 전개
	한글날 교육 주간	한글주간 또는 학기 초에 우리말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특별교육주간 및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언어예 절 교육 전문화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방송사 협업, 교사용 훈화자료, 대화 자료 개발, 자녀와의 대화법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및 단계별 부부간 관계향상 교육 실시
	청소년 문제 상황에 서의 언어 교육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 운영 시 언어예절 교육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학급 단위	언어문화 개선 학급 프로그램 공모, 교실벽·복도 등에 언어 순화 문구 게시, 언어순화게임 전개, 칭찬 릴레이, 존댓말 쓰기 등
	학교 단위	아름다운 언어 편지쓰기, 아름다운 시 낭송, 건전 언어 CM송 제작 발표, 우리말 겨루기, 시화전 및 언어문화개선 캠프 등 개최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참여

언어문화개선 운동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단계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그동안 국민의 언어 인식 설문조사(12월)와 분야별 토론회 개최, 공익광고, 기획 보도, 기획사업 및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 부처 대변인협의회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¹²⁾ 결의’와 청소년 중심의 언어지킴이(전국 1만여 명) 동아리 활동, 동아일보 연중 기획보도 등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을 중심으로 바른 언어 사용 참여 의지가 많이 보여 왔다. 그러나 정치인 언어, 방송 및 영화, 사이버의 자극적·선정적·폭력적인 언어사용 빈발 등 여전히 특정 주체의 바른 언어 사용 인식과 실천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TV,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흥미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 의지와 실천을 위한 군불을 지속적으로 지펴야 할 것이다.

8. 나가며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의 생각과 혼이 담겨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므로 우리의 말글은 문화융성의 토대가 된다. ‘문화융성’은 단순히 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에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배려, 나눔 같은 문화적 가치가 우선하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를 우리는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싶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대화 문화, 입시 위주의 지식 습득이 아닌 진정한 우리말의 모습을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교육, 나와는 다를 수 있는 타인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문화. 그런 언어문화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본다.

또한 타문화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종, 지역, 세대, 성별, 직업 간 소통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국어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언어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관점에서 언중이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창조적인 언어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적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은 비록 정부 주도로 제안되고 조직되었지만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말글의 사용자이다. 정부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민간의 각성과 주도적인 실천은 비록 느리더라도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지난 4월부터 44개 정부 부처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상시 점검·평가하여 월별 우수 사례를 발굴, 분야별 어려운 전문용어를 매월 발굴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현철(2011)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권 2호
- 민현식(2013) 세대간 소통을 위한 언어정책의 방향,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 박병채(1977) 국어 운동의 방향과 대상, 『나라사랑』 26, 외솔회
- 이건범(2013) 한국사회 말 문화, 진단과 대책 -시민의 예의를 잃지 않는 말 문화를 위하여-, 『말(언어), 통합과 신뢰의 사회자본』, 국민대통합위원회
- 이현주(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과 과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 장소원(2011), 공공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새국어생활』 21권 1호
- 주경희 외(2013) 『국어 진흥 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 국립국어원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이 정 복(대구대)

1. 머리말

이 글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문화 운동’이라고 하면 언어문화와 관련된 대중적 활동이거나 대중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부나 전문가의 활동을 가리키며, 언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 언어문화 운동은 순수하게 대중에 의한 활동보다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지원과 주도 아래 대중들이 동참하는 협동적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다룰 언어문화 운동 또한 정부 또는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벌이는 비교적 지속적인 활동을 뜻한다.

언어문화 운동에는 문맹 퇴치, 언어 순화, 고운말 쓰기 운동 등이 있고, 특히 남북한 모두에서 ‘한글 전용 운동’도 중요한 언어문화 운동의 하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의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선플달기 운동’¹⁾도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운동은 언어 순화 운동이며, 그 가운데서도 외래어를 버리고 고유 표현을 찾아 쓰도록 하는 ‘말다듬기’ 작업이 핵심을 차지한다. 이 점은 남북한 모두에서 마찬가지며, 두 정부에서 오랫동안 높은 관심을 갖고 언어 순화 활동을 대중 언어문화 운동으로 벌여 왔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한자 폐지와 연결되는 제1차 말다듬기 운동 시기, 1964년에 언어 관련 김일성 담화가 발표된 이후 진행된 제2차 말다듬기 운동, 곧 ‘문화어’ 운동 시기가 그것이다.²⁾ 다음 2장에서 각각에 대해 중요 사실을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북한 언어문화 운동에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지적할 것이다.

1) 2007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플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사이트 참조.

2) 언어문화 운동은 언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 정책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었는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민수(1985)는 북한의 언어 정책을 3기로 나눈 바 있다. 1기는 1945년부터 1954년, 2기는 1954년부터 1966년, 3기는 1966년 이후이다. 필자는 언어문화 운동의 면에서 1964년 김일성 담화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 두 시기로 나눈 것인데, 1기 및 2기 언어 정책 시기가 언어문화 운동 1기와 비슷하고, 3기 언어 정책 시기는 언어문화 운동 2기와 비슷하다. 한편, 이윤표(1991)은 북한의 ‘국어순화사’를 4기로 나누었는데, 1기는 1945년부터 1954년으로 ‘초창기: 언어정화 시기’, 2기는 1954년부터 1966년으로 ‘건업기: 어휘정리시기’, 3기는 1966년부터 1987년으로 ‘조성기: 문화어운동시기’, 4기는 1987년 이후로 ‘합성기: 정리시기’로 나누었다.

2.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 개관

2.1 문맹 퇴치 운동과 말다듬기 운동

북한은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이후 일종의 정부 차원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것은 북한에서 국가 주도로 시작한 첫 번째 언어정책 사업이자 언어문화 운동이었다. 그 결과 1949년에 230만 명 이상의 문맹퇴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³⁾ 북한은 문맹 퇴치 사업의 이유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의 투쟁에서 식민지 시기의 여독을 하루 빨리 가시는 투쟁의 합법적적 요구’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 사업을 힘차게 벌이는 데서 그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이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문맹에서 벗어나야만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당의 유일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를 혁명의 도구로 보는 유물사관에서 문맹 퇴치 운동에 나선 것이다(서태길 1989:28, 전수태·최호철 1989:38).

문맹 퇴치 운동은 단순히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다그치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문화혁명의 첫 출발이며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 위원회에서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을 채택하고 문맹 퇴치 사업을 정부의 당면 과업으로 설정하여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했다. 1947년 12월에는 ‘문맹퇴치운동 추동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다음해 3월까지 12살 이상 50살 미만의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1948년에도 내각지시 38호로 ‘동기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추동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1949년 3월까지 실행에 옮겼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9년까지 성공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서태길 1989:29, 전수태·최호철 1989:38-39).

인민들이 광복 후 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사상 무장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맹 퇴치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벌인 것인데,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한자 폐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한자 폐지는 근로 인민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우리말과 글의 체계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필수적 과제”이며,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사대주의의 독소를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에서 씻어 낼 수 있다”(고영근 1989:24)는 면에서 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국가적 사업과 운동으로 추진했다. 배우기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면서 어려운 한자 사용을 폐지시키게 된 것이다.

한자 사용 폐지는 1946년에 시작되어 신문, 잡지, 교과서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1948년에는 전문서적에까지 확대되어 1949년 말에 거의 완수되었다(김무림

3) 정확히는 246만 4천 명의 문맹이 퇴치되어 거의 완결에 가까웠다고 평가하는 기록도 있다(이윤표 1991:35).

1989:174). 그러나 고영근(1993/1999:239)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은 1947년까지는 국한문혼용을 지향하다가 1948년 1월 《조선어 신철자법》이 공포됨에 따라 점차 한글 전용으로 기울어지되 1년여의 한자 병기라는 과도기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1949년 3월 《조선어연구》 창간호에 실린 글들을 보면 한글 전용, 한자 병기, 국한 혼용의 방식이 모두 나타나는데 국한 혼용 글이 가장 많다. 박경출(1949:89)은 당시 사회적으로 한자 사용이 많은 사실을 “아직도 전체 인민들의 근로 대중들의 신문 잡지에서 많은 한문을 쓰고 있으며, “家庭에서나 職場에서나 불조심”이라는 표어가 거리에 붙고, 인쇄된 용지는 모두 한글로 씌어 있는데, 기입 사항은 한문으로 써야 한다는 일도 있으며, 정거장 이름들이 아직도 한문 그대로 남아 있는 데도 있으며 집집에 붙어 있는 문패는 아직도 거의 모두가 한문 그대로이다”라고 비판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한자 사용 폐지가 일시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자 폐지 사업은 1948년에 들어 더욱 활발해졌는데, 《민주조선》 신문에 언급된 김일성의 한자 사용 폐지에 대한 언급에 따른 것이었다(이기동 2008:50). 이후 각계 각층 군중을 동원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한자 폐지 운동으로 벌였고, 학교에서 우리말 교육의 비중을 훨씬 높이고 한글로 된 교과서와 문예 작품들의 범위도 더 넓혔다. 한자에 기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던 일부 한자말들과 한문식 표현을 고유한 우리말과 보다 생활화된 알기 쉬운 한자말로 다듬는 사업을 벌였다(전수태·최호철 1989:40). 북한 정권은 1949년 9월에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 정책을 공식적으로 단행했다(김민수 1985:79).

그러나 문맹 퇴치 운동과 긴밀히 관련된 한자 폐지 조치는 당장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자말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어의 특성상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자말을 단순히 한글로 적어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은 한자말을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말다듬기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을 ‘제1기 말다듬기 운동’으로 부를 수 있다. 제1기 말다듬기 운동 시기에는 한자 폐지, 한글 전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자말 바꾸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말 바꾸기가 주요 활동이었다.⁴⁾ 이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문체를 대상으로 한 말다듬기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문맹 퇴치 운동,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 운동, 말다듬기 운동은 북한에서 광복 이후 벌인 서로 연관된 대중적 언어문화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말다듬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어떤 언어문화 운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듬은 말들이 보급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 알기 어렵다.⁵⁾ 다만 김일성의 1946년 대중 연설에서 “문화인들은 우선 언어행동에서부터 일본제국주의의 냄새를 뽑아 버려야 하며 또한 자기들의 작품에서 일

4) 이 시기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에 대해 김민수(1985:80)은 “선행한 한글전용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공학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5) 북한에서 1956년에 출판된 4만 단어가 실린 《조선어소사전》에 실린 낱말의 어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유어가 49%, 한자말이 50%로 나타난 것을 보면 한자말 등 외래어에 대한 말다듬기 작업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이병혁 1986:296 참조).

제사상 잔재를 청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문화어학습》 창간호, 고영근 1999:30에서 재인용)라고 하여 일본말 잔재를 없애는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어연구》 1호에 실린 박경출(1949), <신문 잡지에서 보는 우리 말> 등의 학술적인 글에서 말다듬기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대략적인 활동의 모습이 보인다.

(1) 박경출(1949:91-92)에서 제안한 한자말 정리 방안

- 가. 한자말과 순 조선말 두 가지가 다 쓰이는 것은 순 조선 말을 쓸 것
- 나. 새 말을 만들 경우에는 순 조선 말로 만들것
- 다. 순 조선 말에 없는 한자말도 더 좋은 순 조선 말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아갈 것

한자말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차’를 ‘김수레’, ‘전차’를 ‘번개수레’, ‘압록강’을 ‘오리초록빛가람’처럼 억지로 만들어 쓰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한자말 다듬기의 방향과 한계를 분명히 했다. 박상준(1949), <한자어와 한자의 정리에 대하여>에서는 한자말 정리의 방안에 대해 ‘순수 조선말의 폐어(廢語)와 새말에 관한 문제’, ‘한자의 뜻과 관계가 없는 한자어휘 정리’, ‘순수 조선말과 병행(並行) 되는 한자어의 정리’, ‘순수 조선말과 같이 된 한자어의 정리’,⁶⁾ ‘한자어로 처리함이 편리한 한자어’의 5가지를 제시했다(46-50쪽).

1950년대 후반에도 한자말 정리 및 학술용어 사정 등 말다듬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조선어문》에 실린 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이윤표 1991:38-40, 고영근 1993/1999:247-251 참조). 홍기문(1956)은 조선어의 어휘를 ‘고유어휘’와 ‘한자어휘’의 두 갈래로 나누는 바탕 위에서 한자어휘를 숙청하는 태도는 물론 그 증가를 방임하는 태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고, 고유어 표현을 늘리되 한자에 의한 단어형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현(1956)은 어휘 정리와 문체론의 문제들을 대중 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7개 부분의 정리되어야 할 말들을 제시했다. 그것은 ‘농업용 술어(대맥→보리, 대두→콩), 잡업용 술어(상전→뽕밭, 견사→고치실), 어업용 술어(편망→그물뜨기 또는 그물짜기, 어휘→고기 잡이), 림산 부분 술어(벌목→나무찍기, 침수→물에 잠겼다), 목장용 술어(오물→쓰레기, 종우→종자 소), 이밖에 흔히 쓰이는 어휘들(면옥→국수 집, 색인→찾아 보기), 요즈음 흔히 쓰는 농촌용 술어(경작→붙임, 용수→물대기)’ 등이다. 류렬(1960)은 “학술 용어, 기술 용어 등 전문 용어의 과학적, 인민적인 정리 통일, 미학적 기능의 한층 높은 발휘를 요구하는 문풍의 개진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의 전개가 되었다”고 광복 후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 학술용어사정과 재검토 작업을 거쳐 1961년까지 26개 분과의 용어 45,600개를 사정했고, 8개 분과 22,600개

6) 한자말이지만 순수 조선말처럼 쓰이는 ‘문’(門), ‘학교’(學校), ‘적당하다’(適當-) 등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 용어가 사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6.25 전쟁 중에는 출판 방송 부문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며 글을 쓰며 특히 외국말식 조선말 방송을 철저히 뿌리 뽑는 투쟁을 벌였다. 또 전쟁 후에는 인민 경제의 복구발전과 사회주의적 기초 건설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확립을 위해 언어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 여독을 뿌리 뽑는 투쟁을 전개했다고 한다. 쉬운 말 쉬운 글 쓰기를 위한 운동을 통해 모든 언어생활에서 인민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수행에 나서도록 했다(전수태·최호철 1989:50).

2.2 문화어 운동

1964년 1월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라는 언어와 관련된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다. 또 1966년 5월에도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를 제시했다. 두 차례의 담화를 통해 말다듬기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고, 언어 전문가와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말다듬기 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 과정에서 1968년 계간지 《문화어학습》을 간행하였는데, 이 잡지는 문화어 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일성이 발표한 두 차례 담화의 내용 가운데 문화어 운동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⁷⁾

(2) 문화어 운동 관련 1964년 김일성 담화의 주요 내용

가. 무엇보다 먼저 한자어에 대한 태도를 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1. 새로 나오는 말들은 우리 말 어근에 따라 만드는데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체계로 하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2. 이미 우리 말로 완전히 되어버린 한자어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3. 이미 어근이 한자로 되어 굳어진것은 뜯어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 말도 많은데 잘 찾아쓰지 않고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서 쓰는것입니다.

나. 외래어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될수 있는대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자기 나라 말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1. 물론 외래어를 다 없앨수는 없습니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것은 피할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2. 특히 과학기술용어로서는 외래어를 적지않게 써야 할 것입니다.

다. 한자를 계속 써야 하겠습니까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한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7) 두 담화는 《문화어학습》에도 실렸는데 1964년 담화는 1968년 제2호에, 1966년 담화는 제3호에 실렸다. 여기 제시하는 내용은 김민수 엮음(1997:285-306)에서 가져 온 것이다.

- 다-1. 한자는 하나의 다른 나라 글로서 일정한 시기까지만 써야 합니다.
- 다-2. 지금 남조선사람들이 우리 글자와 함께 한자를 계속 쓰고있는 이상 우리가 한자를 완전히 버릴수는 없습니다.
- 다-3.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 신문에 한자를 쓰자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출판물은 우리 글로 써야 합니다.
- 라. 먼저 우리 말을 좀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을 정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라-1. 동무들은 조선고유어회가 얼마나 되고 조선어로 되어버린 한자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라-2. 어문학연구소가 우리 말을 정리하며 새말을 만들어내는것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합니다.
- 마.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사회적운동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말을 옳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 마-1. 모든 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모든 기관들에서도 국어학습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 마-2. 조선말사전을 고칠뿐만아니라 필요한 참고서적도 내야 합니다. 어문학교과서를 고치며 어문학교원을 많이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2가~가-3)은 한자말 문제, (2나~나-2)는 영어, 일본말 등 외래어 문제, (2다~다-3)은 한자 사용 문제, (2라~라-2)는 어휘정리 문제, (2마~마-2)는 언어 교육 및 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언어문화 운동과 관련 있는 여러 문제들을 두루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라고 하여 언어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여 서울 중심의 표준어에서 벗어나 평양 중심의 ‘문화어’⁸⁾ 체계를 수립할 뜻을 밝혔다.

(3) 문화어 운동 관련 1966년 김일성 담화의 주요 내용

- 가.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가-1.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꼭같을 때에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말을 쓰지 말도록 하며 사전에서도 그런 한자말은 빼야합니다.
- 가-2. 고유어를 적극 찾아 고장이름도 우리 말로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3. 이미 있는 고유어를 찾아쓸뿐 아니라 고유어로 새말을 만들어쓰기도 하여

8) 남기심·김하수(1989:89)는 북한의 ‘문화어’에 대해 “그 역사적 근거를 식민지 시대의 반일 운동에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체득한 자립 정신을 그 뼈대로 삼아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야 합니다.

가-4.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문화교류를 통하여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우리 말로 제때에 고쳐야 합니다.

나.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자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식되고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나-1. 한자말과 고유어가 뜻이 같으면서도 뜻의 폭이 꼭같지 않은것들은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2. 말을 다듬는데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고려해야 할것도 있습니다.

나-3. 우리 말을 잘 다듬기 위하여서는 신문에 내어 지상토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4. 우리 말을 고치는 일은 빨리 서둘지말고 오래동안에 걸쳐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 주관적욕망만 가지고 깜빠니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단번에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말을 얼마씩 계획적으로 고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말들을 잘 다듬어 파악있는 용어를 내보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아주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1. 고유한 우리 말들을 대중속에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교육부문,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먼저 받아들이게 하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2. 옛날책을 번역하는 학자들속에서 우리 말을 살려쓰는것이 문명하다는 관점을 똑똑히 세워야 합니다.

(3가~가-4)는 한자말과 외래어 정리의 방향, (3나~나-4)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 말로 다듬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3다~다-2)는 다듬은 말의 보급 문제를 다루었다. 1964년 담화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말다듬기 및 다듬은 말 보급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점이 다르다. 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옳습니다./《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여 ‘문화어’라는 용어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어 운동이 시작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어 운동’으로 부르는 ‘제2기 말다듬기 운동’은 1기의 활동에 비해 한자말, 일본말에서 나아가 다른 외래어도 다듬는 대상으로 확대했고, 말다듬기 작업도 ‘어휘정리’라는 이름을 붙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전문가와 일반 화자들의 협동과 대화를 통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로동신문》은 1966년 7월 9일부터 1973년 10월 28일까지 모두 554회에 걸쳐 ‘우리 말 다듬기 지상토론’을

연재했다.⁹⁾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대단히 지속적이고 활발한 대중 토론이자 언어문화 운동이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서민정(2014:8)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북한의 ‘국어순화운동’에서 북한 사회에 실존하는 당시 ‘민중’들의 실제 언어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언어운동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주체의 언어 정책의 동향에 뒷받침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언어운동의 발로라는 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라고 했다. 국가와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대중에서 전문가와 국가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전형적 언어문화 운동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은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의 18개 분야 전문용어분과위원회의 연구와 토론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그것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매주 2~3회 정도 게재되었고, 지상토론에는 언어학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교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 참여했다. 1회 원고에 15개 안팎의 어휘가 다루어졌고, 독자 의견은 해마다 500건에서 2,500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상토론 내용은 다른 신문, 잡지에 동시 게재됨으로써 전국가적으로 말다듬기 운동을 확산시키려 했다.

<표 1>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의 전문용어분과별 원고 분포 (서민정 2014:11)

원고명	분과위원회명	원고 수
독자의견	-	116
일반어	일반어용어분과	57
의약학·의학	의약학용어분과	50
농학	농학용어분과	45
물리·수학·화학	자연과학용어분과	37
경공업	경공업용어분과	31
지질·지리·광업	지질광업용어분과	28
운수	운수용어분과	27
생물	생물학용어분과	26
체육	체육용어분과	23
금속	금속용어분과	22
기계	기계용어분과	21
건설·수리	건설수리용어분과	20
사회과학	사회과학용어분과	16
수산해양	수산해양용어분과	15
문화예술	문화예술용어분과	14
전기·체신	전기체신용어분과	12
상품명	상품명용어분과	8
림학	림학용어분과	7
합계		575

9) ‘우리 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대한 주요 내용은 김석향(2003), 서민정(2014)를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지상토론의 횟수는 554회지만 한 회에 2개의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어 원고 수는 모두 575개에 이른다. 지상토론에 소개된 전문용어분과별 원고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를 보면 독자의견이 제일 많고, 다른 전문용어 분야별로 비교적 골고루 원고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 결과로 도출된 다듬은 말 선택안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 제시가 활발했다고 하겠다.

지상토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회에 다룬 어휘는 ‘출구, 입구, 유모차, 노크, 휴일, 분무기, 구축하다, 두절되다’ 등 일반어들이다. 이 가운데 ‘출구, 입구’에 대한 원고 내용을 보면 (4)와 같다.

(4) ‘출구, 입구’에 대한 다듬기 안 제시

‘출구’, ‘입구’는 정거장이나 극장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나드는 곳에 흔히 써 붙이는 말인데 지금 여러가지로 쓰고 있다. 이 말을 ‘나가는 곳’, ‘들어가는 곳’으로 다듬으려 한다. 이에 따라 ‘출입구’는 ‘나드는 곳’으로, 출입문은 ‘나드는 문’으로 다듬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출구’(出口), ‘입구’(入口)라는 한자말을 들어서 바로 뜻을 알 수 있는 고유어로 다듬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일반 화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11회 지상토론에 ‘독자들로부터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5) ‘출구, 입구’ 다듬기에 대한 독자들 의견

‘출구’·‘입구’를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으로 다듬는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1) 길어서 쓰기 불편하고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음감에 대한 거부
짧게 하는 안으로는 ‘출구’는 ‘나가는 문’의 의미를 지닌 ‘날문’, ‘나가는 곳’의 의미로 ‘나는문’, ‘날어귀’ 등, ‘입구’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문’의 의미인 ‘들문’, ‘드는문’, ‘들어오는 곳’의 뜻인 ‘드는곳’, ‘들어귀’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2)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에서 ‘곳’의 쓰임이 적합하지 않다.

(3) 다듬기 위해 사용된 말의 요소의 대안

‘나가는 곳’·‘들어가는 곳’은 ‘가는’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오는 곳’·‘들어오는 곳’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어를 짧게 하려는 의견은 매우 옳다. 하지만 지나치게 짧게 하면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대안으로는 ‘출구’를 ‘날문’, ‘입구’를 ‘들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5)와 같이 전문가들과 일반 화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자말 등 순화 대상어를 고유어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말다듬기 작업은 화자들의 감각을 다듬은 말에 미리 반영할 수 있고, 그 결과 다듬은 말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에서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말다듬기 작업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반 화자들 속에 파고드는 대중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우리 말 다듬기 지상토론’이었던 셈이다.

북한의 언어학자들은 우리말 다듬기 작업을 학문적으로 ‘어휘정리’ 사업으로 부르면서 구체적 목적, 방법 등을 설명했다. 김일성의 두 차례 담화 내용을 학문적으로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박상훈(2001)¹⁰⁾에서는 ‘어휘정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6) ‘어휘정리’의 개념

가. 어휘정리는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견지에서 볼 때는 말과 글에 우리 인민들의 언어의식에 어렵고 까다로우며 생소한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지말고 인민대중의 언어의식과 민족적어감에 맞는 민족고유어를 적극 살려쓰는 주체적인 어휘사용기풍을 세우는것이다. (11쪽)

나. 어휘정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는 주체적언어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언어발전의 합법칙성, 언어문제와 민족문제와의 호상관계 등을 비롯한 언어리론문제들에 대한 주체적리해에 기초함으로써 가장 완성된 높은 형태의 어휘구성개선운동으로 된다. (17쪽)

말다듬기 또는 어휘정리 사업이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추진하는 어휘정리가 ‘주체적언어 사상과 리론’에 따른 것이며, ‘가장 완성된 높은 형태’의 운동임을 주장했다. 곧 다른 나라에서 추진된 ‘언어순화운동’ 또는 ‘언어정화운동’이 언어 체계 전반의 규범화 사업의 일부로 어휘 문제를 다루는 부분적인 것과 달리 어휘정리는 높은 차원의 어휘 개선 사업으로 “민족고유어와 외래적어휘의 관계문제가 가장 전면에 나서는 근본문제로 규정되며 필요없는 외래적어휘들을 민족고유어로 고쳐나가는것이 본질적내용으로 된다”(15-16쪽)고 했다.

어휘정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제시했다.

(7) ‘어휘정리’의 대상 어휘 (박상훈 2001:37-58)

가. 고유어와 뜻같은 관계에 있는 외래적어휘: 채소(→남새), 하복(→여름옷), 계란(→닭알), 홍수(→큰물), 설유하다(→타이르다)

나. 같은 뜻의 고유어가 없는 외래적어휘로서 어렵고 까다로운 말: 단지형(→짧은 가지형), 도포약(→바르는 약), 발사(→실뿜기), 보행시간(→걸는 시간), 가음(→소리느낌)

10) 이 책은 《조선어학전서》의 17권인데, 《조선어학전서》는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기획한 것으로 북한 언어 연구 60년의 주요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2005년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모두 63권으로 간행했고, 그 가운데 10권이 남한에서 2001년부터 먼저 출간되었다. 47권까지는 연구서, 48권부터는 편람으로 나뉜다.

다. 사상의식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어휘: 당초문(→녕쿨무니), 당추(→고추), 국광, 영안, 만세교

(7가, 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말이 언어 내부적 요인에 따른 정리 대상 어휘인 반면 (7다)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우리 말 어휘구성속에 침투하여 들어온 외래적어휘들 가운데는 지난날의 낡은 사회가 배태한 반동적이고 뒤떨어진 사상을 반영하고있는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어휘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박상훈 2001:55)는 이유에서 ‘민족적자부심을 약화시킬수 있는 어휘’, ‘봉건통치배들을 찬양한 어휘’, ‘미신적인 관념이나 허무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어휘’, ‘낡은 사회의 사회적관계와 착취계급의 세계관이나 사회정치적관계가 반영된 어휘’들을 사상적 이유에서 정리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말과 글을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더 훌륭하게 세련시키는 것을 중요한 사명”(앞의 책, 57쪽)으로 삼은 북한의 말다듬기가 단순히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는 데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

(7)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정리 대상이 된 것과 달리 한자말 등의 외래어라고 해도 ‘굳어진 한자말이나 외래적어휘’, ‘세계공통적인 어휘’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눌러두고 쓸 어휘’라고 했다. 많은 외래어들을 정리 대상으로 삼되 “우리 말 발전력사와 사회의 언어생활실태를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앞의 책, 59쪽)을 밀접히 배합해야 한다고 했다. ‘모’(←묘), ‘수염’, ‘양말’ 등 한자말로서의 인식이 없는 ‘차용어’는 다듬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처’, ‘가사’, ‘담배’, ‘가방’ 등 세계적으로 두루 쓰는 어휘에 대해서도 말다듬기의 예외로 두었다. 이런 말들은 외래어지만 모든 나라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사대주의나 민족허무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이 생겨나게 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리 대상 어휘는 ‘고유어휘 살리기’, ‘고유어휘로 고치기’, ‘고유어휘 만들기’, ‘고유어휘 찾아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다듬은 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다듬은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단어의 뜻폭과 결합관계’를 고려하고, ‘단어의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그 대안은 ‘정확성’, ‘명확성’, ‘간결성’, ‘체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어휘정리 운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도’, 달리 말해 실천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

(8) ‘어휘정리’ 실천 방법

가. 대중의 적극적인 동원

나. 점차정보장

11)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휘를 정리했지만 여성 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방치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도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표현의 실태 분석은 이정복(2007)과 이정복(2014)의 4장 참조.

- 다. 늘 쓰는 말부터 다듬으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정리
- 라. 다듬은 말의 보급과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

(8가)의 ‘대중의 적극적인 동원’이란 언어 대중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어휘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휘정리 사업이 단순히 몇 개의 말마디나 바꾸어 쓰는 지엽적이고 하찮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주체위업의 실현과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참으로 성스럽고 숭고한 사업”(앞의 책, 163쪽)이기 때문에 인민 대중의 사상동원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상토론’의 방법으로 대중의 지혜를 동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훈(2001:164)는 “어휘정리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가 폭넓게 반영되면 결국 정리된 말은 사회전체 성원들의 공통적인 언어의식에 쉽게 뿌리내리고 자리잡힐 수 있는 면모를 갖춘 어휘로 된다”고 기술했다.

(8나)의 ‘점차성보장’은 한꺼번에 많은 어휘를 정리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어휘를 정리한 후 그것이 사회의 언어생활에 완전히 침투된 뒤 다시 일정량을 정리해 나가는 식의 점진적 추진 방식을 가리킨다. 많은 어휘들을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서둘러 짧은 기간에 고쳐 놓으면 화자들의 언어생활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휘정리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는것은 의사교환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사회적기능을 약화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으로서 어휘정리사업자체의 생활력이 나타날 수 없게 한다”(앞의 책, 169쪽)고 하여 다듬은 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듬기 작업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다)의 ‘늘 쓰는 말부터 다듬으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정리’는 어휘정리의 순서를 일상적으로 쓰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말부터 정하고, 정리한 말과 관련이 되는 말들을 연이어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늘 쓰는 말은 일반어뿐만 아니라 학술용어, 사회정치용어, 전문어 등을 포함하며, 이런 말은 단어 구성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우선적인 정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늘 쓰는 말부터 어휘정리를 해야 “인민대중의 열의와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시키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앞의 책, 171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떤 어휘를 다듬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휘가 포함된 다수의 관련 말까지 함께 고쳐나가는 식으로 “완전히 먹어들가는” 식의 ‘섬멸전’의 방법으로 어휘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8라)의 ‘다듬은 말의 보급과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는 다듬은 말의 대중 보급에 대한 내용이다. 다듬은 말을 인민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육, 출판, 문학창작 분야에 먼저 보급하여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다듬은 말 대신 본래 말을 쓰는 것과 멋대로 새로운 한자말을 만들어 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언어생활 지도 기관과 중요 국가기관에서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상교양 사업과 제재가 필요한데, 낡은 언어의식과 언어생활 관습을 바로잡는 문제는 법적 통제의 성격을 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생활 전문 국가기관인 국어사정위원회가 모든 기관들의 언어생활을 장악하고, 당의 어휘정리 방

침에 맞게 언어생활이 진행되도록 통일적으로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어생활에 대한 통제는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므로 언어생활도 집단주의원칙에서 통일적으로 할것을 요구한다”(앞의 책, 180쪽)는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다.

말다듬기의 성과는 1974년 이후 연구서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처음 10만 여 개의 일반어 및 학술용어를 다듬어 대중 토의에 붙인 결과 1978년까지 약 5만 개의 다듬은 말을 쓰도록 했다. 1982년에는 그 가운데 약 4만 개를 뽑아 북한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다듬은 말, 재검토한 용어》를 간행했다. 1986년 10월 국어사정위원회가 편찬한 《다듬은 말》에는 최초 다듬은 말 5만여 개의 절반인 약 2만 5천 개가 실렸다(정유진 1997:121-123). 또한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 반영된 다듬은 말은 1만 2천여 개 정도이다(최용기 2002:295).

북한에서 이루어진 50여 년의 말다듬기 또는 문화어 운동에 대해 정순기(1995)에서는 고유한 우리말이 언어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게 되었으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도 최대한 발양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 문화어 운동의 의의를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언어적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 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 두고 있다(정유진 1997:125).

3.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특징과 시사점

3.1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특징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상적 무장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요소로 인식된다. 이런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언어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등을 언어 대중들에게 보급, 파급시키는 강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중앙 통제적 정치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태길(1989:21)은 “북한의 언어정책은 우리의 언어정책과는 달리 통제적이고 체계적이다”, “지극히 획일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당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그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당중심의 언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언어 자체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상 교육, 국가 및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등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정용호(1992)는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어를 적극 살려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어가 주체사상과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장시키는 민족어의 전형이며, 인민의 정신도덕적 풍모를 높이며 높은 규범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정유진 1997:125). 고유어 중심의 말다듬기가 민족어의 유지, 발전과 인민의 정신 무장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 지배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말다듬기 운동은 대규모의 말 바꾸기 및 말 만들기 운동이다. 10만 여 개의 한자말 등 외래어를 정리 대상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 5만 여 개를 다듬었으며 2만 5천 개 정도가 정착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어사전에도 1만 개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언어 순화 운동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표(1991:55)는 “언어정화운동, 말다듬기운동, 문화어운동 등 어휘정리사업의 결과를 온 국민이 잘 이용하는데는 양적으로 보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과도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여 북한 언어문화 운동에 큰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듬은 말의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며, 몇 만 개의 다듬은 말이 대중의 일상어로 수용된 점은 큰 성과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속성이 강한 사업이다. 말다듬기 운동은 광복 이후 한자말 정리 및 일본말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및 전후 복구기에는 주춤한 면이 있었지만 60년이 넘는 오랜 동안 줄기차게 이어진 운동인 점에서 언어문화 운동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함께 북한 말다듬기 운동은 위(정부, 전문가)에서 아래(언어 대중)로, 아래에서 위로 두 방향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다듬은 말의 효과적 보급과 통제를 통해 일상어 안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학교 교육, 어휘집 및 사전 등을 통해 다듬은 말을 언어 대중에 보급하고, 적절하게 수용되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는 다듬은 말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성과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드러났다. 북한 언어문화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여러 앞선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급진적으로 한자 폐지, 한글 전용, 한자말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나타났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글 전용을 강제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언어 사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한자 교육을 중지함으로써 한자말에 대한 이해도와 어휘 활용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일 것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많은 다듬은 말을 급하게 만들어 냄으로써 대중의 거부감과 피로감을 높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한자말과 외래어가 원상복구되기도 했다. ‘얼음보숭이’와 같은 북한의 다듬은 말이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아이스크림’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김선철(2009:19)는 “언어 사용은 일종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이행하는 것이지, 타인이 강요한다고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유진(1997:122)의 지적처럼 “수만 개나 되는 다듬은 말을 학습하여 언어사용에서 생활화하는 일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언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투쟁의 수단이 됨으로써 재미, 여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을 잘 보

여 준다. 규범이라는 뼈대만 남고 풍성함이 사라진 언어는 강한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언어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3.2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시사점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언어 정책 및 언어 연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비판적 색채가 아주 강했다. 언어 순화 등의 언어문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북한의 언어 실태와 언어 연구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준비 작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활동이자 장기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2만 5천 여 어휘가 고유어 중심으로 다듬어졌고, 국어사전에 실은 것도 만해 1만 개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남한의 언어 순화 작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남한에서 발간한 국립국어원 엮음(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에는 1977년부터 2002년까지 나온 40개 분야의 다듬은 말 2만 1천 여 개가 실려 있는데, 수적으로 보면 북한의 말다듬기 작업 성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르다. 북한의 경우 말다듬기 작업, 대중 토론, 다듬은 말 확정, 대중 학습 등의 과정을 거쳐 언어 대중에게 정착된 말인 반면 남한의 다듬은 말은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순화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한의 다듬은 말 가운데 일부는 국어 대사전에 실렸고, 또 일부는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뿌리를 내렸지만 대부분의 다듬은 말은 아직도 언어 대중과 거리가 먼 일부 전문가들의 임시어에 지나지 않는다. 다듬은 말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놓은 정도이며, 언어 대중에게 언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¹²⁾

그렇다면 남북한 모두 1945년 광복 이후 꾸준히 말다듬기 작업을 해 왔음에도 왜 이러한 차이가 나왔는가? 그 이유는 남북한 정치 체제 차이, 정부의 의지와 개입 정도 차이, 대중 운동의 방식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말다듬기 등의 언어문화 운동의 목적 차이에 있다고 본다. 고영근(1988/1999)는 남북한 언어 순화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9) 남북한 언어 순화 운동의 차이점 (고영근 1988/1999:53)

가. ‘국어순화운동’이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씬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족주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화어운동’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다듬어 혁명수단으로서의 북

12) 남한에서 이루어진 언어 순화 활동에 대한 최근의 검토와 비판은 이정복(2003, 2008), 박용찬(2007, 2011), 최경봉(2007), 고성환(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 표준어를 확충·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외래적 요소가 없는 고유의 어근을 중심으로 새 말을 만들고 표현을 고치자는 방법은 일치한다.

나. 남한은 언어·문자를 단순히 문화창조와 관련시킨다든지 기껏해야 민족이나 사회형성과 관련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데 대하여 북한은 언어·문자를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상·발전시키는 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남한이 ‘원활한 의사소통’, ‘민족 주체성 추구’, ‘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말다듬기를 전개한 반면¹³⁾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주체사상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수행된 말다듬기 작업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질성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면서도 “북한이 우리말의 순수성을 살리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공리적 언어관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영근 1995/1999:166)고 하여 북한의 국어 순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언어 정책 시행, 언어문화 운동 전개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지원, 전문가와 언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말다듬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정부에서 목표를 세우면 전체 국민이 함께 달려 나서는 사회주의 동원 체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 그 목표가 북한의 사상 확립과 사회, 국가 건설의 효과적 도구 마련이라는 구체성을 띠었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남한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언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전문가 및 언어 대중에 대한 동원도 쉽지 않은 편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속되지 못하고 정권의 관심과 입맛에 따라 변덕이 심하다. 다듬은 말의 보급만 해도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강제성을 갖기도 어렵다. 또 언어 정책과 언어문화 운동의 목표도 민족정신, 민족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데 놓여 있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과 비교하여 나쁜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나 외세의 침략과 지배 아래에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받아온 우리말의 왜곡된 역사를 고려할 때 말다듬기 등

13) 최용기(2003:85-100)은 국어 순화가 필요한 이유로 ‘민족정신의 확립’, ‘민족 문화의 발전’, ‘사회의 정화’,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네 가지를 들었다. 국어 순화의 방향에 대해 ‘언어의 순결성’(다듬기, 깨끗하게 다듬기), ‘언어의 규범성’(바로 잡기, 알맞게 바로 잡기), ‘언어의 합리성’(가꾸기, 알차게 가꾸기)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어 순화의 목적을 ‘우리말을 알기 쉽고, 바르고, 풍부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적었다. 한편, 최경봉(2007:368-369)은 남한의 외래어 순화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외래어 문제를 보게 되면 정치 논리로 외래어 문제에 접근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접근의 결과 언중에게 외면되는 순화어 양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남북한 모두 동일하다고 보았다.

의 언어문화 운동과 관련 언어 정책은 포기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다원화된 남한 사회에서 언어문화 운동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지는 분명한 목표 의식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새롭게 언어문화 운동의 목표를 ‘언어 평등’ 또는 ‘언어 민주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¹⁴⁾ 언어 순화, 특히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이정복(2008)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0) 전면적이고 강력한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 (이정복 2008:46)

- 가. 한민족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성(疏通性)을 높임으로써 언어적 계층 차이를 줄이고,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외래어 순화가 필요하다.
- 나. 우월한 지위의 외국과 교류가 많고, 그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외래어를 퍼트리고 애용하는 역할을 한다.
- 다. 외국과의 접촉 기회가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대다수의 화자들은 외래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언어적으로 하위 계층에 머물게 된다.
- 라.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의 경우에도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이 크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경우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다 다른 외국말까지 익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 마. 이러한 차이와 언어적 장벽이 사라지는 언어 평등화와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씌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말이나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고 사회적 평가에서도 피해를 받는 화자들이 많다. 표준어를 제대로 쓰지 못해 피해를 받았던 방언 화자들처럼 외래어가 새로운 위세를 갖춘 표준어처럼 화자들에게 군림하는 상황이다. 이런 언어 요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모든 한국어 화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쉬운 말로 다듬고 걸러내는 작업이 결국은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¹⁵⁾

4. 맺음말

이 글을 통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를 개관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2장에서 북한 언어문화 운동을 1964년을 기준으로 하여 두 시기, 곧 ‘문맹 퇴치 운동과 말다듬기 운동’과 ‘문화어 운동’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북한 언어문화 운동에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

14) 이런 방향은 김선철(2009:14-15)에서 “언어정책으로서의 우리말 다듬기는 인권 존중 및 효율적 언어 생활을 위한 말다듬기, 언중의 언어의식에 입각한 말다듬기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한 말과도 통한다.

15) 이런 생각은 ‘쉬운 언어 정책’과도 연결될 것이다. 쉬운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범 외 8명(2013) 참조.

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1차 자료 접근을 위한 시간적, 상황적 제약 때문에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 언어 정책 및 언어 운동 관련 선행 연구 자료에 크게 의존한 한계가 있다. 또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의 전개 양상과 결과를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문헌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 특히 언어 대중의 운동 참여 양상과 다듬은 말의 수용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한 추적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면의 접근 또한 현실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조사로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음 기회에 곧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2, 5-18, 국립국어원.
- 고영근 엮음(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1)>, 《주시경학보》 2, 47-84, 주시경 연구소.
- 고영근(1989) <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의 말과 글》 (고영근 엮음), 13-41,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3) <북한의 문자개혁에 관한 연구>, 《주시경학보》 12, 24-69, 주시경연구소.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문화원.
- 국립국어원 엮음(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원.
- 권재일(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 출판문화원.
- 김무림(1989) <북한의 언어정책과 말다듬기 운동>, 《한국논단》 12월호, 172-183, 한국논단사.
- 김민수 엮음(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2》, 녹진.
- 김민수 엮음(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 출판부.
- 김석향(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17-2, 1-23, 한국사회 언어학회.
- 남기심·김하수(1989),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말과 글》 (고영근 엮음), 81-99, 을유문화사.
- 류렬(1960) <학술용어사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 《조선어문》 3.
- 리익환(1949) <의학 용어 제정에 관하여>, 《조선어연구》 3, 57-66, 조선어문연구회.
- 박경출(1949) <신문 잡지에서 보는 우리 말>, 《조선어연구》 1, 85-98, 조선어문연구회.
- 박상준(1949) <한자어(漢字語)와 한자의 정리(整理)에 대하여>, 《조선어연구》 3, 37-56, 조선어 문연구회.
- 박상훈(2001) 《조선어어휘정리론》, 조선어학전서 17, 박이정.
- 박용찬(2007) <새로운 방식의 외래어 순화>, 《어문연구》 134, 455-4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2,

- 19-59, 국립국어원.
- 박창원(2006) <남북의 공동 언어 순화(2)-순화대상어를 중심으로>, 《Korean 연구와 교육》 2, 27-53, Korean 교육 연구 국제협의회.
- 북한언어연구회(1989) 《북한의 어학혁명》, 백의.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엮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어휘연구실(1974) 《단어만들기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서민정(2014)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 《현대북한연구》 17-1, 7-4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 서태길(1989) <북한의 언어정책 고찰>, 《북한의 어학혁명》 (북한언어연구회 지음), 21-35, 백의.
- 신구현(1949) <조선 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 어문 학가들의 당면과업>, 《조선어연구》 8, 6-36, 조선어문연구회.
- 이건범 외 8명(2013)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피어나.
- 이기동(2008) <북한의 언어정책과 연구내용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1, 43-68, 우리어문학회.
- 이병혁(1986)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주체사상>, 《동아연구》 9, 273-301, 서강대 동아연구소.
- 이성연(1996) <북한어 어휘 확장과 통일 후 국어정책>, 《한국언어문학》 37, 135-152, 한국언어 문학회.
- 이윤표(1991) <북한의 국어순화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2》 (김민수 엮음), 33-56, 녹진.
-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11-2, 187-214, 한국 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07) <북한 국어사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어 분석-남한 국어사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147-174, 우리말글학회.
- 이정복(2008) <외래어 순화 정책의 방향-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어문학》 99, 27-66, 한국 어문학회.
- 이정복(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녹진.
- 정순기(199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 언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사상리 론적업적>, 《조선어문》 1995년 1호, 2-5.
-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정용호(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투리를 없애고 문화어를 살려쓸데 대한 사상>, 《조선어문》 1992년 3호, 2-4.
- 정유진(1997) <북한의 말다듬기>,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김민수 엮음), 119-142, 태학사.
- 최경봉(2007) <외래어 사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그 수용 방안>, 《어문연구》 35-1, 365-3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최용기(2002) <통일시대의 국어 순화>, 《한말연구》 11, 285-300, 한말연구학회.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최현(1956) <조선어의 정화문제와 한자>, 《조선어문》 4.
- 홍기문(1956) <조선어의 기본어휘와 어휘구성에서 고유어휘와 한자어휘가 가지는 관계>, 《조선어문》 1.
- 홍연숙·전재호·홍사만·강재륜(1984) 《북한의 언어실태 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박 덕 유(인하대)

1. 서론

언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대중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객관적인 현상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 언어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표현 수단의 한글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의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져 세계 그 어느 언어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언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민은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K-Pop 등 한류 열풍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해외에 세종학당(2014년 54개국에 130개소 개설) 등 한국어 전문기관 설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우리말의 학습 열기가 고조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공공언어에서 외국어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매체언어,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언어 등 사회 전반에서 어법 파괴 현상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 그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 국어 순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하여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 국어 순화의 개념과 역사

‘순화(醇化)’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이라고 했다. ‘순화’는 해방 이후 한때 ‘정화’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1976년 문교부의 자문 기관인 ‘국어 심의회’에 ‘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화(淨化)’보다는 ‘순화(醇化)’가 주로 사용되었다. 국어 순화의 개념에 대해서 사전과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듯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박갑수(1976:63)는 대외적인 외래어 순화(純化, purification)와 대내적인 저속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인 미화(美化, beautification)를 제시하였으며, 남광우(1977:156)는 그 대상을 음성·음운(발음의 잘못, 지나친 경음화현상, 장단음의 혼란 등), 어휘(은어, 비속어, 욕설, 외래어 및 외국어, 방언 등), 정서법(외래어 표기법 포함)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존 개념을 종합 정리한 민현식(2002:207)에 의하면 발음, 어휘, 문장, 담화 등 언어 요소 전반에 걸쳐 비규범 언어(비표준 언어)를 규범 언어(표준 언어)로 고쳐 쓰는 일과 난해하거나 최신의 외래 언어 요소(외국어, 외래어)를 모여(고유어, 한자어)로 고쳐 쓰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21세기 언어 환경의 영향으로 국어 순화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국어 순화의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갑오경장 이후 국한문혼용체가 공식적인 문체이었으나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체 발간을 한 서재필과 “국문론”을 통해 한자의 불필요성을 제기한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어 순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해 문체 순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압적인 외세적 동기에 의해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광복 이후 국어 순화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말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주시경의 순화 정신을 이어 받은 학자들은 토박이말을 제외한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아 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인 한글학회를 통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순수한 우리말 사용을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욱이 1962년 ‘한글 전용 특별심의회’가 설치되면서 한글 전용만을 내세우다보니 한자어가 태반 이상인 우리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가져왔고, 아울러 풍성한 우리 어휘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구계 외래어가 사용되면서 1976년 대통령령에 의한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가 발족되어 간판명이나 과자명, 그리고 방송 용어 등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에 대한 순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1984년 문교부 산하 ‘국어연구소’가 설치되어 국어 규범 정비 작업을 통해 어문 규범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1991년 국어연구소를 이은 국립국어연구원과 학자들은 순화 대상을 서구계 외래어로 한정하여 지속적인 국어 순화 작업을 진행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더욱이 통신 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서구어가 더욱 거세게 밀려들어왔으며 1990년대 말부터 대중화로 시작된 인터넷과 모바일은 아날로그와 종이 문화에서 전자 문화와 디지털 문화로 바꾸어 놓았다. 21세기에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은 전자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용을 이끌었으며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언어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국어 순화의 대상은 서구계 외국어·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대체하는 것에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간 주요 학자들의 국어 순화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외국어 및 외래어 관련 연구로는 이기문(1976), 김민수(1979), 강신항(1985, 2004), 박갑천(1985), 유만근(1985), 서정수(1988), 황찬호(1988), 김세중(1992, 1995, 1998), 박갑수(1995), 고성환(1998), 송철의(1998), 이선영(1998), 이은경(1998), 이정복(1998), 최용기(2002),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유재원(2004), 정희원(2004), 박창원·김수현(2004), 박용찬(2007) 등이 있다.¹⁾ 다음으로 일본어 관련 연구로는 강신

1)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규범적인 접근으로 외래어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광고 언어의 문제점을 고찰한 논의 속에 외래어 문제점을 다룬 연구로 朴甲洙(1991, 1992, 1996, 1998), 李周行·李燦揆(1990), 李周行(1992, 1997), 김영미(1994), 張素媛(1999), 최용기(2000, 2001가, 2001나), 김세중(2001), 박덕유(2011) 등을 들 수 있다.

항(1988), 강인선(1988), 송민(1988), 서정수, 우인혜(1995), 박재석(1995), 정재도(1995), 최규일(1995), 박재양(1995), 허철구(1995), 정광(1995) 등이 있다.²⁾ 세 번째로 국어 순화의 운동 및 방향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南廣祐(1977), 朴甲洙(1976,1985), 허웅(1977), 김민수(1988), 김계곤(1988), 이영택(1988), 김민수(1988), 정운종(1988), 남영신(2000), 민현식(2002), 박창원(2005), 김하수(2005), 유재원(2005), 이남호(2005), 김선철(2009), 고성환(2011), 박용찬(2011), 이동석(2011) 등을 들 수 있다.

정광(1995)은 일본어투 문장 표현을, 황찬호(1998)는 외국어식 구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의 논의는 어휘에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김민수(1988), 강신항(1988)에서 제시하였듯이 한자어는 우리 언어로 귀화되어 사용한 국어로서 일생 언어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도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음과 서구어의 범람으로 인해 주요 순화 대상어는 서구계 외래어가 되었다.

21세기 ‘우리말 다듬기’는 일본어와 한자어, 그리고 서구계 외래어를 순 토박이말인 고유어로 바꾸어 쓰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³⁾ 그리고 국어 순화 운동이 단지 쉬운말만이 대상이 아니라 발음이나 표기상 잘못 사용하는 말도 바르게 고쳐서 사용하는 정확한 표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장, 담화 등 언어생활에서 비문법적인 표현도 순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국어 순화의 필요성

국어 순화의 1차적인 목적은 주로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 그 주요 성과는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온 일본어와 일본계 한자어를 순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지배하에 강제적으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언어 순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일본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화의 물결 속에 동참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목적으로 무역 수출과 인력 해외 진출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에 많은 서구 문물 또한 받아들이면서 서구계 언어, 특히 영어의 유입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2) 대부분 학자들은 일제의 언어는 필요적 동기에 의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침략하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위세적 동기에 의한 것이므로 일제의 잔재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일본어 청산은 교육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이 순화된 것이 사실이다.

3) 박용찬(2005)은 ‘우리말 다듬기’는 ‘순화’나 ‘정화’와 달리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으며, 1973년 창립된 ‘국어 순화 운동 전국 연합회’가 1975년 ‘우리말 다듬기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한자어가 아니라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며 이는 신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위상은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이나 평가시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직장 시험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지방자치마다 영어마을 선포식을 갖는 등 온 나라가 영어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영어는 어느새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를 잠식해 가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 발달에 따른 영향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 문자로 되면서 문자언어는 더욱 중요시 되었다. 특히, Vachek(1973) 이후, 귀로 듣는 언어보다 눈으로 보는 언어의 표의주의 이론이 대두되어 정서법을 개정하는 일면의 동기부여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편리성과 속도성은 편지에서 전화로 대체해 오다가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점과 간편하고 빠른 전자 문자로 바뀌면서 욕설 문화와 문자 파괴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문자를 쉽게 쓰고자 하는 표음성(싫어 → 시러, 막힌 → 마킨 등)과 지나친 간결성(알써 → 알았어, 선생님 → 쌤), 그리고 음성언어 전달(가요 → 가용, 안녕 → 안녕) 등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욕구 표현 등으로 나타나 우리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

21세기는 언어 전쟁시대이다. 지구상에는 약 1만여 개의 언어가 존재했었다.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 언어는 6,912개이며, 이들 언어 가운데 언어 전수 기능이 가능한 언어는 300개 미만으로 세계인의 96%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도 10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언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국어 순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4. 국어 순화 실천 방안

4.1. 순화 대상을 용이성에서 품격성과 정확성으로 확대

박갑수(1976), 남광우(1977), 박갑수(1979)⁴⁾ 등에 이어 허철구(1999), 민현식(2002), 고성환(2011)⁵⁾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어 순화를 어휘에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⁶⁾ 특히, 이남호(2005)는 국어 풍요를 위한 국어 순화 운동으로 배제의 원리를 버리고 포용의 원리를 채택해야 하며, 단어 차원에서 문장, 단락, 글의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토박이 낱말들을 되살려 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장과 글을 바르게 쓰는 일이며, 외래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보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너저분한 글을 쓰는 일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4) 박갑수(1979:58-59)는 국어 순화의 대상을 음운, 어휘(은어, 비어, 속어, 욕설, 방언, 외래어, 외국어), 통사(구문상의 비문법적 요소), 의미(어휘 및 구문상의 의미 혼란), 언어활동(언어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관습), 정서법 등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5) 고성환(2011:6)은 국어 순화는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 문장, 담화, 맞춤법 등 국어 전 영역에 걸치는 문제로 지적했다.

6) 허철구(1999:86-87)는 국어 순화 운동이 어휘 중심으로 된 것은 1976년의 '국어 순화 세칙'에서 "국어 순화는 발음, 어휘, 문법, 맞춤법, 언어활동 등을 포함하되 어휘의 순화를 먼저 한다."라고 제시한 것에서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화 세칙이 나온 배경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려는 문체적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남영신(2000)은 바른 국어에는 표준어와 맞춤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단어를 그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어 순화 운동은 국어를 깨끗하게 하는 운동에서 바르게 쓰는 운동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국어 순화는 대부분 서구계의 외국어·외래어를 대상으로 전개해 왔다. 이제는 순화 대상을 어휘(주로 외국어 및 외래어)에 초점을 맞춰 쉬운 우리말로 교체한 용이성에 그치지 말고, 욕설이나 비속어 등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표현도 순화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발음, 문장, 담화, 정서법 등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정확한 표기와 표현으로 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4.2. 순화 대상 어휘의 선정 원칙 필요

외국어·외래어를 순화할 경우 그 대상 선정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동석(2011)은 국어 순화는 일반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반영하여 일반 언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특정 어휘 및 표현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순화 의지가 있는지, 순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순화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어 중심의 외국어·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이라 민족어 정신 차원에서 우리 언어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외래어와 아래와 같이 언중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⁷⁾

멘토(Mentor) - (인생)길잡이, 사이버대학(cyber 大學) - 두루누리대학
스펙업(spec-up) - 감냥쌓기, 컬러링(colouring) - 멋울림, 네비게이션(navigation) - 길도우미
롤모델(Role model) - 본보기상, 바리스타(Barista) - 커피전문가
블루투스(blue tooth) - 씹지무선망, 스마트폰(smart phone) - 똑똑(손)전화
싱글맘(single mom) - 홀보듬엄마, 에스라인(S-line) - 호리병몸매
엑스파일(X file) - 안개문서, 와이파이(Wi-Fi) - 근거리무선망
퀵서비스(Quick Service) - 늘찬배달, 하이파이브(high five) - 손뼉맞장구

위의 사례들은 국립국어원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이지만 일반 언중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애써서 순화한 보람이 효용성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홍보 부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진 서구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7) 권재일(2005)은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정책이 주로 ‘언어의 정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토박이말만 가려 쓰자는 것으로 일관해 왔지만 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국어 순화의 목표를 이제 ‘언어의 기능’인 의사소통의 원활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웰빙’을 쓰고 있는데 외래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살이’로 순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3. 순화어를 만들 때 한자어 활용

순화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므로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⁸⁾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표음문자의 고유어와 이해 수단인 표의문자의 한자어가 주를 이룬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록된 어휘를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131,971개, 25.9%), 한자어(297,916개, 58.5%), 외래어(23,361개, 4.7%), 혼합형태(55,523개, 1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어의 어휘에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장점인 조어력, 축약력을 활용해서 순화어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용찬(2011), 김문오(2011)에 의하면 299개 순화어의 어종별 수와 비율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⁹⁾

<표 1> 어종별 순화어 수와 비율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기타(혼종어)	계
수	67	99	125	8	299
비율	22.4	33.2	41.8	2.6	100

한자어를 활용한 순화어는 한자어 99개와 고유어와 결합한 125개 등 모두 224개(7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순화어를 만들 경우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¹⁰⁾ 그리고 박용찬(2011:44-45)은 ‘우리말 다듬기’에서 선정·결정한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음절 수를 살펴본 결과 순화 대상어는 3.87음절이고, 순화어는 4.43음절로 오히려 순화어의 음절 수가 더 길다고 제시했으며, 순화어 중 한자어는 2음절(215개, 82.7%), 3음절(33개, 12.7%)로 대부분 2,3음절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¹¹⁾ 순화어는 쉬우면서 간결할수록 좋으므로 음절 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방송 등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동참

효율적인 순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매체가 앞장 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홍보하거나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언론

8) 남광우(1977)는 무엇보다도 한자나 한자어를 기피하는 편협성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2천년 이상 사용해온 역사, 고유의 한자음 동화도(同化度)로 보아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한자의 장점인 시각성, 조어력, 축약력 등을 이용하여 조어하는 것이 외래어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9) <표 1>에서 제시한 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듬은 순화어이다.

10) 교육부(20014년 9월 24일)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한자를 한글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한자 교육이 부족해 의미 소통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2018학년에는 초등 3,4학년 교과서, 2019학년에는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1) 박용찬(2011)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화한 어휘 283개(2004.7.-2011.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문오(2011)는 299개(2004.7.-2011.12.) 순화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매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¹²⁾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순화 운동을 전개해 약 2만개 정도의 순화어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언론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방송이다. 국민들이 순화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스크린도어’인 ‘안전문’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 설치가 시급합니다.”처럼 순화대상어와 순화어를 함께 알려주는 방법이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외 자국어 보호 및 개선 운동

외국에서 자국어 보호 및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 중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언어 정책 기관의 추진 사업을 살펴보고, 그중 우리나라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

5.1.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끄는 국어운동 전개

독일어연합회	기업이나 관공서에 항의 편지 보내기. 기업체의 일간지나 누리집 광고 문구를 조사하여 올바른 독일어 사용 점수(‘언어 테스트’)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함. <올해의 언어변조자상>, <야콥그림상>, <독일어선도상>, 독일어기관상> 수여.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	관료적인 언어, 조그만 글씨, 그리고 공식 정보의 난해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사람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의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해마다 <쉬운 영어 운동상> 수여.

‘독일어연합회’와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 활동 및 보상 활동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단체 등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는 언어적 문제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어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과 홍보 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이 실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어운동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상을 주고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12) 권재일(2005)은 교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 언론의 구실이며,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어 방송 제작자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5.2.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서 제작

독일어연합회	독일어 사용에 관한 안내 책자 배포.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	쉬운 영어 캠페인 안내서, 용어 해설집, 쉬운 영어 쓰기 훈련 과정 교재 등 무료 교육자료 개발.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	Plain Writing Act of 2010 법률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연방 쉬운 언어 지침(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
스웨덴 언어위원회	문체 지침서, 정확한 언어 사용 안내서, 어법 및 언어 사전 등 언어와 글쓰기 관련 각종 도서, 안내서 등을 편찬하고 출판.

쉬운 언어 사용을 위한 국어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쉬운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쉬운 언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국어운동과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사람들이 지닌 편견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안내서를 발간하여 안내서를 따라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PLAIN의 연방 쉬운 언어 지침(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은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 구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지침에는 풀어쓰기 검사, 가용성 검사, 통제된 비교 연구와 같은 문서 검사를 위한 도구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는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문서가 제기할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쉬운 언어 계획 및 글쓰기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수백, 수천 혹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검사 과정을 통해 나중에 문서에 대해 제기될 질문에 답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문서가 성공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 국립국어원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에서는 글쓰기, 화법, 언어예절, 국어어문규범 관련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누리집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참고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 지자체 국어책임관의 임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	모든 행정기관(행정부, 정부 운영 기업, 독립기관)은 Plain Writing Act of 2010 법률 및 연방 쉬운 언어 지침(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을 시행하는지를 감독할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을 한 명 이상 지정함. 기관 웹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섹션을 마련. 이 법의 요구사항을 기관 직원에게 알리고 기관 직원에게 쉬운 글쓰기를 교육함. 해당기관은 이 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첫 보고서를 기관 웹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 상에 발표함.
스웨덴 언어위원회	스웨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쉬운 언어활동을 장려. 스웨덴 전역의 약 400개 공공단체와 자치단체가 가입한 쉬운 말 계약 네트워크를 산하에 둠. 공공단체와 자치단체의 각종 계약서는 소속 심의관의 심의를 거쳐 스웨덴 언어위원회의 쉬운 말 계약서에 따라 작성됨.

미국 행정기관의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은 해당 기관이 직원에게 실시하는 쉬운 글쓰기 교육의 감독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을 향상시킬 방법 및 쉬운 글쓰기 향상이 필요한 문서들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대중 및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얻어야 한다. PLAIN은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이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와 더불어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문서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스웨덴 언어계획 네트워크는 스웨덴 언어위원회(The Language Council of Sweden), 스웨덴 아카데미, 정부기관 언어 전문가, 스웨덴 전문용어 센터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다양한 언어 문제를 놓고 토론한 후 권고안을 작성한다. 스웨덴의 언어정책 활동은 정부의 주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단체와 민간단체의 정규 직원으로서, 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자격증을 갖춘 노련한 쉬운 언어 컨설턴트 약 300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대학교에는 쉬운 언어 컨설턴트양성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에서는 매년 국어책임관과 함께 하는 공동연수회를 개최하고 국어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국어문화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책임관 혹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새로 부임한 경우가 많아 매년 내실 있는 진척된 논의를 할 수 없고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어책임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어책임관이 행정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온전히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미국의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들이 대중 및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얻는 것이나 스웨덴의 쉬운 말 계약 네트워크와 같이 조직화된 지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5.4.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사업

독일어연합회	카탈로그나 제품의 사용 설명서, 누리집 등에 "독일어 인증서 VDS-Sprachsiegel" 발급.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검열하고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사업을 통해 '독일어연합회'는 '독일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는 검열한 문서에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에서 승인한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한 문서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21,000건 이상에 달한다. 이 크리스털 마크는 국제적 인증 표시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1990년에 시작된 인증 사업은 현재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1,600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협회의 회원을 제외하고 문서 인증에는 비용(£500 + VAT)이 든

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여러 문서를 함께 승인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500파운드를 지불하거나 단일 문서를 승인받기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200파운드를 지불할 수 있다. 동일 문서의 수정과 보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문서는 각각 문서 번호가 있어 차후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다.

더불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에서는 책과 매뉴얼에 ‘쉬운 영어 책 마크(Plain English Book Mark)’를 부여한다. 이 인증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출간된 비소설, 훈련 매뉴얼, 참고문헌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목차와 디자인, 의도된 청자에게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지의 유무 등을 검열한다. 또한 ‘신용 마크(Honesty Mark)’는 크리스털 마크를 부여 받은 문서에 한해 무료로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문서의 모든 내용이 믿을 만하며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증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크리스털 마크’를 부여하여 인증 사업을 하고 있다.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는 이러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언어 정책 사업과 공공언어 개선에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었다.

5.5. 문서 재작성 사업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	법률 문서 수천 종(각종 규정, 항공기 리스계약, 소비자 계약서, 단체와 기관의 정관, 경찰업무 수칙, 주주 정보, 보험회사 약관 등)을 재작성하거나 재구성.
-------------------	--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에서는 다양한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재구성하고 있다. 문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문서 그 자체로서 온전히 읽히고 이해되고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다져진 노련한 전문가들이 단 시간 안에 문서를 검열하고 재작성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이 원하면 교열자가 방문하여 공동의 논의를 통해 문서를 다듬기도 한다. 문서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국외 유사기관들은 자국어어를 보호하고 쉬운 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쉬운 법률 만들기’를 법으로 의무화하거나 정부 내에 독립적인 법률용어 순화기구를 운영하기도 하고 쉬운 언어 사용에 대한 상을 수여하거나 문서를 쉽게 다시 쓰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외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중심의 언어 운동이 필요하다. ‘독일어연합회’나 영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PEC, Plain English Campaign Center)’에서 시작된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은 대중이 올바른 언어사용을 자각하고 시작한 운동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오랜 시간 주체적으로 언어문화를 선도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의 언어적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관료적인 언어, 내용을 읽을 수 없게 쓴 조그만 글씨와 난해한 문장, 공식적인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난해한 법률 용어 및 전문용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소통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의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과 같은 소통 창구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어문운동 단체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유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의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PLAIN),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스웨덴 언어위원회(The Language Council of Sweden)와 같은 기관은 정부가 언어 정책을 수행해 온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었다.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보임으로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강구할 때 자국어의 보호와 진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쉬운 글쓰기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이 쉬운 언어 운동 법률 및 지침을 시행하는지를 감독할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을 한 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섹션을 마련하도록 하여 해당기관이 이 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글쓰기 섹션 상에 보고서로 발표하도록 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셋째,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외 어문운동 관련 기관들은 언론매체, 웹사이트, 출판물 등을 통해 쉬운 언어 쓰기 캠페인의 의도와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언론은 쉬운 언어 쓰기의 효용성을 잘 지각하고 있고 매체가 갖는 파급력을 통해 시민과 기업, 정부 기관은 쉬운 언어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어문운동 기관이 적극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에 있어 모범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쉬운 언어에 관한 회의와 세미나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정책의 방향과 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외 기관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검열하고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하여 사람들이 쉬운 영어로 쓰인 글임을 알게 하는 것이나 쉬운 언어 활동성도가 두드러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쉬운 언어 크리스탈상(Plain Language Crystal Award)’을 수여하여 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 미국의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PLAIN)는 문서 작성의 세부 지침, 즉 단어 사용, 문법 사용, 문장 및 문단 쓰기에 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적 내용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 지침서, 정확한 언어 사용 안내서, 어법 및 글쓰기 관련 각종 도서, 안내서 등을 편찬하고 출판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에서는 소비, 직업, 교육, 학문, 방송 매체,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여서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학술 대회 등의 공공장소 및 상품 사용 설명서 등의 생활 정보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감시한다. 이처럼 쉽고 정확하며 올바른 언어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어의 신어 순화는 국무총리가 순화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발표하여 전문 분야의 신어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순화의 결과를 프랑스 정부의 관보에 게재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용어를 쓰도록 제안·권고하고 있다. 영어의 우세화에 밀려 자국어의 설 자리를 잃게 되거나, 외국어와 전문 용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어 순화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여섯째,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다.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나 ‘독일어연합회’와 같이 인증사업이나 문서 재작성 사업을 통해 어문운동을 펼치는 기관이 재정적 안정을 기해 소신 있게 국어정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서 인증과 재작성은 시민이 언어 접근에 있어 평등권을 누리고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접해 소통의 편익을 누리는 것과 직결된다. 나아가 정부 행정 기관과 기업도 비롯해 정책과 광고문, 서식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소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

일곱째,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 내 자국의 언어 보호가 필요하다. 핀란드 학교 교육에서 스웨덴어 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스웨덴어 모어 화자의 관점에서는 그 언어와 문화를 보존·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으며 핀란드어 모어 화자들이 소수 언어에 대한 구사력을 갖추면 그만큼 소수자에 대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핀란드어 모어 화자에게도 중요함을 보였다. 프랑스 역시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이라는 명칭을 통해 프랑스 내에 다중 언어를 인정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라 언어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언어를 보존·보급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평생에 걸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 언어권 화자들의 의사소통 장려 방안 및 교육적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21세기 언어문화 개선 운동

6.1. 국민의 의식 전환 운동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어 순화를 서구계 어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간판이나 광고,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한 맞춤법 파괴 현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말을 곱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려는 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¹³⁾ 이에 사례 3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상호 간판의 경우

상호 간판을 ‘차칸 가게’, ‘아나과 동물병원’이라고 쓴 주인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뭔가 튀는 것으로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함과 어법 표기의 ‘안 아과’ 보다는 발음대로 적은 ‘아나과’가 미관상으로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3) 박갑수(1976, 1979)는 언어활동, 국어생활에 대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사례 2> 고등학교 영어 문제

00고등학교 2학년 영어 중간고사 문제로 ‘caterpillar’를 우리말로 번역하라는 문제를 출제한 결과 학생들의 답안 중 ‘에벌레, 에벌레, 에벌레’로 쓴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영어 교사들이 이에 대한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고 결국 맞게 한 사실이 있었다.

<사례 3> 지하철 광고 언어

미샤 광고문: 하얀피부를 위한 뷰티풀 사이언스 미샤, 타임레볼루션 화이트큐어 사이언스 블랑, 레드가 섹시한 줄 알았다. 아니다! White다!

<사례 1>은 의도적인 맞춤법 파괴로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간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법 파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 풍조는 다른 가게에도 감염되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2>는 영어는 정확히 써야 하지만 우리 모국어는 표기가 잘못 돼도 뜻만 통하면 된다는 위험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 3>은 광고문이라 하지만 영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한 경우로 로마자 범람화의 우려가 있다.

참고로 우리말 표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준수와 관련된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¹⁴⁾

1. 본인은 한글 맞춤법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39.5%) ② 약간 그렇다(46.5%)
③ 약간 그렇지 않다(14.0%) ④ 전혀 그렇지 않다(0.0%)

2. 간판이나 광고 등에서 맞춤법을 파괴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착한 가게 -> 차칸 가게 좋은 가게 -> 조은 가게
맘에 든 미용실 -> 마메 든 미용실 깎고 볶고 -> 까꼬 볶꼬

- ① 매우 문제가 있다(58.1%) ② 약간 문제가 있다(27.9%)
③ 그럴 수 있다(14.0%) ④ 전혀 문제가 없다(0.0%)

3. 요즘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의 문자 사용(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겠어요 -> 조켓어용 고맙습니다 -> 고마썬니당 돌아왔어 -> 도라와썰
선생님 -> 쌤 싫어요 -> 시러요 가는 중이다 -> 가는 중이닷

- ① 매우 문제가 있다(51.2%) ② 약간 문제가 있다(27.9%)
③ 그럴 수 있다(20.9%) ④ 전혀 문제가 없다(0.0%)

‘한글 맞춤법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킨다’는 응답자가 39.5%이며,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은 14.0%를 차지했다. 그리고 간판이나 광고 등에서 ‘맞춤법을 파괴한 것

14) 설문 대상자는 30대(15명), 40대(15명), 50대(20명)을 조사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연령에 따른 세부 분석은 제시하지 않는다.

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58.1%이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4.0%이다. 또한, <예문 3>처럼 청소년들의 문자 사용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51.2%,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20.9%를 차지했다. 맞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율이 우세하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비율도 아주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6.2. 정부 주관의 범국민 어문개선 운동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12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은 외국어·외래어 등의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과 무분별한 비속어, 유행어, 외계어 등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그리고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등 우리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느낀 1,500여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안녕! 우리말'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안녕! 우리말' 운동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의 국어 의식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융성위원회 및 각 부처별 해당 사업과 연계되어 부문별로 다양한 사업의 공동 기획 및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① 바른 언어(문법 및 어법 파괴, 외래어·외국어 남용), ② 고운 언어(거친 욕설, 비속어·저속어), ③ 품격 있는 언어(과잉 존대, 축약 및 변형, 외계어)로 사업 운동은 크게 공공언어 개선 운동,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운동, 청소년 언어 개선 운동 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국어문화원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 및 민간에서의 언어문화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어문화원이라는 지역거점 역할론이 대두되었고,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및 국어진흥을 위한 시민의 각성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국어문화원 영향력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6.2.1. 국어문화원 설립과 역할¹⁵⁾

2005년에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발전의 기반 조성과 국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15) 국립국어원 20년사(151-154) 참조.

이를 토대로 2006년 11개 기관이 국어상담소로 지정되었다. 서울 지역에 국어단체 연합 국어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 한국방송(KBS)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는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국어상담소,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충북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다. 경상도 지역에는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동아대학교 국어상담센터,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전라도 지역의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원도 지역의 강원대학교 국어상담소와 제주도 지역의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08년에 국어상담소는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울산대학교와 대전 한남대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 경기 지역 한양대학교와 2011년에 인천 지역 인하대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 목포대와 한글문화연대가 추가로 지정돼 전국 20곳에 국어문화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2>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4월	전국 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10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년 2월	인천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3년 5월	전남, 서울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4년 10월 현재	전국 20곳 지정 운영

2005년 국어문화원의 전신인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때 그 목적은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어문 규범, 국어 문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문에 상담
- ②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논문작성법 지도
- ③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검토
- ④ 법령문, 안전 설명문, 제품 설명서, 문화재 안내 표지판 등의 실용문 검토
- ⑤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 글쓰기와 말하기 지도, 어휘력과 문장력 향상 지도,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

국어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우리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언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6.2.2. 국어책임관제도의 정착과 연계 활성화

1) 국어책임관제도의 운영과 필요성

국어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어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에 지정되어 있다. 주로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관이나 국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맡고 있으며, 2005년 이래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중앙 행정 기관 44곳과 소속 기관 92곳,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곳, 기초 지방 자치 단체 22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알기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는 일을 한다.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 또한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와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국어책임관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국민의 언어생활을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 ①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의사전달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 ② 의사전달의 수단인 언어를 다듬는 역할이다.
- ③ 정부조직의 의사소통 활동은 국민의 생활의 질과 국가 발전 수준에 직결되므로 정확한 언어 필요하다.
- ④ 행정 기능의 확대 및 전문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의 영향이 매우 크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2) 국어책임관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책임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어책임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전문 지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어책임관 업무가 대부분 국어 관련 전문성이 없는 홍보담당 부서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됨으로써 국어책임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⁶⁾ 다음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잦은 인사이동, 조직개편, 임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

16) 국어문화원활성화방안보고서(2014)에 따르면 국어책임관 학위는 학사 학위자가 57.4%였으며, 석사 31.9%였고 기타가 10.6%이며,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이 36.2%, 사회과학계열이 31.9%였고 국어국문학 및 국어교육 전공이 2.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수치는 국어책임관의 국어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국어책임관은 국어 관련 전공자나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한 담당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국어책임관 임명 이후 지역 거점 국어문화원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¹⁷⁾

- ②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대외적으로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되지 않는다.
- ④ 책임이 따르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고 있다.
- ⑤ 겸직을 하기 때문에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뒷전이 되어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국어책임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국어책임관의 독립적 지위가 필요하며, 국어책임관은 그 역할을 바로 알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① 국어책임관 지정과 책임 등에 관한 항목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
- ② 국어책임관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 ③ 국어책임관의 잦은 교체 지양
- ④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⑤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연계성 강화

6.2.3. 공공언어 개선 운동

공공언어의 가장 공적인 유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로 출현 형식은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이다(조태린, 2010). 최근 공공기관의 언어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투 한자 사용, 한국어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 어법에 어긋난 표현, 자연스럽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쉬운 용어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외래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⁸⁾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운동이 필요하다.¹⁹⁾

17) 예를 들어 인천시 국어책임관(2013년도)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1개 부서(1개 시청, 8개 구, 2개 군)가 모두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책임관과 실무자가 모두 바뀐 곳은 7개 기관, 책임관만 바뀐 곳은 2개 기관, 실무관만 바뀐 곳은 2개 기관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다.

18) 지금까지 국어문화원에서는 공공언어 개선 사업으로 대체로 보도자료, 공문서, 고시 및 공고문, 새소식, 안내문, 게시판 등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19)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위해 각 시청이나 도청 누리집에 상징물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군데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ynamic BUSAN, Colorful DAEGU, Hello Gwangju, It's Daejeon, Ulsan for you, Pride GyeongBuk 등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0년도에 'Hi Seoul' → '희망 서울'로 변경하였으며, 'Fly Incheon', 'feel GyeongNam'은 삭제되었다.

6.3. 국민 참여의 어문개선 운동

기존 국어 순화 정책은 주로 정부나 전문위원 등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순화였다. 순화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순화어를 만들어도 국민의 공간을 얻지 못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분별없이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문화재단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누구나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말터’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제안하거나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발굴한 순화 대상어 중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말을 결정한다. 그 방식은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를 통하여 그런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말터에서는 2011년 11월까지 누리꾼들이 순화어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가운데 몇 개를 추려서 올리면 다시 누리꾼들이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말을 순화어로 뽑았다. 그러던 것을 2011년 12월부터는 누리꾼들이 투표하지 않고 우리말다듬기위원회에서 순화어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미 등재되어 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까지 순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4년 7월 12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순화한 말은 모두 371개이다. 이 중 국립국어원 보고서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2011)에 해당하는 것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모두 15개(24.6%)로 다음과 같다.

네비게이션(navigation) - 길도우미, 더치페이(Dutch pay) - 각자내기
마일리지(mileage) - 이용실적(점수), 무빙워크(moving walk) - 자동길
발레파킹(valet parking) - 대리주차, 브이오디(VOD) - 다시보기
선루프(sunroof) - 지붕창, 스폿광고(spot 廣告) - 반짝광고
오프라인(off-line) - 현실공간, 캠프파이어(campfire) - 모닥불놀이
코르사주(corsage) - 맵시꽃, 타임캡슐(time capsule) - 기억상자
테스터(tester) - 체험평가자, 팁(tip) - 봉사료, 도움말
핫이슈(hot issue) - 주요쟁점

요긴하게 쓰일 다듬은 말 61개 이외에도 『표준국어대사전』개정판 웹 사전에 등재한 외래어는 상당수에 이른다. 그 일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²⁰⁾

다크서클(dark circle) - 눈그늘, 로밍(roaming) - 어울통신
리메이크(remake) - 원작재구성, 리콜(recall) - 결합보상(제)

20) 박용찬(2011)에서 정착도가 아주 높은 우리말 외래어가 순화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약간 다른 의미로 등재돼 있는 표제어까지 이들 유형에 포함시키면 그 수는 총 68개로서,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화 대상으로 선정된 서구 외래어·외국어(총 275개) 가운데 1/4에 육박한다(24.7%)고 했다. “정착도가 아주 높은 외래어는 순화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순화 대상어 선정의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라고 했다.

립싱크(lip sync) - 입술연기, 메신저(messenger) - 쪽지창
 빙고(bingo) - 맞았어, 스카이라운지(sky lounge) - 하늘쉘터
 스킨십(skinship) - 피부교감,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 늘사랑상품
 시시티브이(CCTV) - 상황관찰기, 싱글맘(single mom) - 홀보듬엄마
 아이 쇼핑(eye shopping) - 눈길장보기, 아이젠(Eisen) - 눈길덧신
 유시시(UCC) - 손수제작물, 카메오(cameo) - 깜짝출연(자)
 캐노피(canopy) - 덮지붕, 파이팅(fighting) - 아자(힘내자)

앞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경우에 정착도가 높은 것을 제외시키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순화어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²¹⁾ 또한, 청소년들과 군대에서 욕설문화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이트도 열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맞춤법 파괴에 대한 사례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6.4. 방송 및 인터넷 언어 개선 운동

6.4.1. 매체언어 실태 조사·분석의 필요성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체 언어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온 가족이 시청하는 드라마라든지 청소년들이 즐겨 시청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매체언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언어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문화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세계인들에게 한국어를 보급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속한 표현이나 품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표현, 어문 규범 위배 표현 등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송 등 매체언어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송언어 실태에 대한 조사는 여러 기간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2013년도에 5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경북대 국어문화원, 상명대 국어문화원,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조사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3사 KBS, SBS, MBC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2사 채널A, tvN이며, 각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는 KBS의 연예 오락, SBS의 드라마, MBC의 연예 오락, 채널A의 연예 오락, tvN의 드라마 중에서 시청률도 높고 시청 층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²²⁾ 그 이유는 올바른 방송 언어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올바르게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각성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함이다.

21) 광복 이후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심이 크지 않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 특히,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상대방의 외모를 회화화하거나 무리한 설정을 통한 비속어, 막말의 사용을 함부로 함으로써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6.4.2.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목적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목적은 방송언어의 저품격 언어를 개선하고 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에 사용된 매체언어 실태를 조사·분석한 저품격 언어 자료를 매월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여 방송사가 우리말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 언어 실태 조사한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을 전달하거나 전문적인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건의하여 자사 방송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매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매체언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각 국어문화원 누리집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언론사, 시, 군, 구청에서 제작되는 각종 소식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게재할 것이다. 특히, 저품격 매체 언어 사용 사례를 지역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는 <알수록 재미있는 우리말>을 활용하여 소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하는 매체언어 순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셋째, 올바르게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방송 언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해 언어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국어사용의 문제의식을 깨닫게 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송언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국어책임관과 연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순화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적으로 국민 언어 각성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6.4.3. 조사 대상 방송 목록 및 분석 결과

방송언어 사용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 항목은 크게 저속한 표현과 어문 규범 위배 표현이다. 저속한 표현은 언어의 규범적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내용적으로 품위가 낮고 속되어 품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이며, 어문 규범 위배 표현은 언어의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비표준어, 비문법적 표현, 자막 표기 오류를 두었다.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방송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방송 언어 개선 내용의 조사 대상은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종편 2사(채널A,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총 11편이며, 방영 횟수는 총 128회, 방영 시간은 9,800분(163시간 3분)이었다. 본 사업의 조사 대상 방송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 조사 대상 방송 목록

방송사	제목	요일	조사 기간 및 횟수	시간
KBS	안녕하세요	월	2013. 3. 4. ~ 2013. 6. 24. 총 16회	1,280분
	해피투게더	목	2013. 7. 4. ~ 2013. 10. 24. 총 16회	1,280분
SBS	돈의 화신	주말	2013. 3. 2. ~ 2013. 4. 21. 총 8회	560분
	출생의 비밀	주말	2013. 5. 4. ~ 2013. 6. 22. 총 8회	560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수, 목	2013. 7. 4. ~ 2013. 7. 11. 총 4회	280분
	주군의 태양	수, 목	2013. 8. 7. ~ 2013. 9. 19. 총 8회	560분
	상속자들	수, 목	2013. 10. 9. ~ 2013. 10. 24. 총 4회	280분
MBC	무한도전	토	2013. 3. 2. ~ 2013. 6. 29. 총 16회	1,440분
	진짜 사나이	일	2013. 7. 7. ~ 2013. 10. 27. 총 16회	1,440분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목	2013. 3. 7. ~ 2013. 8. 8. 총 20회	1,400분
tvN	막돼먹은 영애 씨 시즌 12	목	2013. 7. 18. ~ 2013. 10. 24. 총 12회	720분

이에 방송언어를 조사·분석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2사(채널A,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총 11편, 128회분을 조사한 결과 저품격 언어의 출현 횟수는 총 2,163건이었다. 이 중 자막 표기 오류(526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396건), 비속어(337건)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은어 및 통신어(283건), 인격 모독 표현(217건), 비표준어(155건), 비문법적 표현(111건), 폭력적 표현(71건), 차별적 표현(47건), 선정적 표현(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항목별 언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저품격 언어 중 가장 출현 횟수가 많았던 항목인 자막 표기 오류는 3월과 4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항목은 5월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6월부터 다시 출현 빈도가 늘어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속어와 은어 및 통신어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기타 항목들은 작은 변동은 있었지만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인 자막 표기 오류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나 은어 및 통신어를 사용하여 두세 개 항목이 동시에 집계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셋째, 방송사별 저품격 언어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MBC 프로그램에서 총 방영 시간 2,880분 중 총 818건, 10분당 2.8건의 저품격 언어가 출현했으며 tvN 역시 총 방영 시

23) 올바른 방송언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위한 방송 언어의 청정 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방송언어의 청정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방송언어 실태를 조사·분석한 자료를 통해 그 진단 기준 내용을 살펴보고, 언어 진단 도구를 개발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방송언어의 진단 항목을 구성할 것이다. 둘째, 방송언어 중에서도 연예·오락 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로 나누어 방송언어 허용 범위 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방송언어 청정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셋째, 항목별 진단 기준에 대한 설문 내용 사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의 α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해 항목별로 그 순위를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연령별 항목에 대한 인식과 성별에 따른 항목 인식을 통해 올바른 언어 인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2014년 연예·오락 방송 언어를 실태 조사·분석하고 실제 개발된 청정 지수를 적용하여 그 언어 청정의 척도를 분석할 것이다.

간 720분 중 204건, 10분당 2.8건의 저품격 언어 출현을 보여 공동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채널 A는 총 방영 시간 1,400분 중 321건, 10분당 2.3건, SBS는 총 방영 시간 2,240분 중 총 462건, 10분당 2.1건, KBS는 총 방영 시간 2,560분 중 총 358건, 10분당 1.4건의 저품격 언어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외국어 남용을 부추기는 공공언어와 욕설, 축약, 외계어 사용을 주도하는 청소년 언어, 그리고 비속어, 저속어, 선정적인 언어 등 품격이 떨어지는 방송·인터넷의 매체언어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 매체언어인 방송언어 실태를 조사 분석한 저품격 언어를 매월 해당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방송 관계자 교육, 방송언어 평가 시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방면으로 품격 있는 언어 사용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 모두가 정확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은 물론, 우리 언어를 세계에 보급시키는 운동을 펼치는 데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6.5. 청소년 언어 개선 운동

언어는 어떤 사회 구성원의 약속에 의해 성립되더라도 문화의 발달과 인간 사회의 제반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수많은 발명품과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인터넷 사용과 PC 통신이 확대되면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는 10, 20대의 젊은 층이다.

요즘 청소년 언어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교실 문화는 욕설문화로 바뀌면서 욕을 하지 않으면 왕따로 몰리고, SNS 확산으로 언어 파괴 현상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²⁴⁾ 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욕설, 비속어: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ㄸ나, ㄸ라, 뽕치다, 지랄, 찌파, 엠창, 쓰레기
- (2) 인터넷 및 게임 용어: 넷심(네티즌의 마음), 네이넨(네이버 지식인), 떡밥(화제, 이얏기거리), 득템(아이템을 얻음), 불뽕(불법으로 남의 글 도용), 비방(비밀번호를 걸어 놓은 방), 즐통(즐거운 통신), 갠전(개인전의 준말로 개인 대 개인의 게임), 발리다(게임에서 한쪽의 전략에 완전히 속아 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짐), 오리(올인에서 나온 말로 돈을 모두 잃거나 쓴 것), 팀킬(게임상에서 같은 편을 죽임), 즐겜(즐거운 게임)
- (3)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 갠춘하다(괜찮다), 갠(개병신), 깃사(기숙사), 냉무(내용 없음), 넬(내일), 뽕미(뽕임을 잘못친 경우), 드카(아마득하다), 병개(변개), 병신(병신), 셜(시험), 안농(안녕), 알씨(알았어), 와방(아주 많이), 아햏햏(기쁘거나 슬프거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모든 것에 통용), 어익후(어이쿠), 우즈캥(어떻게 해), ㅇ벗어(없어), 오나전(완전), 쌤(선생님), 식고자라(씻고 자라), 재섭다(재수없다), 점말요(정말요), 켜라(제발), 초콕(조금), 척오(최고), 출첵(출석 체크), 줌창(줌 창), 칩힌(치킨), 찰치(짧은 치마), 뽕(피움),

24) 조선일보(2013년 10월 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문 (1)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전체 대상자 216명 중 205명(95%)로 대부분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욕설을 섞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욕설을 사용하는 대상은 중학교 1-2학년이 가장 심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39.3%가 '습관적으로', 22.1%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될까봐'라는 것이다.

해충(해외 축구), 행자(행자), ㄱㄱ(고고), ㄱ,ㅅ,ㅍ(개새끼), ㄴㄴ(노노), ㄱㅅ(감사), ㄷㄷㄷ(덜덜덜), ㅅㄱ(수고해), ㅇㅇ(응), ㅇㅅ(알았어), ㅇㅋ(OK), ㅈㅅ(죄송), ㅅㅅ(시발), ㅅㅅ(병신), ㅈㅇ(짜증), ㅎㅅ(후덜덜)

청소년 언어문화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부족과 대화단절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를 창단하여 일정 기간을 교육한 뒤 수료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각 학교에서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홍보함으로써 언어예절을 준수하며 국어순화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매년 이 사업을 확대해 청소년 언어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²⁵⁾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대중매체에서 언어 파괴나 폭력 방지 프로그램 제작, 바른말, 고운말 사용 인터넷 카페 개설, 선플달기 캠페인, 동요부르기, 독서치료 등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²⁶⁾

7. 결론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며 언어 경쟁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 수많은 선진국과 접촉하면서 우리 언어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 방안을 고찰했다. 세계 12,13위의 경쟁력 있는 한국어는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고유어와 이해수단인 한자어의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180개국에 700만 명의 우리 교포가 널리 퍼져 거주하고 있다. 더욱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해 우리 언어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공용어화 바람마저 불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에서 어법을 무시한 발음상의 ‘쓰기 문화’가 10-20대 계층에 일반화되면서 국어 규범을 파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국어에 대한 홀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언어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언어는 영어, 중국어, 유럽어, 아랍어 등 몇 개 언어로 좁혀질 것이다. 우리도 남북통일은 물론 중국, 일본과 연계하는 언어문화권을 형성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밖으로는 한국어를 보급·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안으로는 정확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자언어 중심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언어 소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갑자기 한두 세대 만에 사라질 정도로 우리는 ‘언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언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언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소멸된다?”는 가설은 곧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

25) 국립국어원이나 각종 어문운동 단체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청소년 우리말지킴이 활동 보고 대회) 등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어문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26) 현행 스마트폰에는 ‘자동완성기능’이 있는데, 맞춤법이 잘못되면 즉시 교정해 주는 기능인 ‘맞춤법 기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2003),《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 강신항(1985),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제2호(1985. 6.), 23-36.
-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 문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4-24.
- 강신항(1995),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27-60.
-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23-57.
- 강인선(1988), 일본의 국어 순화 정책,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08-114.
- 고성환(1998), 신문·잡지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81-101.
-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근(2000),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 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제25집, 5-21.
- 구본관·이혜영(2002),《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 보고서.
- 김계곤(1988), 국어 순화의 방향 잡기,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19-120.
- 김문오(2011),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 국립국어원.
- 김민수(1973),《국어정책론》, 탑出版社.
- 김민수(1979), 외래어 표기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국어 순화 교육》,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13.
- 김석득(1984), 국어 순화에 대한 근원적 문제와 해결책, 《국어 순화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석향(2005),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59-74.
-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사회언어학》 제17권 제2호, 1-23.
- 김세중(1992), 신문 광고와 외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50-64.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5-19.
- 김중서(1985), 외래어 동어 이표기: 자료(영어), 《국어생활》 제2호(1985. 6.), 58-64.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새국어생활》제15권 제1호(봄 호), 국립국어원, 19-35.
- 김하수(2005), 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19-35.
- 남광우(1977), 국어순화운동의 실천방안, 민족문화연구 제11집, 155-179.
- 남영신(2000), 국어 순화 정책 방향 모색,《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문진흥회, 83-100.
- 노연숙(2007),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 《한국문화》 40, 59-99.
- 민현식(2002),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5-251.
- 박갑수(1976), 국어 순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국어교육》 2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61-69.
- 박갑수(1977), 국어 순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어문연구》5권 2-3호, 30-33.
- 박갑수(1979), 국어 순화의 이론과 방법, 《국어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갑수(1992), 방송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97-114.

- 박갑수(1995), 언어 규범으로서의 방송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1995. 겨울), 89-115.
- 박갑천(1985),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수용 태도, 《국어생활》 제2호(1985. 6.), 37-42.
- 박덕유(2007), 한국어가 소멸된다고?, 프레시안.
- 박덕유(2008),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의식변화 고찰, 《새국어교육》 8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515-544.
- 박덕유(2010), 지하철 광고 언어의 오용 실태와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433-453.
- 박덕유(2011), 젊은이들의 신조어 실태와 문제점, 《인천저널》 39호, 인천언론인클럽.
- 박덕유(2013), “국어문화원 활성화 방안 연구”, 국어문화원과 언론사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 쓰기 방안 모색 발표자료집.
- 박용찬(2005),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37-57.
- 박용찬(2007), 새로운 방식의 외래어 순화, 《어문연구》13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55-481.
- 박용찬(2010),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새국어생활》제20권 제4호(겨울호), 국립국어원, 127-145.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제21권 제2호(여름), 국립국어원, 19-59.
- 박재양(1995), 신문.방송 분야에 쓰인 일본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26-147.
- 박창원(2005), 남북한 공동 언어 순화(1)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순화의 원칙 정립을 위하여, 《Korean 연구와 교육》창간호, 209-233.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59-102.
- 서정수(1988), 서구 외래말의 문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35-44.
- 서정수.우인혜(1995),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어휘,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61-86.
- 송 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25-34.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21-40.
- 안병희(2000), 국어 문제와 국어 정책,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12.
- 유만근(1985), 다른 나라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 《국어생활》 제2호(1985. 6.), 44-54.
- 유재원(2004),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103-116.
- 이기문(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의 문제, 《어문연구》4권 2호, 175-179.
- 이남호(2005), 국어 순화는 풍요가 되어야 한다,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2005. 봄), 89-101.
- 이병찬(1988), 독일의 국어 순화 운동,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94-101.
- 이선영(1998), 상호.상표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103-119.
-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41-59.
- 이은정(1989), 국어 순화 운동의 반성, 《새국어교육》45-1, 184-188.
- 이응백(1999), 어문운동의 금후 과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강연 자료집.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1998. 여름), 61-79.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제11권 제2호, 187-214.

이주행(1992), 신문.잡지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2호(1992. 여름), 81-96.

임흥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정 광(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87-107.

정운종(1988), 국어 순화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122-124.

정재도(1995), 생활 속에 남은 일본 말,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1995. 여름), 176-207.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 여름), 5-22.

최규일(1995),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제5권 제4호(1995. 겨울), 116-162.

최용기(2002), 광복 이후 외래어 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321-333.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한국교열기자회 편(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허웅(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11, 125-153.

허재영(2002), 어문 정책 및 어문 운동의 개념과 대상, 《겨레어문학》제29집, 201-223.

허철구(1999), 《국어 순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84-112.

황찬호(1988), 외국어식 구문, 《국어생활》 제14호(1988. 가을), 45-58.

- 세종학당재단 <http://www.ksif.or.kr>
-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 독일어연합회(VDS, Verein Deutsche Sprache) <http://www.vds-ev.de/startseite>
- 쉬운 영어 쓰기 운동 본부(PEC, Plain English Campaign Center)
<http://www.plainenglish.co.uk>
-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PLAIN) <http://www.plainlanguage.gov/>
-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
- 스웨덴 언어위원회(The Language Council of Sweden) <http://www.sprakradet.se>
- 핀란드 언어원(KOTUS, Kotimaisten kielten keskus) <http://www.kotus.fi>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토론

김 성 규 (서울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 민족이란 무엇일까? 문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떠할까 등.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민족이나 문화의 개념 안에 언어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그 자체가 국어학을 넘어서는 별도의 주제이기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에 한정하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 대한 제 생각을 토로하고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언어문화개선 운동은 많은 부분 효과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거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될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졌던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언어 순화 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황화상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나와 있지만 언어문화의 개선은 ‘언어는 오염될 수 있고, 오염된 언어는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문화의 다른 현상으로 눈을 돌려서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풍이거나 저항적이거나 퇴폐적이라고 ‘판정된’ 노래들은 금지곡의 목록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노골적인 성 표현을 드러내는 영화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성인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권위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국어의 문제로 돌아 오겠습니다.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금지를 시켜야 하는가, 왜 금지를 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오염 정도의 판단은 누가 하는가?” 언어 문제의 경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는 ‘오염’에 대한 치유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순화되지 않은 언어표현 등을 지도의 대상, 수정의 대상, 고쳐야 할 대

상으로 전제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의 대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지, ‘우리’와 ‘그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룰 때 언어문화개선 운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과 같이 언어문화개선을 주제로 하는 토론의 결론은 대개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를 ‘그들’에게 들어보고,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의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하게 파악했을 때, 즉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치유의 방향으로 가는 처방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황화상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방법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동안 언어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도, 우리의 언어 환경이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성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 보존하면서 오염되지 않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다문화로 변하는 사회, 서로 다른 언어 세계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언어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어 사회에서 공유하며 기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황화상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기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이론도 좋고, 언어와 문화, 환경을 연결 짓는 이론도 좋습니다. 아니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므로 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이론에 기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황화상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어문화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남 영 신(국어문화운동본부)

최혜원 선생님께서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한 폭넓은 현황 설명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면의 실천적 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언어문화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참고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합니다.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 질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순히 낱말 순화 차원이나 어문 규정 지키기 차원에서 문화 현상으로서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걸맞게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방향의 언어문화 개선 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여러 부문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언어문화 개선 운동의 주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언어 환경을 개선해야 할 너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의 우리말 도로 찾기와 70년대 이후의 국어 순화(말 다듬기)와 한글 전용,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시작한 쉬운 말, 배려하는 표현, 권리로서의 언어 운동으로 운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지만 우리말 도로 찾기는 영어 범람의 문제에 가로막히고, 국어 순화는 거친 막말 범람으로 가로막히고, 한글 전용은 이미 끝났다고 보았지만 새롭게 한자 숭배 세력이 한자 교육 강화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로서의 언어 운동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어에 빼앗긴 한국어를 되찾는 운동을 해야 하고, 틀린 언어 사용이나 거칠고 저속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를 문제 삼고 지적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운동이 아직 고급한 문화운동(?)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언어 운동은 언어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하고 참된 의사소통으로 운동의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신 것이나, “국어 순화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의 정밀화에 국한한 이전의 국어 운동보다 언어를 문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어휘 차원이 아닌 문장과 담화 차원의 언어문화 개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은 언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문화의 현실을 진단하시면서 “①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②품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언어 ③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인터넷 언어폭력 ④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의 네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예로 드신 것도 우리 국어 단체들이 끊임없이 지적하여 온 것이어서 우리 언어문

화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우리 언어문화를 진단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언어문화의 현실에 두 가지를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어에 대한 환상과 이를 조장하는 교육부, 대학, 대기업, 지식인, 학부모의 언어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둘째는 국가의 모국어 보호와 발전을 위한 의지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자는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른바 글로벌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해서 영어 몰입 교육을 부추기고, 기업은 영어 능력자를 우대하고, 대학은 영어 전공 강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 논문을 우대하고 한국어 논문을 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지식인은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학부모는 자식의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 유학은 물론이고 자식의 혀를 수술이라도 해 주려 하는 실정인데 이런 언어문화를 그대로 두고 언어문화 개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의무 가운데 국가를 외국의 침략에서 지키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지키는 것으로 구현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호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어떠한 효과적인 정책도 내놓은 바 없습니다. 비록 국어기본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법조차도 실효성은 물론이고 정부부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문화가 단순히 공문서 쉽게 쓰기, 방송언어 품위 유지, 인터넷 언어 바르게 쓰기, 청소년 좋은 말 쓰기 같은 운동만으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두 가지가 우리 언어문화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 최혜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제시하시면서 “①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②흥미를 넘는 품격 있는 언어사용 의식운동 통한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③존경과 배려의 가치 알려주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청소년 언어’ 개선”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체가 그렇게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보도 자료 평가를 하면서 각 부처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미약하고, 국립국어원 외의 다른 기관이 ①번 ②번 ③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운동 단체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방법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 국어단체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할 구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게 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다시 단순하게 드린다면 언어문화를 개선해야 할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각 기관에게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언어문화 운동사’에 대하여

김 유 정(고려대)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행해져 온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북한을 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문화 운동을 돌아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국어 순화 운동(말 다듬기 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있는 말부터 바꿀 것인가? 새로 들어온 말부터 바꾸어 내보낼 것인가?

논문에도 언급된 이윤표(1991:55)의 내용과 같이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잘 이용하는 데는 양적으로 보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에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 국어 순화 운동은 언어의 ‘사회성(불역성)’과 ‘역사성(가역성)’을 동시에 다루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역사성을 지닌 말을 다듬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언중들의 약속에 새로운 약속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과 우리말의 순화어 등이 이러한 방향으로 언어문화 운동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국가 주도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언중’들이 가지는 언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오래되었고 타율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이 약속된 것인지도 모른 채 언중들에게 파고들어가는 것이 신조어들이고, 그 후 얼마간의 시간 동안 언중들에게 약속처럼 여겨지며 사용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와 외국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고 있는 말들, 혹은 이미 얼마간 사용되고 있는 말들을 고쳐가는 것이 더 먼저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말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내보내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에서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의 1만 2천여 개 중 어떤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언중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60여 년 간 이루어진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의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 운동의 방향을 잡아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2. 언어문화 운동 목표의 실천 방향에 대하여:

‘언어 평등’과 ‘언어 민주화’는 위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께서서는 언어문화 운동이 목표를 새롭게 ‘언어 평등’ 또는 ‘언어 민주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자료 이정복(2008:46)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전면적이고 강력한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 (이정복 2008:46)

- 가. 한민족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성(疏通性)을 높임으로써 언어적 계층 차이를 줄이고,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외래어 순화가 필요하다.
- 나. 우월한 지위의 외국과 교류가 많고, 그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외래어를 퍼트리고 애용하는 역할을 한다.
- 다. 외국과의 접촉 기회가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대다수의 화자들은 외래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언어적으로 하위 계층에 머물게 된다.
- 라.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의 경우에도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이 크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경우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다 다른 외국말까지 익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 마. 이러한 차이와 언어적 장벽이 사라지는 언어 평등화와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씌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라면 ‘언어적 상위 계층:하위 계층’, ‘한국인: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들’로 나뉘는 언어 사용자 집단이 하나의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날까지 언어문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언어에서 시작되어 한국 사회 자체가 ‘평등’하고 ‘민주화’된 문화를 지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요원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걸리는 문제는 ‘언어 평등’과 ‘언어 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이라는 약간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계몽 정책이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후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언어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정치적 평등과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언어 평등’과 ‘언어 민주화’ 역시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언중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면적이고 강력한’은 ‘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논문에 언급하신 김선철(2009:19)는 “언어 사용은 일종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이행하는 것이지, 타인이 강요한다고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와 정유진(1997:122) “수만 개나 되는 다듬은 말을 학습하여 언어사용에서 생활화하는 일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이 주장하듯이 양방향의 운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구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한 토론문

이 찬 성 (선플운동본부)

이 논문에서는 국어순화의 개념과 역사, 필요성과 실천방안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노력들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방송 및 인터넷 언어 개선운동이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이 일으키는 언어파괴의 문제들을 지적해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논문에서 언어파괴를 왜 막아야 하는지, 그 심각성은 무엇인지 하는 원인분석과 대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언어문화

한국에서는 1994년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초고속 통신망과 고성능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세계1위,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정부정책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사이버 언어문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기 연예인을 둘러싼 괴소문과 유언비어 재생산, 정보 과잉에 의한 카더라식 통신, 광우병에서 비롯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게시 글과 동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사회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악성댓글은 가히 테러수준입니다.

특히, 악성댓글(악플)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언어 파괴

“너 어제 엄청 깨졌다며? 지못미.”

“ㄴㄴ(니은니은).”

“어제 뉴스 봤어? 찼더라.”

“레알 넘사벽을 실감했지.”

인터넷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띄지만,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이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의 줄임말이고 ‘ㄴㄴ’은 ‘NoNo’의 줄임말이다. ‘찼다’는 ‘완전히 좋다’, ‘레알’은 ‘real’을 철자대로 읽은 말,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을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소위 통신상에서 새로 생긴 ‘외계어’들이다.

초등학교 3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이지현씨(가명·38·여)는 “아이들의 일기장을 ‘해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언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일기를 누가 읽을까봐 암호로 쓴 줄 알았다"면서 "일기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좀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녀는 "통신언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린투데이 2010.5.28., 정책기자 강윤지 -

이 기사는 사이버 언어파괴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어파괴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컴퓨터 통신의 여러 형태 중, 대화(채팅)방과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전자편지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나타나는 통신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휘적 특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언어 파괴의 문제점은 내용상의 문제로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검열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 '비속한 표현'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형식상의 문제는 일상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무시되며, 네티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 진다는 점입니다.

언어 파괴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고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겨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법의 혼란 및 문법 파괴로 올바른 언어사용에 혼돈을 유발합니다.

언어 파괴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안에는 기술적 방법, 교육적 방법, 법적·윤리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방법은 언어 파괴 현상을 웹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법인데, 통신언어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 비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면 경고문을 사용하거나 다른 말로 자동 번역하고 타인에 의해 신고기능을 설치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적 대처방법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하여 표준어법의 언어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 이외에 통신 언어와 표준어법을 비교하는 지도적 방법입니다. 또한 컴퓨터 교육 초기 단계에서 바른 문장을 통한 자판 익히기를 중점 지도해야 합니다. 기계 조작법 위주의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통신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바른 언어 사용도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적·윤리적 방법으로 언어 파괴 현상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윤리적 의식 강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심각한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정과 시민 사회 영역에서의 노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3. 사이버 언어폭력 (악플)

악플은 게시물에 대한 근거 없는 감정적 비난을 격화된 언어로 표현한 인터넷상의 답글을 의미하며, 직접적 악플 (욕설과 폭언, 모욕이나 비난)과 간접적 악플 (조소나 비꼼, 냉소, 유언비어, 신상 털기) 등 부정적 감정의 언어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익명성을 띤 악플은 소리 없는 총으로, 이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중에 사생활이 공개되기 쉽고 또한 명예와 인격적 존중을 생명으로 여기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근거 없는 악플은 더욱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잘 알려진 예로 2007년에는 젊은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감량한 어느 여고생이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지나친 악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08년에 들어와서도 식물인간의 상태로 8년간 투병중인 야구선수에 대해서 악플이 달렸고 심지어는 유괴된 어린이에게 까지 악플이 달렸습니다.

또한 국민배우로 일컬어지던 여배우의 자살을 포함하여 2008년 9월 이후 악플로 인해 고통 받던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확산된 악플에 괴로워하던 모 아나운서의 자살을 두고 ‘SNS에 의한 타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루머와 악플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서울의 모 학교에서 여학생이 카톡 왕따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등 SNS상의 청소년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응한 선플운동

선플운동은 인터넷 악성댓글(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달아주자는 운동입니다. 선플달기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하고, 또 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선플달기운동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운동인 동시에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입니다.

인터넷 상에 악플이 한참 올라가다가도, 선플이 달리게 되면,

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면서, ‘그래요’, ‘그렇군요’라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악플 일색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나. 악플 숫자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 선플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네티즌들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을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해 줍니다.

라. 이로 인해 악플이 주도하는 댓글 문화를 건전한 토론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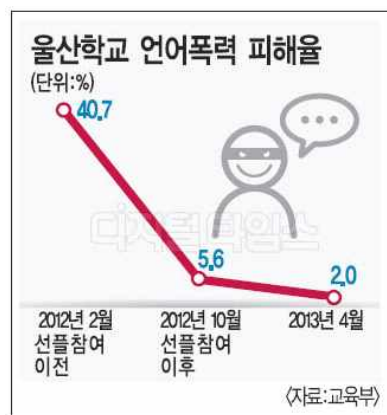
2012년 하반기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선플운동을 도입했던 울산교육청에서는 언어폭력 피해율이 선플달기운동을 시작하기 前 1차 조사 시 (‘12년 2월) 40.7%에서 선플달기운동을 한 이후 ‘12. 10월에는 5.6%, ‘13. 4월에는 2.0%로 감소되었으며, 선플달기 실시 이후 신체폭행 발생건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선

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경찰서와 공동으로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한 1,408명 (남625,여783)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플달기가 본인의 언어순화와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선플달기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아 선플달기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2011년 선플달기에 참여한 학생 1,081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표본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5\%$) 선플달기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비속어 사용이 감소하고 논술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2008년에 선플운동 참가자 64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선플활동을 하기 전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는 학생은 25.2%였고, 선플활동을 한 후 악플을 쓰는 학생은 3.1%로 악플을 쓰는 학생이 크게 감소하여 선플활동이 인터넷상의 건전한 언어습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실효를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울산교육청 선플운동 참여 전후
언어폭력피해율 변화 그래프**

제 2 분 과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김 석 회 (인하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서 인 석 (영남대)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송 회 복 (진주교대)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임 명 진 (전북대)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에 대한 토론문
조 광 국 (충남대)

한국 현대문학과 생태비평에 관한 질문들
송 기 섭 (충남대)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김 석 회(인하대)

1. 서언
2. 문중신화에 이끌린 오해와 왜곡
3. 상호참조에 의한 맥락의 뒤엎힘
4. 문명변동에 따른 이해지평의 소실
5. 결어

1.

모든 발화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도 발화의 한 형태로서, 이 맥락의 문제가 훨씬 더 다층적이다.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장르의 관습에 따른 중층화가 불가피한데다, 시대와 사회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맥락 속에 놓인 발화인지를 파악해 내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전 읽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석을 위한 사전준비가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해석상의 무리나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본고는 이러한 오류의 사례들을 필자의 섭렵 범위 안에서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례는 학술대회 현장에서의 발표요지나 학술지 수록 논문, 학위 심사용 논문이나 학위 논문, 공간된 일반 간행물 등이다.

본고의 의도는 고전 읽기의 정밀화 세련화를 위한 반성적 성찰을 얻는 데 있다. 어느 특정인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심탄회한 태도와 평명한 심경으로 썼다. 그렇게 읽혀지기를 희망하고, 고전읽기의 실제에서도 반성적 성찰의 거울로서 참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

우리 고전문학 작품은 조상들과 연관된 것이라서, 어떤 자료는 특정 가문에서 신성시되는 경우가 있고 가문의 구비 전승과 함께 유전(遺傳)해 오면서 미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가문의 후손들은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상 미화를 위하여 건강부회(牽強附會)를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자료는 문중에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야 공개되는 자료도 있어 문중은 고전문학 새 자료의 보고이기도 한데, 이들 자료 또한 이러한 문중신화에 감염된 해석이 많아 자료 이용에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살펴볼 자료는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옹(翁)이 번역 간행한 『도헌유고(道軒遺稿)』¹⁾ 속에 있는 <산중한화(山中閒話) 병서(并序)>와 관련 부기(附記)다. <산중한화(山中閒話)>는 석계(石溪) 김경행(金綱行)의 읍시 두 편과 그 원운(原韻)이 되는 아내의 읍시 두 편인데, 여기에 이들 수창(酬唱)이 탄생한 사연을 진술한 긴 <병서(并序)>가 붙어 있다. 서문이 이리 장황하게 늘어진 이유는 김경행 자신의 자전적인 서술이나 자기변명이 첨부된 탓이다. 그리고 부기(附記)는 김경행의 삼종손인 도헌(道軒) 김운순(金雲淳: 1798 ~ 1870)이 <산중한화(山中閒話) 병서(并序)>를 자기의 문집에 옮기는 소이(所以)를 밝힌 것이다. 글과 시에 관한 소개와 논평, 김경행이란 분의 인품과 행적 등을 간단하게 적고, 김운순 자신의 감회와 후손들에 대한 당부를 덧붙였다. 해석상의 오류는 두 쌍의 읍시인 <산중한화>의 번역에서부터 출발하여 <부기>의 번역, 주석에 이르러 결정적인 왜곡이 빚어졌다. 먼저 수창시 <산중한화>가 시작된 대목부터 <부기>가 끝나는 대목까지의 원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心盟偕老更無思 親愛長同結髮時 弊布殘盂多劇戲 寒宵永日耐相離
才堪爲婦君何患 仁未推恩我獨悲 常恐餘生交作怨 百年還有一朝辭

(原韻) 資冬旨畜不遑思 三日廚空洗手時 德輝齊眉猶勉強 小君提瓮太支離
青春遠別頻成恨 白首輞飢倍覺悲 泣盡平生還自笑 從人義重死無辭

心或然疑口敢爭 恐彰人過潔其名 請看家室貧無怨 何患齊梁道不行
免作妬妻生可樂 忍爲賢配死猶榮 餘輝笑指啣山日 半是新情半舊情

(原韻) 神交於古孰能爭 夫婦平居是強名 挈瓮每愁新井凍 停梭幾憶遠人行
閨闈一德終無間 衽席同歡與有榮 生死若教先後異 兩家方見沒心情

此詩此序, 乃是清風綾絳洞, 諱褻(*褻을 지우고 행간에 “綱?”으로 교정함)行氏, 號石溪公, 於吾爲三從祖, 而與三從祖母, 相酬而所著者也. 派分則吾之五世祖碧梧堂, 諱壽徵季子, 諱昌吉氏之孫也, 而先生, 生而慧知, 四歲能成善詩, 十歲能文章, 然則連爲四世文章, 而其弟紹行氏亦文章(*章의 옆에 행간을 이용하여 “稱”을 보충함), 晚(*晚의 옆 약간 위쪽에 행간을 이용하여 “公”을 보충함)來, 爲人懇請, 所著之表(*행간에 “於世”를 보충함), 不得已作香娘傳外書一卷, 而此則是半晌援筆呼之者, 而世之在朝文士, 亦許大文章, 又使行, 以示中國人, 則當時擅名文章者, 覽即驚歎 稱以天下文章, 因給銀三百價而買去云. 壽當九十四歲, 已蒙天爵而已, 平生貧窮焉. 先生則孝且篤於道, 然以幣布麤履行於世, 而嘲弄一世役榮者, 人莫敢辭色而咸服其刺之正. 壽至六十餘, 無聞於世而終於巖穴矣. 吾十二歲, 先生委臨, 故以此承顏則至今思像, 身長幾八尺餘, 貌亦魁偉, 聲且雄壯. 且聞堂內父兄所傳, 則勇力絕人, 人不知其然. 今見其序, 則可知其三從大母之貞淑之德. 其文章, 有抑揚反覆之變態, 則以其篤於學, 寧有過情之辭. 有先生而有斯賢耦, 而因泯滅無聞, 子孫亦不繁, 而貧無以支, 思亦難誑. 余有所感而謄錄, 遂爲之記, 以示後裔之知如此以效感焉. 戊午陽月, 三從孫雲淳, 不覺嗟歎 悲感極云耳.

1) 金碩鎭 譯, 『道軒遺稿』, 1996. 私家版 비매품으로 발간되었다. 표지 아래 “安東金氏道軒公家集”이라 적었는데, 道軒은 金雲淳(1798 ~ 1870)의 호로서 金碩鎭(1928-) 翁의 高祖가 되는 분인데, “家集”이라 副題한 대로 道軒의 글 이외에도 여러 글들이 같이 묶인 형태다.

夫老更狂耳心盟僧老更無思親愛長同結髮時弊布殘盂多劇戲寒宵永日耐相
誰才堪為婦君何患仁未推恩我獨悲帝恐餘生交作惡百年還有一朝辭

原韻

資冬旨畜不遑思三日厨空洗手時德耀齊眉猶勉強小君提瓮太支
難青春遠別頻成恨白首輞飢倍覺悲泣盡平生還自笑從人義重死無辭
心或然疑口敢爭慙彰人過潔其名請看家室貧無怨何患齊梁道不行免作如
妻生可樂思為賢配死猶榮餘輝笑指啣山日半是新半舊情

原韻

神交於古孰能爭夫婦平居是強名挈尾每愁新井凍停梭幾憶遠人
行閨闈一德終無間衽席同歡與有榮生死若教先後異兩家方見沒心
情

此序此詩乃是清風綾綺洞諱綴行氏号石溪公於吾為三從祖而與三從祖母相酬
而所著者也派分則吾之五世祖碧梧堂諱壽徵季子諱昌吉氏孫也而先生之
慧知四歲能成善詩十歲能文章然則連為世文章而其第紹行氏文章

이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백년해로 맹세하고 다른 생각 없었으니
서로가 친애함은 첫날밤과 다름이 없네
헤어진 낡은 치마 조롱도 많이 당하고
추운 밤 긴 날에 잦은 이별 많이 참아 왔지.
이제 아내를 위하여 근심한들 무엇하나
그 은정 생각지 못하는 내 마음 구슬프네
항시 남은 생애 원망 지을까 두려워하다
백년 살아온 일 하루아침에 말로 다하네

(원운)

겨우살이 대비하여 겨름이 없으니
사흘은 부엌에서 세수하는 매일세
덕유는 서당에서 공부에 힘을 쓰고
아내는 김치 독을 질질 끌고 있다네
청춘 때는 멀리 떠나 외롭게 해주고
흰머리 늙어서는 배를 꿇게 했다네
올다 지친 내 평생 도리어 웃어주고
남편 따라 지킨 의리 죽은들 잊으랴.

마음은 그럴지라도 입으로 다투지 않고
남의 허물 감춰주고 이름을 깨끗이 했네
집안이 가난하여도 원망이란 없었거늘
어찌 제 나라에 도를 못 펴 근심하리오.
아내를 즐겁게 살도록 해주지 못했으나
참고 살은 어진 배필 죽어서도 못 잊으리
남은 정 새로워라 뜨는 해와 같으니
반쯤 새로 정이 솟고 반은 아직 옛 정일세

(원운)

신이 맺어준 인연을 누가 다투랴
부부라 살도록 이름 지어 주었네
물 향아리 몇 번이나 얼어붙고
베 짜면서 내 생각은 얼마나 했나.
한결같은 그 덕은 끝내 틈이 없고
자리 위에 나눈 기쁨 영광이었네
생사의 선후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에 이 십정만은 없었을 것을

이 서문과 시는 청풍 능강동에 사신 소행(紹行) 씨 호 석계공(石溪)께서 내게로는 삼종조(三從祖)가 되시는데 삼종조모와 더불어 내외분이 산중에 은거하시며 서로 수작하면서 산중한화(山中閒話)란 제목으로 지으신 글이다. 종파를 따져보면 내 오대조 벽오당(적성공)의 칠형제 중 끝에 아드님 창길(昌吉) 씨의 손자이시다. 날 때부터 총명하여 네 살에 시를 잘 짓고 열 살에 이미 문장이 되었다. 그러니 사대가 문장인데다 그 형님 경행(綱行) 씨 또한 문장이다. 석계공께서 늦게 사람의 간청에 못 이겨 향랑전(香娘傳)이라 하는 소설 한 권을 지으셨는데 반나절에 붓을 들고 부르며 지어쓰셨다.

그 당시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선비들이 이 저서를 큰 문장이라 일컬었으며, 마침 중국에 가는 사신이 이 저서를 가지고 가서 중국 사람에게 보이니 중국에서 이렇다 하는 문장 대개들이 보고는 천하 문장이라 경탄하면서 은전 300량을 주고 사 갔다. 수는 구십 오세를 사셨으니 천작(天爵)이라고 하는 수는 받았으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 선생께서는 부모에게 효행은 물론이요, 도에도 돈독하셨다. 헤어진 벼웃에 추한 신을 신고 세상을

떠돌며 부귀 영화에 얽매어 사는 자들을 조롱하셨으니 누구 하나 감히 상대를 하지 못하고 모두 그 비난하는 말에 복종하였다. 욕심여 세가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바위틈 굴속에서 세상을 마치고 있다. 내 나이 열 둘에 마침 선생께서 오시어 뵙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장이 8척 남짓 되고 비범하게 생기셨으며, 소리 또한 웅장하였다. 집안 어른들께 듣자오면 용맹과 힘이 뛰어나 누구도 그 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선생께서 지으신 서문을 보면 선생의 배위(配位)이신 삼종조모께서도 정숙한 덕과 억양 반복하고 변화무쌍한 법도와 행실이 선생과 같아 군자와 숙녀의 어진 배필이시다. 그런데 이름이 묻히고 전해지지 못했으며, 자손도 번성하지 못하고 가난하여 높으신 덕을 계승하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 내 느끼는 바가 있어 그 서문을 베껴다 이 책에 기록하여 후손에게 보여 주어 선조의 이룩하신 분이 있었다 함을 알게 하고 또 본받게 하는 것이다.

무오년 시월에 삼종손 운순은 감애와 비탄을 이기지 못하며 적다.

수창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주보는 짝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그 대응양상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번역된 것 같다. 원운은 대체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이해하고 거의 홀로 가정을 꾸리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뎌온 부인의 감회와, 60이 넘어서야 돌아온 남편에게 던지는 당부와 다짐이라 할 수 있다. 석계 자신이 수창한 화답시는 대체로, 이러한 아내의 술회에 대한 위로와 남편 노릇을 못한 것에 대한 추회(追悔), 그리고 한사(寒士)로서의 자의식이 그 주조(主調)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번역문에는 그러한 대응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다.²⁾

<부기>의 경우는, 밑줄 그은 대목에서 보듯, 명백한 주어 바꿔치기가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은 탓인지 전반적으로 주어-술어의 대응관계가 모호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주어가 달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 글을 분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此詩此序, 乃是清風綾絳洞, 諱褻(*綱)行氏, 號石溪公, 於吾爲三從祖, 而與三從祖母, 相酬而所著者也.

- 2)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목을 적시한다면, 우선 수창시 제1수의 후반부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才堪爲婦君何患 仁未推恩我獨悲 常恐餘生交作怨 百年還有一朝辭”를 “이제 아내를 위하여 근심한들 무엇하나/ 그 은정 생각지 못하는 내 마음 구슬프네/ 항시 남은 생애 원망 지을까 두려워하다/ 백년 살아온 일 하루아침에 말로 다하네”로 옮겼는데, “재주가 넉넉하여 아내구실 충분하니 그대 무슨 걱정이리오마는/ 인애함이 그대 은혜 못 따르니 나만 홀로 슬프도다/ 늘 두렵기는 여생을 서로 원망만 하다가/ 인생 백년 하루아침에 하직함일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원운의 뜻이 만년에야 등지에 드는 남편에게 쏟아낸 서러운 하소연과 푸념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수창은 아내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평생 두고 들어야 할 원망에 대한 염려를 표백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수창시 제2수의 번역도 맥락이 모호하다. 함련 “請看家室貧無怨 何患齊梁道不行”도 아내를 다독이는 뜻으로 번역될 필요가 있고, 경련 “免作妬妻生可樂 忍爲賢配死猶榮”도 아내에게 대한 당부를 담은 격려로 옮겨야 맥락에 맞을 것 같다. “투기하는 아내 됄을 면했으니 살아서의 즐거움이요/ 참음으로 어진 배필 되었으니 죽어서도 영예로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아내가 던진 제2수는 번역 전체가 잘못된 것 같다. 특히 “부부라 살도록 이름 지어 주었네” “베 짜면서 내 생각은 얼마나 했나.” “생사의 선후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에 이 심정만은 없었을 것을” 같은 대목은 탈맥락적이다. “夫婦平居是強名”은 “부부가 평생 함께 한다면은 그저 이름뿐이었네” 정도일 듯하고, “停梭幾憶遠人行”은 “베틀에 앉아서도 북을 멈추고 멀리 떠도는 당신 그리워했다네” 정도로, “生死若教先後異 兩家方見沒心情”은 “살고 죽는 것마저 선후를 달리한다면 서로가 심정이 말이 아니겠지요” 정도로 옮겨야 좋을 것이다. 안동김씨 세도가의 뛰어난 인재였지만 서얼의 굴레 속에서 평생을 떠돈 남편에게, 이제부터 부부답게 살아보자는 당부요 해로(偕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다.

㉔ 派分則吾之五世祖碧梧堂，諱壽徵季子，諱昌吉氏之孫也，而先生，生而慧知，四歲能成善詩，十歲能文章，然則連爲四世文章，

㉕ 而其弟紹行氏亦文章(*稱)，(*公)晚來，爲人懇請 所著之表(*於世)，不得已作香娘傳外書一卷，而此則是半晌援筆呼之者，而世之在朝文士，亦許大文章，又使行，以示中國人，則當時擅名文章者，覽即驚歎，稱以天下文章，因給銀三百價而買去云。壽當九十四歲，已蒙天爵而已，平生貧窮焉。

㉖ 先生則孝且篤於道，然以幣布麤屨行於世，而嘲弄一世役榮者，人莫敢辭色而咸服其刺之正。壽至六十餘，無聞於世而終於巖穴矣。吾十二歲，先生委臨，故以此承顏，則至今思像，身長幾八尺餘，貌亦魁偉，聲且雄壯。且聞堂內父兄所傳，則勇力絕人，人不知其然。

㉗ 今見其序，則可知其三從大母之貞淑之德。其文章，有抑揚反覆之變態，則以其篤於學，寧有過情之辭。

㉘ 有先生而有斯賢耦，而因泯滅無聞，子孫亦不繁，而貧無以支，思亦難諶。余有所感而謄錄，遂爲之記，以示後裔之知如此以效感焉。戊午陽月，三從孫雲淳，不覺嗟歎悲感極云耳。

결국 이 글은 석계 김경행에 관한 서술 속에 아우(㉔)와 배우자(㉕)에 관한 서술을 곁들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번역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㉔단락과 ㉕단락의 전후 연결(連接) 부위가 특히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㉔단락의 경우에는 특히 주어 처리에 혼선을 빚은 것 같으니, 벽두의 “其弟紹行”을 “그 형님 경행씨”로 옮긴 것이나, 직후 “晚來”의 주어를 “석계공께서는”으로 번역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석계 김경행은 첫 단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先生”으로 지칭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先生”이 나오는 대목에서 주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지점이 바로 ㉕의 벽두가 되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㉔단락의 “公”은 보충의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公”을 넣어 해석을 하더라도 “紹行 公께서는”이 타당해 보인다.

㉕단락의 경우는 “지금 선생께서 지으신 서문을 보면 선생의 배위(配位)이신 삼종조모께서도 정숙한 덕과 억양 반복하고 변화무쌍한 법도와 행실이 선생과 같아 군자와 숙녀의 어진 배필이시다”로 옮기고 있는데, 원문과 번역문 사이 통사적 대응이 어긋나 있다. 직역을 한다면 “이제 그 서를 본즉 삼종대모의 정숙한 덕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 문장이 억양 반복의 변화하는 태세가 있으니, 학문에 돈독하셨다 해서 어찌 실정에 지나치는 말이 되겠는가!” 정도가 될 것이다. 삼종조모의 덕과 문장과 학문을 독립적으로 서술해 두고, 후속하는 귀결단락 ㉕에서 “有斯賢耦”로 집약하는 구조인 셈이다. “有先生而有斯賢耦”는 귀결단락 ㉕의 주어로 삼는 것이 마땅한데 ㉕의 술어처럼 옮겨져 있다.

후속 “而因泯滅無聞，子孫亦不繁，而貧無以支，思亦難諶.”의 경우도 “(군자와 숙녀의 어진 배필이시다.) 그런데 이름이 묻히고 전해지지 못했으며, 자손도 번성하지 못하고 가난하여 높으신 덕을 계승하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로 옮기고 있으나, “有先生而有斯賢耦”를 주어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 단락으로 잡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게 두면 이 대목의 번역은 “선생 같은 이가 계시고 또 이처럼 어진 배필이 계셨음에도 자취가 다 없어져 아는 이가 없고, 자손 또한 번성치 못하는데다 가난하여 버티지를 못하고 있으니, 헤아려 보매 또한 천명(天命)은 믿기가 어렵도다!”³⁾ 정도가 될 것이다. 이상의 수정 사항과 번역문을 종합하여 이 부기(附記)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 <산중한화> 및 그 <병서>의 작자 석계 김경행 소개.
- ㉡ 석계의 파분(派分) 및 사대문장(四代文章)의 문한(文翰) 전통에 관한 기술.
- ㉢ 석계의 아우 김소행의 문장 명성과 <삼한습유> 제작 및 관련 일화 소개.
- ㉣ 석계의 행적, 생평, 인물상(人物像)의 특징적 국면들에 관한 전언 및 관찰 내용 기술.
- ㉤ 석계의 배우자의 덕과 문장에 관한 기술.
- ㉥ 석계 유적의 인멸 및 후손 영락을 개탄하고, <산중한화> 수창시(酬唱詩)와 그 <병서>를 등록(謄錄)해 두는 이유를 밝힘.

이상에 보이고 추론한 바와 같이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는 번역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텍스트의 변개(變改)가 확인된다. 원본을 영인하여 첨부해 두었으니 변개의 양상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번역문에서 중대한 바뀌치기 내지 맥락 혼돈이나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분명 “諱(諱)行氏 號石溪公 於吾爲三從祖”임에도 “소행(紹行) 씨 호 석계공(石溪)께서 내게로는 삼종조(三從祖)가 되시는데”로 번역한 것이나, “然則連爲四世文章, 而其弟紹行氏亦文章(*稱), (*公)晚來, 爲人懇請 所著之表(*於世), 不得已作香娘傳外書一卷”을 “그러니 사대가 문장인데다 그 형님 경행(綱行) 씨 또한 문장이다. 석계공께서 늦게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향랑전(香娘傳)이라 하는 소설 한 권을 지으셨는데”로 옮긴 것은 바뀌치기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석계(石溪)와 죽계(竹溪) 사이의 넘나들이다.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하나 해 둘 필요가 있다. 석계(石溪) 김경행(金綱行)과 죽계(竹溪) 김소행(金紹行; 1765 ~ 1859)은 안동김씨의 서손(庶孫) 형제로서 충청도의 청풍에 세거(世居)했던 일족인데, 비록 지방 출신의 서손이었지만 탁월한 문장 실력을 바탕으로 중앙의 요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 두 천재(天才)는 서손의 명에 아래서 평생 불우하여 후손의 영락과 함께 그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 인멸되고, 동시대를 살았던 기라성 같은 문사(文士)들의 문집 속이나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 ~ 1842) 형제를 비롯하여 19세기 전후를 살았던 별열 인사들과의 교류 속에, 하나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셈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형인 경행이 더 중시(重視)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는 경세가(經世家)로서의 풍모까지 지닌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호가 바로 석계(石溪)였고, <산중한화>

3) “思亦難謹”은 『尙書』 <咸有一德>에 나오는 “天難諶 命靡常”을 따서 쓴 것 같다. “하늘은 믿고만 있기 어렵고, 명이란 것도 일정하지를 앎기” 때문에 오직 덕을 닦아 나라의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咸有一德> 편的主旨여서, 이 글의 “思亦難謹”이 놓인 문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咸有一德>의 문맥도 ‘구주를 다 차지했던 夏나라의 멸망(九有以亡)’이 믿기지 않는 사실임을 喚起하는 문맥이어서, 도헌은 이로부터 ‘도저히 믿기지를 앎는다’는 의미를 따오고, 아울러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후손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

수창(酬唱)이며 그 <병서>는 형인 김경행의 것이라 할 수 있고, 도헌 김운순의 부기(附記)에 기술되고 있는 중심인물도 당연히 석계 김경행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학 대가인 김석진 옹은 김경행을 지우고 김소행을 자꾸만 끌어들이며 맥락의 혼돈을 자초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95세를 살며 기이한 행적으로 문중 신화가 되어버린 김소행의 이미지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형인 김경행이 67세의 나이로 서거한 이후, 형의 명성과 이미지까지를 상속하며 30여년을 더 살았던 죽계 김소행은 청풍의 서손 후예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신화로 부각되었던 셈이다. 도헌의 <부기>에 이어 김석진(1928-) 옹이 붙인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 속에 김소행 관련 문중신화의 단서(端緒)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께 들으면 石溪 先生은 香娘傳뿐 아니라 永安府院君(祖淳) 宅에 까마귀 때가 난동하여 부원군의 소청으로 그 까마귀 때를 엮어맸다는 縛烏文과 오래 묵은 고양이가 집안을 시끄럽게 하여 그 고양이를 쫓아냈다는 逐猫文 등 신비한 글과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전해져 있다. 그리고 石溪(紹行) 선생은 충주에 사는 守鎭씨의 六代祖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영안부원군댁의 일화나 축묘문등이 김경행과 관련되는지 김소행과 관련되는지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석계를 계속 김소행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계를 김소행으로 오인한 것인가, 김소행을 석계로 오인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셈인데, 후자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죽계 김소행의 저작임이 명백한 『향낭전(香娘傳)』을 석계의 작품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향낭전』에 관한 기사는 앞서 살핀 도헌 김운순(1798-1869)의 <부기> 중에도 소개된 바 있다. 그리고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 1765-1832)과 죽계 김소행(1765-1859)은 안동김씨 일족의 동갑네였다. 또 김소행은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 1776-1840),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 등과 자주 어울렸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김소행은 서울의 명문거족과 교류가 많았고, 영안부원군이 된 김조순의 집에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중한화(山中閒話) 병서(并序)>는 최근에야 드러난 궁벽한 자료지만, 여러 모로 참조가치가 있는 시문이다. 명문가 서손들의 삶과 의식이 잘 드러나 있고, 불우의식(不遇意識)을 품고 떠돌이처럼 사는 그들을 평생의 반려로 받들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눈물겨운 여인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서>에서 길게 거론하고 있는 석계 김경행의 결혼관(結婚觀)도 매우 특이하여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김소행의 『향낭전』 속에 나타난 결혼관과 택서담론(擇壻談論)을 주목하여 살핀 바가 있는데,⁴⁾ 이 <산중한화(山中閒話) 병서(并序)>의 담론까지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가가 알려진 작품이 극히 희소한 고소설의 총림(叢林) 속에서 김소행의 『삼한습유(三韓拾遺)』는 작가가 뚜렷한 뿐만 아니라 작가의 소설관, 결혼관, 택서담론 등이

4)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2003.

김소행의 『香娘傳』 원제는 『삼한습유(三韓拾遺)』인데, 향랑에 관한 본격 서사를 꺼내기 이전에 김택서담론(擇壻談論)을 서두에 깔아두고 있다.

드러난 자료이고, 동시대의 문장가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1776-1840),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1774-1842) 등의 감상 비평문까지를 아울러 살필 수 있어, 소개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손(庶孫)인데다 자손들까지 현달하지 못한 탓인지, 문집은 물론 김소행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단편적이거나 김소행이나 『향낭전(香娘傳)』 관련 정보를 전하고 있는 『도헌유고(道軒遺稿)』는 고소설 연구의 소중한 자료다. 그러나 그 번역의 실상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중신화에 의한 명백한 착오와 왜곡이 있어 자료의 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송정곡>이 장씨 문중에서 장연우라는 한 개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건강 부회되는 등, 잘못된 해석이 확산되는 현상을 살피기로 한다. 이 작품은 『고려사』 <악지>에 고려의 속악 31개 중의 하나로 수록되어 있는데,⁵⁾ 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 寒松亭.

世傳, 此歌, 書於瑟底, 流至江南, 江南人, 未解其詞. 光宗朝, 國人張晉公, 奉使江南, 江南人問之, 晉公作詩解之曰, “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 哀鳴來又去, 有信一沙鷗.”⁶⁾

그런데 이 작품을 흥성장씨(興城張氏) 문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 인용하면서 장연우의 개인 작품처럼 소개하고 있다.

한송정 차가운 밤 달빛은 밝고
경포의 가을 물결 잔잔도 하네
오고가며 구슬프게 울어 나르는
한 마리의 갈매기에 소식 오려나

(…중략…) 忠肅公께서는 武臣들의 誣告로 江陵에 流配되셨을 때에 寒松亭과 鏡浦 등을 仿하시면서 애달프게 기다리는 好消息을 읊조려서 作詩하신 것을 瑟底에 東方文字로 기록하여 奉使江南하실 時 江南人問之러니 漢譯으로 作詩解之한 것으로 여겨짐이라 (…후략…) ⁷⁾

이 작품은 『동문선(東文選)』에 장연우(張延祐)의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어,⁸⁾ 후손들로

5) <동동>을 필두로 <자하동>까지 31개 노래로 고려 때 통용되던 레파터리들이다.

6) 『고려사』, 卷七十一, 志, 卷第二十五, 樂 二, 俗樂. 이 기록에서 “流至江南”의 해석에도 다소간의 쟁점이 엿보인다. 곡이 흘러들어가 전해진 것이냐, 비파가 떠내려가 전해진 것이냐 하는 것인데, 『동국여지승람』이나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비파 자체가 漂流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解詩의 결구 끝 ‘鷗’은 잘못된 글자로 보인다. 여운필 교수는 押韻과 文意에 어긋나는 글자여서 착오임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鷗’의 俗字인 ‘丘(丘+鳥)’와 字形이 비슷하여 생긴 착오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2011, pp.243-244.). 『東文選』에는 ‘鷗’로 되어 있다.

7) <高麗名臣忠肅張公詩碑>와 그 <碑陰記>(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흥성장씨 충숙공 묘사 경내에 2003년 건립됨.)

8) 권 19의 五言絶句에 <寒松亭曲>이란 題名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는 자기 조상을 문학사의 앞자리에 세워드리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 <악지>가 선행문헌이고 특히 사실관계에 좀 더 엄밀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이 노래의 기원이나 존재 양상은 <악지>의 기록 내용 그대로 민요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텍스트 자체의 문맥 또한 결구(結句)의 “有信”을 ‘소식’이나 ‘편지’와 관련시킬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신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타당하다.

겉으로는 물결 잔 경포(鏡浦)의 풍경을 스냅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간에 혹은 연표 너머에 ‘무신(無信)한’ 임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숨겨져 있다. 그러기에 이 노래는 격조가 있는 사랑 노래로서 널리 애창되어 악기의 밑바닥에까지 새겨들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고, 조선초기의 강릉 명기 홍장(紅粧)에 의해 시조의 형태로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⁹⁾

그런데 오역임이 분명한데도 “有信”을 ‘소식 지닌’으로 옮긴 경우가 의외로 많고, 특히 국가적으로 시행한 향토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디지털 강릉문화대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¹⁰⁾ 그러나 이 작품을 그저 그림 같은 경관미(景觀美)만을 예찬한 노래로 보거나, 혹은 장연우의 개인사에 결부하여 편지나 소식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송정>이란 노래의 탄생과 유행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고, 고려사 악지의 속악에 대한 이해와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한 오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대세를 이루면서 왜곡 해석의 진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번역은 대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일까? 이는 아마도 최초로 『고려사 악지』를 현대어로 옮긴 중문학자 차주환(車柱環; 1920~2008) 선생의 번역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1972년에 출간된 차주환 역주 『고려사 악지』는, 을유문고 93으로 반포된 것이어서 대중적인 영향력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달빛 밝은 한송의 밤
물결 가라앉은 경포의 가을
슬프게 울며 왔다가는 또 가 버리는
소식 지닌 한 마리의 갈매기¹¹⁾

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온당한 번역은 1968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전 신호열 선생의 『국역 동문선』의 번역문이 바로 그것이다.

9)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송정(寒松亭) 들붉은 밤의 경포대(鏡浦臺)에 물결 잔제/ 유신(有信)한 백구(白鷗)는 오락가락 흐릿 만은/ 엇뎃타 우리의 왕손(王孫)은 가고 안이 오는이”

“有信—沙鷗”를 ‘유신한 백구’로 옮겼는데, 변함없이 경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백구를 칭송하는 문맥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言表의 裏面에는 期待나 希望에 반하는 인생사가 깔려 있고, 無信한 임에 대한 失望이나 怨望의 그림자도 서려 있어, 여운이 풍부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10) <디지털 강릉문화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달 밝은 한송정 밤/ 물결 잔잔한 경포의 가을/ 슬피 울며 왔다가 또 가는/ 소식 지닌 한 마리의 갈매기”

11) 車柱環 역주, 『고려사 악지』, 을유문화사, 1972, p.236.

한송정 밤에 달은 희고 / 月白寒松夜
 경포의 가을 물결은 잔잔 / 波安鏡浦秋
 슬피 울며 오고 가느니 / 哀鳴來又去
 유신한 백구 하나 / 有信一沙鷗¹²⁾

한결같이 미덥게 경포를 지키는 갈매기를 ‘유신한 백구’라 옮긴 것이다. 이는 한시며 고전시가의 관습적 표현으로, 원래는 ‘귀거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은거의 실현이 늦어짐에 대한 개탄이었다.¹³⁾ 우전 신호열 선생이 이러한 사대부 문학의 관습, 그 연장선 위에서만 번역을 한 것인지, 좀 더 나아가 비련의 사랑에 애달파하는 사랑탄의 숨은 맥락까지 감안하면서 옮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맥락도 실체도 모호한 ‘편지’나 ‘소식’을 끌어들이는 번역과는 분명히 변별되는 번역으로, <한송정곡> 이해의 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¹⁴⁾

3.

고전문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텍스트적 참조가 필요하고, 비교고찰이나 대비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사대부문학의 경우에 유가 경전이나 전범이 되는 선행문학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하고,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 사이의 상호 비교나 대비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바도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필요한 상호참조로 인해 도리어 맥락이 뒤엎히고 혼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한두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19세기 초반 중국의 저명한 여류시인 석패란(席佩蘭; 1762~1831)의 <하야시외(夏夜示外)>라는 작품의 번역 및 해석 사례를 보기로 하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삼의당과 석패란의 문학세계 비교 연구」에서 빚어진 번역과 해석이다. 원시는 다음과 같다.

夜深衣薄露華凝
 屢欲催眠恐未應
 恰有天風解人意
 窗前吹滅讀書燈¹⁵⁾

이 시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해석을 덧붙였다.

밤은 깊고 옷이 얇아 이슬이 엉길 터인데

12) 신호열 (역), 『국역 동문선』, 제19권, 오언절구(五言絶句), <한송정곡(寒松亭曲)>, 한국고전번역원, 1968.

13) “맹한사구(盟寒沙鷗: 갈매기와 맹세를 저버리다)”라는 표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14) 최근 나란히 출간된 여운필과 신현규의 역주에도 이 두 번역이 변형 반복되고 있다. 여운필은 “신의가 있는 백사장의 갈매기 한 마리일세”로 옮겼고, 신현규는 “소식 지닌 한 마리 갈매기여!”로 옮기고 있다. [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2011, pp. 243-244. 신현규 역주, 『고려사 악지』, 학고방, 2011, p.206.]

15) 席佩蘭, 『長真閣集』, 권1.

여러 번 주무시라 해도 응하지 않아 두렵구나.
 흡족히도 하늘 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어
 창 앞의 독서등을 불어서 끄게 하네.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다. 시인은 환절기가 되어 밤에 이슬이 맺히는데도 아직까지 얇은 여름옷을 입고 있는 남편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이 밤늦게 있다가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공부 그만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 책만 보고 있다. 이 때 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남편은 비로소 추운 기운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편이 독서등을 끄게 되자, 시인은 안도감에 젖어 염려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보인 것이다.

문맥으로나 정황상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시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해석이 빚어진 원인은 석패란을 동시대의 조선 여성 김삼의당(金三宜堂, 1769~1823)과 동열에 놓고 나란히 비교하면서 상호 참조, 상호 침투가 이루어진 탓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심사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번역문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나 내용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문 대조를 통해 잘못 옮긴 글자를 바로잡고, 기존 번역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전거나 용례 등을 꼼꼼하게 찾아 가며 원시의 본뜻을 명료히 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p.98의 <아하시외> 같은 작품은,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현모양처의 심경을 읊은 것으로 번역하고 그에 입각하여 해석과 입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보다는 ‘구애조(求愛調)’로 읽어야 이 작품의 본뜻이 잡힐 것 같다. “밤이 깊어 얇은 옷에 이슬마저 엉기는데/ ‘그만 주무시라’ 누차 재촉하고 싶었지만 응하지 않으실까 두려웠어요./ 마침 하늘 바람이 사람 마음을 용케도 잘 알아서/ 창 앞에서 독서등을 혹 불어 꺼버렸지요.”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신혼의 정에 폭 빠진 새댁이 독서에 매여 여름밤 짧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만 읽고 앉아 있는 남편에게 차마 말은 못하고 애만 태우다가, 바람이 불을 대신 꺼준 것을 반가이 여기며 다시 불을 켜지 않고 침실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교조로 지어 읊었을, 약간은 장난기가 섞인 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남편 손원상이 절강 지역의 명문가로 큰 저택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침실과 서재 사이에는 제법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 시의 정황은 바로 밤이 깊어도 남편이 오지 않자 조바심에 얇은 잠옷 바람으로 침실을 나선 석패란이 남편의 서재 부근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엿보는 광경인 것 같다. 시(詩)로 사귀는 부부였기에 자기의 애타는 기다림과 돌아온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시로서 감칠맛 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을 전후한 일련의 시들, 「同外作」, 「長夏同外」, 「春郊」, 「舟行春望」 등에는 깊어가는 신혼의 정과 살뜰한 부부애를 곡진히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봄밤의 짧음을 노래한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과도 상호 조응시켜 해석을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필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고, 그 후 학생은 번역은 물론 해석과 입론 전체를 대폭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정을 한 바 있다. 김삼의당과의 공분모 찾기에 급급하여 ‘현모양처’로만 보고 해석했던 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수정 조율을 수행한 결과였다.

결혼한 후, 석패란의 부부간 정이 날로 돈독해지고 서로 늘 시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 손원상은 「麗人行」, 「春夜同道華」 등으로 솔직하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노래 하였고 석패란도 「夏夜示外」, 「同外作」, 「長夏同外」, 「春郊」, 「舟行春望」 등을 지어 사랑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정을 토로하였다. 다음에 칠언절구 「夏夜示外」을 예로 살펴보겠다.

夜深衣薄露华凝	밤이 깊어 얇은 옷에 이슬마져 엉기는데
屢欲催眠恐未应	누차 그만 자자고 재촉하고 싶으나 응하지 않을까 두려웠었네.
恰有天风解人意	마침 하늘 바람이 사람 마음을 용케도 잘 알아서
窗前吹灭读书灯	창 앞에서 독서등을 훑 불어 꺼버렸다네.

「夏夜示外(「여름 밤에 바깥양반에게 보여 드리다」)

기·승구에는 여성의 섬세한 필치로 여름밤을 묘사하고 여성 시적 화자의 성적 욕구를 완곡하게 드러냈다. 짧은 여름밤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독서에 몰두하노라 젊은 아내를 소외를 시킨다. 승구를 보면 여성 화자가 임과 즐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읽어들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자자고 재촉하면 음란한 여인이라 한소리를 들을 것도 같고,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마음만 달아오르고 있는 여성 화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기서 석패란은 ‘屢’과 ‘恐’자를 빌려 여성의 이러한 모순적 심리를 교묘하게 나타낸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결구에는 고민하던 중 뜻밖에 바람이 여성 화자의 마음을 용케도 잘 알아서 창 앞에서 독서등을 불어 꺼버렸다. 결국 그녀의 뜻대로 남편은 독서를 그만하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화(擬人化)의 수법을 활용하여 바람의 도움을 받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요컨대 석패란은 이 시를 통해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였다.

이렇게 양국간의 비교연구에는 자칫 그릇된 상호 참조, 상호 침투로 인해 도리어 맥락의 뒤얽힘이 초래되어, 작품의 실상이나 작가의 본의가 크게 왜곡될 소지가 많다. 10여 년 전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나라 왕건(王建; 767?- 831?)의 궁사(宮詞)와 조선 중기 허균(許筠; 1568-1618)의 궁사를 비교하는 중국 학생의 석사학위 심사용 논문이었는데, 왕건에 비추어 허균이 이념적인 경직성과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코자 했다. 그들 각각이 서 있었던 사회역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내린 성급하고 단선적인 해석이었다. 그 때도 이러한 왜곡 해석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드러나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지시가 내려진 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시조 발생의 주요 원형(原型)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시조작품 <오늘이>의 성격과 그 변용 양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상호참조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오늘이> 노래는 그 발생적인 기원 자체도 주목이 되지만, 다양한 파생작들이 산출되어 ‘<오늘이> 계열 시조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전 최고(最古)의 가집으로 인정되고 있는 진본(珍本) 『청구영언』의 제1번 작품이 바로 이 <오늘이>인데, 초중대엽(初中大葉)의 유일한 레파토리로 실려 있다.¹⁶⁾ <오늘이> 계

열 노래의 초기적 전형(典型)에 해당하는 노래인데 삼장 구조에 맞춰 분장(分章) 형태로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오늘이 오늘이쇼셔 毎日에 오늘이쇼셔
덤그디도 새디도 마르시고
새라난 밭양 장식에 오늘이쇼셔

이 작품의 의미는 통상 초장 제1구를 ‘주어+술어’의 구조인 ‘오늘이 오늘이다’로 파악하여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동어반복에 가까워 제대로 된 문장이라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제를 해명해 보고자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제출된 바 있다. 유가(儒家)의 핵심 요체중의 하나인 정명론(正名論)의 구도에 입각하여, 주어로서 제시된 벽두의 ‘오늘이’의 ‘오늘’을 ‘명(名)으로서의 오늘’로 보고, 술어로 설정된 ‘오늘이쇼셔’의 ‘오늘’은 ‘실(實)로서의 오늘’이라 본 것이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名인 오늘이 實인 오늘이오소서 (주어진 시간으로서의 오늘로 이루어진) 毎日에 實인
오늘이오소서
實인 오늘은 저물지도 새지도 마시고 (길이길이 영원히 지속되소서)
주어진 시간으로서의 오늘이 새거든 매양장식에 (名인 오늘은) 實인 오늘이오소서

이렇게 명(名)으로서의 오늘과 실(實)로서의 오늘을 준별하고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책력상의 오늘은 수만 번 왔다 갔고, 또 앞으로도 왔다 가겠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그때그때의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오늘날의 오늘이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흔히 정명론(명실론)을 말할 때 예로 드는 ‘군군 신신 민민’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의 어법을 이용하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으로 불린 분께서는 임금답게 행하소서. 동서고금의 모든 임금들 가운데서 정말 임금답게 행하소서./ 임금다운 면모는 바뀌지 마시고 영원하소서./ (혹시, 또는 이 임금께서 승하시거나 물러나신 뒤에도) 동서고금의 모든 임금들이 그렇듯 새 임금으로 바뀌시거든 그 바뀐 (우리나라의 새) 임금으로 불릴 분께서는 (계속) 임금답게 행하소서.’ 요컨대 ‘동서고금의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이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께서는 항상 임금다운 임금이소서.’라는 내용인 것이다.

이상의 풀이를 용인한다면 이 텍스트만으로도 우리는 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의 울타리를 쳐 놓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둥을 세울 수 있겠다. 하나는 이 작품이 유교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삼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에 나오는 實인 오늘에 해당하는 오늘의 내용이 결코 추하거나 악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¹⁷⁾

16) 이 노랫말은 김천택의 『청구영언(1728년)』 이전에 이미, 거문고 악보인 『금합자보(1572)』에 만대엽(慢大葉)으로 편제되어 수록된 바 있다.

17) 양태순, 「청구영언 소재 초중대엽 노랫말 <오늘이>의 수용양상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제35집(한

그러나 이 노래가 과연 유가적 정명론을 반영한 교훈가(敎訓歌)나 이념성을 띤 축원가(祝願歌)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본 데는 초장(初章)의 진술을 명제문으로 파악해 온 기존의 해석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명론적 구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노래 텍스트의 통사적인 양태에 관한 해명 또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필자의 감각으로 본다면, 이 노래는 매우 강한 수사적 장치를 동원한 감탄문 내지 찬탄적 기원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텍스트의 수사적(修辭的) 양태로 보거나, <오늘이> 계열 노래가 불리고 향유되는 콘텍스트의 맥락으로 보거나, 노랫말의 작시 형태 일반에 비추어 볼 때, 모두(冒頭)의 ‘오늘이’는 ‘오늘’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라기보다는 후속하는 ‘오늘이쇼셔’의 앞부분 3음절을 따서 구름판으로 깎아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장 제1구의 진술 전체가 제2구의 진술을 위한 구름판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결국은 ‘每日에 오늘이쇼셔’에 이르러 완전한 진술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다음과 같은 통용 노랫말들의 수사적인 차용일 가능성이 크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나)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난

다)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위의 사례들은 모두 벅찬 감격이나 울컥하는 심정을 주체할 길이 없을 때, 그것을 언어적으로 재현해 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사법의 한 양태라 할 수 있다. 마치 멀리 뛰거나 높이뛰기를 할 때 도움닫기용 구름판을 활용하듯이, 수사적인 구름판을 깎아둔 뒤에 강세를 실어 밑줄 친 부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작품의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오늘이> 계열 노래들의 정서나 콘텍스트 맥락에 훨씬 자연스럽게 접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노랫말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바로 그 오늘이쇼셔! 매일에 그 오늘이쇼셔!

저물지도 새지도 마시고

새려거든 늘 영원히 오늘이쇼셔!¹⁸⁾

있는 그대로 ‘까르페 디엠’ 모티브에 가까운 ‘오늘 예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후대적인 파생작들 가운데는 이러한 ‘오늘 예찬’의 즉자성(卽自性)이 강화된 유형도 있

국시가학회, 2013), pp.103-104.

18) ‘새라난’을 ‘새려거든’으로 옮긴 것은 정병욱 선생의 『시조문학사전(1966, 1982)』 주석을 따른 것이지만, ‘새날은’ ‘새날이란’으로 풀이하는 것이 고어의 어법에는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고어사전에 ‘-라난’은 ‘-으란’과 같은 조사로서 ‘-란’ ‘-라는 것은’으로 풀이되어 있고, ‘새’는 ‘새것’이라 풀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려거든’이 중장 ‘덤그디도 새디도 마르시고’의 ‘새디도’와 좀 더 밀착된 해석으로 문맥상으로 큰 무리가 없기에 잠정적으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고,¹⁹⁾ 지나친 향락 탐욕이나 잔치 중독을 경계하는 노래도 있다.²⁰⁾ 그리고 이 노래의 기원에 대해서는 현재 무가(巫歌)와의 관련성도 다각도로 조명되어, 무가와 연결된 민속적 일상의례의 반영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²¹⁾ 생신이나 주요 기념축일에 축원의 뜻을 담아 부르던, 연원이 오랜 생활서정의 양식화인 셈이다.²²⁾ 따라서 이 노래의 해석에 유가적인 맥락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맥락의 착종을 부르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²³⁾

4.

지금부터 17년 전쯤 김진경 시인은 『30년 동안에 30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당대, 1997)하는 책을 낸 바 있다. 꽤 긴 제목인데, 시인의 뇌리를 떠나지 않던 의문을 그대로 화두(話頭) 삼아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고, 자기 세대(世代)의 집단적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나 한 세대(世代)를 지나는 동안, 다음 세대가 밀어 오고 자기 자녀들이 나고 자라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지게 된 낯설음이나 낯가림의 감각을 시인적인 감성과 사유로 풀어낸 매우 독특한 입론들이다. 다소 어려운 글인데도 공명(共鳴)을 느낀 분들이 많아서인지, 지금도 블로그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하는 걸 볼 수 있다.

시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50대~70대들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 큰 혼란과 당혹을 겪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독특한 경험이 유용한 무기나 든든한 자산(資産)이 되어, 사회 각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선도한 측면도 있다. 고전문학 연구에선 특히 그런 것 같다. 굳이 예를 들 것도 없이 이들에 의해 고전문학 연구는 정점(頂點)을 찍었고, 이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19) 『고금가곡』 #163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 작품을 ‘연음(讌飲)’으로 지정하여 분류하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늘이야 즐거온 오늘이여/ 즐거온 오늘이 형혀 수이 점을세라/ 白日이 이 뜻 아르샤 더디 가게 흐쇼셔”

20) 朱義植의 작품으로 주씨본 『해동가요』 #270이 그런 예다. “오늘을 每樣 두어 점어도 새도 말아/ 萬古 흘린이 一日新을 어이흘이/ 百刻에 혼 番씩 잇서 몸을 족케 흘이라”[뜻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오늘’을 매양 벌여 두고 저물지도 새지도 않으려 함으로/ 만고의 세월도 매양 그 타령의 하루이니, ‘일일신’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백각이나 되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21) 이에 관한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권두환, 「시조의 발생과 기원」, 관악어문연구, 제18집, 1993. 김기형, 「오노리 유형의 기원과 전승 양상」, 한국민속학 30집, 1998. 신연우, 「시조와 서울 굿 노랫가락의 관계」, 동방학지 132집, 2005. 강경호, 「<오노리> 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Vol.17, 2009.

22) 실제 제주도의 무가 <원천강 본풀이>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이’인데, 이 본풀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오늘’이라는 시간의 문제로서 풀어내는 철학적 사유와 상징적 구도가 돋보이는 특이한 무가다. 이 무가의 소개 및 해설은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 신화 (흐린 영혼을 씻어주는 오래된 이야기)』(한겨레출판,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23) <오늘이>의 성격과 그 변용 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와 구체적인 논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석희, 「<오늘이>의 성격과 그 변용 양상 재론」, 문학치료연구 31집, 2014.

고전문학의 연구나 교육에는 흔히 ‘원근법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²⁴⁾ 그러나 원근법적인 이해라는 것도 결국은 소실점(消失點)이 어디에 형성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대체로 이해지평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300년을 굽어보고 또 내다볼 수 있는 시야와 감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필자 같은 사람이 고전문학 분야의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이러한 체감적인 이해지평의 폭에 힘입은 바 큰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후속 세대는 한결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가 깊은 대가들임에도 고전 해석에 곡해를 빚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연암 박지원의 장편시 <輓趙淑人>에 대한 번역과 해석 문제다. 최근 들어 연암의 장편시들이 새로 발굴 소개되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輓趙淑人>도 그 중의 하나다. 필자는 고려대학에서 있었던 한국한문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이에 관한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듣고 발표내용에도 감탄한 바가 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하나 있었다. 우선 <輓趙淑人>의 전문을 보고 후속 논의를 펴기로 한다.

1단락: 부인은 머리에 쓰는 다리[首髻]를 중히 여겨, 천금을 들여 높이 가체를 틀었네[高髻]. 한 길 길이의 가체가 육진을 뛰어넘는 듯, 삼단 같은 머리가 성대하게 출렁이네. 빗질하다 머리털이 놀라지 않도록, 한 가닥이라도 틀어질까 걱정하네. 동백기름 발라 윤기가 흐르고, 혀로 핏고 손으로 쓰다듬네. 버릇없는 아이 잠재우듯 편안히 모시고, 제사 모시듯 공손히 받드네. 어떤 강심장을 지닌 여자가, 손위아래 동서들에게 빌려 줄까?(婦人重首髻, 千金爲高髻. 一丈出六鎮, 霏霏錄雲細. 下梳不驚髮, 或恐一髮戾. 葳蕤冬栢膏, 舌舐復掌篲. 如安驕兒眠, 奉持若承祭. 有誰剛腸女, 能借奴與娣.)

2단락: 義를 중히 여기는 한 여자가 있어, 용감하게 남편 친구를 구제하였네. 남편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여, 袒을 하고 括髮을 한 채 파리와 모기를 쫓네. 남편의 탄식을 몰래 듣고는, 가엾게 여겨 자주 소매를 훔쳐네. 창졸간에 돈 마련하기 어려워, 다리를 잡히고 백전을 빌렸네. 남몰래 飯含 물건을 갖추고서, 남들이 누설할까 걱정했네. 당시에 일이 엄하고 급하여, 누구의 은혜인지 몰랐네. 오랜 후에 자연히 알게 되어, 코끝이 시려오고 두 줄기 눈물이 흘렀네. 참으로 의협심 있는 장부도 어렵거늘, 하물며 유약한 여자가 돈을 냄에야! 부인의 義가 손상될까 두려워, 입으로는 감격을 말하지 못했네. 오매불망 마음으로 간직하고, 은밀히 나의 아내와 약속했네.(女有重義者, 勇敢夫友濟. 夫友有父喪, 袒括驅蠅蚊. 暗聞夫歎息, 惻然頻掩袂. 倉卒難爲財, 典鬢百金貫. 潛辦飯含具, 猶恐他人泄. 當時事嚴急, 不知誰所惠. 久久自然知, 鼻酸忽雙涕. 實難丈夫俠, 況出女子弱. 恐傷婦人義, 口不言感激. 寤寐藏中心, 密與吾妻約.)

3단락: 나는 한그루의 뽕나무를 심어, 춘 삼월에 뽕잎을 따려 하오. 그대는 손수 누에를 키워, 한 필의 비단을 만드시게. 정성 다해 베를 짜고, 곱디고운 마음으로 베를 짜서, 가을 햇볕에 쬌여,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게. 또 남은 실로, 한 해는 녹색으로 물들이고, 한 해는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한 해는 푸른색으로 물들이고, 한 해는 황색으로 물을 들여, 빛나는 오색실을 만드시게. 우리 은혜로운 부인 위해 수놓아서, 난초 향기 나는 비단을 옛 옥으로 돌돌 말아 놓시다. 그대는 부처에게 분향하고, 나는 석가에게 염불하며, 쌍

24) 김흥규 교수가 제안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여 연구와 교육을 설계한 바 있다.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집, 1992.]

쌍이 부처에게 절하듯이, 아침마다 그리 하고 저녁마다 그리 합시다. 아내가 말하길 “ 남편 친구의 부인에게, 그러는 것이 禮에 있는 가요?” 라고 하네. 나는 오색의 실로, 부인의 장수를 빌려하오. 한 해는 ‘富’자를 수놓고, 한 해는 ‘貴’자를 수놓고, 나머지 여러 글자들은, 모두 ‘多男子’라고 수놓아, 吉月 良日을 택하여, 가슴에 품고 가서 조씨에게 바치리다.(吾當種一桑, 三春採其葉. 勸君手飼蚕, 斷成一疋帛. 精誠爲經緯, 織織心機織. 曬以秋陽輝, 皎皎如雪白. 又以餘絲線, 一年染一綠. 一年染一紅, 一年染一碧. 一年染一黃, 燦燦成五色. 繡我恩夫人, 薰蘭軸古玉. 君爲焚香尼, 我爲念經釋. 雙雙如拜佛, 朝朝及夕夕. 妻曰夫夫婦, 於禮有之否. 吾將五色線, 以祝夫人壽. 一年繡富字, 一年繡貴字. 其餘無數字, 盡是多男子. 吉月良辰日, 懷去獻趙氏.)

4단락: 가련하게도 담장 아래의 뽕나무에, 긴 가지가 겨우 담을 넘었는데, 뽕잎을 떠나 광주리에 차지 않고, 나의 마음이 갑자기 비통해 지네. 나의 친구 빈 집을 지키고, 금슬이 저녁에도 울리지 않네. 누에가 늙고 고치는 누렇게 변하더니, 흰 나방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네.(可憐牆下桑, 長條纔出牆. 採葉不盈筐, 我心忽悲傷. 我友守空堂, 琴瑟夕不張. 蚕老繭欲黃, 白蛾空自翔.)

중간에도 약간 미심한 대목이 있었지만,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은 마지막의 두 구절이다. “白蛾空自翔”에서 “空”을 “하늘로”라 번역한 것이 이상하다 여겼는데, 덧붙여 해설한 내용에는 고개가 절로 갸우뚱했다. 4단락에 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4단락은 조숙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친 누에고치로 실을 켜서 비단을 짜기 직전, 그녀의 비보를 접하고서 비통한 심경으로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 4구에서 “採葉不盈筐, 我心忽悲傷.” 이라고 한 것은 『시경』의 “采采卷耳, 不盈頃筐. 嗟我懷人, 寘彼周行.”을 점화하여, 조숙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기울인 광주리에도 뽕잎을 채우지 못할 정도였음을 말한 것이다. 5, 6구에서 “我友守空堂, 琴瑟夕不張.” 이라고 한 것은 백거이가 『爲薛台悼亡』의 4구에서 “月冷房空不見人”라고 말한 것과 같이 부인의 죽음으로 부부의 즐거움을 끊겼음을 슬퍼한 것이다. 연암은 마지막 두 구에서 “자신이 키운 누에가 누런 고치가 되고, 흰 나방이 되어 허공을 스스로 비상한다.[蚕老繭欲黃, 白蛾空自翔]”고 하였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흰 나방이 되어 하늘을 날듯이, 망자의 고귀한 영혼이 현실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저승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기원한 것이다. 연암은 이 단락에서 고도의 예술성을 지닌 다양한 시적 언어를 구사하여 보은이 미처 실현되기도 전에 망자가 되어버린 조숙인에 대한 슬픔을 형상화하였다.²⁵⁾

누에고치의 변화와 그 우화(羽化)의 과정을 질고와 고난의 현세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는 문맥으로나 정황으로 보아 상당한 곡해로 보인다. 연암이 역점을 두어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못다 이룬 보은’의 문제다. ‘보은 미수’ ‘보은 실패’를 표 나게 강조하기 위하여, 누에치기와 비단 만들기의 공정을 이 모저모 세세히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25) 정재철, 「장편시 「輓趙淑人」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 2013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집, pp. 48-63, 고려대, 1913.4.13. 당일 학회에서는 직접 문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후 한번 같이 검토할 기회를 가져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학회지에도 이 대목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실리게 되었다. [정재철, 「연암의 장편시 「輓趙淑人」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51집, 2013, pp. 340-341.]

누에고치가 누렇게 변하더니 마침내 나방이 구멍을 뚫고 나와 버렸다는 것은 이 완벽한 실패의 마침표라 할 수 있다. 누에고치를 제 때 건사하지 못하여 번데기가 부화하며 고치에 얼룩이 생기고 나방이 구멍까지 뚫고 나오는 사태는, 실제 길쌈을 해야 하는 선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최악의 사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누에고치는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실로는 뽑아 쓰지 못하고 ‘폴솜[雪綿子]’으로만 쓰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대목의 번역이나 해석은 이러한 점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3단락의 다소 과장적일 정도의 보은 계획이, 뽕나무가 채 온전히 자라기도 전에 조부인이 죽음으로 해서 좌절이 되어 버렸고, 겨우 조금 거둔 누에고치마저 방치했다가 못쓰게 망가져 버린 정황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번역 자체도 “누에가 늙고 고치는 누렇게 변하더니, 흰 나방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네.”보다는 “누에 늙고 고치 누렇게 변해 버렸는데, 흰 나방만 부질없이 제 세상이네.”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²⁶⁾ 누에치기와 명주 낚기를 직접 해 보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잘 잡히지 않고 체감하기도 어려운 감각이지만, 달라진 문명의 저 편을 이해하려 애쓰는 노력만은 견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우리는 고전 작가, 고전 작품의 타자성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명 조건의 달라짐에 따른 이해지평의 소실 문제는 아마도 번역이나 해석의 현장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광범한 문제일 것이다. 노계 박인로의 <노계가> 이해와 해석에서도 요즘의 독자나 연구자들은 이해지평의 소실 현상이 현저한 것 같다. 다음이 작품 전문인데, 후반부 밑줄 친 대목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된다.

白首에訪水尋山太晚호줄알전마는平生素志를뵈고야말라너겨赤鼠三春에春服을새로넉고竹杖
芒鞋로蘆溪깊흔골의헝혀마참차즈오니第一江山이넘직업시브려나다古往今來예幽人處士들이
만히도잇것마는天慳地秘호야느를주라남겨뵈다

躊躇良久다가夕陽이거원적의陟彼高岡호야四隅로도라보니玄武朱雀과左右龍虎도그린듯시
ㄹ갓고야山脈밋친아리藏風向陽호디靑蘿를허혀드러數椽蝸室을背山臨流호야五柳邊에디어두
고斷岸千尺이가던龍이며무는듯江頭에둘렀거늘草草亭호두間을구름편긴솔아리마휘디켜여러
늑니千態萬狀이아마도奇異코야峯巒은秀麗호야富春山이되야잇고流水는盤回호야七里灘이되
야겨든十里明沙는三月눈이되엿는다

이湖山形勝은견줄디너야업니巢許도아닌몸에어니節義알리마는偶然時來예이名區임직되어
靑山流水와明月淸風도말업시절로절로어즈러온鷗鷺와數업슨麋鹿도갑업시절로절로沮溺가던

26) 정교수의 논문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김명호 교수의 글에서는 이 대목이 필자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경과 길쌈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는 60대 연구자의 이해지평의 폭이 그것이 소실(消失)되어 버린 후속세대보다 한결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도 같다. 그는 이 대목을 “누에도 늙고 고치도 누렇게 변해/ 흰 나방만 부질없이 날고 있네”로 번역하고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 부질없이 허공을 나는 누에나방의 이미지는 아내 없는 빈 방에 홀로 남은 빛의 고독한 정황과 중첩되면서 은은한 슬픔의 여운을 자아낸다.”[김명호, 「연암의 일시에 대한 고찰」,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pp.61-62.]

묵은빛과嚴子陵의釣臺도갑업시절로절로山中百物이다절로己物되니子陵이들이오沮溺이서히로다어즈버이몸이아마도怪異코야入山當年에隱君子되얏는가千古芳名을이혼몸에傳토고야人間의이일홈이人力으로일월소나山川이靈異하야도아닌가너기로라

中心이瑩然하야世慮절로그쳐디니光風霽月이腔子裏에품엇는듯浩然眞趣날로새롭호노왜라飛禽走獸는六畜이되얏거늘달알이괴기낙고구름속의빛홀가라먹고못나마도그칠적은업노왜라無盡호江山과許多호閑田은分給子孫호려이와明月淸風은논호듀기어려울식才與不才에養志호는아들호아太白淵明證筆에永永別給호렷로라내의이말이迂闊호듯호것마는爲子孫計는다만인가너기로라

또어린이몸은仁者도아니오智者도아니로되山水에癖이이러늘글수록더욱호니저貴호三公과이江山을밧골소나어리미친이말을우우리도하렷마는아프리우어도나는도히너기노라호믈며明時에빈몸이호을닐리아조업서世間名利란즌구름본덧호고無思無慮하야物外心만품고이서이닉生涯호山水間의부터두고春日이채긴제낙되를비기쥐고葛巾布衣로釣臺에건너오니山雨는잠깐개고太陽이썩오는듯물근바람더오니鏡面이더옥말다김흔돌이다보이니괴기數를알리로다괴기도나치이거늘닐줄모르거든차마엿디낙글넌고罷釣徘徊호며波心을구어보니雲影天光은얼희여증거는듯魚躍于淵을구름우히보아고야하문득驚怪하야俯察仰觀호니上下天이宛然호다一陣東風에괴엇진漁笛이놓히부러보닉던고江天이寥寂호되반가와도들리다臨風倚杖호야左右로도라보니臺中淸景이아마도蕭灑코야물도하늘갖고하늘도물갖호니碧水長天은호빛티되얏거든물가에白鷗는오는듯가는듯긋칠줄을모르나

巖畔山花는錦繡屏이되야잇고澗邊垂楊은草綠帳이되야거든良辰佳景을내혼자거느리고正值花時를虛度치밀나너거야회불너하느말습이深山窮谷에海錯이아보로소나살진고사리香氣호當歸草를猪脯鹿脯間호야크나큰細柳筍에洽足히다마두고鮒魚膾初味에訥魚生雉서거구어밧밧치드리거든瓦樽에白酒를박잔의가득부어호잔조호잔醉도록먹은後에桃花는紅雨되야醉面에쏟리는듯苔磯너른돌에놓히베고누어시니無懷氏적사름인가葛天氏적百姓인가羲皇盛時를다시본가너기로라

이힘이늑힘고聖恩이아니신가江湖에몰너신들憂君一念이야어니刻에이줄는고時時로머리드러北辰을브라보고늑모르느눈물을天一方의디이느다一生에품은뜻을비읍느다하느님야山平海渴토록우리聖主萬歲소서熙皞世界에三代日月밧취소서於千萬年에兵革을쉬우소서耕田鑿井에擊壤歌를불리소서이몸은이江山風月에늘글주를모르로라

밑줄 친 대목은 대체로 젊은 독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풍요의 징표로 해석되거나 현대적 관점의 웰빙 식단으로 비치고 있다. 보릿고개를 모르는 50대 이전의 세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수용 현상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강호가도의 전통, 목가적 비전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의 초점을 놓치기 쉽다. 여기서 들고 있는 식물(食物)이나 음료(飲料)의 목록들은 벼슬살이의 녹봉(祿俸)이나 토지 경작의 소산이 아닌, 자연의 혜택 그 자체의 표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호기롭게 선언하는 맥락이다. 원시적인 채집경제(採集經濟) 시대의 재현임을 암시하는 상징들이라 할 수 있다.

강호가도의 전형적인 인물형상으로 꼽히는 가어옹(假漁翁)이나 목가(pastoral)의 전형적인 인물형상인 목동이나 목부(牧夫)의 삶 자체가 이러한 시원(始原)의 형상, 그 비전에 다름 아닌데, <노계가>는 이러한 정석(定石)을 따라 지어진 강호가도의 복창(復唱)이다. 목가의 세계나 강호가도의 세계는 모두 탐욕과 분쟁의 궁정(宮廷) 도회(都

會)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원초적 삶의 순수성, 자연성과 평화, 그리고 무욕의 충만함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설정되는데, <노계가>는 바로 이러한 형상(形象)의 전형구현(典型具現)에 가깝다. 이 대목의 넘치는 풍요는 마치 판소리나 사설시조에서 종종 보이는 ‘장면 극대화’의 수법이 동원된 인상까지 풍기고 있다. 녹봉이나 토지소산이 없이도 산수자연의 선물만으로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선언하기 위한 의도적 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노계 생활의 실체는 이와 상반되는 국면이었다. ‘노계유거’ 자체가 모험을 동반한 결단이었고, 이 궁벽한 산중에서의 생활도 그리 만족스럽거나 풍족한 것이 아니었다. 작가의 이러한 내면풍경을 잘 드러내 주는 시가 바로 시조 <노계유거(蘆溪幽居)>와 칠언절구 한시 <노계복거(蘆溪卜居)>다.

어화 아히들아 후리치고 가자스라
田園이 휘엇거니 엇지 아니 가로소나
道川上 明月淸風이 날 기다리기 오릭니라²⁷⁾

離群脫俗入山中 무리 떠나 세속 벗고 산중에 들어
獨釣苔磯細柳風 물가 세푸풍에 홀로 낚시하노라.
千載非無西伯獵 천년 세월에 문왕의 사냥 없지도 않았건만
可憐虛老一溪翁 가련하게도 시냇가에 허노하는 한 할아버지다.²⁸⁾

시조 <노계유거>가 유거의 단행을 위한 결단의 표명이었다면, 가사 <노계가>는 마침내 그 결심을 실현하고 난 뒤의 후련함을 목청껏 노래한 것이고, 이 칠언절구 <노계복거>는 복거 이후의 일상적 소회(所懷)를 담담히 읊조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 <노계가> 해석과 이해의 바른 방향은 이러한 다양한 국면들을 참조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한 아들을 설득해서까지 노계로의 유거를 단행하는 박인로의 집념과 그 집념실현의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선 깊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그의 삶이며 사회적 위상과 관련하여 가지는 효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해명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앞서 검토한 항목 이외에도 더 많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석의 정밀화를 위한 반성적 성찰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잠깐 비친 바와 같이 문학작품은 장르관습의 자장(磁場) 안에서 형성되고 수용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찰하지 않으면 정곡을 맞추는 해석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설시조 작품은 아직도 많은 해석적 고찰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27) 박인로, 『蘆溪先生文集』, 卷之三, 歌, <蘆溪幽居>.

28) 박인로, 『蘆溪先生文集』, 卷之一, 詩, 七言絕句, <蘆溪卜居>.

書房님 病들여 두고 쓸 것 업서
 鍾樓 저직 달릭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 스고 石榴 샷다 아츰아츰 이저고 五花糖을 니
 저발여고즈[느]
 水朴에 술 꼬즈 노코 한숨겨워 호노라.

김흥규 교수는 석학 인문강좌에서 사설시조를 다루면서 이 작품을 강의 벽두의 도입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선보인 바가 있다.

시, 특히 서정시를 시인 자신이나 그 서정적 대리자의 내밀하고도 진지한 자기표현이라고 여기는 통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무척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서정시에 관한 이 통념이 전적인 착각은 아니라 해도, 동서고금의 모든 서정시가 항상 그러했거나 그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정시의 화자(話者)는 시인 자신이나 그 분신/대리자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시인이 흥미롭게 여겨서 포착한 타자일 수도 있다. 위의 작품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며, 사설시조에는 이런 예가 반수를 넘을 만큼 풍부하다.

김수장(金壽長, 1690-1770이후)이 이 작품에 등장시킨 인물은 병든 남편을 둔 여인이다. 함축된 맥락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의 나이는 비교적 젊고,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한 서민층에 속하는 듯하다. “쓸 것 없어”라는 표현은 1950년대까지도 존속한 관용구로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만한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없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녀의 가난은 생계가 절박할 만큼의 궁핍에까지 이르지 않는 듯하다. 병든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끼니를 잇기 위한 식량이 아니라 입맛을 돋우기 위한 화채의 재료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를 위해 그녀는 종로 거리에 나가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 조선 후기에는 그 시대 나름으로 평민층이건 양반층이건 여성들의 머리치장과 옷차림, 장신구의 유행이 만만치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머리를 풍성하게 꾸미기 위한 가발의 수요가 많았다. 그런 세태 속에 사는 여인이 오히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그러나 병든 서방님의 입맛을 되살려서 하루라도 속히 회복되게 할 수 있다면 그깟 머리카락쯤이랴.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아낌없이 내놓은 머리채 값으로 배, 감, 유자, 석류 등 화채 재료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재료를 다 벌여놓고 화채를 만들다가 살펴보니 꼭 있어야 할 오화당이 빠진 것이 아닌가. 종장에 함축된 바를 음미하건대 이 실수는 시장에 다시 나가서 사 오면 되는 번거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여러 재료를 사느라고 이미 돈을 다 써버렸고, 모처럼 작심해서 만드는 화채는 단맛이 부족해서 서방님의 구미를 돌리기에 미흡한 실패작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수박에 손가락 꽂아놓고 한숨겨워 하노라”라는 종장에서 우리는 조금 전까지 들떠 있던 이 여인의 안타까운 표정과 자책하는 눈빛 그리고 축 처진 어깨를 그려볼 수 있다. 하찮아 보이는 일상적 삶의 한 국면에서 젊은 아낙네의 애절한 소망에 착안하고, 들뜬 마음으로 서두르는 장보기, “아차 아차”라는 발견의 탄식, 그리고 망연자실한 후회의 표정을 긴밀하게 엮어넣은 솜씨가 참으로 간결하면서 예리하다.

그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설복당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며 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주 강의의 전체 주제를 <누추한 삶과 욕망의 온도>라 했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관점을 대변하는 키노트(key-note)처럼 사용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일말의 회의가 들었고, 몇몇 분들과 의견

을 교환한 결과 김흥규 교수의 해석보다 필자의 이해가 더 사설시조의 장르적 특성에 부합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지정질의자로서 종합토론장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한 적이 있었다.

문학이나 예술을 가르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이장지도(弛張之道)’를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긴장이나 의식의 각성(覺醒), 계몽(啓蒙)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현의 방략을 전략적 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장르가 있을 수 있고, 그와는 대척(對蹠)되는 지점에서 긴장의 이완(弛緩)이나 해소(解消)를 목적으로 삼아 그 구현을 도모하는 장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본다면 사설시조는 분명 후자의 정향(定向)이 뚜렷한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설시조는 전대의 소화류(笑話類)와도 상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르적인 특성은 사설시조의 연행환경이나 음악적인 특성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시조는 흔히 술자리가 거나해진 상태에서 불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악곡의 편제 또한 농(弄), 락(樂), 편(編) 등 다소 흥청거리나 호기로운 곡태(曲態)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집들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이들 계열의 곡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弄歌: 浣紗清川 逐浪翻覆 ● 樂時調: 堯風湯日 花爛春城
- 編樂時調: 春風秋雨 楚漢乾坤 ● 編數大葉: 大軍驅來 鼓角齊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검토하게 된 대부분의 사설시조도 이런 장르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書房님 病들여 두고 쓸 것 업서> 같은 작품도 진지한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한번 뒤집어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적인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선 쉽사리 잘 감지되지 않는 독특한 해학의 장치가 이 작품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골계미나 해학성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를 탐색해 본다면, 의외로 이 작품에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광대’ 가운데 한 분인 임진택 씨가 소리꾼으로 성장하는 데 한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 문리과 대학이 동숭동 대학로에 있던 시절, 날이면 날마다 데모가 벌어지고 경찰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그는 ‘재담꾼’으로서의 입지(立地)를 굳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주모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리더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계와, 기회를 엿보는 경찰의 노림 사이; 그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뜬금없이 이 긴장을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즉각 물러가라!” 침묵을 깨는 우렁찬 소리가 메아리 없이 사리지고 난 이후 더 크고 무거운 침묵이 쓰나미처럼 덮치려는 찰나, 그는 아주 이완된 어조로 “...아니면, 조금 있다가 물러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순간 예기치 못한 폭소(爆笑)가 터지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깨지고 활기(活氣)가 가득히 충전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경찰과의 대치 속에 연좌(連坐)하고 있는 가운데 원로 교수들이 대오(隊伍) 가운데로 들어와 여학생들을 숙아내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는 또 긴장을 깨는 폭소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 분단 서러운데, 남녘 분단 웬 말이냐!” 이 일로 해서 그는 웃음이 요구되는 곳에 두루 불러 다녔고, 그 긴장의 시대를 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학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요청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기능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데 참조가 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病들여 두고” 같은 말이 그 단서(端緒)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대목을 따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병든 남편’이란 상황설정으로만 보셨고, 실제 강의시간에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설마 자기 남편을 병들게 하는 아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해학을 유도하는 사설시조판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이 대목은 문면(文面)의 뜻을 곧이곧대로 접수하는 것이 맥락에 부합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제의 연행 속에서는 이 대목이 일정한 체스처와 함께 과장된 강세를 동반한 발화(發話)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웃음의 맥락”이란 것은 사소한 어구 하나 속에, 심지어는 토씨 하나, 어미(語尾) 하나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어떤 어조(語調), 어떤 어투(語套)로 구현하느냐에 따라 해학성이나 골재미의 강도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선생님께서 잘 주석해 주신 “쓸 것 업서”라는 후속 어구와 함께, 구매중독증(購買中毒症)에 빠진 한 폰수떼기 여인에 관한 희극적인 보고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구매력의 원천’이 병이 들고 나자 “쓸 것 없어=구매력이 바닥이 나서”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데, 버릇은 감각 속에 깊숙이 박혀 오화당까지 가미한 맛 있는 화채가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결국은 자기 머리터럭마저 잘라 팔아 마침내 화채를 제 눈 앞에 대령해 놓고야 직성이 풀리는 이 구체 불능의 구매중독증! 그렇게 본다면, 종장의 “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하는 탄식도 남편을 생각하는 애뜻함이라기보다는 구매력이 바닥나 버린 것에 대한 절망, 식도락이 깨져버린 것에 대한 한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장면을 시청(視聽)하는 이들은 “참으로,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쫄쫄쫄!” 하면서, 이 폰수떼기 여인을 맘껏 비웃으며 놀림감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설시조의 어법을 빌어 걸쭉하게 말해 본다면 “동정의 여지가 어림 반 폰 어지도 없는 년이, 별놈의 오도방정을 다 떨고 자빠졌네!” 하는 느낌으로 상황 구성을 한 것이고, 수용자들 또한 그런 정도의 희극적 거리감을 가지고 ‘안도(安堵)의 웃음’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안도(安堵)의 웃음’이라 함은 자기 자신의 우월(優越)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자기신뢰감(自己信賴感)의 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여성일 경우, ‘적어도 나는 저런 폰수떼기는 아니지…’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조율해 보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는 “그래 맞아! 남편 등골이나 빼 먹고 있어선 안 되지”, “있을 때 잘해야지, 병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반성적인 성찰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성일 경우에는 “저런 쓸개빠진 년이 다 있어! 허허!” 실소를 하며, “우리 집 사람은 저런 폰수는 아니지!” 하고 안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자는 들어앉아 살림만 해야지 천방지축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버릇을 들이면 저 모양이라니까!” 하면서, 패가망신을 경계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약(飛躍)을 무릅쓴 추론이긴 하지만, 작자인 김수장의 여러 가지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상의 추론이 어느 정도는 고려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격, 그가 속한 계급 내지 계층적인 속성, 전문가객(專門歌客)으로서의 그의 입지(立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사설시조의 장르 관습이나 장르 문법을 가장 잘 알고 또 거기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애호하고 편승한 인물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흥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김 교수는 위의 작품을 “구매중독증(購買中毒症)에 빠진 한 폰수떼기 여인에 관한 희극적인 보고”라 해석하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상상적 텍스트에 관한 해석에서 작품의 문면(文面)이 명시하지 않은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이해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므로, 김 교수의 독해가 그르고 내 해석은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나의 언어감과 느낌으로는 작자가 이 여인을 따듯한 웃음으로 바라보는 듯한 여러 흔적들이 텍스트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후략)

김흥규 교수의 파악대로, 상상적 텍스트에 관한 해석에서 작품의 문면(文面)이 명시하지 않은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이해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누구의 독법, 누구의 판단이 실상에 부합할지는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도 “달리 파라”의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 “오화당(五花糖)”의 당대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부터, “실제 창작이나 연행의 현장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유포 수용 전승되어 갔느냐?”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아직도 그대로 미결(未決)의 과제로서 남아 있는 셈이다. 이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실된 우리의 이해지평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졸속(拙速)으로 해결해 버릴 수 없는, 진지하고도 성실한 탐구 조율을 요청하는 장기지속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는 비단 사설시조의 해석과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전읽기의 모든 도정(道程)에 잠복해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서 인 석(영남대)

1. 머리말

이 글은 전근대 시대의 소설 중 특히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갖는 국어문화적 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이 지어지고 수용되던 시기에는 ‘국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내포가 오늘날과는 달랐으므로 ‘국어문화’라는 말에는 약간의 유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민족이 거의 일치해온 경우, ‘국어’라는 명시적 용어는 없어도 사실상 이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국어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국어를 통해 형성된 언어문화 및 이의 확장으로서의 예술문화’이므로, 이 글의 목표는 국문고전소설이 당대의 언어 및 예술문화 속에서 기여한 바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 동안 고전소설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창작 시기조차 다소 막연한 상황이었기에 조선 후기라는 막연한 시기를 배경으로 개별 작품의 내부 분석에 치중해온 것이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전소설 연구의 시야를 확장해볼 때, 고전소설이라는 장르 그 자체가 당대 언어문화 속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전근대 시기에 소설이라는 장르 그 자체의 사회사, 문화사, 생활사 측면들의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측면의 연구이기도 하다.

고전소설은 그야말로 ‘낮은 장르’로서 당대에는 비판과 이에 대한 변명 속에서 창작되고 수용되었다. 그러나 소설 장르가 근대에 와서 크게 부상하면서, 고전소설도 재조명되게 되었다. 그야말로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의 ‘小說’이나 ‘稗說’로 불리다가 신문학기에는 서구 소설의 영향을 받은 신소설에 밀려 ‘舊小說’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古典小說’이라는 긍정적 명칭으로 바뀐 것이 그런 사정을 보여준다. 전근대 문학 장르 중에서 이 고전소설처럼 ‘신분 변화’를 크게 겪은 것도 없을 것이다. 장르의 사회문화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적 장르인 셈인데, 그야말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역할을 했으면서도 낮은 평가를 당해온 셈이어서, 그만큼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소설사 안에서 본 국문소설의 고유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어 언어문화 측면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중점은 ‘어제’에 놓여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오늘’과 ‘내일’의 국어문화적 위상도 드러나면서 오늘 발표회의 대주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소설사 안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한국문학사에서 소설은 <최치원>과 같은 나말여초 ‘傳奇’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데, 이 ‘전기’란 동아시아 문명권의 공유 자산으로 들어온 수입 장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수용층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 기반이 취약했고, 또 독립된 작품으로 전하기엔 분량이 너무 적은 단편 장르여서 작품들이 제대로 전승되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나마 나온 작품들도 <최치원> 같은 사례를 빼면 전승 과정에서 변형 내지 축약되어 ‘설화’ 형태로 『수이전』이나 『삼국유사』 등에 들어가거나, 아예 전승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기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춘 문자 텍스트와 설화 기록물 사이에서 장르적 동요를 해 오면서 한국적 색채를 띠기도 했겠지만, 장르적 취약성은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조선 초기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우의 『전등신화』라는 외적 자극이 별도로 필요했던 것이다.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이 나왔어도 아직 오늘날과 같은 기준의 소설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소설이라는 장르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이다. ‘小說’이라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 사실상 주류 담론에 끼지 못하는 ‘기타 장르’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당대인은 그 구심성을 인식 못하고 외연이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魚叔權의 『稗官雜記』(16세기 전반)에는 이인로의 『파한집』과 같은 시화집,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과 『필원잡기』 같은 패설 및 필기집, 최부의 『표해록』과 같은 기행문을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함께 ‘동국소설’이라 하여 거론하였다.¹⁾ 이는 한문학 특히 한문산문의 견고한 장르 체계 속에서 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인데, ‘소설’은 ‘패설’이나 ‘잡기’와 느슨하게 범주화된, 그야말로 ‘기타 등등’의 장르였던 것이다.

이처럼 소설사의 주류였던 한문소설이 한문학 장르의 변방에서 구심성 없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국문소설이 나왔다. 국문소설의 출현 기반은 물론 국문이라는 표기 수단과 한문으로 된 선행 장르 모델인데, 이 둘의 결합 결과는 물론 한문소설의 국문 번역본이다. 즉 국문으로 소설을 쓴다는 발상 자체가 한글이 어느 정도 퍼진 뒤 한문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는데, 그 첫 사례가 원본은 한문본이었지만 1511년에 이미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었다는 채수의 <설공찬전>이다. 이 작품은 현재 17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본(후반부가 없는 200자 원고지 18장 분량의 파본)이 남아 있는데²⁾, 장르 모델은 전기 혹은 지괴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당시에는 사대부가 윤회화복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었다는 점, 그리고 임금이라도 잘못하면 죽어 지옥에 간다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할 것이다. 즉 당시에 이미 국문으로 된 이야기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

1) 『패관잡기』 권4 (『국역 대동야승』 1, 민족문화추진회, 1971) 530쪽

2) 이복규, 『초기 국문·국문본 소설』 (박이정, 1998)

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내가 보니 민간의 무식쟁이들이 諺字를 배워 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베껴 밤낮으로 떠들고 있다. 그 가운데 <李石端>, <翠翠>의 이야기 같은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허탄하여 도무지 볼 것이 없다.’(洛西居士의 <五倫全傳序>)³⁾. 이것은 1531년의 기록인데, 16세기 전반이면 실제로 국문으로 된 이야기책(국문번역본 포함)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허균(1569-1618)의 <홍길동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17세기 초반보다 상당히 앞 선 시기이다.

국문소설이 출현하면서, 한국소설사는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옥루몽>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상당수 작품이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동시에 유통되면서 이들의 공존이 한국소설사의 한 특징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⁴⁾ 물론 공존 양상에도 시대적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한문소설, 특히 전기소설의 국문소설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졌다.⁵⁾ 그러나 국문소설은 점차 한문소설에 대한 독자성을 형성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독자성의 중 처음부터 확실하게 유지된 것은 표기 차원에서 전적으로 국문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문과 국문이 문학 언어로 나란히 병용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조차도 순전히 국문으로만 표기해온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문 표기에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은 국한문혼용체라는 점에서 그리 낯선 것도 아니고 후대에는 어느 정도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문소설은 국문 표기로 일관해온 강고한 전통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국문소설은 표기가 국문이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문소설에 비해 양식적으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중국소설의 번역본은 예외이지만 국문으로 창작된 소설은 한문산문의 다양한 양식과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는 국문소설 고유의 양식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제목에서 <--전>이나 <--록>, <--기>와 같은 영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양식적 특징은 한문산문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국문소설이 한문소설 혹은 한문산문의 영향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국문소설 고유의 특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래 ‘한문소설목록’이 작성된 바가 있는데, 이 목록은 한문소설의 유형을 傳奇小說, 寓言小說, 傳記小說(傳系 小說), 筆記小說(野談系 小說), 夢遊錄, 英雄小說, 家庭·家門小說, 愛情小說, 世態小說로 나누고 있다.⁶⁾ 국문소설은 이 중 우언소설, 영웅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애정소설, 세태소설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유형의 작품은 거의 없다. 즉 傳奇, 傳, 筆記(野談), 夢遊錄과 같이 한문학 양식 전통이 강한 것들은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공유하는 유형들도 계통이나 양식적 모델보다는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어서 같은 유형이라 해도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한문소설의 국문 번역도 대체로 이 공유 유형에서 이루어지고

3) 심경호, 『국문학 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44쪽.

4)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126쪽.

5)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 양상”(『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양상』, 한국고전문학회·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1988)

6) 김흥규 외, “한문소설목록”(『고소설연구』 제9집, 2000) 369쪽-451쪽.

있어 단순한 표기를 넘어 유형 간의 거리가 상당히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국문소설이 국문이라는 표기의 고유성 외에도 한문소설에 비해 한문학 전통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형성,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홍길동전>이다. 최초의 국문소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장르적 모델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호지>의 영향이라고 해보았자 의적 모티브 정도이고 이 의적 모티브조차도 후대인이 결부시켜 강조한 몫도 있을 것이다, 그레 장르적 모델 대신 서사적 모델로서 신화에서 무가를 거쳐 장구하게 내려오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적 뼈대를 거론하기도 하는데⁷⁾ 그 연원이 너무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뭔가 미진한 감이 있다.⁸⁾ 그러다 보니 마치 문학사에서 갑자기 솟구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오래된 이본으로 확증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19세기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다.⁹⁾

국문소설의 특징은 이런 고유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문소설들에 비해 국문소설은 소설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를 중시한다면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보다 더 소설이라는 장르의 구심성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소설사에서 소설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이 대개 한문소설들이라는 것은 假傳과 夢遊錄이 여전히 소설과 교술 장르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양식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傳記小說(傳系 小說), 筆記小說(野談系 小說)들이 같은 傳記(傳)과 筆記(野談) 안에서도 소설 여부가 갈린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한문산문은 그 양식적 다양성이 오히려 소설 범주 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국문소설은 그런 데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 혹 설화가 국문으로 많이 기록되었다면 국문소설 역시 장르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설화도 한문으로 기록하였기에 국문소설과의 장르적 혼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국문소설은 소설의 장르적 구심성 구축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18세기 이후 대량으로 산출되어 그 양적 비중에서도 한문소설을 압도해왔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고전소설에 대한 종합적 목록에 따르면, 고전소설의 총량은 885종이라고 한다.¹⁰⁾ 관점에 따라 소설 여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통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긴 하지만 한문소설만을 정리한 목록을 보면, 야담집 수록 단편들을 빼면 175종 (야담집 속 단편들을 한 종씩 계산하여 합치면 283종)이 된다.¹¹⁾ 이 두 목록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른바 ‘야담계 소설(한문단편)’의 포함 여부인데, 야담집 속 단편들을 넣든 빼든 고전소설

7)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8) 그나마 참조할 만한 것은, 최소한 1579년에는 나온 것으로 보이는 한문본 <최고운전>이다.(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제4집, 1998) 이 작품은 傳奇小說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 <홍길동전>과의 유사성이 있다.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집, 1999)

9)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10)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 보정』(상)(박이정, 2006) ‘일러두기’ 참조.

11) 김흥규 외, 앞 논문 참조.

총량에서 국문소설의 압도적인 비중이 드러난다.

이처럼 한국소설사에서 국문소설의 위상은 양적으로도 대단하다. 이런 점은 당대에도 어느 정도 인식되었다. 국문소설들이 많아지면서 ‘언문으로 된 소설에 대해서도 무려 수백 종을 한번 보시기만 하면 모두 기억하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으셨다(至於諺傳小說, 無慮累百家, 一覽輒記, 終身不忘)’¹²⁾라거나 ‘내가 보건대, 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능사로 삼는 일은 오직 패설을 숭상하는 것뿐인데,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그 종류가 천이나 백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竊觀近世閨閣之競已爲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千百其種)’¹³⁾라는 기록이 남게 되었다. 물론 한 개인이 수백 종을 보았다거나 패설이 천여 종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18세기 가장 열렬한 소설 애호가였던 兪晩柱의 일기인 『欽英』의 1779년 기록은 상당히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그 주변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의 문자가 있다. 지금 언문은 우리나라의 문자이다. 우리나라의 문자로 소설을 지은 것이 나라 안에 산재해 있는데, 합쳐서 세어보면 무려 수만 권이 될 것이고 그 제목만도 거의 수백 종이 될 것이다. 비록 순일함과 잡스러움이 고르지 않고 기탁(寄託)한 바가 일정하지 않지만, 요컨대 모두 우리나라 패관의 서적이다. 훗날 예문지(藝文志)를 편찬할 때, 언문이 비루하다고 하여 수록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毋論華蕃, 皆有本國之字. 今諺文, 卽東國之字. 以東國之字, 作爲小說, 散在國中, 無慮累萬卷. 其名目, 幾數十百種. 雖純駁不齊, 托寄非一, 要皆東蕃稗官之書也. 後之撰藝文志者, 不可以諺文之陋, 略而不錄也.)¹⁴⁾

이런 사항들을 중시한다면 국문소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설사에서 자기 고유성을 형성 유지해왔고, 장르적 구심성을 갖춰왔으며, 작품의 양적 비중도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어문화 측면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이상과 같이 국문소설은 한국소설사 안에서 한문소설과 공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을 넓혀 소설을 하나의 국어문화 측면에서 본다면 국문소설의 위상은 한문소설은 물론이고 같은 국문으로 된 문화적 산물 중에서도 압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문소설조차도 어느 정도 경멸적인 의미로 불렸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국문소설이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국문으로 널리 유통된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 같은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국문소설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문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사적 혹은 풍속사적 기록들로 남아 있다. 즉 오늘날 같으면 신문 사

12) 순암 안정복의 <先妣恭人李氏行狀>(1770),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이회, 2005), 176쪽.

13) 채제공, <女四書序> 위 책, 107쪽-108쪽.

14)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이회, 2005), 256쪽-257쪽.

회면에나 다름직한 것으로 취급받았으며 일부 작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스캔들’ 수준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문소설은 언어문화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를 크게 생활문화(어문생활사) 측면과 예술문화 차원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어문생활사 차원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어문생활은 크게 읽고 쓰는 것과 말하고 듣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문소설의 수용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오늘날보다는 더 폭넓게 걸쳐 있다. 오늘날의 소설 수용은 대체로 조용히 혼자 읽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설 필사와 소설 낭독과 듣기가 더 있었다. 필사는 단순히 옮겨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본 생성이라는 좀더 적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소설 낭독과 듣기는 제한적이긴 해도 말하고 듣는 것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없는, 이 일반 독자의 베껴쓰기나 소설을 읽어주고 듣는 것은 국문소설이 어문생활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방면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 국문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읽기와 쓰기이다. 한글은 諺文이라 하여 眞書 혹은 文字에 비해 천하게 취급했지만 여성의 문자로서는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사용할 정도로 약간은 존중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경우에 특히 해당되었지만, 한문을 접하기 힘든 남성에게도 한글을 통한 읽기와 쓰기는 중요했다.

여성의 경우, 한글 사용은 실생활의 필요(한글 편지, 매매문서, 제사나 생일 기록, 衣樣이나 버전본 작성 등), 문학적 필요(소설이나 가사의 필사와 독서), 여성교육상의 필요(여성 교육서, 음식 조리서 작성 및 독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⁵⁾ 이들 범주에 따라 남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실생활의 필요(한글 편지, 매매문서 작성), 문학적 필요(소설, 가사, 기행문의 창작과 독서), 여성교육상의 필요(여성 교육서 작성)로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이중 남녀가 공통되는 것은 편지, 소설, 가사 관련 용도인데, 이 중 한글 편지는 지극히 실용적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은 물론 여성과의 소통을 위해 남성에게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은 거의 한 번도 정규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되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서당에서<천자문>, <동몽선습>과 같은 책을 가르치기 전의 도구로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서당 교육을 받는 일부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한글은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노력하여 배웠을 것이다.

17세기 초(1612년)에 작성된 현풍곽씨 언간을 보면, 곽주가 외가에 간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 ‘유무’를 써 보내게 해달라고 장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¹⁶⁾ 그리

15)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5호, 2006) 284쪽.

16) 백두현, “17세기 초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생활상-과거, 책, 교육-”(『문헌과 해석』 창간호, 1997)

고 17세기 후반 林泳(1649-1696)의 연보에는 그가 8살 때 누이들에게 女史古談을 읽어달라고 청하여 듣다가 누이들이 귀찮아하자 스스로 反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한글을 반 나절만에 깨쳤다는 내용이 있다.¹⁷⁾ 이 두 사례에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나 동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 편지 쓰기와 소설 읽기가 주요 동기로 나와 있다. 차이는 전자는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친 것이고 후자는 문학적 흥미 때문에 스스로 깨친 것이라는 데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적 흥미로 보면 시조, 가사, 소설이 다 해당된다. 그러나 시조는 사대부 남성의 장르였고 여기에 기녀들이 부차적으로 동참했을 뿐이므로, 남성 사대부를 넘어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확대시키는 데 가사와 소설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가사는 시조보다는 담당층의 폭이 넓은 편이고, 특히 사대부 여성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시조가 풍류라면 가사는 교양’이라는 인식이 있어, ‘사대부 부녀자들은 가사에서 마땅한 행실에 대한 교양을 얻으면서 국문을 익히고 문장력을 가다듬었’¹⁸⁾던 것이다. 오늘날 규방가사의 범주에 드는 작품은 대단히 많아서 이를 제외한 사대부 가사의 총량을 압도할 정도인데, 이는 이 장르가 실용성을 넘어 여성의 내면을 토로하는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앞 임영의 사례에서 보듯,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게 하는 힘을 기준으로 본다면 같은 국문 문학 중에서도 시조와 가사는 소설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 국문 소설은 사대부 남성들도 읽었겠지만 그들은 음성적인 독자였고 사대부 여성에서 시작하여 서민 남녀를 아우르는 다양한 독자층이 주 독자층이다. 극히 소수이겠지만 노비 계층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한글을 배워 국문소설을 필사하거나 읽는 데 활용하였고, 역으로 이런 필사와 독서를 위해 한글을 배우기도 했다.

이제 이들 소설을 읽고 필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여성의 소설 독서와 필사에 관한 기록은 제법 풍성하다. 김만중과 조성기가 소설을 좋아하는 모친을 위하여 <구운몽>, <창선감의록>을 지었다는 것은 유명한 예이지만, 그 이전인 17세기 전반(1632년-1634년)에 이미 ‘상중에 부윤공의 부인 이씨께서 우연히 언문소설을 보다가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李萬敷, 『息山集』)¹⁹⁾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趙泰億(1675-1728)의 어머니가 필사한 <서주연의> 국문 번역본을 마을의 여자(閭巷女)에게 빌려주었다가 잃어버린 이야기²⁰⁾,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1652-1712)가 직접 필사한 <소현성록> 등의 소설 6종에 대한 기록²¹⁾(130) 등 이 있는데, 나이든 어머니의 격조 있는 소설 독서와 필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담겨 있다. 이는 필사라는 것이 이업(肄業)이라 하여 개인의 수양 과정으로 보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²²⁾

남성 독자의 경우, 사대부층 독자는 나름대로 품위 있다고 생각하는 한문소설이나

81쪽.

17)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동방학지』 57집, 1988) 118쪽.

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4판)』 (지식산업사, 2005) 384쪽-385쪽.

19) 권태을, 『식산 이만부 문학 연구』 (오성출판사, 1990), 187쪽.

20)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 책, 89쪽-91쪽.

21) 위 책, 129쪽-131쪽.

22) 양진석, “조선 시대 필사의 주체와 필사본 제작”(『한국사 시민강좌』 37호, 2005) 97쪽.

중국소설의 번역본 그리고 <구운몽>과 같은 국문소설들을 읽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여성처럼 국문소설을 필사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사 국문소설을 읽고 필사를 했다 해도 임영의 경우처럼 어려서의 일로 치부하고 성장해서는 자기 검열을 하여 후대의 유만주와 같은 특이한 사례를 빼면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다. 언문 고담 책을 잘 읽어 풍족하게 산다는 金戶首 이야기(<요로원야화기>, 17세기 후반)는 그나마 남은 기록이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국문소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기록도 많아지는데, 여성의 경우 소설 읽거나 필사가 사대부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앞 시기와는 달리, 이제 여성의 소설 독서에 비한 비판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세기 후반 채제공과 이덕무의 기록이다. 채제공(1720-1799)의 글은 앞에서도 일부를 보았는데 인용문 뒤에는 부녀자들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혹은 빗을 내서라도 다투어 왜가(儻家)에서 패설을 빌려 그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느라 음식 만들고 바느질해야 하는 책임도 잊어버린다는 비판이 있다. 이덕무(1741-1793) 역시 『士小節』에서 여성이 한글로 번역된 전기를 탐독하여 집안일을 방치하거나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빌려보느라 가산을 기울인 경우도 있다면서 소설 읽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그 경계 내용 중에는 이들 소설 내용이 ‘투기와 음란한 일’이어서 부인이 방탕함과 방자함이 여기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는 것도 있다.²³⁾

남성의 경우, 집단적으로 그리고 공개된 장소(담배 가게, 射場, 약국, 객점 등)에서 수용한 경우²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들 수용층은 대개 문맹이었기에 한글과는 거리가 있다. 한글 해독과 관련해서는 자기 집에서 혼자 독서를 하거나 잘 읽는 사람을 불러 읽히게 하고 듣는 사람²⁵⁾을 들어야 할 것이다. 양반 재상가를 드나들며 소설을 읽어주었다는 이자상 이야기(19세기)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서민남성들의 개별적인 소설 읽기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할 가치-비판하는 것을 포함하여-를 못 느꼈을 것이다. 반면 “낮이면 농사짓고 정방중이면 언문자나 뜯어보고”하는 사설시조의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나무꾼의 사례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자료이다.

내가 살던 곳 가까이에 이씨 성의 나무꾼이 살았는데,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저녁에는 술불 헤고 소설(傳奇) 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申緯, 『李樵夫序』)

이러한 남녀 독자의 증가와 함께 방각본 소설들도 나왔는데, 일부 다른 책도 있었지만 주류는 국문소설이었다. 이것이 주로 서민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심지어 속향전 풍운전의 류가 가항(街巷)의 천한 말과 하류의 낮은 글씨로 판본에 개간하여 시장에 매매하니 이로 기록치 못하겠거니와 대

23)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 책, 229쪽.

24)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김열규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76)

25) 위 논문 참조.

개 그 지은 뜻과 베푼 말을 볼진대 대동소이하여 사람의 성명을 고쳤으나 사실은 흡사하고 선악이 내도하나 계교는 한가지라. 전혀 부인 여자와 무식 천류가 즐겨보기를 위한 고로 말씀이 비루하고 계책이 경천하여 불과 생산하던 말로부터 중간 혼인하고 평생 공명부귀하던 말뿐이니----26) (현대 철자로 바꿈) 1835년-1848년 사이에 쓰여진 홍희복의 <제일기언서>인데, 그 내용의 천한 말과 낮은 글씨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비판 대상인데, 이는 그야말로 방각본 소설들의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국문소설은 18세기 이후 기존의 사대부층을 벗어나 부녀자층과 서민 남성들이라는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문소설이 이들을 독자로 끌어당겼다는 것인데, 이는 국문소설이 바로 18세기 이후 크게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7세기는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기에 해당되고 18세기 들면서 국문소설들이 대폭 증가하여 19세기에 이르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체제공과 이덕무의 글에 보이는 왜가나 돈을 주고 소설을 빌려보는 곳(세책방)이 등장한다든가 나중에 볼 남성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출현한 것도 다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자해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서양 중세의 사례를 보면, 16세기 유럽인 대부분이 문맹이어서 알려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겨우 3.4%만이 글을 읽었고, 그나마 여자는 1% 정도도 못 미쳤고, 이보다 좀 나은 영국은 남자의 약 9%, 여자의 경우 1% 정도였다고 한다.²⁷⁾ 이후 유럽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15세기 중엽), 교육 제도의 확장으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조선의 경우 국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덕분에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18세기 이후 국문소설과 독자층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우 명말에 다른 책들과 함께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등 신흥문학 장르인 백화소설들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소설 삽화도 발달하였는데, 이는 소설 독자 및 비평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이를 한 연구자는 ‘미디어 혁명’이라고까지 하고 서민이 책을 읽은 것을 대단히 중시하였다.²⁸⁾ 그렇다면 방각본까지 이어진 국문소설의 폭발적인 증가와 부녀자 서민 남성들이 소설을 읽게 된 것도 한글 해독층의 증가를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어문생활사의 혁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2) 예술생활사 차원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국문소설은 단순히 어문생활사 측면에서만 국어문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소설이라는 하나의 예술로서 독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인해서

26)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아세아문화사, 1994) 184쪽-185쪽.

27) 한스 요하힘 그립 지음, 노선정 옮김, 『읽기와 지식의 감추어진 역사』(아침, 2006) 397쪽.

28) 오키 야스시 지음, 고인덕 옮김, 『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서민이 책을 읽다-』(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독자로 하여금 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 예술적 욕구란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 국문소설을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문소설 이본을 형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국문소설을 예술 작품으로 읽는다는 것은 한글로 된 소설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 소설에 몰입하면서 작품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일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리 단순치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설 읽기에 대한 기록이 여성에 집중되어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 소설 읽기는 처음에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는데, 18세기 이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졌다. 앞의 채제공과 이덕무의 글은 그런 것을 대표한다.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앞서서도 말했듯이 18세기 이후 국문소설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물론 18세기 이후에도 사대부 여성들이 격조 있다고 생각되는 소설들을 필사하고 읽는 것은 긍정적이었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8세기 이후 대량으로 나온 통속적인 소설들이다. 개인적으로 필사하고 빌려보는 단계를 지나 시장을 통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소설은 흔해지고 좀더 통속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을 읽는 열렬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들 열렬 독자층이 세책방을 드나들며 잡다한 소설들을 읽는 것이 비판 대상이었다.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오락으로서의 독서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 여성을 가부장적 구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여성의 소설 읽기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록(1734년)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집안 일하기와 소설 읽기를 선악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선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병적이어서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부인의) 성품은 근검했다. 당시 부녀자들이 잡거나 소설 읽기 등을 매우 숭상했는데, 부인만은 즐겨하지 않고 오직 바느질하는 것만 즐겨서 병이 위급해지기 6-7일 전까지도 길쌈을 그만두지 않았다. 온종일 쉬지 않고, 밤이 되어서도 잠을 자지 않았으며 혹 잠자리에 들어서도 일을 했는데, 새벽에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性勤儉, 時俗婦女多尙雜技小說, 而君獨不喜, 惟耽女紅, 至病革前六七日, 不廢紡績之工, 竟日無休息, 深夜無寐, 或臥而治之, 卽曉, 猶聞其有簌簌聲)²⁹⁾

남성들이 여성의 소설 읽기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이었던 것은, 소설 그 자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덕무가 지적했듯이 남녀간의 사랑이나 가정 내의 투기 등은 여성에게 예상 밖의 자극을 줄 수도 있었다. 전기소설이나 가정 가문소설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전기소설의 사랑은 대개 순결하면서도 망설임이 없는데, 남녀가 만나서 즉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열정은 그 뒤의 신의로 이어진다 해도 위험해보일 수가 있다. 처녀 총각의 사랑도 불륜이라는 점에선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권선징악에 해피엔딩이어서 윤리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상상력에 입

29) 위 책, 127쪽-128쪽.

각한 감정의 해방이 언제든지 현실을 이룩할 위험을 내장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점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가 바로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국문소설이 대량으로 나와 여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딱딱한 여성교육서나 음식조리서에 비해, 소설이란 답답한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흥미롭게 세상을 내다보기는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것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여성들은 아는 집에서 소설을 빌려 읽거나 필사를 해서 소유를 했고, 혼인할 때 혼수 속에 넣어가기도 했다. 국문 통속소설들이 대량으로 나오기 전, 소설도 많지 않았거니와 집안에서 반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변의 시야 안에 있어 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대량으로 통속화된 국문소설들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세책방 같은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빌려보는 소설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위와 같은 우려의 소리가 나온 것이다.

소설 쓰기는 기존의 소설을 읽고 흉내 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기존 소설들의 베껴쓰기를 하면서 이본을 생성하는 것이 끼어있다. 한국 소설, 특히 국문소설은 이본이 많다. 이본 총수가 50종 이상인 것 36편을 보니, 국문소설(소수의 한문본이 있다 해도 원본이 국문으로 추정되는 것 포함)이 28종, 한문본과 국문본이 비슷하게 있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6종, 중국 소설 번역 및 개작이 2편이었던 것이다.³⁰⁾ 이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문소설을 베껴쓰면서 약간씩 고쳐서 썼다는 것인데, 이는 제2의 창작이라 함직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저작권 개념이 없다거나 작가가 익명이어서 그렇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보면 소설 독자들의 창작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읽기를 넘어 수많은 이본을 산출한 것도 일종의 문화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본 생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될 것이다. 현재 알려진 한국소설의 작가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알려진 작가라 해도 한문본과 국문본이 동시에 유통되는 작품을 쓴 양반 사대부 작가로 한정되어 있다.³¹⁾ 그리하여 나머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소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작자층으로는 상층사대부 남성, 몰락양반층, 여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예이지만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광대와 개작자로서의 양반층이 거론되고 있다.³²⁾

이들 기록에 국문소설의 주 독자층이었던 부녀자나 서민 남성들이 작품을 썼다는 것은 거의 없는데, 드물게도 가문소설 『완월』을 지었다는 안겸재 모친이나 『옥원재 합기연』을 지었다는 여성 작가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제일기언서>에는 ‘일없는 선비와 재주 있는 여자가 고금 소설에 이름난 바를 낱낱이 번역하고 그 밖 허언을 창설하고 객담을 변연하여--’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재주 있는 여자’가 어떤 계층인지는 모르지만 여성이 소설 번역과 창작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0)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 2』(지식산업사, 2001) 122쪽.

31) 위 책, 148쪽.

32) 조광국, “한국고전소설의 작자”(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초기 소설의 경우에 알려진 작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작가가 익명이 많다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에서 본 대로 소설이 폭발적으로 나온 시기이다. 그리고 영웅소설 유형은 그 유형성이 강해서 오늘날의 ‘장르소설’ 같은데, 그만큼 다른 유형보다 선행 작품을 모방하여 새롭게 창작하기 쉬운 유형이다. 그렇다면 서민 남성이나 여성들이 작가로 진입하기 가장 쉬운 유형이기도 했을 것이다.

영웅소설은 고전소설의 여러 유형 중에 소설 비판의 핵심에 있는 것이지만, 달리 보면 통속적인 이야기를 찾는 새로운 수용층과 맞물려서 등장한 ‘새로운’ 소설이기도 하다. 즉 영웅소설은 그 자체로서 통속적이고 다소는 유치한 작품들을 요구했던 수용층의 산물이면서 역으로 이들을 문학의 장으로 끌어들이 문학 체험을 하도록 해 준 대표적인 양식이었던 것이다.³³⁾ 바로 이 새롭게 부상한 독자층과 새롭게 부상한 소설 유형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영웅소설 유형이야말로 서민남성과 부녀자층의 참여가 많았던 유형이 아닌가 싶다. 부녀자층의 경우 영웅소설 일부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여성영웅소설이라고 불리는 하위 유형의 창작에 주로 관여했을 것이다.³⁴⁾

영웅소설들 중에도 여성 수용층이 제법 되리라는 것은 <유충열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가사체 율문이 많은 가운데 주정적 성격이 강하고, 가족 이산과 재회가 여성 수난과 결부되어 나와 있다. 게다가 유충열이 가족에게서 벗어나 유아적 고난을 보여주는 대목은 모성애를 자극한다. 남성 영웅상을 보여주지만 그 내부에는 여성이 공감할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영웅소설의 형식에 여성주의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거나 우세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초기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방한림전>처럼 동성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상력까지 보여준다. 가장 통속적인 유형에다 가장 진보적인 사고를 담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들 유형이 비판 대상이긴 해도 통제 범위 밖에서 유통되던 것과도 연관될 것이다

국문소설은 그 내용이나 주제 측면에서만 예술생활사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국문소설은 국문으로 된 산문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국문소설은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생한 구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한문소설의 문체적 영향을 받아, ‘생활 언어의 문어화’³⁵⁾를 통해 국문 문체를 형성해왔다. 그 덕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소설 문장을 형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시가에 비해 생활어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가사는 처음부터 한글로 창작되고 한문 기록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누항사>에서와 같은 생활어를 대폭 수용할 수 있었다.³⁶⁾ 반면 소설은 한문소설이라는 선행 형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33) 졸고, “영웅소설 연구사와 담론들-논쟁과 편견”(『한국고전연구』 14집, 2006) 45쪽-46쪽.

34) 문학이 한 집단을 ‘대변(speak for)’하는가 아니면 한 집단을 상대로 ‘이야기하는가(address itself to)’라는 물음에서 후자에 동의한다면, (그래엄 하프 저, 고정자 역, 『비평론』, 이화여대출판부, 1982, 52쪽) 영웅소설 작자층으로 ‘물락양반’만을 드는 것은 미진해 보인다. 영웅소설 독자에 서민남성이나 부녀자층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이 작자로도 어느 정도는 관여했을 것이다.

35) 이승욱, “국어에 대한 관심과 국어 사용의 확대”(『한국사상대계』 5, 정신문화연구원, 1992) 407쪽.

36) 위 논문, 435쪽-436쪽.

그리하여 문장체 소설 혹은 문어체 소설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산문 조직 방식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활발하게 일어난 판소리의 소설 정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약점을 크게 보완하게 되었다. 지문에는 여전히 문어체 흔적이 남아 있고 한자어구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판소리계 소설은 방언 및 비속어를 포함한 일상 생활어를 대폭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학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어가 기록문학화한 것은 판소리 텍스트에서 비롯한다³⁷⁾는 말도 있거니와, 구비 연행 장르였던 판소리를 소설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문 산문의 발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문소설은 한문소설과는 다른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더욱 발달시켰고, 그것을 인물 형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해학과 풍자라는 미학도 이런 수사적 뒷받침이 있어 더욱 발달했던 것이다.

어쨌든 독자들은 국문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다양한 문체와 수사를 포함한, 국문으로 된 산문의 언어 조직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근대소설이 비교적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도, 신소설의 공이라기보다는 고전소설의 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설의 몇 가지 기법을 넘어 국문 산문이라는 기본적인 몸체를 형성한 주역이 고전소설이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국문소설이 국어문화적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문소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설사에서 자기 고유성을 형성 유지해왔고, 장르적 구심성을 갖춰왔으며, 작품의 양적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이런 국문소설은 어문생활사 측면에서 국문 읽고 쓰는 능력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하나의 예술로서 독자로 하여금 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는데,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서 국문소설을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문소설 이본을 형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문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은 다각도로 볼 수 있기에 여기서 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국문소설은 한문소설과는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었는바, 일본인의 한국어 교육에 소설들이 활용된 사례는 그 예이다. 그리고 국문소설이 주도한 경판과 완판 방각본은 국어문화의 매체 변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국문소설을 과거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고,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학 콘텐츠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또 아동문학으로도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했다.

끝으로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문소설이 수용되던 당시의 소통 방식도 하나의 문화 유산으로 보고 되살려 볼 수도 있다. 즉 소설을 혼자 소리 내어 읽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읽어주는, 일종의 연행적 독서는 오늘날 묵독 위주의 독서 환경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근래 일본에서 문학 작품을 대중 앞에서

37) 김병국, “국문소설의 문체와 구성”(황폐강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449쪽.

큰 소리로 읽는 ‘낭독 열풍’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본바가 있다.(한겨레신문, 2008년 4월 2일) 이메일과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디지털 소통’이 앞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오히려 육성 언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 열풍의 배경이라고 한다. 이 점 이덕무의 글 일부도 참고가 될 것 같다.

차츰 날씨가 추워질 때에 (책을) 읽으면 기운이 소리를 따라 유전하여 체내가 편안하여 추위를 잊을 수 있게 되며,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땐 눈은 글자에 마음은 이치에 집중시켜 읽으면 천만 가지 생각이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이덕무, <미목구심서>에서)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송 회 복(진주교대)

차 례

1. 풍수적 사유의 시적 담론
2. 청계천 소재의 시에 나타난 풍수적인 생태의식
3. 장석주의 주역시편에 보이는 시적 생태감성
4. 부록 : 이성복의 시에 투영된 역(易)의 잔영들

1. 풍수적 사유의 시적 담론

이미 오래 전의 환경결정론자들은 자연환경의 요인이 문화적인 특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문화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문화결정론자들은 동일한 자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 부여와 상징체계를 통해 전혀 다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태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환경결정론은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문화결정론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과 자연을 만나게 하는 중개자일 수도 있다. 생태주의의 시각에 의하면, 자연과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은 생명의 악순환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이다. 이것의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선 생명의 선순환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명의 선순환이 진행되는 문화는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이 가능한 문화이다.¹⁾

1990년대부터 문학을 창작하고 비평하는 쪽에서 생태주의에 근거한 관점에 대한 발상전환이 점진적으로 제고되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문학의 생태주의적인 관점의 생각들은 소설가 박경리 「토지」의 창작 과정과 시인 김지하의 생명사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지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관점에 심오한 자기 체계에서 시작된 사유의 틀을 형성해 왔다. 그가 생태라는 용어조차 생명이란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올 만큼, 그는 생태주의에 관한 한 급진주의자의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풍수(학)에 관해서도 그는 희망적인 관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언젠가 대담에서 그것에 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기맥, 이것은 우주생명의 흐름입니다. 동식물은 물론 산과 흙과 바위와 물마저도 영성을 가진 생명체로 보는 풍수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보이지 않는 기

1)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4, 295~300면, 참고.

맥을 집어내는 풍수의 영성적 기감(氣感)은 생태학의 관찰 검증 방법과 탁월하게 결합되어야 하구요.²⁾

그 동안 분류학적인 차원에서 풍수설화를 인식해온 것은 있었지만, 문학의 사유와 담론을 풍수(학)의 패러다임에서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이 인용문은 문학의 사유와 담론 속에 풍수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최초의 (우회적인) 발언이 아닌가 한다.

문학 중에서도 풍수와 깊이 상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 쪽이 아닌가 한다. 서정시와 풍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의 사상 배경 중의 하나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이다. 서정시와 풍수는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 속에 있는 기가 하늘, 땅, 우주 만물의 기와 통하게 되면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된다.³⁾ 소우주와 대우주가 늘 상응한다는 것. 우주론적인 영성의 콤비네이션이다. 서정시가 만물조응의 결과라면, 풍수는 물할론적인 상징체계의 표상인 거다.

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의 목록 가운데 생태의식이란 게 있다. 최근에 생태학적인 상상력에 깊은 사유와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노대가의 생각 틀에도 동기감응론이 엿보인다. 이 동기감응의 결과가 바로 심미적 이성의 탁월하면서도 독창적인 가설로 연결된다. 그를 최근에 연구한 저술물에서 다음의 글을 따온다.

생태의식은 자기 삶을 자연의 전체성에 맞게 돌보며 가꾸는 생활방식으로서의 심미의식인 까닭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름다움은 곧 생활의 무늬가 되고, 생활의 이러한 무늬로부터 개인적 삶은 우주적 전체의 섭리를 닮게 된다. (……) 김우창의 이성은 내면과 외면, 자아와 타자, 감성과 지성, 개체와 전체, 구체와 보편을 시적이고 심미적으로 통합한다. 심미적 이성은 이런 각고의 학문적 노력이 빚어낸 성찰적 결정체이다.⁴⁾

김우창은 『풍경과 마음』에서 시와 풍수지리의 관계를 거대한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담론과 표상의 체계 아래 두루 살피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의 해명은 다음 기회로 돌리려고 한다. 요컨대 그에게 있어서 풍수란, 경험적이고 지리적인 차원에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의 총체적 관련성의 문맥에 닿아있다는 것이다.

2. 청계천 소재의 시에 나타난 풍수적인 생태의식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풍수 학술대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를테면, 풍수는 환경이란 용어의 원형이 된다는 것. 풍수는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동아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번져 나갔고, 지역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응용됐다는 것. 풍수는 일본에서

2) 김지하, 『생명학(1)』, 화남, 2003, 79면.

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78면, 참고.

4) 문광훈, 『김우창의 인문주의』, 한길사, 2006, 328면.

문화 요소의 하나로 인식됐고, 오키나와나 베트남에선 공간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했다면, 한국은 그것을 통해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는 것. 한국적인 자생풍수의 특징은 허(虛)한 곳을 보완하는 비보풍수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한반도에서 꽃을 피운 풍수가 동아시아 전통의 지식 체계로 주목되고 있다는 것…….5)

풍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이것은 집이나 무덤 따위의 방위와 지형이 좋고 나쁨과 사람의 화복이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는 학설, 또는 그 방위와 지형을 두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풍수를 살펴보는 지관(地官)을 가리켜 풍수라고도 한다. 풍수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이것은 고대의 중국에서 기원했다. 전국 시대의 말기에 발생한 풍수적인 사고 관념이 한대(漢代)에 이르러 음양설이 도입되면서 그 논리 체계를 갖추었고 남북조 시대에서부터 음택(陰宅) 이론이 덧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6)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거주 장소인 양택(陽宅)에 대한 관심이 죽은 자들의 공간인 음택보다 기원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풍수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 적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풍수 사상은 음택 풍수가 상대적으로 승하여 본질을 왜곡해가면서 스스로 타락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

풍수의 어원은 무엇일까? 과문한 탓에 잘은 모르지만, 장풍득수(藏風得水)라는 표현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바람을 잘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는 것. 장풍득수라는 표현이 풍수보다 먼저라면 풍수의 어원인 것이 맞다. 하지만 장풍득수가 풍수에 대한 하나의 부연 설명이라면, 풍수의 어원은 또 다시 미궁에 빠진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요, 그 다음이 바람이다. 풍수에는 생태 통로의 맥이 있다. 물과 산줄기와 바람이다. 물의 흐름과 바람이 흘러가 산줄기에 가두어지는 것은 기운이 생동하는 생명 에너지와 같다. 궁극적으로 볼 때, 풍수에서 물의 흐름이 으뜸이요, 바람을 가두는 게 버금이다.

인간 문화의 필수 요인인 물은 자연 생명체 모두의 생존에도 중요하다. (……) 산줄기가 바람을 가두어 내와 천, 강으로 이어져 흐르는데, 이런 명당 체계의 언저리에서는 온갖 다양한 생물종이 최대를 부양한다.7)

우리나라에서 풍수가 좋기로는 천 년 전의 도참 비결서에서 이미 정도(定都)를 예견한 데8)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이다. 풍수의 으뜸인 물이 풍부하고, 물의 흐름이 더 없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체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형

5) 조흥섭 환경전문기자,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풍수’는 과학이다」, 한겨레신문, 2014. 1. 30, 참고.

6) 권선정, 「풍수의 입장에서 본 취락입지」,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푸른 나무, 1993, 235면, 참고.

7) 한면희, 앞의 책, 310면, 참고.

8) 비결서에 ‘삼각남면임한강(三角南面臨漢江)’이란 예언이 있다고 하나, 나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전언으로 들은 바 있다. 이 말의 뜻은 ‘(왕도를) 삼각산 남쪽을 면하게 하고, 또 한강을 임하게 하라.’는 것이다.

국을 보인다. 그런데 서울의 청계천은 서울 풍수의 주산인 백악(白岳)에서 나와서 내 명당을 거쳐 동으로 흘러간다.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역방향의 흐름새가 예사롭지 않아서 천하의 명당수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 풍수의 핵심은 산보다도 물이며, 또 객수에 지나지 않는 한강보다는 명당수인 청계천에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청계천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시인들의 풍수적인 생태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한다.

서울에 내리는 / 비는 / 청계천으로만 흐른다 / 아픔과 굴욕으로 / 굳어진 / 나의 살갓을 깎고 벗기며
/ 내리는 빗줄기 / 녹슬은 쇠못같이 / 한국의 빗줄기는 / 청계천 에만 흐른다

무거운 덮개를 쓴 채 / 목마르게 흐르는 / 청계천이여 / 아무도 볼 수 없는 / 어둠 속을 / 한 쪽으로
한 쪽으로 / 비밀처럼 밀려만 가는 / 청계천이여 / 역사가 분실한 온 갖 사물이 / 오물처럼 흐르는 /
이름만 아름다운 / 이제 / 이름만 남을 / 청계천이여

청계천에 / 떨어지는 / 빗소리는 / 못 치는 소리 같다 /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 신나게 못을 쫓는
로마 병사의 / 바로 그 소리 같다 / 청계천에 / 빗물이 / 숨 가쁘게 차면 / 나의 오십년은 / 분실물
로 가득 차진다

—이봉래의 「청계천(3)」 전문⁹⁾

이 시는 명화로 손꼽히는 「육체의 길」(1965) 등의 작품을 남긴 영화감독으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한 시인 이봉래가 남긴 연작시 「청계천」의 한 편이다. 여러 가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1970년대 중반에 쓰인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극심한 환경오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본디 서정시는 ‘시자천지지심야(詩者天地之心也)’라고 하여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지복(至福)의 상태에서 생의 의미를 깨는 것이다. 서정시의 동일성 이론에 의하면, 시의 향방은 다름 아니라 우주 생명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옥타비오 파스 역시 오늘날 서정시의 역할을 두고 시의 우주적인 리듬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용시는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의 표상인 청계천에 대한 문명비판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의 청계천은 반(反)풍수적인 타락의 양상을 보이는 그런 자연 대상물이다. 오십 년을 살아온 ‘나’인 서정적 자아와, 청계천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맺어 있는 불화 관계는 우주 생명, 우주적 리듬에 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청계천에 비는 내리는데
기름 먹은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방방 떠는 아이들, 녹색 심장
너, 또 청계천 가자고 하는구나

9) 이봉래, 『역광의 신』, 서문당, 1982, 55~7면.

썩어 문드러져 코를 쥐고
 악취 풍기는 청계천
 서울의 핏물은 다 막혀 있는가
 우리들의 맑은 청, 시내 계
 맑은 시내 청계천은 어디 있는가
 왕십리 미나리밭 혹은 연신내
 모래내는 어디 있는가
 너, 또 청계천 가자고 하는구나

—정대구의 「청계천은 어디 있는가」 부분¹⁰⁾

인용시는 진단시동인회에서 펴낸 사화집 『청계천은 흐른다』(진단시동인지 제27집)에 실려 있다. 이 사화집이 청계천 복원 기념호의 성격을 지닌 것인데, 이 시는 청계천 복원 이전에 발표한 구고(舊稿)임을 밝히고 있다. 이 시는 앞서 보았던 이봉래의 「청계천(3)」처럼 일종의 문명비판적인 시로 읽힌다. 시인은 여기에서 맑은 시내 청계천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탄식한다. 여기에서의 청계천은 보통명사가 아니다. 생태학적인 이데아를 가리키는 추상명사일 따름이다.

왕십리 미나리밭은 또 뭐가.

미나리밭으로 넘쳐나던 왕십리는 청계천과 중량천이 만나는 지점과 가깝다. 환경이 깨끗하지 않고선 왕십리 미나리가 서울의 전통 토산물이 될 수 없다. 중량천과 한강이 맞닿는 곳인 두모포(豆毛浦)의 콩나물도 마찬가지다. 청계천이 흐르는 곳의 말단에 토산물 산지들이 있었다.

생태학적인 시의 과제를 다루는 시도 상이하고도 유다른 성격의 시가 있다. 하나는 생태학적 문명비판시라면, 다른 하나는 생태학적 서정시이다. 지금까지 본 두 편의 시들은 전자에 해당한다. 다음에 제시될 두 편의 시편들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에 인용될 시 두 편은 2005년 10월1일에 복원된 청계천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청계천은 동맥이다.
 서울 시민의 핏줄이다.
 맑은 핏줄에 붉은 피가 흐른다.

청계천은 심장이다.
 서울 시민의 심장이다.
 한국인의 동맥과 정맥이 흐른다.

청계천은 밤의 혼불이다.
 민족의 혼불, 파고다 공원이 곁에 있다.
 한국인의 혼불을 에워싼 복악이 있다.

—신협희의 「다시 태어난 청계천」 전문¹¹⁾

10) 진단시동인회, 『청계천은 흐른다』, 진단시동인 제27집, 시문학사, 2006, 104~5면.

11) 같은 책, 51면.

이 땅의 명당수련가
다시 열린 청계천
흐르는 개울물에
송사리떼 무리짓고
가던 맘
잠시 멈추어
넷물 속에 젖어본다.

—이지연의 「청계천은 다시 흐른다」 부분¹²⁾

신협희의 「다시 태어난 청계천」은 앞서 말한 진단시 동인 제27집인 『청계천은 흐른다』에 실려 있는 자유시이며, 이지연의 「청계천은 다시 흐른다」는 자신의 시조집인 『청계천은 다시 흐른다』에 실려 있는 시조의 2연 형태 중에서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풍수는 기(氣)와 관련된 논리 체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기란 무엇인가. 이것은 서구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 기란 것은 생활의 용어로서도 두루 쓰이고 있다. 예컨대, 기막히다, 기고만장하다 등과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회남자(淮南子)』라는 책에 ‘기(氣)는 생(生)의 충(充)이다’라고 했듯이, 이것은 ‘생동의 충만’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에너지, 힘, 원기, 변화 등을 일컫는다.

풍수의 사상적인 지향성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하나는 기생태주의(Ch'-ecology)요, 다른 하나는 천지코스몰로지(Tiandi-cosmology)이다. 기생태주의에 의하면, 풍수관은 한의학적인 인체관을 지닌다. 사람의 인체는 기혈(氣血)이라는 에너지로 구성된다. 기와 혈이 흐르는 생명적인 통로의 맥은 경락과 혈맥이다. 풍수는 자연물인 지형과 물길에도 기혈과 같은 생명의 힘이 흐른다고 보고 있다.

신협희의 「다시 태어난 청계천」을 보면, 청계천 역시 한의학적인 인체관에 의거한 자연 형국으로 묘사된다. 여기에서는 청계천이 심장이요 혈맥인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지연의 「청계천은 다시 흐른다」도 풍수적인 사유의 흔적이 배어있다. 명당수라는 시어 자체가 풍수 용어가 아닌가. 앞서 말한 천지코스몰로지도 기생태주의와 상관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생태주의가 한의학적인 인체관에 의거하고 있다면, 천지코스몰로지는 주역적인 우주관을 배경으로 삼는다. 기생태주의를 우주론적으로 확장한 것이 천지코스몰로지다.¹³⁾

주역의 우주 체계는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재(三才)로부터 비롯한다. 천은 시간이요, 지는 공간이요, 인은 인간이다. 천지인의 조화는 여기에 간적(間的)인 존재의 관계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2) 이지연, 『청계천은 다시 흐른다』, 마을, 2008, 13면.

13) 이 대목에서 김용옥의 풍수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한의학의 인체관은 천지코스몰로지적인 기혈론(氣血論)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풍은 산의 형세에 따라 형성되는 기의 흐름이요, 수는 물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혈의 흐름이다. 기와 혈의 흐름은 경락상의 혈(穴)로 표현된다. 이 혈을 잡는 것을 두고 풍수에서는 정혈(定穴)이라고 한다. (김용옥, 『도올의 청계천 이야기』, 통나무, 2003, 46~7면, 참고.)

풍수의 패러다임은 지(地)의 공간적인 사유를 특히 강조한다. 풍수에 있어서의 공간의 공은 관념적인 진공(vacuum)이 아니라, 기로 충만된 생명의 힘이 미치는 역장(力場)이다.

인용한 두 편의 작품은 문학적인 성취도는 그리 높지 않아도 풍수적 관념의 생태주의 시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 작품으로 거론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생태문학의 풍수와 관련된 배경 지식에 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장석주의 주역시편에 보이는 시적 생태감성

장석주의 시집 『오랫동안』(2012)는 주역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수년 전에 『주역』을 만나 이를 수년 동안 읽어 왔다. 그 독서 및 사색의 결과가 시집의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시집은 2013년 제11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의 이유 역시 주역의 시적 변용에 있음이 밝혀졌다.

그는 이번 시집에서 ‘주역’이라는 사유의 그물로 삶과 세계의 법도와 원리를 심도 있게 포착해 나아가면서 현대시의 폭과 깊이를 밀도 있게 형상화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시’라는 감각적 사유의 그물로서 삶과 사유의 내밀한 이치와 운행 원리를 탐구하려 노력한 것은 현대시 사상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 특히 ‘주역’의 운명론과 ‘시’라는 자유론의 변증법적 관계향으로서 설정하여 삶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깊이 있게 천착해 내면서도 슬픔과 허무로서 생의 근원적 서정을 파악해 낸 것은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수상자로 결정된 것이다.¹⁴⁾

보는 바와 같이, 김남조와 고은을 비롯한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은 장석주의 주역시편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인들은 주역을 통해 천지의 원리와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경거망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 주역은 그림 속의 시, 시 속의 그림으로 비유된다. 음양이 서로 섞이고 착종된 64개의 괘와 그에 붙어 있는 설명인 괘사로 구성되어 있다. 64괘는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징한다. 주역은 상징 체계적이고 기호학적이다.

처서 지난 뒤
소나무가 제 무릎 아래에 놓은 그늘 중에서
잘 마른 것을 골라
홀겁 이불로 시린 마음을 덮는다.
묵밥 넘어가는 목구멍으로
슬픔과 곤혹도 넘어간다.

14) 계간 『시와 시학』, 2013, 봄, 39면.

곧 눈보라 칠 게다. 칸나는 눈 속에서 붉고
 험거운 인생들이
 칸나를 보고 제비 나는 것을 볼 게다.

— 「묵밥 1」 부분¹⁵⁾

이 시는 곤(困)괘와 관련된 것이다. 곤괘는 주역의 47번 째 괘로서 곤경을 상징한다. 이 괘는택수곤(澤水困)이라고도 한다. 시의 인용된 부분은 곤경의 처함이 아닌, 곤경의 극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왕필은 이 괘를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곤경에 처했지만 형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올바르게 곤은 뜻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하지만 편협해서는 안 되니……”¹⁶⁾ 곤경에 처해 도리어 형통하다는 건 소위 ‘궁즉통(窮則通)’을 연상시킨다. 또한 「연금술사」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다.’라고 서술된 파울로 코엘료의 경구를 연상시킨다.

해가 뜨네.
 금은(金銀)의 울음을 울며
 살자 하네.
 해가 있으니 밥술이나 떠먹고
 버드나무가 있으니 그 아래를 걸었지.
 살았으니까
 살아졌겠지.

이미 열면
 열지 않네.
 늦지 않으려면 늦어야 해.
 가지 않으려면 가야 해.
 오지 않으려면 와야 해.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해.

달 아래 버드나무 그림자 짙고
 버드나무 아래
 한 사람이 걸어가네.
 살면 살아지네.
 버드나무 아래 한 사람이 걸어가네.
 내가 만약 버드나무라면,
 내가 만약 버드나무라면,

— 「달 아래 버드나무 그림자」 전문¹⁷⁾

15) 장석주, 『오랫동안』, 문예중앙, 2012, 87~8면.

16) 심의용, 『주역과 운명』, 살림, 2004, 34~5면.

17) 장석주, 앞의 책, 60~1면.

이 시는 시집 『오랫동안』에 있는 주역시편 가운데 가장 성취적인 작품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시피 변화롭고도 역설적인 어법으로 쓰인 시다. 이런 어법을 두고 ‘역(易)어법’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그 동안 살았으니까 살아졌겠지, 앞으로도 살면 살아지겠지. 이 시는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설정한 삶(生)의 실존적인 기투(企投)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진행형으로 바라보는 삶(生)의 실존적인 기투를 드러낸다. 시인은 여기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자신을 내던진다.¹⁸⁾ 시인은 모순의 상황, 모순의 어법 속에서 변화의 원리 및 이치를 찾고 있다.

가나 못 가나,
 해남은
 있나 없나
 가면 있고 못 가면 없다.
 이곳에 너는 없고
 저곳엔 내가 산다.
 ……(중략)……
 황사가 오고
 황사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것들은
 해남에 있다.
 저녁 여덟시에 온 것은 고라니,
 고라니는 골짜기가 되어 뛰고
 골짜기는 다시 어둠이 되어 뛰고
 ……(중략)……
 가나 못 가나.
 해남에는 비 내리고
 비는 비가 되어 내리나 못 내리나
 해남에는 눈이 내리고
 눈은 눈이 되어 내리나 못 내리나

— 「달의 사막」 부분¹⁹⁾

장석주의 시적인 역(易)의 발상이 생태학적인 소재나 과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인용시의 경우이다. 다른 시의 경우는 그 연결이 행간 속에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해남은 구체적인 지명을 빌려온 것이지만 사실상 생태적으로 완성된 가상의 공간이다. 주역의 쾌사에는 물과 바람과 우레가 많이 등장한다. 대신에 이 시에서는 황사와 비와 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황사는 이방의 사막에서 불어온 것, 불길한 예

18) 한용국, 「성(聖)과 속(俗)의 진폭, 그 뜨거운 역설에 대하여」, 계간 『시와 시학』, 앞의 책, 51면.

19) 장석주, 앞의 책, 91~3면.

후를 상징하고 있다. 어둠이 날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태적인 부조화의 천기는 흉하다. 흉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역(易)의 이상이다.

공자는 시를 가리켜 한마디로 말해 ‘천지지심’이라고 했다.

천지지심란 무엇인가. 우주 생명, 우주적 조화로움의 경지이다. 주역의 복(復)괘 단사(象辭)에도 이 말이 나온다. “복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復其見天地之心).” 주자와 함께 신유학의 혁명을 일으켰던 정이(정이천)는 이 천지지심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이전의 유자들은 고요함을 통하여 천지의 마음을 보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미세한 떨림의 단서가 곧 천지의 마음이란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先儒皆以靜爲見天地之心，蓋不知動之瑞，乃天地之心也)

— 『역정전(易程傳)』 복괘(復卦) 단사(象辭)²⁰⁾

정이는 천지지심을 ‘움직임의 미세한 떨림의 단서’라고 보았다. 물이 흐르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우뢰가 치는 것,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것 이전 모든 낱새가 천지의 마음이다. 시인의 예감 능력은 이 천지의 마음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정이가 천지지심을 동지서(動之瑞)라고 보았다면, 왕필은 동식지중(動息地中)으로 해석하였다. 말하자면, 움직임이 땅속에서 잤아들고 있는 복괘에서 천지의 마음이 드러난다.²¹⁾

장석주의 천지지심은 무얼까?

그는 왕필의 견해에 동의한 듯하다. 이를테면 ‘뽕족하게 내민다. / 비비추의 파릇한 촉들.’(「입술」에서), ‘비비추가 땅거죽을 밀고 푸른 촉을 내밀었어요.’(「슬픔의 고고학」에서), ‘망종 무렵 비구름이 몰려오고 / 식물들의 촉이 돈다.’(「강의 서쪽」에서) 등의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땅속에 잤아든 움직임에 대한 예감과도 같은 게 천지지심, 즉 태동하는 우주 생명인 것이다.

너 얼음이고 나 서리인가 나 서리고 너 얼음인가 내가 그림자라면 너는 아침 손님이다. 오늘 아침에는 밤나무 숲 가랑잎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고라니를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라니는 달아나지 않는다. 저와 내가 대멸종기의 재앙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한 인연으로 얹혀 있음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 「얼음과 서리」 부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주역적인 대답은 이랬다. 서리를 밟으니 곧 얼음이 얼겠음을 알겠다. 곧 곤괘 초육(初六)의 효사이다. 서리를 밟은 다음의 결빙된 서러움. 슬픔도 일종의 동적인 과정이다. “고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제 나름의 운행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은 움직이는 질서가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움직임의 질서가 바로 역(易)의 질서이며 원리이다.”²²⁾ 장석주의 시편 「얼음

20) 심의용, 앞의 책, 53, 92면, 재인.

21) 같은 책, 52면.

22) 김유중, 「도(道) · 역(易) · 시(詩)」, 『문학청춘』, 2012, 여름, 52면.

과 서리」는 죽음에 관한 것이지만 죽음의 초월을 대신 말한다. 시인에게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 역시 삶의 일부에 포함된다.

역은 이처럼 우주 생명의 진실을 은유하거나 상징한다.

천지의 모든 사상(事象)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감응하는 관계 위에서 존재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시인 장석주가 죽음 역시 삶의 원리 속에서 이해하고 변역(變易)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우주는 친화력으로 이름이 되는 모종의 원리에 의해 이룩해 가는 것이다.

4. 부록 : 이성복의 시에 투영된 역(易)의 잔영들

대체로 보아서, 서양인의 사유 체계가 불변하는 개념의 절대 원리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동양인들의, 특히 중국인들의 그것은 변화의 원리에 충실한 절대 원리를 내세우는 감이 없지 않다. 변화와 변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생기(生起)한다는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역(易)²³⁾의 개념 내지 사유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십익(十翼 : 주역을 돕는 열 편의 보조적인 해설서)을 갖춘 후부터 역(易)에 철학 사상을 주입하여 ‘주역’이란 이름의 텍스트를 정본화(定本化)했다. 역은 이를 통해 덕을 쌓고 마음을 씻는 사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역학 사상의 근본적인 윤리성은 유가(儒家)의 인·의·예·지의 논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역은 궁극적으로 천일합일의 사상을 지향한다. 요컨대, 이것은 천명과 천도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을 바탕으로 하늘과 신명과 인간이 서로 돕고 존중하면서 융화하는 것이다.²⁴⁾

역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고전적인 전범이 바로 『주역(周易)』이다. (이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주로 ‘변화의 책’으로 번역되곤 한다.) 중국의 고대적인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이 옛 경전에는 소위 도(道)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도란 불변의 진리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는 피동적인 영감, 혹은 능동적인 직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한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양(陰陽)의 이론에서 비롯한다. 주지하듯이, 음과 양은 생명에 관한 원초적인 상징체계이다. 조각난 획의 상징인 음은 여성적이며 에너지를 수용하는 쪽이다. 반면에 조각나지 않은 획의 상징인 남성적이며 에너지를 분출하는 쪽이다.

역은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음과 양은 0과 1에 각각 해당하는 이진수 체계이다. 이것의 변형을 통해 수(數)가 인간과 세상을 지배한다는 암시를 제시하는 변화의 프로세스인 4상, 8괘, 64종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닐까. 존슨 안이 『DNA와 주역』에서 역의 수리적인 변화가 지닌 현대적인 의미와 그 해석의 가능성은 진폭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

23) 역의 자의는 『비서(秘書)』라는 책에 나타나 있다. 역은 ‘일월의 합이며, 음양을 본뜬 것(日月爲易象陰陽也)’이라고 말해진다.

24) 윤태현, 『주역과 오행 연구』, 식물추장, 2002, 67면, 참고.

로 말해주고 있다.

음효(조각난 획)나 양효(조각나지 않은 획) 세 개가 모이면 모두 여덟 종의 조합이 가능하다. 3선형 두 개가 모이면 8의 제곱, 즉 64종의 조합이 가능하다. 주역에서의 이러한 조합 방식은 생물 세포의 DNA에서 염기가 세 개씩 조합되어 아미노산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²⁵⁾

DNA의 아미노산 코드가 64종이 된다는 방식이 주역에서 말하는 64종괘와 같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DNA이든 주역이든 전혀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뭔가 신비한 수의 마법이 있음을 예감케 한다. 역의 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그 동안 오랜 세월을 걸쳐 동양의학, 점술학에서 그것이 많이 응용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DNA 분야의 담론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문학 분야와 역의 사상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두루 아는 바처럼, 옥타비오 파스의 시 창작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 중의 하나가 주역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인 이성복이 19세기 전반기의 낭만주의 시인인 제라르 드 네르발(G. de Nerval)의 시 연구를 통해 역학적(易學的) 해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 또 자신의 시 창작에도 얼마간의, 또 간헐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 이성복은 네르발 시의 연극성을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네르발 시의 역학적 해석이 시작된다. 그의 시로부터 전체의 변화와 생성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성복의 가설에 의하면, 네르발의 시의 총체적 극적 상황이 음양, 4상, 8괘의 구조와 무관치 않으며, 여기에서 하부 구조의 극적 상황들은 64괘와 같은 틀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즉, 이성복은 네르발에게 있어서 시의 변화 과정과 세계관의 변화 과정은 간이(簡易)한 역의 원리에 의해 비교적 무리 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²⁶⁾ 이성복에 의한 네르발 시의 역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역은 표층에 가리워진 심층의 구조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교과서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순 네 가지 원형적 상황들의 유기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의 체계는 특히 문학 작품 속에 내재하는 상징체계 혹은 ‘이미지의 그물’을 드러내는 작업에 있어서도 그 근거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성복은 네르발 시의 연구를 통해 수용된 역의 원리가 문학 작품 속에 내재하는 심층적인 부분들, 즉 상징체계 혹은 ‘이미지의 그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적인 비평 이론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을 해독하는 읽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역학적 해석도 또 다른 읽기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25) 존슨 안 지음, 인창식 옮김, 『DNA와 주역』, 몸과마음, 2002, 26면.

26) 이성복, 『네르발의 시 연구-역학적 해석의 한 시도』, 문학과지성사, 1992, 331면, 참고.

27) 같은 책, 332~3면.

우리 육체의 집을 지어도 그 문가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마음의 집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집을 찾아가도 그 문가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제 집을 찾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비울수록 무겁고 다가설수록 멀어라!

— 「집」 전문²⁸⁾

시인 이성복이 쓴 시편 「집」이다. 그의 세 번째 시집 『그 여름의 끝』(1990)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내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이 시가 주역과 상관이 있어서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역을 해설하는 말에는 인명(因明)의 구문이 많다. 예컨대 ‘……함은……하는 것이다’나 ‘……하는 것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데 날짜를 미루니, 늦게 시집가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귀매괘’의 한 효사(爻辭 : 전체상황의 상징인 괘보다 더 구체화된 상징인 효의 말이다)의 예문이다. 이것은 ‘군주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²⁹⁾로 해석되는 하나의 상징 표현이다. 우리 육체의 집을 지어도 그 문가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마음의 집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시인 이성복이 주역의 해설서를 많이 읽었다는 증좌인 셈이다. 앞의 예문과 구문이 같지 않은가.

속옷만 입은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무섭다고 기겁을 하는 것을 보니 아이보다 훨씬 큰 멧돼지가 한 마리 화살통 같은 입을 세우고 달려오기에 영겁결에 몽둥이를 들어 심하게 내려쳤지만 꿈쩍도 않아 누가 옆에서 갖다 준 도끼로 여러 번 찌고, 또 찌고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 도끼에 찌긴 어깻죽지에 피 묻은 속옷이 너털거리고 정말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우리 아이의 무참한 모습이었습니다

— 「역전(易傳) 3」 전문³⁰⁾

이 시는 제목부터가 주역과 상관성을 가진다. 역전(易傳)은 주역의 일부로서 주석서를 뜻한다. 이것은 부수적이고 기생적인 해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없지 않지만 그 이상의 가치 또한 없지 않다. 이를테면 거기에는 주석자들의 ‘철학의 철학, 즉 메타-철학적 자세’³¹⁾가 수용해 있기 때문이다. 인용한 이성복의 시편 「역전(易傳) 3」은 주역의 가상적인 세계 경험에 대한 메타-철학적인 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참과 공포의 극대화를 노린 이 시적 전망에는 암울하고도 비관적인 세계관이 틈입해 있다. 역의 사상이 점술(占術)로도 변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인용시는 대흉(大凶)의 불길함을 언표하는 형식의 시라고 말해진다.

인생이란 미지의, 혹은 불가해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다양한 은유와 상징이 존재한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유를 역경 언어의 핵심이라고 말한 이도 있다.³²⁾ 역경이라고 함은 주역과

28)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문학과지성사, 1990, 23면.

29) 심의용, 『주역과 운명』, 살림, 2004, 19면.

30) 이성복, 『그 여름의 끝』, 앞의 책, 60면.

31) 문용직, 『주역의 발견』, 부 . 키, 2007, 244면.

32) 같은 책, 278면, 참고.

역전을 가리킬 것이다. 앞엿것이 상징적인 부호 중심의 재현 텍스트라면, 뒤엿것은 은유 방식의 언어 중심의 설명 텍스트이다. 천둥소리가 진동해서 만물의 힘을 돋우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므로써 만물은 윤택해진다. (옥타비오 파스는 이 표현을 이용하여 시를 쓴 적도 있다.) 이러한 유의 표현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역의 언어가 매우 시적임을 알 수 있겠다.

이성복의 시 중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은유와 상징의 언어 체계로써 하나의 시심을 얻은 적이 있었다. 완성도가 매우 높은 시라는 판단이 서서, 내가 오래 기억해온 시다. 다음의 시를 보자.

나방이 한 마리 벽에 붙어 힘을 못 쓰네 방바닥으로 머리를 향하고 수직으로 붙어 숨 떨어지기를 기다리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갔다 온 사이 벽에 나방이가 없네 그 몸뚱이 데불고 멀리 가지는 못 했을 텐데 벽에도 방바닥에도

나방이는 없네 아직 죽음은 수직으로 오지 않았네 잘 살펴보면 벽과 책꽂이 사이 어두운 구석에서 제 몸집만큼 작고

노란 가루가 묻은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은 슬프지 않아라, 슬프지 않아라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전문³³⁾

누구나 이 시를 보면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루살이 나방은 슬프지 않다. 그러나 이를 투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슬픔의 감정에 휩싸일 따름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미물의 죽음은 ‘작고 노란 가루가 묻은 죽음’일 뿐이다. 이 시가 묘사하고 있는 풍경이 역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역의 운행 원리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자 이즈츠 도시히코는 역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역은 무한한 동적 과정, 우주적 유동, 존재론적 유동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것, 유로부터 출발하여 무에 이르고, 무에서부터 유로 돌아오는 것, 사람의 눈에 반영된 리얼리티의 존재론적 풍경인 것.³⁴⁾ 이 말과의 연관성을 한 번 생각한다면, 이성복의 시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은 역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주역 전문가인 문용직은 『주역의 발견』이란 책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역의 관점에서 말한 바 있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자.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매우 은유적인 개념이다. 인생은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 죽음은 밤이나 어두움, 차가움뿐만 아니라 출발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가? 곤괘 초육(初六)의 효사인 이상(履霜) 건빙지(堅氷至)는 이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 그 언젠가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나는 물어봤다. 주역에게 물어보았다. 죽음이란 무엇이냐고. 역경의 답은 이랬다. 서리를 밟으니 곧 얼음이 얼겠음을 알겠다. 곧 곤괘 초육(初六)의 효사, 바로 그것이었다. 하! 슬픔 넘어선 설움!³⁵⁾

33) 이성복,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1993, 61면.

34) 이즈츠 도시히코 지음, 김동원 옮김, 『동양철학의 심층분석』, 솔밭, 1991, 40면, 참고.

35) 문용직, 앞의 책, 247면, 참고.

서리를 밟으니 곧 얼음이 얼겠음을 알겠다. 역의 언어는 이처럼 비유적이고 시적이다. 죽음은 슬픔을 초월한 그 무엇이다. 하루살이 나방의 죽음도 슬픔을 넘어선다. 서리를 밟은 다음의 결빙된 서러움. 슬픔도 일종의 동적인 과정이다. 그것이 정지된 결빙의 순간에 슬픔은 사라지고, 다만 서러움만이 남는다. 죽음으로 향해 움직여 서서히 기다리는 그 나방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기에 슬픔을 남기지 않는다. 김영석의 시 「고요의 거울」 가운데, “고요의 거울 속 / 꽃가지 그림자에 / 작은 벌레 한 마리 기어갑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를 가리켜 문학평론가 김유중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어서,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고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제 나름의 운행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은 움직이는 질서가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움직임의 질서가 바로 역(易)의 질서이며 원리이다.³⁶⁾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에서도 움직임의 질서를 관찰한 비평적인 직관이 예사롭지 않다. 역은 이처럼 우주 생명의 진실을 은유하거나 상징한다. 모든 생명 현상은 질서와 혼돈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결과이다. 생명력의 근원은 음양의 하모니에서 비롯된다.

역은 대립과 통일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천지의 모든 사상(事象)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위에서 존재한다. 이른바 모순의 동일성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의 원천이 된다. 일월성진과 산천초목이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간다. 우주는 이와 같은 친화력의 원리에 의해 이룩해 가는 것이다.³⁷⁾

이렇게 본다면, 역의 근본 원리는 서정시의 동일성 이론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주지하듯이, 서정시는 자아와 세계의 경계 없는 화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시인 조지훈의 시편 「화체개현(花體開顯)」에서 보듯이, 신화적인 축제의 순간 같은 꽃 피우기야말로 우주 생명의 진실을 드러내는 서정시의 본질이 아니던가. 이것은 소우주(자아)와 대우주(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측량할 수 없는 심연의 상호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역과 서정시는 서로 다른 이름의 ‘코스모바이올로지(cosmobiology)’인 것이다.

그러나 이성복이 역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시를 쓰려고 했으나 미완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그래도 그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참신하였다고 본다.

36) 김유중, 「도(道) · 역(易) · 시(詩)」, 『문학청춘』, 2012, 여름, 52면.

37) 노태준 역해, 『신역 주역』, 홍신문화사, 207~8면, 참고.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임 명 진(전북대)

1. 생태론의 지평

1-1. 근본생태론 또는 도가(道家)적 세계관

생태론의 선구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환경개량주의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녹색사상으로 근본생태론(Deep ecology)을 내세우고, 이것의 구체적인 운동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념의 폐기, 그 대신 유기적 전체라는 관념의 추구.
- ② 생물권의 평등주의 지향
- ③ 다양성과 공생의 원칙 존중
- ④ 반(反)계급 지향, 즉 사회 계급의 타파
- ⑤ 오염 및 자원 고갈에 대한 투쟁
- ⑥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존중
- ⑦ 지방자치와 분권화 지향(cf. 송명규, 1996 : 121-2)

네스는 이에 이어 근본생태론의 8대 강령을 정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시 정교화한다.(cf. Merchant, Carolyn, 2007 : 145). 이후, 빌 드볼(Bill Deball), 조지 세션(George Session), 캐롤린 머찬트(Carolyn Merchant)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생명중심적 평등’과 ‘자아 실현’이라는 두 자기 기본 규범을 제시한다.

1-1-1. 생명중심적 평등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중심주의나 개체주의를 배격한다. 이 점에서 동양의 도가(道家)사상과 서양의 스피노자 사상의 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가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하나의 근원(도)에서 유래하며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는 거대한 유기체로 간주하고,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과 우주의 근원과 법칙을 함축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cf. 정진일, 2001). 이런 관념은 서양의 경우 개별적인 사물들의 신(神)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들간의 위계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자연물의 평등을 주장했던 스피노자 철학과 상통한다.

네스 등의 생태론자들은 인간주의·개체주의·이성주의와 기계론적 가치관의 맹점을

지적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이 유기체적 관계의 장(場)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 공생과 평등이 그 생명성을 보장한다고 보고, 이를 정리하여 ‘생물권 평등주의’를 제창하였다.

1-1-2. 자아 실현

인간은 자신에 잠재된 내적 본성이라는 자신의 독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자아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객체인 세계/타자와의 부단한 관계 설정을 통해 자아실현 과정을 겪는다. 전통적으로 세계/타자와의 관계 설정은 이원적 가치관에 따른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근본생태론자들은, 분리·대립·경쟁의 법칙보다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아실현 과정에서 동일화(identification)의 반경을 무한으로 확대해가는 법칙을 강조한다.

자연만물을 형이상학적 전일론(holism)로 파악함으로써, 한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연 전체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의식의 동심원이 더욱 커져서, 자아·가족·이웃·지역사회·민족·인류·우주로 확장된다고 본다. 즉, 보통의 자아(self)는 이런 확장 과정을 거쳐 인류와 동식물 및 산·강·바다 등을 포괄하는 '대자아(Self)'에 이르고, 여기에서 진정한 자아실현(Self realization)이 이루어진다고 본다(cf. 한면희, 2006)

1-2. 사회생태론 또는 아나키즘적 세계관

근본생태론은 철학 체계를 세우는 데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인류의 당면한 문제인 성(性)차별·계급갈등·경제구조 등에 관해서는 확실한 견해를 표명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생태론 내부에서 일어나고,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결과로 대두된 것이 1980년대 이후의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이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을 필두로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 한스 요나스(Hans Jonas) 리처드 레빈(Richard Levin),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 등은 현대의 생태 위기가 세계관 때문이 아니라 사회문제에서 야기되었다고 보고, 기존의 아나키즘·마르크시즘·사회주의 등을 접맥시켜 정치·경제·사회적 현안들을 생태적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¹⁾

사회생태론에서는 인간의 이성(理性)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로써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찰적인 활동으로 인간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에는 ‘자유자연으로의 진화’, ‘도덕 경제 실천’, ‘대안공동체와 지역 자치주의’ 등의 구체적 실현 방법 등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1) 그 바탕사상에 따라 생태사회주의, 생태마르크시즘, 에코페미니즘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지만, 크게는 사회생태론으로 묶이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아나키즘을 꼽을 수 있다.

1-2-1. 참여적 진화로서의 자연

사회생태론자들에게 있어 생명이란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이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변증법적으로 조절한다고 보았다. 자연은 이 조절과정을 발전적으로 진보시킬 때 ‘1차자연’, ‘2차자연’, ‘자유자연’으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이 세 자연은 과정적인 연속체로 개별화되어 있지만, 공존하면서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지닌다. 일반적인 자연으로서의 1차자연과 여기에서 생겨난 인간문화 전반에 해당하는 2차자연의 관계는 ‘자유자연’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껏 도구적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간의 지배/착취의 역사 전개를 자유의 역사 전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력(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확대하도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이른바 ‘참여적 진화’이고 생명력 확대(생물다양성 증대, 생물 종간의 상보성, 생활상태의 부단한 분화 등)의 원리가 2차자연에서 자유자연으로의 진화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차자연의 생명력 위축/고갈의 주원인인 약육강식의 지배원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cf. Bookchin, Murray, 1997 : 257~269).

그러다보니 약육강식 원리에 입각한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고, 결국 사회생태론자들은 자유자연으로의 적극적 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대안 체제로 상정하게 된다.²⁾

1-2-2. 도덕 경제 실천

사회생태론자들은 생태 위기의 근원(根源)이 기존 시장경제체제의 부도덕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익명성을 폐기하고, 생산과 소비 개념을 재정립하며, 나아가 생태적합적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문순홍, 1999 : 153). 상품의 본래 목적(사용가치)이 상실되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이에 따라 토지와 노동이 자본에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장경제의 부도덕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이 해결방안으로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 실현되었던 도덕 경제의 원리를 주목한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공동체 경제를 복원하기보다는 거기에 작용했던 ‘자유 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참여적 공동체 연대’를 주장한다.(Bookchin, Murray, 1997 : 274~7)

2) 여기에서 ‘자연의 참여적 진화’는 ‘능산적 자연’(能産的自然, Natura Naturans)이라는 전통적인 철학 용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능산적 자연관은 자연을 역동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한 관점이다. 현대생물학에서 목적론적 의미를 가진 진화론은 능산적 자연관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상대되는 소산적 자연관(所産的自然, Natura Naturata)은 자연을 조물주가 이데아, 즉 수학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만든 완성품이라고 본 플라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근대 이후의 기계론적 자연관이나 기계적 결정론은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능산적 자연은 창조자로서의 신을, 소산적 자연관은 창조되는 자로서의 자연을 의미했지만, 스피노자는 이 두 개념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더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범신론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스피노자는 무한하면서도 역동적·능동적·창조적 실체로서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가변적·수동적·양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이라고 해석했다. 『철학사전』(중원문화, 2009) 참조

1-2-3. 대안 정치공동체 모색과 지역자치

사회생태론자들이 제안하는 정치공동체는 자유로운 인간 활동을 산출하는 곳으로서 ‘불평등한 것들 간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오늘의 정치는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보고, 현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감과 반대급부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대안 정치공동체로서 참여민주주의 대의원 제도를 지향한다.

이들은 정치의 목적을 ‘국가의 힘 기르기에 두지 않고 시민의 힘 기르기’에 둔다. 그러므로 이는 민주화된 정치이고 생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단순히 공적 인 합의를 제공하는 기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자유 활동이다. 결국 이들의 대안체는 지역적 소규모적 참여 형식을 지향한다.(Bookchin, Murray, 1997 : 270~4)

2. 생태론과 문학론의 교직

2-1. 인물의 ‘배경’과 그 생태적 환경

소설에서 인물이 ‘배경’을 벗어나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설의 인물과 배경과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말로는 적합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인물은 어떤 식으로든 지 ‘배경’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배경은 인물의 생태적 환경이라 할 만하다. 거기에는 ‘자연적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고, 또 역사적 환경도 있다. 근본생태론적 관점에서 소설을 본다면 ‘자연적 환경’을 중시하겠지만, 사회생태론적 시각에서는 사회·문화·역사적 환경을 더욱 주목할 것이다.

인물과 그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소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신화·전설·고대소설과 같은 근대 이전의 서사물에서는 인물과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즉 인물이 환경에 영향 받거나 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약하거나 없기도 하다. 그런 매우 미약한 상호관련성 안에서 굳이 그 차이를 밝힌다면 신화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초월적 인물은 자신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지만, 보편적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환경에 인물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조정래, 1991 : 41~47)

근대소설에 이르러 인물과 환경의 관계가 소설의 플롯 형성에 작용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서정적 소설에서처럼 인물과 환경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융화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굴복당하는 자연주의 리얼리즘 소설도 있으며, 인물과 환경이 서로 대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겹도는 모더니즘 소설도 있고, 또한 인물과 환경이 서로 길항하거나 대립하는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도 있다. (조정래, 1991 : 48~61) 근대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이 소설의 플롯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 소설적 ‘배경’의 생태론적 함의(含意)

생태론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란다면, 인물과 그 배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소설의 플롯을 점검하고자 하는 소설론과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생태론이든 소설론이든 공히 사람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환경이나 배경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간 소설론에서 ‘배경’은 ‘인물’·‘사건’과 더불어 구성의 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소설 이후 ‘배경’의 비중이 갈수록 커졌고, 그에 따라 ‘배경’과 관련된 문학 이론도 발전되어 왔다.

2-2-1. 루카치의 소설론과 환경

루카치의 소설론은 이제 이미 고전 이론이 되었지만, 아직도 근·현대소설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총체성(totality)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해도 소설의 존재를 함묵적으로 선명하게 해준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 그리고 그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 주던 시대”(Lukács, G., 1989 : 29)였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세계와 자아, 천공(天空)의 불빛과 내면의 불빛은 (중략) 서로에 대해 결코 낯설어지는 법이 없”(같은 책, 29)으며, 그래서 “존재와 운명, 모험과 완성, 삶과 본질은 동일한 개념이 된다.”(같은 책, 30) 루카치는 『일리아드』나 『오딧세이』 같은 서사시가 생겨날 당시에는 이런 총체성이 충만했던 것인데, 그 뒤에 그런 총체성이 파괴되거나 상실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그래서 근대 이후 소설은 이런 잃어버린 총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시도된 장르라고 강조한다. 서사시가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한다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 한다.(같은 책, 76)

그래서 소설 내 인물은 총체성이 상실된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근원적으로 총체성이 충만한 세계를 동경한다. 그가 자신의 환경과 불화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곧 그 환경에 총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환경을 총체성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환경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이른바 ‘문제적 인물’이 된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찾는 자이다.”(같은 책, 77) 즉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고향을 향한 충동”(같은 책, 78)에 의해 부단히 탐색하는 여정을 겪어나간다.

2-2-2. 장소이론과 환경

모든 사람은 공간과 장소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전자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후자는 정지된 안정된 곳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는 공간은 추상적·관념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경험적·실재적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Tuan, Yi-Fu, 1995 : 15~22) 또한 그는 인간이 실재하는 장소에서 비로소 장소감(sense of place)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더욱 친밀한 장소 경험을 거쳐서 이른바 ‘장소애(topophilia)’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은 이런 장소애에 기반함을 역설한다.(같은 책, 239~260)

렐프(Relph, Edward)도 같은 맥락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에 견주어 장소를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사실 사건과 행위는 장소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으며,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소의 성격에 의해 사건과 행위가 윤색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중략)

그러므로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통합된다. (Relph, Edward, 2005 : 102~3)

렐프는, 더 나아가, 장소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경험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장소에는 인간의 의도·태도·목적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104)³⁾ 그렇다면 인간과 장소는 그저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인간의 의식적 목적과 무의식적 지향이 함께 결부되어 상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작용을 하는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장소감을 상실하도록 한다고 렐프는 지적한다. 그는, 인간과 장소가 진정하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 장소감이 상실되어 이른바 ‘무장소성(placelessness)’에 처해진다고 전제하고, 현대문명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 문화, 대기업, 정치 권력, 경제 체제 등이 ‘무장소성’을 부추긴다고 진단한다.(같은 책, 175~238)

그런데 이런 무장소성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모두 현대 물질문명/자본주의의 총아로 불리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현대사회에서 무장소성은 필연적인가 자문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 복원을 들고 있다.(같은 책, 292~8)

3.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론적 환경

3-1. 자연과의 합일 지향

한국 소설가 중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표상해내는데 주력한 사람은 이효석·정비석·오영수 등이다. 특히 이효석의 대표작에 속하는 「메밀 꽃 필 무렵」, 「산」, 「들」(이상 1936) 등은 이러한 경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3) 이런 이푸 투안과 렐프의 주장에 힘입어 이른바 ‘장소이론’이 생겨나고, 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양상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 점에서 그 이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역사주의를 넘어서서 로칼리티 연구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눈에는 어느 결엔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 냄새가 배었다. 비삼할 때의 짙북데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뭇잎 - 여러 자 깊이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랑잎 떡갈잎의 부드러운 보료 -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어리가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팔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살을 베이면 피 대신 나무진이 흐를 듯하다. 잠자코 쏜 나무들의 주고받는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개짓하는 뜻을, 나뭇잎의 소곤거리는 속심을, 총중의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쏘일 대에 즐겨하고 바람 불 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역력히 번역해 낼 수 있다.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이효석의 「산」에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중길이는 이미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있다. 중길이는 나무와 소곤거리고, 교감할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피 대신 나무진이 흐를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다. 물론 중길이가 입산한 데에는 ‘막중골’에서 머슴살이할 때 주인의 첩과 내통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이 주인집을 나온 속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는 입산의 동기 부여일 뿐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계급 갈등도 끼어들지 않는다. 중길이는 간혹 생필품이 필요해 저자거리를 다녀오기는 하나 다시 산에 들어오면 더욱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는 산 속 생활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세운다. 양지바른 곳에 초가를 짓고, 밭을 일구고 아랫마을 용녀를 불러들여 가정을 꾸릴 것을 꿈꾼다. 별을 세면서 평안히 잠자리에 빠져들면서 그의 꿈은 더욱 행복한 지경으로 상승한다.

이런 꿈이 달성된 경우가 정비석의 「성황당」(1937)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현보와 순이는 평안북도 천마령 안골짜기 산 속 외딴집에서 숲을 구워 살아가는 젊은 부부이다. 이들은 문명과 차단된 산속에서 둘이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현보를 낳아 준 것도 산이었고, 현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산이었고, 현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도 산이 아니더냐? 현보는 산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중략)

도끼를 번쩍 들어 뒤로 건줄 때마다 떡 버그러진 구릿빛 앞가슴의 근육이 불끈 내솟았다가는, 도끼를 탁 내리갈기면 어췌죽지가 불쑥 부풀어 오르고 그와 동시에 장작이 팡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번 내리갈길 때마다 도끼 소리는 찌르렁 산에 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찌르렁 하고 맞은 편 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정비석의 「성황당」에서

현보와 순이의 삶은 야성(野性)에 가깝다. 생계를 위해 숲을 굶기는 하지만 그밖의 그들의 삶은 산속의 길짐승처럼 자연스럽다. 그들은 천마령 안골짜기에 깃든 한쌍의 길짐승이다. 산림간수 김주사가 끼어들면서 그들의 평온한 생활에 잠시 풍파가 일기는 하지만, 성황당으로 상징되는 샤머니즘적 낙관성이 이를 무마해버리고 그들은 다시금 그 야성적이면서 평온한 자연 세계로 복귀한다.

「성황당」과 매우 유사한 경우를 오영수의 「메아리」(195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동욱 부부는 피난지에서 온갖 핍절을 겪고 도피하다시피 지리산 산골로 들어온다. 빨치산 토벌로 폐허가 된 산골에 들어와 움막을 짓고 버려진 농토를 개간

한다. 이들의 산골 생활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농사와 수렵 채취에 불과하지만 이런 소박한 일상으로 전쟁 후의 간난신고를 일거에 해소하고 안정과 평온을 되찾는다.

산은 너그럽고 허물이 없어 좋다

이런 일도 있다.

여름 동안은 매일 같이 뒷개울로 땀을 씻으러 가기 마련이다. 움막에서 뿔뿔 벗고는 앞만 가리고 그대로 올라간다. 언젠가는 동욱이 그의 아내의 등을 밀어주다가,

「요즈막 살쨍다.」

그러면서 궁둥이를 한 번 찰싹 때렸다. 그의 아내는 킁! 하고 돌아앉으면서 동욱의 배 밑으로 마구 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동욱은 보란 듯이 그대로 버티고 섰다. 연거푸 물을 끼얹던 그의 아내는,

「어머나, 무서라!」

그리고는 돌아앉아 버렸다. 동욱은,

「임자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에구, 인사는 무슨....., 얹치머리도 없이.....」

이날 동욱은 기어코 알몸인 그의 아내를 알몸에 업고 내려오면서,

「당신이 나를 업으면 어떻게 되지?」

「망칙해라!」

이틀 후에 비가 왔다. 동욱 아내는 한 광우리나 송이를 땀다.

—오영수의 「메아리」 중에서

인간이 자연의 원시성과 야성(野性)에 근접하는 대목이다. 인간과 자연의 친화를 넘어서 인간의 삶이 자연의 일부로 동화된다. 동욱 부부의 산골생활은 문화적 행위라기 보다는 자연적 현상에 가깝다.

자연 친화/동화를 다룬 작품에서 인물의 현실 인식은 생략되거나 압축되어 있다.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 현실적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두메산골로 쫓기듯 들어온 인물들이지만, 그 동기는 후경화되어 있고 산골 생활 자체가 전경화되어 있는 탓이다. 작가 역시 인물과 현실과의 대결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 계열 작품에서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상을 보이는 인물이 깊숙 등장하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의 원시성과 야성(野性)에 동화되는 동기와 원인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계열의 작품들은 인물과 환경의 화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다.

이상의 이효석·정비석·오영수의 일련의 소설들을 ‘서정적 소설’이라 명명할 수 있다.(문홍술, 2006 : 38~40) 그리고 이런 서정적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환경과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에 동화되어 이른바 ‘생명중심적 평등’을 이룬다.

3-2. 환경과의 갈등

김유정의 「산골」(1935)과 「동백꽃」(1936)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상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의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불화의 관계를 맺는다. 그의 소설 대부분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농촌은 가난한 농민

들의 절박한 현장이며, 그래서 그들은 원치 않지만 그 농촌을 떠나기도 한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내린 산모퉁이를 막 뚫들려 할 제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끓일 듯 말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채없이 덕돌이의 목성 임은 넉히 알 수 있다.

“아 얼른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겹겹히 잡아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뚱거리면서 거지도 으스스한 산 저편으로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 산 저 산에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에서

김유정 소설에는 노름꾼·들병이·투기꾼·만무방 등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면서 기약 없는 삶을 이어간다. 그들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윤리와 교양은 사치스러워진다.

오영수는 초기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의 화해로운 관계를 표상하였지만, 60년대 이후 그 화해가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은넷골 이야기」(1961)에서 ‘은넷골’이라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가혹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 이전 「갯마을」(1953)이나 「메아리」(1959)에서 표상된 평온하고 친화적인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시험하고 위협하는 자연으로 바뀐다. 그의 후기소설에서 더 이상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작가의 이런 변화된 자연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승원도 녹록치 않은 자연을 환경으로 등장시킨다. 그의 소설에는 바다가 자연환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바다는 삶의 현장이다. 즉 인물의 환경이다. 등단작 「목선」(1968)도 그렇고, 그의 대표작 「아리랑 별곡」(1977)도 그렇다. 여기에서 인물은 바다라는 환경 속에 식물처럼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인물과 환경이 화해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다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승원의 바다는 삶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한이 커져이 중첩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세 작가가 자연을 표상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인물들과 환경과의 관계설정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인물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장소애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더 이상 자연은 화해로운 환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그런 불화의 양상이 작품의 말미에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그것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3-3. 환경과의 불화와 길항(拮抗)

인물과 환경의 불화 양상을 전제로 제시하고 스토리의 전개과정에서 그것의 구조적

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이문구·조세희·윤홍길·황석영 등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작의 핵심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거기에서 비롯된 고향상실이다. 잃어버린 고향을 거슬러 올라가 그것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열망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열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산업화의 빛에 의해 가려진 농촌 붕괴의 실상을 역으로 재현함으로써 고향상실의 안타까움을 더욱 실감나게 표상한다. ‘우리 동네’ 연작에 오면 그런 실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리동네 황씨」(1977)에서는 ‘마실문화’를 사라지게 한 텔레비전, 의례적인 절차에 얽매인 행정, 농민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말단 공무원 등을 내세운다. 황씨는 끝내 자신의 환경과 화해하지 못하고, 적개심과 불만을 즉흥적으로 토로하는데 그치고 만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6)에는 환경으로부터 극단으로 소외된 소수자로서 난장이가 등장한다. 주인공 난장이 사내는 채권 매매, 칼 갈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 등 일시적인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도시 빈민으로 무허가 판잣집에서 가족들과 근근이 연명하는데, 이 집이 도시 재개발의 명목으로 철거되고, 결국 난장이 김불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랑노동자로 떠돌다 공장 굴뚝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추락사한다. 그의 아들 영수가 공장노동자로서 가족 생계를 이어가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다 노조 활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사주 측의 방해로 좌절하고 끝내는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인물과 환경의 극단적인 불화관계를 보여준다. 못가진 자(난장이, 피해자)와 가진 자(거인, 가해자)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그려내고 있고, 여기에 팬지 꽃과 폐수를 대비시켜 문학적 상징을 강화하고 있다. 팬지 꽃과 폐수으로써 문학적 향취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계급 모순도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윤홍길의 「장마」(1973)는 ‘분단소설’로 널리 알려졌지만,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1977)는 그를 리얼리즘 작가로 재평가되도록 해주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권씨는 애초에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집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단지 철거민 입주권을 샀다가 토지분쟁에 휘말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책위 시위대에 내몰리다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급기야는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될 정도로 전락하고 만다. 즉 그는 1970년대 급격한 도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작품 뒤에 이어지는 연작에서 권씨가 공장노동자가 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동료를 위해 쟁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 노동자의 투쟁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이 연작의 리얼리즘적 성격이 확보된다.

황석영의 중편 「객지」(1974)는 이 계열 작품 중에서는 고전에 속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수자로 밀려난 노동자의 노동쟁의가 현장감 있게 그려져 있고, 또 노동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촘촘하게 재현되어 있어서 리얼리즘 소설의 강점을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의 주인공 대위와 동혁은 무기력하게 짓밟히는 인물이 아니라 굳건한 현실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타 작품에서 찾기 어려운 ‘전망성’이 일정 정

도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환경인 노동현장을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술한 리얼리즘 소설과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1980년대 ‘노동문학’의 남상 역할을 했다는 평단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만하다.

4. 맺음말

사람이 장소애(topophilia)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사람이 처한 장소로 가장 근원적인 공간이 자연이라면,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친화하거나 합일하고자 한다. 생태론은 이런 근원적인 무의식적 지향성을 논리적인 준거로 해명해내고 있다. 다만 인간의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그저 수동적으로 소여(所與)된 ‘소산적 자연’으로 보지 않고 ‘능산적 자연’으로 간주한 점에서,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 양태와 작용도 다양하며, 그래서 ‘참여적 진화’를 해나가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도 다양해진다.

세상의 인간과 자연은 소설이라는 문학 양식에서는 인물과 환경이라는 주요 요소로 변전되어 나타난다. 소설은 이 양자의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더욱이 근대 이후 소설은 상실된 총체성 회복의 열망을 담으면서 소설에서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다. 현대소설이 최근에 가까울수록 리얼리즘적 속성을 강화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현대소설 중 주요작품을 통해 이런 속성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 3-1절에서 언급한 이효석·정비석·오영수의 이른바 ‘서정적 소설’의 경우, 근본생태론이 추구하는 ‘생명중심적 평등’이 구현되었다고 할만하다. 이 작품들에서 자연은 유기적 전체로 그려져 있고 인물들은 그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래서 인물들은 자연물들과의 공생의 원칙에 충실하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확장된 의식의 동심원에 따라 대자아(Self)를 실현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이 친화하거나 동화된 자연은 어떤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능산적 자연’이 아니라 기계론적으로 소여된 ‘소산적 자연’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연친화적 정서도 단순한 ‘장소애’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이들 작품은 피상적으로는 생태론적 토대를 지니고 있지만, 그런 토대를 넘어 더욱 확산된 목표로 나아가는 전망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음 3-2절에서 살폈듯이, 김유정·오영수·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인물과 환경과의 갈등’ 문제는 환상적인 서정 세계를 벗어난 현실세계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만하다. 이미 1930년대에 식민지 모순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

4) 스피노자가 은연중 강조한 ‘능산적 자연’은 근본생태론적 준거에도 사회생태론적 준거에도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그 인간의 대자아 실현을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근본생태론자들이나, 또 자연의 참여적 진화를 강조하여 자연이 1차자연(소산적 자연)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연’으로 진화한다고 보는 사회생태론자의 관점에는 ‘능산적 자연관’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운 화해는 당시부터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유정의 소설은 상당한 시대인식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만하고, 오영수와 한승원의 경우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나마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형상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환경과 갈등관계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 머물면서 자신과 환경(장소)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는 관계로 복원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생태론적 관점에서 소중한 지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셋째, 3-3절에서 언급한, 197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리얼리즘 계열 소설들은 환경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는 바, 이는 장소론의 관점에서는 당시 급진적인 도시화와 산업화로 한국사회가 갑작스럽게 장소감을 상실해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라 할 만하다. 물론 작가에 따라 ‘장소감 상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다소 차이가 있어, 장소감 상실로 인한 부박한 인물을 부각하기도 하고 (조세희·윤홍길), 장소감 상실의 구조적 원인을 천착하면서도 여전히 장소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기도 하며(이문구), 그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탐색하기도 한다(황석영). 이런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들은 인물이 처한 환경의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여 그것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는 이른바 ‘2차 자연’으로서의 환경을 ‘자유 자연’으로 발전시키는 참여적 진화의 과정을 공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작품들에서 사회생태론자들이 목격한 ‘반(反) 계급’, ‘도덕경제 실천’, ‘대안공동체 실현’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전제조건으로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환경(장소)과의 진정성 회복 등을 강하게 표상한 점에서 생태론의 전망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구승희(2001) :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 출판부.
- 구자희(2004) : 『한국 현대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 김옥동(1998) :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 문순홍(2006) :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문종길(2002) : 「심층생태론은 생태 위기의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한국환경철학회.
- 문홍술(2006) : 「친화적 자연에서 가혹한 원시적 자연에 이르는 과정」, 『경남의 작가들』, 박이정.
- 송명규(1996) : 「환경철학의 전개 2 : 근본생태론」, 『지역사회개발연구』 21집, 지역사회학회.
- 이준모(2012) : 『생태철학』, 도서출판 문사철.
- 윤찬원(1998) : 『도교 철학의 이해』, 돌베개.
- 정진일(2001) : 『도가철학 개론』, 서광사.
- 조정래·나병철(1991) :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 한면희(2006) : 『초록문명론』, 동녘.
- Bookchin, Murray(1990) : 박흥규 옮김,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 Bookchin, Murray(1997) : 문순홍 옮김, 『사회생태주의의 철학』, 솔.
- Lukács, Georg(1989) : 반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 심설당.
- Merchant, Carolyn(2007) : 허남혁 옮김, 『래디컬 에콜로지』, 이후출판사.
- Polanyi, Karl(1991) :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민음사.
- Ralph, Edward(2005) :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Tuan, Yi-Fu(1995) :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고전 읽기 해석 오류의 유형 분석(김석회)’과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서인석)’에 대한 질의문

조 광 국 (아주대)

두 발표 논문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논문을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개선운동”, 그 하위 분과인 “국어 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에 맞추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고전 읽기 해석 오류의 유형 분석”(김석회)에 대한 질의문

고전을 정밀하고 세련되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석회 선생님의 발표 논문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발표 논문에서는 고전 읽기 해석상의 오류를 ‘문중신화에 이끌린 오해와 왜곡’, ‘상호참조에 의한 맥락의 뒤엎힘’, ‘문명변동에 따른 이해지평의 소실’,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글자 하나의 오독으로 문맥이 뒤틀려지고, 나아가 작품의 의미까지 바뀔 수 있는 점을(예컨대 발표 논문에서 <輓趙淑人>의 마지막 대목에서 ‘空’의 해석과 같이) 짚어낸 것은, 우리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까지 합니다. 더하여 중국 석패란의 시를 ‘신혼의 정과 살뜰한 부부애’로 바로잡은 것과 <오늘이>를 ‘카르페 디엠’ 모티브에 가까운 ‘오늘 예찬’으로 본 것은 실로 정곡을 찔러다 할 것입니다. 여타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송정곡>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 논문에서는 이 노래를 실은 <고려사 악지>와 <동문선>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고려사 악지>(1451년)가 앞서서 편찬되었는데 거기에는 ‘속악’(민요쯤)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후대에 편찬된 <동문선>(1478년)은 작자를 장연우(?-1015)로 본 것은 오류이며, 나아가 흥성장씨 문중에서 <동문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장연우의 작품이라고 본 것은 ‘문중산화에 이끌린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그런데 <고려사 악지>를 편찬한 자들이나 <동문선>을 편찬한 이들이 모두 조선 시대 지식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대의 <동문선>의 편찬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부러 혹은 실수로, 장연우를 작자로 써넣을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② 발표 논문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흥성장씨 문중에서 “有信一沙鷗” 구절을 “한 마리의 갈매기에 소식 오려나”로 해석한 것은 분명 지나침이 있습니다. “유신한 백구 하나” 쪽으로 해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그 구절은, 나아가 <한송정곡> 전체는 민요라기보다는 개인의 작품이라는 냄새가 납니다. 특히 “有信一沙鷗(鷗)”와 같은 관습적 표현은 민요보다는 한시에서 쓰임직합니다.

③ 장연우가 우리말로 노래도 짓고 한시로도 번역했다는 흥성장씨 문중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어도, 비슷한 내용을 지닌 민요풍의 노래를, 장연우(10-11세기)라는 사람이 한시로 옮기면서 관습적 표현을 엮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노계가>의 밑줄 친 곳(20쪽)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웰빙’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은 웃음이 나오지만, 수긍할 만합니다. 그리고 <노계가>를 시조 <노계유거>와 한시 <노계복거>와 연계하여 감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① 한편 <노계가>는 강호가도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바, 밑줄 친 곳에 대해 ‘녹봉이나 토지소산이 없이도 산수자연의 선물만으로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선언하기 위한 **의도적 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표 논문대로 박인로는 실제로 곤궁한 삶에 부닥치기도 했기에 그렇게 보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고매한 정신세계가 분명코 깃들여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는데, 노계의 ‘현실-강호가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도 ‘장면의 극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세 편의 노래의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까닭은 선후를 나열하여 박인로의 정신세계의 변화의 추이를 미시적으로 짚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어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서방님 병들여 두고 쓸 것 없서>에 관한 것입니다.** ‘긴장의 이완과 해소’의 측면에서 ‘해학을 유도하는 사설시조판’(오늘날 개그 콘서트 정도)을 고려하여, 이 노래를 “**구매중독증에 빠진 한 푼수떼기**” 여인을 희화한 노래로 해독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상황에서 병든 남편을 생각하는 성숙한 아내’의 모습을 읽어낸 김흥규 교수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① 그런데 내침 김에 “서방님 병들여 두고 쓸 것 없서”를 중간에서 끊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보면, ‘남편은 병들여 쓸 데도 없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여성화자는 ‘혼자서 힘들게’ ‘달궜 | (?)’를 팔아 그간 먹고 싶은 수박 화채거리를 사왔는데 그만 오화당을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달래를 구하는 과정도 포함함).

② 그렇게 보면 여성화자는 ‘구매중독증’에 걸린 여성은 아닐 겁니다. 남편이 병들여 어디에 다 쓸데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 홀로 수박을 구해 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다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깜빡 잊고 사오지 않아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아마도 오화당 살 돈까지 다 써버린 듯)

[2]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서인석)에 대한 질의문

우리의 고전소설은 국어문화적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인석 선생님이 전근대 문학 장르 중에서, 장르의 사회문화사 측면에서 볼 때에 고전소설이 가장 문제적인 장르라고 말한 것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문소설을 대상으로 (1) 소설사 측면과 (2) 언어문화 측면에서 국문소설의 위상을 짚었습니다. 두 측면에서 모두 국문소설이 한문소설에 비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발표 논문은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사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 국문소설의 자기 고유성(한문소설과의 차별성), (나) 국문소설의 소설 구심성, (다) 국문소설의 양적 팽창, 이렇게 셋으로 세분하여 국문소설의 위상을 짚었습니다. 그중에서 (가), (나)에 대해 거론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문소설에는 있고, 국문소설에는 없는 장르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에 모두 있는 장르
傳奇小說, 傳記小說(傳系 小說), 筆記小說(野談系 小說), 夢遊錄	寓言小說, 英雄小說, 家庭・家門小說, 愛情小說, 世態小說

(㉞) 국문소설의 자기 고유성(한문소설과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한문소설에만 있는 것은 한문학 양식의 전통이 강한 것이며, 국문소설로 창작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문소설은 한문산문의 양식과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문소설에서는 傳記소설(傳系 소설), 筆記소설(야담계 소설)들이 같은 傳記(傳), 筆記(야담) 안에서도 소설 여부가 갈리는데 그런 한문소설에 비해 국문소설은 소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성향을 띠는바, “장르의 구심성”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㉟ 국문소설의 소설 구심성).

그런데 ① 이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국문소설에서는 “傳奇小說, 傳記小說(傳系 小說), 筆記小說(野談系 小說), 夢遊錄”에 해당하는 작품이 왜 없을까요? 혹시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을 포괄하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전개 양상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㉚ 참고로 발표 논문에서 <흙영>을 인용한 대목을 보면, “중국이나 그 주변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의 문자가 있다. 지금 언문은 우리나라의 문자이다. 우리나라의 문자로 소설을 지은 것이 나라 안에 산재해 있는데…훗날 예문지를 편찬할 때, 언문이 비루하다고 하여 수록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문소설의 양적 팽창 현상만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위의 ①과 관련하여, ‘소설’이라는 장르의 전개 과정(한문소설→국문소설→국문소설의 위상 격상)을 함축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언어문화 측면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국문소설은 한문소설의 문체적 영향을 받아서 ‘생활언어의 문어화’를 통해 국문 문체를 형성해왔”던 탓에 “시가에 비해 생활어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많아서, 문장체 소설, 혹은 문어체 소설로 된 산문 조직 방식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판소리의 정착으로 판소리계 소설이 출현하면서 일상어를 대폭 반영한 점을 짚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①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은 거론했지만, 그전에는 국문소설의 범주를 크게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문소설의 분화 과정, 하위 장르들 사이의 ‘문어 성향/구어 성향’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편의상 모두 국문으로 된, 장편대하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을 들어보자면, 이들 세 하위 갈래는 문어 성향이 가장 강한 것부터 구어 성향이 강한 것으로 배열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 장르는 하위 갈래들이 서로 대립, 경쟁하는 가운데 펼쳐졌다고 할 수 있는바, 맨 처음 출현한 대하소설이 가장 문어체적인 성향이 크고, 영웅소설은 그에 대립하여 구어적 성향이 크고, 나아가 판소리계 소설은 더욱 구어적 성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세 장르가 공존하면서 후대로 가면서 대하소설은 더욱 문어적 성향을 강화시켜나갔다고 할 수 있다. 대하소설 향유층이 대하소설을 “~전” 소설과 구분했던 일련의 발언들은 그 점을 방증합니다.

[3] “국어 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과 관련하여 본 두 논문

두 편의 발표 논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국어 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이라는 하위 분과에서 기획된 논문입니다. 두 편의 발표 논문은 그중에서도 “국어 문화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질문이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먼저 김석희 선생님의 발표 논문은 고전 읽기에서 오독의 문제점을 짚었는바, 그것은 학문의 기본자세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자가 의도했던 대로나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꼭 맞게 읽는 것만이 국어 문화 환경에 들어맞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회의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가의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작품 안팎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하기에 발표 논문과 다르게 <한송정곡>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고, <서방님 병들여 두고 쓸 것 없서>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해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남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오해가 반드시 다 풀리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오해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럴진대 작품을 오독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전 작품에 대한 오독의 역사도 국어 문화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물론 오독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독, 혹은 오독의 가능성이 바로 ‘국어 문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서인석 선생님의 발표 논문은 “고전소설(국문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논의 중에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계를 언급했고, 한편으로 중국 전기(傳奇)로부터의 영향, <전등신화>의 영향 등을 거론했는데, 중국문학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그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결부하여 조동일 교수처럼 동아시아문명권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소설’이라는 장르의 전개 양상을 드러낸다면, 우리 소설이 국문소설로 진행되어온 동아시아문명권의 소설사적 흐름, 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설 장르의 전개 양상을 비교적 섬세하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요즘은 한국 TV드라마가 중국 TV드라마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중가요도 그렇지요.)

참고로 소설 장르는 유럽 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확대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써낼 때 서문에서 자신의 소설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겸손하게(?) 거듭 거론했습니다. 작품 안에서는 미치광이인 돈키호테를 내세워 헛소리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펼쳐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소설 장르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할 때에 “국문소설의 국어 문화 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합니다.

한국 현대문학과 생태비평에 관한 질문들

송기섭(충남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문제의 미래를 내다보기조차 하는 자리에 생태담론은 늘 충만한 환기의 에너지를 지니고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문학에서의 생태론, 문학을 통해서 담론을 형성하는 생태론, 곧 생태비평은 다면적이고 가속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여전히 재생산되어야 할 문학행동이자 문학실천이라 단정해 봅니다. 문학이 내부의 담화공동체에서 자기 공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시대에 이 환경문학은 대중 사회와 더불어 인식지평을 공유할 회생의 대안이 아닌가도 기대해 봅니다. 문학이 재현하고 창조하는 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 교감하고 대응할 생태학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그것의 파괴적 재앙을 일깨우고, 나아가서 환경 윤리라는 절대 규약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오만과 착취가 결국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여준 상호 공존이란 생태 질서에 대한 자각을 불러오는 자연 귀의는 생태문학이 가져온 안정된 위안이기도 합니다. 생태주의 관점의 이러한 당위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학문으로서의 생태문학은 여전히 불비(不備)하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생태문학 그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환경 친화의 전망이 막연한 까닭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제거하고 생태문학이 우리 시대 유효한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미덕이자 인문적 교양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이렇듯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논의함이 아닐까 여겨 봅니다.

한국 현대시와 현대소설이라는 방대한 분야에, 두 선생님의 시대 횡단적 통찰에 고유한 방법적 분석을 겸비한 논의들을 제가 감당한다는 것이 외람됩니다. 그럼에도 환경문학이 논의 자체만으로도 공동의 생활을 영위할 인간 가치를 지닌다는 교의에 기대어 토론의 용기를 내어봅니다. 먼저 발표하신 「풍수와 역의 관점에서 본 현대시」는 동양의, 한국의 사상적 본류가 생태주의 관점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정신의 원류를 형성하는데 풍수와 역의 사상이 유구하게 작동한 바, 그러한 정신적 기류는 현대시에 자연스럽게 잠입하면서 한국 현대시에 환경시의 자장을 형성함을 논하고 계십니다. 풍수와 역이 한국인의 문화의식에 깊게 관여된 집단무의식이라면 그것의 표상 형식으로서 시문학에 삽입되고 투영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종의 관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생태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새롭게 수입하고 발명할 위기 대응의 매뉴얼이 아니라 이미 단단하고도 심현하게 지속되던, 그러나 이제는 발굴하여야 할 정신임을 이 생태의 글쓰기는 시 분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발표하신 「생태론과 한국현대소설」은 생태론과 한국 생태소설의 문외한을 위하여 체

계적인 작업을 설계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절차적 도식을 통하여 생태론이 생태비평에게 모델을 제공하고 범주를 한정하는 프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태론이 생태비평에 부여한 임무를 망각한다면 생태비평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논의가 공소하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본적 함의를 확인하는 과정은 늘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론의 다양한 관점은 생태문학을 비평하고 이해하는 시점에 직면하여 명료하게 추출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이를 통하여 추론하게 됩니다. 문학의 다양한 비평방법과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가능성의 하나를 추출하고 그것을 현대소설 전반에 걸친 분석틀로 삼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미력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들을 여쭙어볼까 합니다.

먼저 「풍수와 역의 관점에서 본 현대시」에 대해서입니다.

- (1) 풍수와 생태시는 아주 친숙하게 연결됩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가면서 풍수가 일차적으로 한국인의 자연 친화이고 적응이며, 나아가서 사유이고 그리고 최종으로 담론임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시 역시 그것이 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그 담론의 한 형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풍수는 우리의 의식의 일부이고 그것은 한국의 환경시에 관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논문에서 분석한 시작품들만으로는 서구 생태문학에서 말하는 낭만주의적 자연이나 생태 오염을 염려하는 환경시 등과 풍수담론으로서의 환경시가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풍수적 생태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의 고유한 시적 적용에 대하여 좀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현대문학의 공간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들어오는 풍경은 풍수와 어떻게 비견되는지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 (2) 주역의 생명사상 역시 생태시를 형상하는 질료로 받아들여집니다. 생명의 변화 원리를 통찰하는 주역, 그것의 시적 조형을 통해서 터득된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환경시는 생태문학의 또다른 소산이자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훌륭한 자연문학의 감응력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론을 깊게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여주하고자 한 ‘생명에 관한 원초적 상징체계’는 생태적 상상력을 벗어나 인간 윤회를 설명하는 관념으로 흐른다는 생각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역의 운행 원리로 해명하는 이성복의 시분석에서 그러한 난관을 보게 됩니다. 생태론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에 의거해야 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태환경이 소거된다면 생태문학의 시선을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론과 한국현대소설」에 대해서입니다.

- (1) 생태론과 인간의 자아실현이 “동일화의 반경을 무한으로 확대하는 법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동일자의 논리는 이성 과잉 시대의 소산으로 타자와 세계를 전유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아실현이란

이름으로 개성이란, 그리고 개인주의란 인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의 위험한 논리가 반(反)생태주의를 낳았음은 초기 생태학의 선구자들이 지녔던 이념적 함의에 내포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 생태소설은 그러한 개인을 몰각하는 지점에서, 생명 공존의 포용 지대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형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카치의 ‘총체성’을 환경과의 일체화 염원으로 받아들임도, 그것이 ‘문제적 개인’ 곧 자신의 내면으로의 탐구하는 개인이란 측면에서는 자기 함몰로 귀결될 위험성으로 인하여 생태적 공존이란 척도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환경을 인식하는 작중인물이나 화자는 이성의 제국에서 자기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적 개인과 분리된 세계경험이 전제되어야 생태소설이란 양식적 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2) 생태소설의 유형들을 나누고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을 분석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자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세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그것의 생태론적 의미와 전망까지 통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양상 이외에 이유민의 정주 욕망을 담은 간도문학이나 고현학을 지향하는 도시소설 등 그것의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시대적 변화 양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태의식 자체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산물일진대 문학작품에서의 그것도 그렇게 통시적 관점에서 묶음지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생태문학에서는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환경을 다룬 기행문, 일기, 편지 등 실화문학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증할 좋은 자료가 될 듯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생님의 논의가 고려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3 분 과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허 용 (한국외대)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최 정 순 (배재대)

‘다문화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 희 원 (국립국어원)

‘한국어의 언어습득 환경 개선 전략’에 대한 토론문
심 상 민 (경인교대)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이 관 규 (고려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조 희 정 (조선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 혜 정 (경북대)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에 대한 토론문
전 은 주 (부산대)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허 용(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한)국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의 습득과 습득을 위한 교육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는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하는 것이 본 발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된다.

한국어교육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학문이 되는가’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들을 ‘가나다...’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과’ 그림을 보여주고 ‘사과’라는 단어를 익히게 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결코 그른 방법이 아니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학습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차별성 부각이 정도를 넘으면 모멸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한국어교육이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학문적 위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도 그러한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한국어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에 대한 잠재적 지식을 가진 성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모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언어의 하나다.

지금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 즉 survival Korean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의 한국어교육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에 돌아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위치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¹⁾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해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하는 우리나라 영어학이나 영어교육 전공자들의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면(그들은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학에 대한 지식 또한 무척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어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이어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한국어교육의 방법이 위에서 말한 survival Korean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외국인에게는 한국어 습득)의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참고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국어학 전공 석박사 과정생 중 내국인 학생은 거의 없고 거의 모두가 외국인 학생이다. 국문과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도 개설되어 있지만 이들은 한국어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 지원한 자들이다.

2. 한국어 습득 개선의 방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첫째 차이는 발음과 어휘, 문법 등, 즉 언어 영역에 따른 차이이다. 예를 들어, 어휘나 문법은 그 의미나 용법을 알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음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 발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유성음 /b d g/의 발음을 못하는 것은 이 소리들이 갖는 음성적 특성을 몰라서가 아닌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어휘나 문법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만 발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휘나 문법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발음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휘가 가장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 발음이 가장 집단적이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고급으로 갈수록 이러한 개인차는 거의 사라지고 특정 모국어 화자(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외국인 화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언어의 인지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 화자의 수준과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문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 (1)에서와 같이 결속력에 있어 차이가 난다.

(1)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의 차이

	영어	한국어
예문	His son is a doctor.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구조	1. SVO의 단선적 구조 2. 성분 중심의 체계적·연역적 구조	1. ‘주제 + 명제’ 중심의 계층적 구조 2. 문맥/상황 중심의 비체계적 구조
특징	1. 성분간의 강한 결속력(주어 중심) 2. 격 개념 중요 3. 어순 중요 4. 성분 생략의 어려움	1. 성분간의 느슨한 결속력 2. 격 개념 불분명 3. 자유 어순 4. 성분 생략 가능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은 첫째 단선적(單線的) 구조이다. 단선적 구조란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분 사이의 결속력이 강한 구조이다(김한식·김나정 역 2007). 따라서 무엇 하나 생략하면 문법적으로 파괴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즉 주어가 다른 성분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이 두 언어는 흔히 표현하는 주제중심 언어,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문맥 의존 언어이고 상황 의존 언어이다.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와 같은 한국어 문장은 주지하는 대로 ‘주제 + 명제(또는 서술)’로 구성되는 비단선적인, 계층구조이다.

2)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어휘 능력의 차이가 있음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층 구조에서는 격의 개념이 약하다. 주제는 단순히 화제 제시에 불과하며 정보의 핵심은 서술 부분에 있다. 따라서 문장 구조가 약하고 결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의 개념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문장 성분이 없어도 되며(이 경우 그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일치도 없어도 된다. 영어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데 비해 한국어의 문장은 상황 의존적이며 연역적이지 않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외국인도 다음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바르게 습득하기 어렵고, 언어 간의 이러한 차이를 알아야만 외국어를 바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2) a. 키가 큰 음식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얼굴이 예뻐지는 세면법
- b. 네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워라.
 영수가 먹은 식당은 아주 비쌌다.
 나는 그 차를 살 돈이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음식이 키가 클 수가 없고, 그릇을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나 유럽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들이지만(연재훈 2011), 상황의존적인 한국어에서는 맥락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 된다.

어휘는 경우에 따라 웬만해서는 외국인으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모국어의 어원, 오랜 문화와 관련된 말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영어 단어 ‘worry’에 대해 ‘근심, 걱정’의 의미로만 아는 상태에서는 아래의 문장이 주는 의미를 자칫 오해할 수 있다.

- (3) The hunting dog worried the rabbit. [사냥개가 토끼를 물고 흔들었다/ 물어 죽였다.]

이 경우의 ‘worry’는 ‘물고 흔들다, 물고 늘어져 괴롭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도 ‘근심’과 ‘걱정’은 서로 연결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물고 흔들다, 물어 죽였다’의 뜻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영어의 ‘worry’라는 단어는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라는 의미를 그 뿌리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의 뿌리를 이해하고 ‘worry’를 보면 ‘근심, 걱정’ 외에 ‘괴롭히다, 귀찮게 조르다’는 물론 ‘물어 죽이다’라는 말도 하나의 단어장 안에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품사 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장을 영어로 옮긴다고 하자.

- (4) a. 그는 런던에서 겨울을 보냈다.
b. 그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c. 그들은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걸었다.

위와 같은 문장에 대해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영어에서는 ‘wintered, fished, under the umbrella’에서와 같이 굳이 별도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데 반해, 명사와 동사의 문법범주가 엄격히 구분되는 한국어 화자들은 ‘보내다, 잡다, 쓰다’와 같은 말에 해당하는 동사를 꼭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영어의 영역에 잘 접근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휘와 문법이 결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휘에 따른 문장구조의 차이를 보인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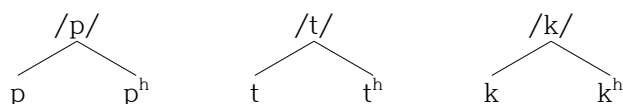
한국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영어	I like him/her.	
일본어		私はその人が好きです。

영어권 화자들로서는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like’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 의아할 것이고, 일본어권 화자들은 ‘좋다’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한국어와 영어의 구문을 낯설어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는 서로 다른 두 언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그러나 받아들이기까지는 한 동안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모국어와 다른 성격의 언어에서 느끼는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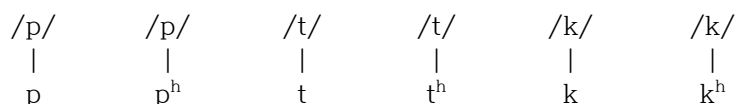
언어의 여러 영역 중 가장 인체공학(ergonomics)의 성격이 강한 발음의 경우도 인지와 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외국어 음성 습득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국어 발음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주지하는 대로 무성 폐쇄음에 대해 영어는 아래 (6a)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한국어는 (6b)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

(6) a. 영어



b. 한국어



즉, 영어에서는 유기음과 무기음이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두 집단이 별개의 음운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섯 개의 소리는 두 언어 모두에서 날마다 큰 어려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영어권 화자들이 이들 중 무기음 또는 유기음을 자신의 언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음성적 차원에서 볼 때 두 언어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화자들은 이 두 소리 집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음운적 차원의 차이이다. ‘음운은 심리적 실재’라는 말을 적용하여 다시 말하면 영어권 화자들이 한국어의 폐쇄음을 온전히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는 6개로 존재하는 소리가 영어권 화자의 머릿속에는 3개로 존재하여 두 언어권 사이의 심리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권 화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심리적 또는 정신적(mental)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습득의 어려움을 습득에서의 음운적 장애(phonological difficult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된소리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의 경우 ‘sport, sky, stop’과 같이 /s/ 다음의 /p t k/는 한국어의 된소리와 비슷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 한국어의 된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즉, 그들도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 음운적 장애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소리들이 의미 있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 낯설기만 할 뿐이다. (참고로, 한국어의 /ㅍ/ 같은 소리[voiceless dental sibilant fricative]는 UPSID 451개 언어 중 오로지 한국어에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음운적 장애는 목표어에는 존재하지만 모국어에는 없는 순수 조음적 장애(articulatory difficulty)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어 화자는 영어 ‘pleasure’에 나타나는 마찰음으로서의 [ʒ]나 모음 [ʌ]를 발음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들은 변이음으로도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이다. 이와 같은 경우 대체로 모국어의 다른 소리로 대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f]와 같은 소리에 대해 우리는 [표] 또는 [ㅎ]으로 발음한다. [표]으로 발음하는 것은 순음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고, [ㅎ]으로 발음하는 것은 마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³⁾ 해당하는 소리가 모국어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조음적 장애 역시 심리적 실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음운에 대한 정의로서의 ‘심리적 실재’ 개념은 최근 뇌과학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허용 2013).

뇌 안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synapse)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시냅스의 유연성이 높은 어린 시절(=결정적 시기)에는 경험을 기반으로

3) 음운적 장애와 조음적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자주 쓰는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쓰지 않는 세포는 사라진다. 찰흙같이 구조적으로 '말랑말랑'한 뇌가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한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경험'의 역할은 결정적 시기(10~12세)가 끝나고도 계속된다. 어린 뇌에서 경험은 단순히 '온-오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냅스는 쓰면 살아남고(On),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Off). 하지만 '사과=apple'이라는 발음과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사과'를 볼 때 'apple'이라는 발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많은 시각·청각·언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수준이 '적절한' 수준일까? 뇌는 이 문제를 반복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얻게 된다. Apple이라는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는 우선 수많은 '실패작'을 만든다. 실패작과 정답의 오차를 기반으로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변형하면 점차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식 2013)

어린이는 어른과 비슷한 숫자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간의 연결성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마치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큰 길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만, 막상 부산에 도착하면 신경세포는 주변 세포와 무차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적절한 시냅스도 있고,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시냅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그리고 인간은 약 10년까지 유지되는 이 결정적 시기에 자주 사용되는 시냅스는 살아남고,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사라진다. (김대식 2012)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음해 와서 화자의 모국어로 존재하는 특정 음운의 발음은 머릿속의 추상적인 음운과, 조음기관의 특정 영역이나 형상과 직접 연결되어 '수많은 시각·청각·언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형성됨으로써 음운과 실제 발음 사이에 일종의 자동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여 필요할 때 작동을 하는 어휘나 문법과는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 자동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력(머릿속의 발음과 조음기관의 특정 위치 또는 형상)된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수적천석(水適穿石: 낙숫물이 뿔뿔 뚫는다)의 흔적과 같이 깊은 골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모국어 발음이다.

반면 외국어로서의 음운은 다르다. 따라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 특별히,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깊이 형성된 모국어의 골이 주위에 떨어지는 다른 물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즉, 모국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모국어에 없는 새로운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와 동일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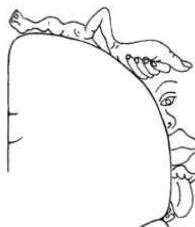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음운을 습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영역이나 방법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시 말해 자동화 상태로까지 가려면 새로운 골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골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즉, 위에

서 말한, 쓰지 않아 없어진(Off) 시냅스를 새로 사용해야 한다.⁴⁾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용하지 않아 잡초로 우거진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이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어 음운 습득이 새로운 영역의 개척 외에 기존에 다른 음운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모음의 경우가 그러한데, 일본어 화자의 경우 지금까지 /ㅏ/밖에 없던 모음 영역(vowel space)을 둘로 나누어 어느 한쪽에 한국어의 /ㅓ/를 넣어주어야 하고, 굳이 /ㅏ/와 /ㅓ/로 구분할 필요가 없던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둘의 음성 영역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땅을 개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엇인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지금까지 비워둔 공터가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고 존재하는 곳 그 어딘가에 매우 낮은 새로운 존재를 들여야 하는 것이다.⁵⁾ 새로운 음성 영역의 개척이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이라면, 이것은 기존의 시냅스를 분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연결이든 분할이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바, 그것은 문자로는 인식이 되어도 그 문자에 해당하는 음성영역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문자와 음성영역의 자동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⁶⁾

외국어 습득이란 결국 초급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를 1:1로 치환하는 작업이 주가 되고 고급으로 갈수록 모국어에서는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시냅스를 새로이 연결하거나 분할하는 작업 또는 인지의 새로운 습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학습자는 인체공학적인 면(입을 더 크게 벌린다든지 혀를 말아올린다든지 등등)이나 ‘한국어에는 이중주어구분이 있다’ 등의 방법으로 습득을 하더라도 교사는 위에서와 같은 시냅스 연결의 차이를 포함한 인지적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

4)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에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마치 '지도'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뇌 과학에서 '호문쿨루스(homunculus)'라고 하는데, 호문쿨루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몸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기능 위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손·얼굴·혀같이 예민한 신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뇌 표면을 크게 차지하는 반면, 등·허리·발 등은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우리는 살면서 몸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몸의 이러한 경험들은 호문쿨루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두 다리를 사용해 열심히 달리면 다리를 표현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수년 동안 공을 가지고 저글링하면 호문쿨루스의 손 부분이 두꺼워지기도 한다(김대식 2013a). 이런 점에서 볼 때 모국어의 음운에 대한 호문쿨루스와 외국어 음운에 대한 호문쿨루스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아래에서 왼쪽의 그림은 Penfield의 호문쿨루스(Wikipedia, Cortical homunculus)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3차원 조상(彫像)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 실제의 신체 크기와는 달리 많이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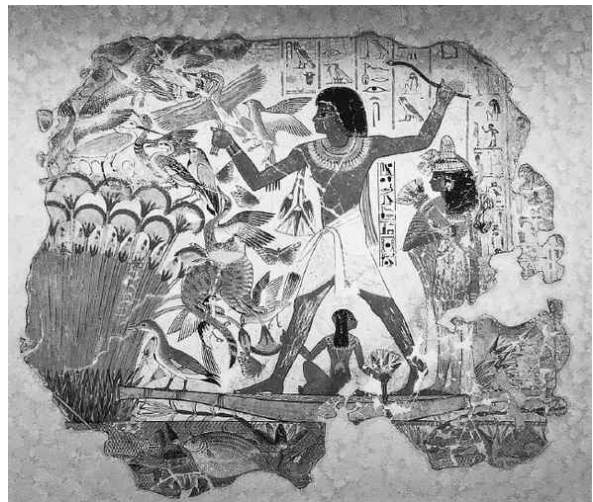
5) 이것을 외국어 말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새 학교에 전학을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누가와 친해져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6) 결국 한 언어에서 특정 모음을 잃는다는 것은 해당 시냅스를 사용하지 않아 없어지는 것이다.

미이다. 올바른 외국어교육이 단순히 교수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대조언어학적 접근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조언어학적 접근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는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일본어에는 종지형(終止形) 어미(예: -する, -ます)가 있다 해서 이것이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것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음악과 미술의 시대적 특징을 보려면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을 예로 들어보자. 다음은 유명한 이집트 미술이다. 왼쪽 것은 BC 1400년 경의 것으로 네바문이라는 당시 정치가의 무덤에서 나온 벽화의 일부분으로 <네바문의 정원> 또는 <연못이 있는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같은 네바문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늪지에서의 새사냥>과 같은 제목이 붙은 벽화이다. 이 두 작품은 당시 이집트의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문제는 ‘이 이집트 미술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실생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특징의 각도에서 보이는 대로의 모습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보장해주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그렸다. (중략) 만약 우리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かを 생각했다.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보아야만 명확할 것이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보아야만 분명해질 것이다.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물이 가장 특징적인 각도에서 그려져 있다. 머리는 옆으로 볼 때 가장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눈은 정면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눈이 얼굴의 측면에 그려져 있다.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하 생략)

- 서양미술사(E. H. 고프리치)

위 이집트의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된 하나의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각각의 부위가, 그리고 물체의 각각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어떤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집트만의 특징인 것이다. 즉, 미술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이는 특징인 것이다. 좋은 미술해설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조언어학적 접근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언어보편성 또는 언어유형성의 관점, 더 나아가 언어의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사이 젊은 부모들 중 일부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언어보편성을 고려해서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명, 경, 혁, 향, 현’ 등과 같이 이중모음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둘째는 ‘석, 숙, 섭, (경우에 따라서는 민, 웅, 림 등과 같이 비음 포함)’ 등과 같이 받침이 들어 있는 음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셋째는 ‘석민’ 등과 같이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이름을 택하지 않으려는 경향, 넷째는 ‘경민, 성보, 남준’ 등과 같이 ‘비음+자음’의 경우 조음점이 다른 이름을 택하지 않으려는 경향 등이다. 그 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중모음의 활음이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기능하는 것과, 한국어 음절말 불파 현상, 소위 말하는 자음동화 현상 등은 언어보편성에서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외생활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은 한국어의 그러한 성격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⁷⁾

이와 같은 언어 보편성이나 언어유형론은 음운, 형태, 통사 등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 ① 모든 언어는 음절을 갖는다.
- ②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을 갖는다.
- ③ 모든 언어는 무성 파열음을 갖는다.(/p, t, k/ 중 적어도 두 개 이상)
- ④ 대부분의 언어는 공명자음을 갖는다.(예외: Rotokas, Mura)
- ⑤ /t/와 같은 자음이 존재하며(99.8%), /i/를 갖는다(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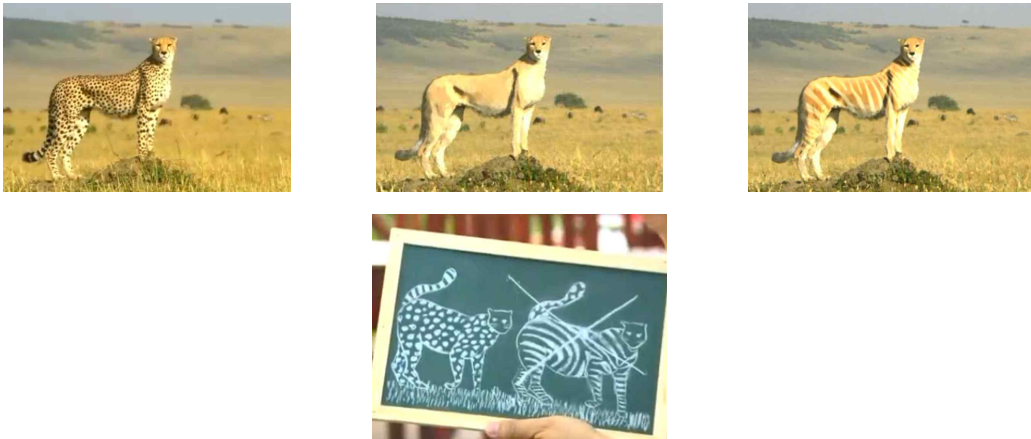
7) 활음이 거의 모든 언어에서 자음으로 기능하고 언어에 따라서는 이중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예를 들어 ‘ㅈ’를 ‘자’로 발음한다.), 모음을 가르치는 순서를 ‘ㅏ ㅑ ㅓ ㅕ.....’와 같이 사전에 올리는 순서로 한다든지 이중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하여 한국어 모음을 21개(단모음 10개 + 이중모음 11개)로 파악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자연언어 중 모음이 자음보다 많은 언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모음을 21개로 하여 ‘모음 21개 > 자음 19개’와 같이 제시하는 것은 한국어를 매우 이상한 언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음동화에 대한 접근방법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흔히들 ‘발음의 편이성’ 또는 ‘발음의 경제성’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지만 자연언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조음방법동화 현상을 보이는 언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어 교사들은 마치 한국어의 이러한 현상이 여러 언어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의 핵심은 자음강도(또는 공명도) 조정현상이지 자음동화가 아니다(예: 국립, 협력 등).

- ⑥ 조음위치 면에서 설정음이 가장 많다.
- ⑦ 대부분의 3모음체계는 /a, i, u/이고, 5모음체계는 /a, i, u/ + /ɛ(e), ɔ(o)/이다.
- ⑧ 음운은 순차적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X의 존재는 Y의 존재를 함의한다.(Languages 'build up' their phonologies in an ordered fashion. It suggests that a language will only have segment X if it already has segment Y. [Gussenhoven & Jacobs <Understanding Phonology>, 2005])
- 예) 유성 비음 없이는 무성 비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s/ 없이는 /z/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설의 /i, /e와 원순의 /u, o/ 없이는 전설원순모음 /y, ø/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⑨ 이미 존재하는 분절음에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음운목록을 구성한다.(Languages construct their segment inventories by adding elements to already existing segments.)
- 예) /p/ + 비음성: /m/ /p/ + 유기성: /p^h/ /p/ + 긴장성: /p'/
- ⑩ 특이한 분절음은 자음 목록이 큰 언어에서 나타난다.
- 예) /k^{wh}/: /k/ + 원순성 + 유기성
 Igbo(나이지리아) - 폐쇄음만 20개
 Haida(카나다, 알래스카) - 46개의 자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연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모르는 바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계 변화의 방향과 그 이유이다. 10모음에서 7모음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현대 한국어 모음체계의 변화가 그 예이다. 100년 전 우리 국어에 새롭게 들어온 전설원순모음인 /ɯ, ɨ/는 왜 이 시점에서 사라지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별개의 두 소리로 아무 일 없이 존재하던 /ɰ/와 /ɲ/는 왜 통합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 진화의 모습은 한국어 모음체계의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는가? 더 나아가 한국어 말소리의 패턴(sound pattern of Korean) 그리고 자연언어 전체 말소리의 패턴(sound pattern of human languages)을 이끌고 가는 원리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태, 통사 등의 영역에서도 분명 이러한, 즉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의문은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 언어를 이끌고 가는 원리 또는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BS 다큐 중에 <수학 대기획 2 생명의 디자인 1부: 치타가 삼킨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큐에 의하면 동물은 사자와 같이 무늬가 없는 동물도 있고, 얼룩말과 같이 줄무늬 동물도 있고, 치타와 같이 점무늬 동물도 있다. 동물들의 이러한 무늬는 멜라닌이라는 화학 물질의 작용으로 생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늬가 만드는 패턴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무늬를 가진 사자, 점무늬를 가진 얼룩말, 줄무늬를 가진 치타가 존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궁금증은 왜 어떤 동물은 무늬가 없으며, 왜 어떤 동물은 줄무늬이며, 또 왜 어떤 동물은 점무늬일까 하

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몸에 줄무늬를 가진 동물은 꼬리에 점무늬를 가질 수 있으나 그 반대(즉, 몸은 점무늬이면서 꼬리는 줄무늬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음운체계에 대한 보편성 역시 이러한 문제와 같다. ‘왜 3모음체계는 /a, i, u/이고, 5모음체계는 /a, i, u/ + /ε(e), ɔ(o)/로 구성될까?, 왜 유성 비음 없이는 무성 비음은 존재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왜 음운은 순차적 방식으로 구성될까?(즉, X의 존재는 Y의 존재를 함의할까?)’, 더 나아가 위에서 말한 ‘모음체계의 변천을 이끌고 가는 원리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물의 무늬 패턴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옥스퍼드 대학의 Murray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화학 물질이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여 일련의 패턴을 만들어낼까?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물질의 현상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언어에 - 적어도 음성, 음운에는 - 그대로 적용된다.

“어떻게 말소리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여 일련의 패턴을 만들어낼까? 음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운들 사이의 현상(즉, 상호관계)를 알아야 한다.”

음운론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음성은 모두 920개 정도로 이중 모음은 약 270개(29%), 자음은 650개 정도(71%)이다.

둘째, 920개의 음성 중 약 750개(81.4%)의 음성은 10개 언어 미만에서 사용된다. 자음 중 50% 이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성은 9개 정도이며, 모음 중 50% 이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성은 3개이다.

셋째, 자연언어의 음운 수는 평균 29~31개이다.

넷째, 비모음(nasal vowel)은 94%가 동일한 구강모음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단모음과 동일한 음질을 가진 장모음은 60% 미만이다.

다섯째, 자연언어의 장모음체계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모든 장모음의 음질이 단모음에 포함되는 유형

예: Adzera: 단모음 /a i u w/; 장모음 /a: i: u:/

Neo-Aramaic: 단모음 /a I u 'e' 'o'/; 장모음 /a: i: u:/

② 모든 단모음의 음질이 장모음에 포함되는 유형

예: Eyak: 단모음 /i ε u/; 장모음 /i: ε: u: α/

Selkup: 단모음 /e' 'o' 'ʏ' a ɤ u y/; 장모음 /e': 'o': 'ʏ': a: ɤ: u: y: 'ø': i:/

③ 단모음과 장모음의 음질이 완전히 다른 유형

예: Gadsup: 단모음 /i ɜ u/; 장모음 /ɤ: e: o:/

Kurdish: 단모음 /ə' ɪ ʊ i/; 장모음 /i: a: u: 'e': 'o':/

④ 단모음과 장모음이 서로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유형

예: Karok: 단모음 /i a ε ʊ/; 장모음 /i: a: ʊ: e: o:/

Wichita: 단모음 /i u ε ɒ/; 장모음 /i: ɒ: e: o:/

장모음과 관련된 위의 두 가지 사실은 모든 단모음이 한국어에서와 같이 장모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음의 장단에 있어 항상 단모음이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준다.⁸⁾

여섯째, 주변부 모음에서 전설모음의 경우는 평순모음 없이 원순모음은 불가한 반면, 후설모음의 경우는 원순모음 없이 평순모음이 가능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본어와 같은 언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ɾ/를 모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으로 생각하여 후설원순고모음 /u/가 없이 후설평순고모음 /ɯ/를 가진 일본어를 불완전체계로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 후설고모음과 후설중모음의 경우 그것이 원순이든 평순이든 하나만으로 음운체계는 완전한 체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음성 부재 = 음운 부재’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음성적으로는 후설원순고모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음운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음체계가 (7a)와 같은 틀이 아니라 (7b)와 같은 틀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8) 이러한 사실들의 발견은 우리에게 당혹감과 함께 우리에게 상식화되어 있던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각을 넓혀준다. 이는 마치 ‘계절’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기온을 중심으로 구분하겠지만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7) a. 모음체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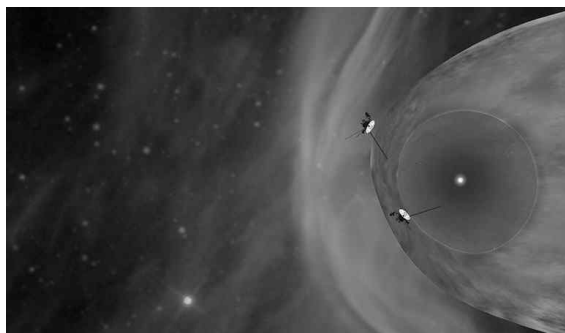
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b. 모음체계 2

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논의가 깊이 들어간 점이 있으나 위에 밝혀진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음운론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질 때 우리는 자연언어의 정확한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작년 9월 13일 미항공우주국인 NASA는 Voyager 1호가 발사된 지 35년 만에 태양권을 벗어나 태양풍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태양에서 190억 Km 떨어진 거리다. 그리고 태양권 안에 있을 때 지구로부터 60억 Km 떨어진 곳에서는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점으로 보이는 지구의 사진,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진이다. 그리고 태양권을 벗어나서는 ‘플라스마 진동’이라고 하는 성간의 소리도 녹음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그 소리를 “멀리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처럼 섬뜩한 느낌을 주는 이 음성신호”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이저 1호는 우주 밖의 세상을 처음으로 알려준 물체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항해,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 우리 인간에게 태양의 영향이 너무 크기에 그 태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궁금해 하다 못해 상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우주 밖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보이저 1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태양권 바깥의 색깔이 어떠

한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태양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물체는 항성과 항성 사이의 암흑 공간[그 공간이야말로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절대 무(無)의 공간일 것이다.]에서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본질에 대한 것이다. 즉, 마치 붉은 등불 아래에서는 원래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보이듯이 태양에 의해 비쳐진 색이 아닌 원래의 색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이다. 그 본질의 모습을 파악해야 우리는 자연언어의 모습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보이지 1호와 같이 언어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을 향한 항해를 해야 한다.

3. 제언

물론 위의 내용들이 모두 한국어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자들의 몫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변해감에 따라 고급학습자들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현장 교수자와 이론 연구자) 스스로 변하지 않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영양사와 요리사가 함께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된다. 영양사의 음식의 영양에 대한 이론 강연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과 맛’을 결합한 요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론 연구자와 현장 교수자는 마치 영양사와 요리사의 관계와 같다. 고급 학습자가 점점 많아지는 지금은 맛있는 한국어를 위한 서로의 협업(co-work)가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신철 역(2013) 『뇌과학과 학습혁명』, 돌출새김.
 구희산(1998) 『영어 음성학: 영어 발음의 이해와 활용』, 한국문화사.
 김기혁 역(2008), 『언어유형론: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김진우(2002) 『제2어 습득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사.
 백승길, 이종승 역(2013), 『서양미술사』, 예경.
 박문호(2013)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박순(2010)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혁신적 영어학습법』,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송경안, 이기갑 외(2008), 『언어유형론』, 월인.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윤병달(2009), 『언어와 의미: 문법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 동인.
 이진호(2014) 『국어음운론강의』, 삼경출판사.
 이현숙·고도홍 역(2012) 『언어의 뇌과학』, 한국문화사.
 이해문 역(2013) 『뇌과학에서의 제2언어 학습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허용(2004) 중간언어 음운론에서의 간섭현상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한국어교육』, 15-1: 233-25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허용(2007) 음절구조제약의 조정현상에 대한 음운론적 유형 연구, 『이중언어학』, 33: 297-315, 이중 언어학회.

- 허용(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36: 1-24, 이중 언어학회.
- 허용(2010a) 자연언어에서의 삽입모음 유형 연구, 『언어와 언어학』, 49: 325-34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허용(2010b) 자음체계 대조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 55: 305-332. 언어과학회.
- 허용(2011a) 자연언어에서의 음운체계 유형, 유형론 연구회 발표문.
- 허용(2011b) 모음체계 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25: 723-74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허용(2012), 베트남어와 크메르어의 자음체계 연구, 『언어와 언어학』, 57: 223-24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허용(2013a) 한국어 모음체계의 유형적 특성 연구, 『언어와 언어학』, 61: 175-20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허용(2013b) 외국어 발음습득과 음운지식에 대한 연구, 『언어와 문화』, 9-3: 377-397.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 허용.김선정(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Crothers, J.(1978) "Typology and Universals of Vowel System". In Greenberg *et al.* (eds.), 1978, 93-152.
- Carr, P. (2013),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2nd edition), Wiley-Blackwell.
- Disner, S.(1984) "Insights on vowel Spacing", In I. Maddieson (ed.), *Patterns of Sounds*. CUP.
- Fromkin, V, Rodman, R. & N. Hymes(2011) *An Introduction to Language* (9th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 Gussenhoven, C. & Jacobs(2004) *Understanding Phonology* (second edition), Arnold. (허용.김선 정 역, 2005, 『음운론 이해』도서출판 동인).
- Greenberg, J. H., Ferguson, C. A. & E. A. Moravcsik(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s: method and theory, phonology, word structure, syntax*,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defoged, P.(2005) *Vowels and Consonants: an introduction to the sounds of languages*, Blackwell.
- Ladefoged, P. & I. Maddieson 1990. "Vowels of the World's Language", in CKreidler, C. (ed.) (2001). *Phonology: Critical Concepts*, vol. 2, Routledge.
- Harris, J. & G. Lindsey. 2000. "Vowel Patterns in Mind and Sound", in Burton-Roberts, N., C. Philip, & G. Docherty(eds.), *Phonological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http://www.wals.info>).
- Ladefoged, P. & K. Johnson(2014) *A Course in Phonetics* (7th edition), Cengage Learning.
- Lindblom, B.(1986) "Phonetic Universals in Vowel Systems", in Ohala, J. J. & J. J. Jaeger(eds.), *Experimental Phonology*, PP. 13-44, Academic Press: Orlando, Florida. USA.
- Lindblom, B. & I. Maddieson(1988) "Phonetic Universals in Consonant Systems", in Hyman, L. 1988. *Language, Speech, and Mind: Studies in Honour of Victoria A. Fromkin*, 62-78,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Schwartz, J-L., Boë, L-J., Vallée, N. & C. Abry(1997) "Major trends in vowel system inventories", *Journal of Phonetics* 25: 233-253.

<칼럼>

- 김대식(2012) “결정적 시기가 뇌를 만든다.”, 조선일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2012. 10. 22.
김대식(2013a) “우리의 뇌는 어떻게 나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나”, 조선일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2013. 6. 11.
김대식(2013b) “나보다 빨리 잘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 조선일보,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2013. 8. 27.
최재천(2011) “완벽한 진화란 없다”, 네이버캐스트 오늘의 과학: 생물산책, 『최재천 교수의 다윈 2.0(8)』.

<방송>

- BBC(2009), the Incredible Human Journey.
EBS(2009), 수학대기획 2. 생명의 디자인 1: 치타가 삼킨 방정식

<인터넷 사이트>

<http://web.phonetik.uni-frankfurt.de/upsid.html>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최 정 순(배재대)

I. 시작하기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지구에서는 국가 간 자본과 노동, 그리고 성이 그 언제보다도 빠른 속도와 규모로 교환되었다. 물론 그 10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난 꽤 오랜 시간동안 단일민족,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란 생각에 집착해 왔고, 교실에서도 이런 생각을 주입·강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은 타문화·타인종에 대해 좋고 나쁨의 선긋기를 하게 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배타주의까지 갖게 했다.

그렇지만 분명 현재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사회가 아님은 분명하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도입(1993년)과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2004년)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결혼 이주 여성의 급증, ‘Study Korea Project(2006년)’을 통한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 및 문화 현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7월 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¹⁾’이 157만 명, 국민 100명중 3명이 외국인이고, 1만명 이상 시군구가 49곳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주민등록인구 5,114만 1,463명과 비교하면 3.1% 수준이고, 이는 대전광역시 인구(153만2,811명)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보다 약 11%씩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방문취업제 만료 등의 이유로 증가폭이 2.6%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이 확대되고 국적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증가폭이 8.6%로 커졌다²⁾.

이제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다³⁾. 국내 외국인 이주의 급증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주 노동자는 부족한 혹은 회피하는 직종에서의 노동력 보충에,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 총각에게 결혼

1) 장기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 귀화자(혼인귀화자 포함), 결혼이주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안전행정부 보도 자료(“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2014-07-02)

3) 박정아(2012:7)는 한국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다문화 사회라고 진단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정희원(2013:77)에서도 외국인 주민이 막 3%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다문화 사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유학생들은 입학자원이 부족한 대학에 분명 큰 기여를 했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들의 이주가 우리 사회, 우리 정부, 우리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를 잘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민 혹은 그들의 자녀를 ‘코시안’이라 부르기도 하고,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녀는 ‘혼혈인’으로 배타하고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구분 짓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한 편에서 ‘사회통합’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는 얼떨결에 맞이한 이런 사회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고, 발생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활발히 교류하는 시대인 만큼 타인의 언어와 문화, 종교⁴⁾ 등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문화, 다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검토와 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사회를 전제할 경우, 결혼 이주민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 이주민(여성) 대상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이들의 자녀 및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 대상의 과제나 대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이다.

II. 다문화 사회와 한국

1. 이주민 현황

‘다문화 사회’라 함은 말 그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다. 그러나 현재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 대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말이 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신의 나라에서는 출가외인이 되고 한국에서는 노동력과 성의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다⁵⁾.

한국 정부는 1990년부터 국제결혼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⁶⁾.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인한 현지인과의 결혼

4) 종교학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5)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증가에 우려를 표시했다.(인터넷 한겨레, 2007.9.5)

6) 물론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이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0년 이후부터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활성화되었고, 그 비율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⁷⁾. 실제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여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 수는 약 149,764명에 달하고 있다. 국적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62,400명), 베트남(39,854명), 일본(12,220명), 필리핀(10,383명), 기타 순이고, 그 중 여성의 수가 128,826명이다⁸⁾.

소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급증하고 있다⁹⁾.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은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점차 초등, 중등(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다¹⁰⁾. 동시에 중도입국자녀라 불리는 청소년의 증가도 눈에 띈다¹¹⁾.

이주 노동자의 경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유입이 시작되었고,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인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모했다¹²⁾. 2006년에 이미 40만여 명에 달했고, 2014년 1월 1일 기준 53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8월 현재 8만 570명의 유학생들¹³⁾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꾸준히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국외 동포들의 국내 체류도 증가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외국인 이주민’ 간에 다양한 형태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경선이 짧고 식민지를 가져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사실 외국인을 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앞서 말한 ‘단일민족국가’란 생각은 결국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배타주의¹⁴⁾의 밑거름이 되고 상대주의적 문화소통을 위한 여지를 남겨 주지 않는다. 그러다

7) 80년대 중후반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국제결혼, 90년대 초반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결혼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일본어, 영어 사용자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9)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12년 168,583명, 2103년 191,328명, 2014년 204,204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10)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7천800여 명에 달해 전체 학생 수의 1%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1만 2026명(21.6%) 증가한 숫자이며, 관련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의 9,389명에서 매년 6,000~8,000 명씩 늘어나 8년 만에 7배로 증가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의 미취학 자녀 현황(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통계 중 미취학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만 6세가 1만 5959명, 만 5세 1만 6917명, 만 4세 1만 7670명이다.)으로 미뤄보건대 향후 3년 내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자녀수는 2013년 4,922명(초 3,065명, 중 1,144명, 고 713명)명에서 2014년 4월 기준 5,602명(초 3,268명, 중 1,389명, 고 94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12) 설동훈(2008:6) 참조.

13) 그 중 동북아 학생이 60,498명으로 중국 유학생이 52,499명이 있다.(통계청 참조)

14) 나름 선진 문화라 생각하는 미주나 유럽, 심지어 일본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은 다른 측면에서는 천박성일 수 있다.

보니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이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이 한국화 되기를 기대하고 강요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학습할 기회의 제공에 인색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결국 여러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결혼을 통한 이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체류 및 생활, 사회복지 등 전반에서)’은 유학생 집단이나 이주 노동자 집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¹⁵⁾.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차별과 모욕을 당했고 당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즉 편의 제공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들의 수용, 포용과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주민들의 주요 항변, 불만의 내용은 출신 국가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욕(가난, 교육 정도 등)과 자식들에 대한 차별대우(한국 국적을 주면서도 ‘혼혈’ 취급하는 것 등)가 주가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언어적, 문화적)의 부족이나 부재를 들기도 한다. 또한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지원의 부족을 불평하고, 노동이주자들은 차별대우와 부당 대우를 토로한다.

소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불평의 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고, 걱정 소리 역시 여기저기서 들린다. 분명 지원은 풍부하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자기중심적인 문화의 보전만을 강조하고, 이주민의 문화(언어 포함)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 아니 정책적 무관심은 결국 서로 사이에 오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2005년 프랑스에서의 일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다.

사례: Der Zeit (2005.11.10.) 45면; 프랑스에서의 저항

이 분노하는 젊은이들은 멀리서 온 이들이 아니며, 이들의 정체성 문제는 이들의 빈곤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이 청소년들은 두 나라, 예를 들면,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에서 이쪽저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둘 중 어느 나라와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한다. 이들의 고향은 프랑스지만 이 나라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거부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비난하지만 프랑스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이 나라는 이렇다 할 이민 정책을 세워본 적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이민이 아니라 진짜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돌린 적이 없다.

모든 면에서 심각한 오해가 지배하고 있다. (중략) 불꽃이 한 번만 튀면 저항은 다른 주거지역으로 퍼진다. 4월에 이미 Aubervilliers에서 경쟁관계의 그룹들 간에 무력충돌이 있었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프랑스의 정권이 좌익에 있든 우익에 있든 그것도 상관없다. 작은 계기만 있어도 청소년들은 반항을 하고, 자동차를 불태우고, 쇼핑센터를 파괴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다. 그렇지만 이들은 “목표 없는 반항자들(rebels without a cause)”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들은 10월 27일에 두 미성년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변압기

15)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좀 다르다.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겠다.

가 있는 건물에서 죽었던 것과 같은 공공연한 비극, 사회적인 불의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 사고가 계기가 된 저항들은 사실 더 오래된, 프랑스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는 역사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알제리와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사에서 생겨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긴장관계가 이제 새로운, 폭력적인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말은 프랑스가 자신의 할 일을 도외시켰고, 사실 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던 소수집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존엄성과 평화를 유지하며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했던 시민단체와 연합들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지방행정단위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대응책을 위한 돈이 점점 줄었다. 부모들은 점차로 능력과 권력을 잃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웃들의 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여러 문제들 중 언어·문화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및 인종에 대한 편견 및 그에 따른 차별 대우 등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나 이를 위한 노력 역시 강조 되어야 하며, 이 점이 우선되어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원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3. 정책의 현황

3.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중개 관리,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자녀 양육·교육,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등 관련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다부처 관련 정책으로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이다(이혜승, 2010:198).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은 1990년대부터 급증한 국제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얻게 됨으로 하여, 2005년 전후 다문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유의정 외, 2009).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부처에서 대부분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 중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그 외 대부분의 부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¹⁶⁾. 부처별 주요 업무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16) 그럼에도 위 표에서 보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재 및 교육과정의 개발 등으로 통해 다문화가정이든 자녀든, 이주 노동자든 대다수의 이주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¹⁷⁾

구분	대상	주요 업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사회보장 지원
법무부	외국인	외국인정책 총괄
교육부	다문화가정자녀	일반 학생,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직업상담·훈련
행정안전부	외국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생활, 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일반 국민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 교재개발
농림수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특히,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5가지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10개 언어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포털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다¹⁸⁾.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하여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을 발표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대한 3대 방향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한국 문화 및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다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정책은 2006년 5월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이,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2012년에 와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우선, 2006년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은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 대책을 보고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17) 이해승(2010:200)의 <표1> 참고.

1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소개 (국기, 국화, 계절, 명절, 공휴일) ② 외국인지원서비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기관) ③ 체류 및 국적취득 (사증, 외국인등록, 체류, 국적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④ 한국문화와 생활 (가족생활, 식생활, 주거·소비생활, 교통 및 공공기관 이용) ⑤ 임신과 육아 (임산부를 위한 보건서비스, 예방접종,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⑥ 자녀교육 (교육제도 일반, 초·중·고·대학교 설명) ⑦ 건강과 의료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기관, 보건소, 응급처치) ⑧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⑨ 취업과 근로 (취업, 직업훈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자녀들이 교육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¹⁹⁾. 2007년에는 2006년에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원대책의 기본방향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설정한 후 사업 내용을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 지원체제별 다각적 협력체제 구축 관련 연구 및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여 구체적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교원연수강화, 지역 센터와 교육청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명종, 2013:57에서 재인용). 2008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통해 일반 학생 및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었는데(송경섭, 2010:41), 단기가 아닌 4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부모,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일반학생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발굴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0년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은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며 다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의 확산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2012년에 와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특징이 다양화되어 이들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KSL)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한국어 교재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문화 연구와 개발의 기반을 다졌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쌓게 하였고,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중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준별로 반 편성을 진행하여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 핵심 내용으로는 ①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②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③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④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⑤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⑥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로의 확대, ⑦정책대상별 고유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2. 한국어교육 정책 현황²⁰⁾과 한국문화교육 정책 현황²¹⁾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그 중 한국어 교육 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한 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이주민들의 언어 문제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박정아, 2012:13).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관련 사업 평가와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중복 추진을 지양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부처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 교육²²⁾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정희원, 2013:83)

구분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결혼 이민자 귀화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취학 전 자녀 	다문화 가족 취학 아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정 기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07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외국인 근로자 센터
주요 사업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집합 교육 및 방문 교육 자녀 대상 언어 발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과정 도입 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기초 학력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지원 취업 전 현지 한국어교육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으로 나뉘는데,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이며 각 과정은 0단계 15시간, 1단계~4단계 각 100시간, 5단계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20) 정희원(201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1) 제목에는 한국문화교육정책이라 넣었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뒤에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할 때 한국문화교육 또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22) 박정아(2012:9-12)에서는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 지원, 둘째,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셋째, 국어 정책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정책 추진을 들고 있다.

은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료자에게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을 면제해 주거나 국적 취득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해 주기도 하고, 사증 취득이나 변경 시 혜택을 주기도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및 취업 지원, 자녀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지원 사업도 펼쳐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인데,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재혼하는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오게 된 ‘중도 입국 자녀’들의 증가가 원인이다. 중도 입국 자녀들은 외국인 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2년 3월에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도 입국 자녀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KSL 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2013년부터 학교에서 KSL을 정규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과정 마련에 이어 표준 교재도 개발하였는데 초·중·고 학교 급별로 초급 및 중급 교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침서도 발간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산업 재해에 쉽게 노출되거나 의사소통 곤란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하고, 현자 사전교육을 통해 38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다. 입국 이후에 16시간의 산업 안전과 현장 적응 위주의 취업 교육만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단 2시간만의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Ⅲ. 다문화 사회의 언어문화교육

1. 언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중언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개 이상의 공용어를 가진 나라도 많고, 한 국가가 단일어만을 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T.K Bhatia & W.C. Ritchie(2004:1)에서는 세계 어린이의 2/3 이상이 다언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다중언어 시대는 회피할 수도 없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순간부터 다중언어교육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²³⁾

박영순(2007:1-2)에서는 미국 다언어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 이중언어교육: 과도기적 이중언어교육(Transitional Bilingualism)
 -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표준 영어를 완전히 익히고, 학교에 적응하게 되는 2,3년만 과도기적으로 모국어로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
- 70-80년대 이중언어교육: 보존적 이중언어교육(Maintenance Bilingualism)
 - 소수민족 언어를 과도기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용하여 제1언어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제2언어인 표준영어도 모어처럼 통달하게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
- 90년대 이후 이중언어교육: 첨가적 이중언어교육
 - 다수언어인 표준영어를 모어로 하는 미국 본토 학생들에서도 영어 외에 또 하나의 언어를 모어처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언어교육

이러한 미국에서의 이중언어교육/다중언어교육의 역사적 흐름은 그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언어교육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70-80년대의 정책과 90년대 이후의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박영순(2007:1)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은 소수자, 혹은 다수자, 엘리트 등만을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통사람들에게 다중언어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UNESCO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공통참조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발달시켜 나갈 권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특히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장관위원회의 권고문 R(82) 18과 R(98) 6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장관위원회의 권고문 R(82) 18에 따른 주요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럽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풍부한 유산은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23) 정희원(2013:73)에서는 세계 언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에스놀로그(Ethnologue)》(16판, 2009)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다양성 지수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언어 다양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로, 224개국 중 216위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이나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우리는 그동안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는 우리의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제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24)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강휘원(2014)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의 논의에서는 1.소수인종의 정체성을 위한 '분리된 영역'의 인정, 2.다문화주의 이념의 정립과 소수인종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3.소수인종 언어 권리의 국제적보호조항의 준수, 4.인종(민족)집단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 5.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의 다중언어정책, 6. 경제 및 소득 향상과 다중언어정책, 7. 인종(민족)간 연계언어로서의 공식언어(공용어)의 교육 등을 들었다.

공동의 보물이며, 이 다양성의 이해를 저해하는 장애물로부터 서로의 유익과 상호 이해의 원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유럽 언어들을 더 잘 아는 것만으로도 상이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유럽 내의 유동성, 상호이해, 협력이 강화되고 편견과 차별도 극복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개인이 다중언어사용자, 다문화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전제해야 하는지 분명해 진다.

다중언어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제하고,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할 때, 바람직한 변화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 이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 나라들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르고, 교육 제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모델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자인하고 다언어, 다문화 교육을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 사회의 언어를 비롯한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언어 교육이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언어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다언어교육은 다문화 교육²⁵⁾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와 문화 교육은 분리될 수 없고 동전의 앞뒤와 같이 공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교육은 우선 문화 교육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화의 의미를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를 포함해 기술하고 이해해야 하며,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전제하기 때문에 문화자각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접근이 미시적인 접근이라면, 다른 한편 거시적 접근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로 정의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때 교육이 유의미해진다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 역시 다음의 몇 가지를

25) 다(중)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 Banks & Banks(2005:3-4)는 “다문화교육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 또는 개념, 교육 개혁 운동, 그리고 과정이 그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성,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등이 다르거나, 영재 혹은 부진아라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다. ...(중략)... 다문화교육은 학교 변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운동이다.”라고 정의하였고, Pang(2005)은 “다문화교육은 총체적 학교 개혁을 필요로 하며, 교육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교육 분야이다. 다문화교육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노력하는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학생들이 필수적인 의사결정능력과 간문화적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만든다. 다문화교육은 배려 이론, 민주주의 교육, 인간 성장과 발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신념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김순희, 2007:617). 즉,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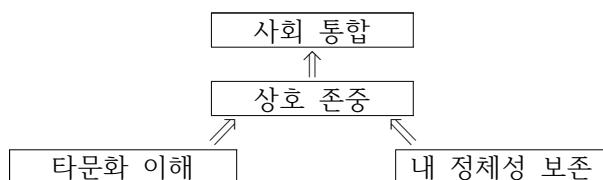
포함한다. 첫째는 문화교육의 교육적 등가성(equity)이고, 둘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화 교육을 받을 권리(empowerment)를 부여받아야 하며, 셋째는 사회에서의 문화적 복수성(Pluralism)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전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언어/다문화 교육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혹은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하고, 나아가 교육에서 사용되고 획득되는 언어(문화도)는 향후 자신의 보다 나은 삶으로의 발전(신분이나 부의 상승)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언어,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1) 다수와 소수 모두를 포함하고, 모두를 위한 다중언어, 다문화주의의 채택
- 2)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사용 능력 배양
- 3)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한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사용

또한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여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운데 국가적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림 1> 다문화교육의 목표

2. 다문화/다중언어교육을 위한 주요 국가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민사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몇몇 국가들의 정책적 특징을 살펴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몇몇 국가의 정책적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민국가라서 우리나라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정책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긴 하지만 연방 정부가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소수자들의 사회 적응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 즉,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들 소수자의 교육소외방지와 교육평등을 위해 적응지원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 및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간교육단체에도 이들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단순히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기 위한 지원만이 아니라 이들 혹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지원을 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양성기관의 다문화교육 확대를 통해 상호문화이해능력을 갖춘 전문 교사의 양성에 주력하는 점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한 가장 선도적인 다문화국가이다.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은 각자의 정체성 형성과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한다. 즉 캐나다에서는 내국인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교육의 지원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 교육이 언어문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최소한 동화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통합은 숙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호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동화주의를 폐기하고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정부(관) 주도의 다문화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호주가 보여준 민-관협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문화주의를 정책의 기저로 삼으면서 소수이민자 대상의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 호주 내의 인종차별이나 민족 간 갈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동화주의적이며 소수이민자 대상의 언어교육에만 집중해 온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어느 한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원리로 삼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두 국가 모두 국적법 및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1999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절충하여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이주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연방 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개별 주정부가 주도하여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NRW 주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RAA 사업은 주 정부 산하에 27개의 지부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교적 대단위 사업이다²⁶⁾. 본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프로그램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일반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만이 아니라 이주민 가정의 경우는 유아, 미취학 아동부터 대상이 된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언어(독일어)교육의 전제조건을 이주민가정 자녀의 모국어 능력 강화에 두고 있다. 모국어에 능통해 지면 제2언어인 독일어를 보다 더 쉽게 습득할 것이라는 접근법으로써 아동은 결국 이중언어 구사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학습된 독일어 실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26) 위 내용들은 전경숙 외(200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경숙 외(2007)을 참조할 것.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부진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앞으로 학업부진의 해소를 위해 독일과 같은 방식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한국어 교육만을 강요하지 않고 이들 어머니의 언어를 습득/학습하고 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시작단계라 볼 수 있고, 또한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이 전시성 행사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공생센터(多文化共生センター)²⁷⁾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민간기구로, 국적, 언어, 문화 및 성(性)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 활동과 사업운영 중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에 반영할 만한 점들은 이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민 자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접근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IV. 정책적 과제 제시와 결론

1. 정책적 과제의 제시 및 제안

이주민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다 보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론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정책위원회,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원회가 일 년에 1~2번의 회의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하면 이주민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국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외국인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결혼 후 국적을 바꾸지 않은 채 일을 하면 외국인노동자정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이주민 사회로 가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을 닫지 않는 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인터뷰(2013.5.19. 매일일보) 중에서

27) 다문화공생센터의 설립배경은 다소 독특한데 이 센터의 전신은 ‘외국인지진정보센터’였다고 한다. 1995년 일본 대지진 당시, 이 기구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설립되었다. 다문화공생센터의 주요 활동과 사업은 ①국적 차별 없는 기본 인권의 실현, ②민족적·문화적 소수자 격려, ③상호 협력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경숙 외(2007) 참조.

양적 팽창이 언제나 질적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 수행과정 및 정책 수행 결과의 효율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언어문화교육 사업 수혜 대상의 지역적 편중이나 수혜의 중복성 여부, 언어문화교수의 질적 성패 여부(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정책 수립과 시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과 교육 여부, 부처 별 정책 중복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성과 위주의 양적 평가에 중점을 둔 일회성 사업의 추진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인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초기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사업의 성과를 축적해왔다. 자기 점검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와 현황 등을 바탕으로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미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에 귀 기울여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 및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국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다듬어 뿌리내리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대단위 중요도·만족도 조사 실시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여러 국가 기관의 주도 하에 다양한 다문화 언어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나 요구조사를 통한 사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부처 및 사업간 유사 중복문제나 수혜자의 중복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²⁸⁾만족도나 중요도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지역별 현장별 수요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다문화 언어문화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 하에 전국적 수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시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현행 다문화 언어문화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역류효과(파

28)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30개 사업) 등 12개 부처(복지, 법무, 교육, 문체, 농림, 안행, 고용부 등)에서 93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32억원이다.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246억원이다. 부처별 사업 시행은 사업간 유사와 중복, 부처간 연계·협조체계 미흡으로 이어져 결국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 참조(2014. 1. 15.)]

급효과, washback effe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정책담당 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제탑(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 현장의 다양한 기관 등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강화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상시 기구로 격상하여 독립적인 정책 수립 및 중장기 계획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지위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제반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보장될 수 있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책 수립에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최상위에 사회통합을 전제한다면 이의 달성을 위해 그 하위에 여러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언어와 문화교육을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중언어교육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중언어교육을 목표로 해야 하고, 문화교육은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호문화주의에 바탕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수립은 이미 박정아(2012: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어정책, 교육정책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 정책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관심을 두다 보니 외형, 즉 다문화 사회 및 그 구성원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같다.

아울러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는 한국형 언어문화교육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내용마련은 물론 관리, 행정, 연구, 교육, 평가 등의 수행 체계 구축으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 연구의 결과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구체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앞서 말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강력한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지만 그 아래에서의 각 관련 부처 간의 업무 분장 역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²⁹⁾. 무엇보다 한국의 언어(한국어)와 문화 교육의 총괄적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의 국립국어원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 교재, 전문 교사의 양성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수립, 시행은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문체부에서는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해 왔으며, 그간 많은

29)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 1월에 열린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관련해서는 문체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은 문체부가, 예산 편성 교부, 운영 지침 마련 및 관리의 법무부/행안부/여가부가, 수요파악, 예산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이중언어교육과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부는 다문화어울림 교육만을 담당하고, 이중언어교육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2014. 1. 15자 보도자료 참조.]

성과를 축적해 왔고, 2005년 국어기본법의 발령으로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 및 양성,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와서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 다만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부와 어느 정도 협의와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 특히 국립국제교육원과의 업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외 법무부, 외통부, 노동부, 여가부, 농림부 등은 부서별 업무와 연계된 부분만을 제한적 지원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관련 부분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법무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한국 법의 체제나 규범 등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여가부는 가정생활교육, 학교생활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동부/농림부는 직업, 직무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각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다문화 정책 수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보다는 다문화 관련 기관이나 사업별로 일회적 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이다.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부분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따로 분리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다. 결혼이주민이든, 이주 노동자든 그 대상이 누구든 목적에 맞게, 연령 등의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의 의무교육을 전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는 교육적 효율성을, 정책 시행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외 이주민을 위한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평가, 다양한 목적별/수준별 내용 개발 및 교재의 개발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김선정(2012) 등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본고에서는 정책적 제안에 방점을 둘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 및 현황을 통해 제기되는 전문 교수자의 양성은 현행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선정(2012:62)에서 근래 실시되는 KSL 교육 전문가의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일반 목적 한국어학습자와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교육 담당 교수자,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교수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수자 등이 구분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의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는 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현행으로 진행하고 추가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든, 아예 구분되는 교육과정을 갖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 결론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처럼 다언어/다문화교육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나 교육 종사자들, 정책입안자들은 다언어/다문화교육이 다언어/다문화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 1) 우리 현재 걸으려는 다문화, 다중언어주의(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융광로 이론(문화융화주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³⁰⁾

이들 대상의 한국어문화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화정책이나 다문화(다중언어)정책은 언어가 문화의 일부이기에 언어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화교육과 언어교육 관련 정책은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³¹⁾.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한다면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교육/다중문화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위 질문 중 어느 쪽을 정말 지향하는지 알기 어렵다. 빠른 시일 안에 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높은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2) 왜 다중언어(다문화)교육을 두려워하는가?: 한국어 능력과 한국화(Koreanization, 애국심)와의 이념적 결합으로 인한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에 충성하는 애국자이고, 다른 언어를 말하면 애국심이 적은 것인가?’³²⁾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인디언 교육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의 독립성과 독특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지킬 권리가 있음을 보장 받은 것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중후반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1990년 부시 행정부의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 법(The American Native Language Act)’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여러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만한 점은 결국 ‘자결권’의

30) 근래 문화융화주의는 부정적으로, 문화다원주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인 듯하다. 그러나 전자는 다수민족의 배타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이민자들의 인종이나 문화는 달라도 평등한 입장에서 수용하려고 하고, 그 다양성을 융합하려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

31) 다문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게 되면 다중언어교육정책이, 문화융화주의는 한국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2) 이는 이한규(2010:125)의 논의에서 ‘미국화(Americanization)’이란 용어를 ‘koreanization’으로 바꾸고, 그의 논의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융화주의에 따른 미국 인디언 대상의 영어전용 교육의 배경과 실패 원인 등에 관한 사적인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보장이라는 점이다. 시혜적 행사가 아닌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고, 한국어문화의 교육도 그러한 점들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

엄마의 언어, 혹은 이주민의 모어에 대한 자긍심이 전제되어야 ‘자존감’ 또는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에 강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나 가정에서의 ‘엄마 문화(언어 포함)’의 경시는 모자간의 대화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 내에서의 엄마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며, 자녀의 정체성은 불안해 질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 이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 학습대상자별 교육과정의 재확립, 이에 따른 교수요목, 교재, 교육평가 등과 같은 단기적이며 미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고혜원(2011),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漢城語文學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7-215쪽.
- 김선정(2012),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이들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 새국어생활 22-3, 국립국어원 47-65쪽.
- 김순희(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제 :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된 관점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615-637쪽.
- 김진호(2012),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정부 부처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59-281쪽.
- 김현진·이은주(2012), 다문화시대, 언어정책의 현주소-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9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1-193쪽.
- 박성혁(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육과학기술부
- 박영순(2007),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정아(2012),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 (2012년 가을)
- 송경섭(2010),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 탐색,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의정 외(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Vol.2.
- 이한규(2010), 미국의 인디언 언어·문화 교육 정책, 언어학, 18-2, 한국언어학회, 113-133쪽.
-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No2.
- 박창원(2011), 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 이영희(2011),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 5집, 세계한국어문학회 91-132쪽.
- 이용승·이화숙(2013),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16쪽.
- 임동진,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한국정책과학학회. 29-62쪽.
- 전경숙 외(2007),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정희원(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
- 조영달 외(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교재 저술: 다문화교육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 T.K Bhatia & W.C. Ritchie(2004), *The Handbook of Bilingu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법무부(2008),《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08~2012)》, 법무부.
- 법무부(2012),《2012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법무부.
- 법제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52호, 2010.7.1,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2010),《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2012년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인터넷 검색사이트>

교육부 [http //www.moe.go.kr/](http://www.moe.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http://en.wikipedia.org/wiki/Native_American_Languages_Act_of_1990;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 법

http://multiculture.dibrary.net/posts/list/202/25/31968/ko_KR.do?topics_per_page=10;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 출범 회의 자료(2009. 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6739>; 다문화가정 정책의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프레시안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51916325&code=940401; 10년 뒤엔 청소년 20%가 다문화 가정 출신(경향신문, 2011)

<http://studyinaustralia.tistory.com/146>; 호주의 다문화 교육(호주대사관 교육국 공식 블로그)

<http://mashallah.tistory.com/144>; 2014년 여성신문 이가람 기자, '다문화 청소년 정책, 컨트롤 타워 절실'

<http://cafe.daum.net/antiasia/9wjT/59?q=%B1%B9%B9%AB%C3%D1%B8%AE%BD%C7%20%B4%D9%B9%AE%C8%AD%B0%A1%C1%A4%C1%A4%C3%A5%C0%A7%BF%F8%C8%B8&re=1>;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 5차 회의 결과에 관한 의견(2012)

<http://www.nime.or.kr/Front/main/>; 2014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4.5)

<http://www.nime.or.kr/Front/teacher/cboardView.asp?no=2489&cate=공통&cate2=&cate3=>; 2014년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2.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여성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현황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2>; 이자스민 의원 인터뷰

‘다문화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 희 원(국립국어원)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대안을 제안해 주셨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사업들이 거시적인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이루어져 온 것과,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했던 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이 앞으로는 문화다원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는 발표자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따라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논의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이유를 그들이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주민 현황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숫자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연 다수를 차지한다. 발제문에도 2014년 기준 157만에 달하는 이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54만 명으로 34.3%에 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에 비해 결혼이민자는 약 15만 명, 유학생은 8만여 명가량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면 결혼이주여성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정부의 지원 사업도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외국인에게 그리 개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 정책이 그들을 우리 사회 문화에 하루빨리 적응시키려는 동화주의적 태도를 취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은 길어야 10년을 넘길 수 없는 일시 체류자일 뿐인데 비해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한국어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적 지원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하면 우선 결혼이주여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기술상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제시하신 정책 대안 중 관제탑의 신설에 대해서는 발표자와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관제탑의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들을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책 대상과 목표가 다른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주민 정책 전

담당 부서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관련된 여러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관제탑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새로운 기구 신설은 오히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체제에서 가장 상위의 정책 결정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담당하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19개 정부 부서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이 정책의 방향 설정과 중복 사업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총리실 주관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주민 한국어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과 인력의 중복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문제가 일부 해소된 바 있다. 2012년에 여러 차례 부처별 역할 분담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들이 각각 고유한 영역에서 한국어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자료 개발이나 교원 재교육 등 내용적인 면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초기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은 한국어교육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현재도 총리실 산하 관련 위원회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점검과 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다섯 번째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과 시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 매년 각 부처별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 추진 실적과 성과 목표 등을 꾸준히 점검하는바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제안하신 이주민 대상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의무적 실시와 관련하여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 규제들이 완화되는 현실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교육 효과성 강화를 통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규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2009년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인데 이는 의무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나뉘는데 한국어 과정은 사전 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수 시간이 배정되고, 한국사회 이해 과정은 모든 참가자가 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정 수료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을 면제하거나 국적 취득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해 주고 비자 취득이나 변경 시 혜택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2014년 4월부터 개정된 비자 발급 심사 기준으로, 법무부에서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경우, 또는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해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의무 교육 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제안 사항과 관련이 있다. 우리 언어문화 교육은 다중언어 교육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중언어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의 다중언어 교육을 구상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 선생님께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다문화 또는 다중언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책을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정리해 주셨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책의 구현은 각각의 나라가 처한 상황과 배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 성립 초기부터 다문화 사회로 출발하였고 다수의 국민이 공용어 이외의 모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모어 외에도 국가 공용어가 둘이어서 이중언어 교육이 필수적일 것으로 짐작된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공용어가 있는 언어사회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이어서 자신들의 모어를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계승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이 있다. 각각의 나라들이 처한 이런 상황적 배경은 실제 정책에서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상황에 결혼이주여성이 홀로 들어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또 다문화가정의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어의 언어습득 환경 개선 전략’에 대한 토론문

심 상 민(경인교대)

한국어의 언어습득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 학습자는 언어습득의 주체이자 언어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의 한국어교육 변화의 흐름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입니다. 특히 초기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학습의 목적과는 달리 최근에는 학문 목적 중심의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늘어나 한국어교육의 주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방법이 한국어 학습자와 시대적 요구 사항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survival Korean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어 습득의 개선 방향 중 한국어교육 방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습득의 환경 요인 중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자의 교육방법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대조언어학적 접근과 언어 본질의 탐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습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교육 방법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논의는 언어교육의 보편적 논의와 한국어교육의 특수성 논의를 함께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본인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두 가지 사항을 여쭙어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면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가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인데 이와 같은 제목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선 전략 중의 하나로서 교수자와 이론 연구자의 인식의 변화를 주문하는 개선 전략의 방향은 보이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의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적인 접근과 언어 본질에 대한 접근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문법(어순), 어휘, 문법과 어휘, 발음 등의 영역에서 우리들의 고정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주 7에서는 모음이 자음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각주 8에서는

상호 문화주의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제 적용 방안의 예를 들어주시면 실제적인 한국어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이 관 주(고려대)

1. 들어가기

인간을 사회적 인간이라고도 하고 언어적 인간이라고도 한다. 사회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국어사회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국어문화를 이룩하게 된다. 국어문화는 존재하는 그대로가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의 국어문화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고유어가 있고 표준어가 있고 높임 표현이 잘 사용되고 있는 소위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모습만을 띠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래어·외국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고 욕설·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 현실이다.

과연 우리의 국어문화의 실태는 어떠한가? 부정적 가치의 국어문화만이 존재할까? 아니면 긍정적 가치의 국어문화만이 존재할까?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발표에서는 국어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교육적 처방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국어문화의 개념과 입장’, ‘국어문화의 실태’,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순서로 발표해 보도록 한다.

2. 국어문화의 개념과 입장

2.1. 국어문화의 개념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국어도 언어의 하나이므로 의사소통의 매개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가 언어와 차이가 있다면, 국어는 언어이지만, 언어는 국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어문화라고 하면 광의로 볼 때 국어를 사용하는 한 국민이 국어를 통해서 만들어온 모든 문화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를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라고 넓게 정의하고 나면, 그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이 인간인 표상으로 언어를 들곤 하는데, 이 언어를 통한 문화는 무수히 많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어문화’의 초점이 문화로 가게 되어 국어교육의 대상 초점이 결과물로서의 ‘문화’로 옮겨지게 된다.

‘문화’의 외연은 무척이나 넓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

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문화(文化)로 보면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문화를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혹은 소득)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다.¹⁾ 이와 같은 입장은 (1ㄱ)처럼 국어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어문화를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로 보는 입장에서 국어 교과 차원에 일단 떠오르는 것은 문학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의 가치는 지고할 정도로 크다.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소설이든 시든 문학 작품이 한국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말로 아주 크다. 물론 각종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할 것 없이 국어로 이루어진 글도 모두 국어과에서 다룰 수 있다.

(1) 국어문화의 개념

- ㄱ.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
- ㄴ. 국어 자체의 특성에 주목한 현상으로서의 문화.
- ㄷ. 국어 자체의 특성과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

두 번째로, 국어문화를 결과물로 보지 않고 국어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1ㄴ). 즉 국어 자체가 일정한 문화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어문화는 ‘국어 자체가 지니는 문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국어’가 지니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국어문화로 보는 것이다.

‘언어문화’라는 말이 함의하는 뜻으로 언어의 특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곧 언어문화를 ‘언어라고 하는 문화’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어문화’라는 표현도 ‘국어라고 하는 문화’, 곧 국어 자체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어문화를 보는 입장이다. 흔히 표준어가 어떻다느니 사투리가 어떻다느니, 욕설 혹은 비속어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국어 자체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바로 국어문화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국어 자체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은 국어 표현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의 사투리 목록을 쭉 나열해 둔 것이라든지, 청소년 통신 언어를 목록화해 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언어문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어문화를 국어 자체의 특성과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합해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1ㄷ). 이것은 국어 자체의 일정한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1)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것이고, ②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의 것이다.

①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 구석기 문화/귀족 문화/근대 문화/유목 문화/문화를 교류하다/문화를 창조하다/새로운 문화에 접하다/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다.

②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 [culture, 文化]

결과물로서의 문화를 모두 ‘국어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사실 국어문화라고 했을 때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학 작품들이 국어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어교육 차원에서 볼 때 문학 작품은 우리말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은 이미 국어 자체의 표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1ㄷ)이 ‘국어문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2.2. 국어문화에 대한 입장

기본적으로 국어문화는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를 뜻한다고 할 때, 결국 국어문화는 국어의 유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음성, 문자, 몸짓에 따라 언어의 종류가 달라지곤 하는데, 국어문화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다. 즉 음성 국어문화, 문자 국어문화, 몸짓 국어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어문화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결과물 차원에서 문학 작품을 국어문화의 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담론 차원에서 국어문화를 다룬 많은 논저가 이런 입장을 취해 왔다. 기능론에 대비적인 문화론을 주장할 때 바로 이런 입장의 일단을 볼 수 있다. 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가리킨다는 광범위한 입장이었지만, 그 핵심에는 언제나 문학이 자리 잡아 왔다. 물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갈라서 문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국어문화라고 한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고급문화와 비문학이라는 대중문화로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일반적이어 왔다(김동환 2002 등).

두 번째로 국어문화를 다룰 때 언어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라는 점을 주목해서 살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개 표준어와 사투리, 경어와 비속어, 고유어와 외래어(혹은 외국어), 대중매체어 등 언어 표현 그 자체를 다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곧 국어 표현 그 자체에 주목하여 국어문화를 보는 입장이다. 국어문화를 결과물이 아닌 그 자체의 실태(혹은 과정)로 보는 이 입장은 국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이해 및 파악해서 일상적 국어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국어문화를 인터넷 통신언어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에 주목하여 어문 규범 파괴나 문화적 일탈 현상 등을 논하는 경우이다. 물론 청소년 통신 언어에 대해서 문화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국어 창조의 긍정적 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논의도 있다(이정복 2009 등).

(2) 국어문화를 바라보는 입장들

- ㄱ. 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입장
- ㄴ.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국어 표현 자체를 주목하여 보는 입장
- ㄷ. 인터넷 통신 언어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입장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를 (다른 발표 주제들과 비교

해서) 생각해 보면 본 발표에서의 국어문화에 대한 견해는 주로 (2ㄴ,ㄷ)에 해당하는 것 같다. 결국 국어문화를 소통 매개체로서의 국어 표현 자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특히 인터넷 통신 언어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게 본 발표의 목적이다.

3. 국어문화의 실태

3.1. 국어문화 실태에 대한 인식

국어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평상시에 통용되는 국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고 국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 등 여러 결과물이 모두 문화이다. 국어를 사용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 등도 모두 국어문화이다. 이처럼 국어문화는 국어 표현 자체,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 국어 표현 속에 들어 있는 가치관과 의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어문화의 실태를 논할 때는 대개 걱정스러운 눈길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국어 표현 자체를 다루곤 한다. 흔히 청소년 언어가 어떻다느니, 유행어가 어떻다느니, 비속어가 어떻다느니, 외래어가 어떻다느니 등 등 걱정스러운 눈으로 현실 언어를 다루곤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최근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언어 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언어실태에 대해서는 2011년에 한 차례 더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된 언어 의식 조사 가운데 언어사용과 관련된 결과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²⁾

(3) 국민의 언어사용 의식 조사(국립국어원 2010, 2011)

ㄱ.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사회에서 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략> 한편, 텔레비전 오락 프로 출연자들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서로에게 비속어나 욕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으로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둔다’에 대한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2010:20)

ㄴ. 대중매체의 언어 중 방송언어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방송언어가 국어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2)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과 2010년에 경어, 비속어, 표준어와 방언, 외래어·외국어, 대중 매체어, 외국 문자 등에 대해서 그 사용 양상을 언어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조사한 바 있다. 5년 간격이라서 그런지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항목 가운데 여기에서는 욕설·비속어, 외래어, 대중 매체어 사용실태에 대한 의식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국어문화 실태를 확인할 때 이 항목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담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인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거나,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2010:21)

- ㄷ. 본 조사 결과 비속어나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과 은어·유행어의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유행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이러한 언어실태는 언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이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해 용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는 소년일수록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유행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1:요약문)
- ㄹ.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별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2010:21)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식하는 언어사용 양상은 대개 우려 섞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생활에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통신 언어가 우리말 파괴의 주범인 것처럼 의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대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언어 규범을 파괴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언어폭력적인 성향을 띠다고 보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욱 욕설이나 비속어 등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ㄴ,ㄷ).³⁾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3ㄷ).

(4) 비속어인 ‘개-’의 사용 양상(국립국어원, 2011:198)

ㄱ. <체언> - 긍정: 개여신, 개간지

- 부정: 개씹걸레, 개조밥, 개년, 개놈, 개고생, 개실망, 개병맛, 개병신, 개드립, 개객기, 개뽕, 개거지 등

3) 국립국어원(2011:293)에서는 언어사용에서 부정적인 성향이 많음을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언어가 비속어 등 왜곡된 언어가 잠식하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이 눈에 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속어는 초등학교생의 97%, 중·고등학교생의 99%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은어나 유행어는 초등학교생 97%, 중고등학교생의 경우 100%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 ㄴ. <용언> - 긍정: 개잘되다, 개귀엽다, 개멋있다, 개이쁘다, 개좋다, 개사랑스럽다, 개바르다, 개웃기다 등
- 부정: 개망하다, 개무섭다, 개불편하다, 개싫다, 개짱나다, 개실망이다, 개못하다, 개웁기다, 개무시하다, 개띠껍다, 개빡치다, 개썰리다, 개지랄하다, 개지랄떨다, 개찢다, 개쫄다 등
- ㄷ. <수식언> - 개많이, 개레알

국어문화를 다루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보고서인 (3그,ㄷ)에서도 보듯이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등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 예로 (4)에 제시해 보듯이 흔히 비속어 표현으로 알려진 ‘개-’는 강조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는 본래 ‘야생 상태의, 정도가 심한’의 뜻을 지닌 관형사성 접두사로서 부정적 가치를 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4)에서 보듯이 부사성 접두사로 여기저기에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에서 보듯이 뒤에 긍정적인 표현이 오게 되면 ‘개-’의 쓰임은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국어문화의 어두운 면을 말할 때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를 지적하곤 한다. (3ㄷ)에서도 말하듯이 중·고등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인 가운데도 일정한 맥락에서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양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3.2.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실태

국어문화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할 때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우선적으로 주목하곤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가 심각하게 안 좋다고 인식하고 그 교육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실제 대화와 인터넷 통신 언어 대화를 통해서 국어문화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의 대화 실제(2014년 7월 00일)

S: 헐 김○주랑 김○현이랑 아직도 사겨?

L: 어.개네 한 번 깨졌다가 다시 사귀는 걸걸?

J: 야, 어제 개한테 톡왔었어.

L: 누구? 김○현한테?

J: 아니 김○주한테. 나 그거 보고 개놀랐다. 진짜 미친거아니야?

S: 헐. 이걸 김○현은 알까?

J: 그니까. 내가 맨 처음엔 이거 캡쳐해서 김가현한테 보낼까 하다가 그냥 안보냈어.

L: 맞아. 원래 그런 데 끼어들면 복잡해져. 톡 뭐라고 왔는데?

J: 그니까 개한테 톡이 왔어. 자기 심심하대. 그래서 게임하라고 했어. 진짜 철벽쳤어. 약간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개가 알겠대. 그래서 내가 어이려고 톡 끊냈어. 근데 어제 또 톡이 온거야. 뭐하냐고.

S,L: 헐 개 뭐야.

J: 또 심심하대. 내가 개어이없어가지고 그냥 몇 시간 후에 보냈어.

L: 와.. ○현이가 불쌍하다.

(5)는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세 명이 나누는 대화로, 그 중 한 명이 전사한 기록이다. 그 학생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의식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몇몇 살피기로 한다. 최소한 이 대화에서는 어른들이 우려할 정도로 국어문화 파괴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톡’이라고 하는 외국어 사용의 일상화를 엿볼 수 있는데, ‘톡’은 통신 언어 대화 수단인 ‘카카오톡’을 한 음절로 표현한 것으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용하는 통신 매체이다. 흔히 ‘카톡’으로 불리는데, (5)에서는 그것을 더욱 줄여서 ‘톡’이라고 하고 있다. ‘캡쳐해서’에서처럼 외국어가 나타난다거나 ‘헐’이라고 하는 실망 혹은 허탈함을 나타내는 누리꾼들의 통신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철벽’이라는 그들만의 은어가 나타나는 것도 그들만의 언어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비속어 사용과 관련하여 걱정스런 점이 있다고 하면 접두사 ‘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개놀랐다, 개어이없어가지고’에서 용언 앞에 ‘개-’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개-’에 대한 풀이

개-12 「접사」

「1」((일부 명사 앞에 붙어))‘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금/개꿀/개떡/개먹/개살구/개철쭉.

「2」((일부 명사 앞에 붙어))‘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꿈/개나발/개수작/개죽음.

「3」((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망나니/개잡놈.

(6)에서 보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에 대하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 ; ‘헛된’, ‘쓸데없는’ ;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관형사성 접두사로 보고 있다. ‘개망나니, 개잡놈’ 같은 예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5)에서는 명사가 아닌 용언 ‘개놀랐다, 개어이없다’ 앞에서 ‘개-’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이러한 현상을 언어 파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언어 창조라고 볼 것인지는 새로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정복(2006:17-40)에서는 청소년들의 최근 통신 언어 사용 모습에 대하여 ‘경제적 동기의 줄임말과 붙여 적기, 오락적 동기의 언어유희, 표현적 동

기의 새말들, 유대 강화 동기의 상징 기호, 심리적 해방 동기의 비속어들'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라고 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사회 방언의 등장이라 하여 반기고 있다.

(7) 중학교 3학년 한 반의 카카오 톡 대화(밈줄은 필자)

저장한 날짜 : 2014년 7월 31일 오전 12:43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님이 이○현님, 김○우님, (알수없음)님, 수여님, 못생긴인형♥님, 오○은님, 강○원님, (알수없음)님, (알수없음)님, 김○은님, 김○완님, 이○진님과 김○성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 : 애드라 반톡임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 : 그 석○현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 : 유○진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김○우 : ㅋㅋㅋ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김○우 : 나하건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김○우 : ㅌ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 : 생각나는 야들

2014년 3월 5일 오후 8:59, 최○민 : 초대줌!

2014년 3월 5일 오후 9:00, 최○민 : 어떤 하건?

2014년 3월 5일 오후 9:00, 김○은님이 정○문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00, 최○민님이 (알수없음)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김○우님이 유○현님, 김○영님과 정○정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김○은님이 (알수없음)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김○우 : 나랑성호 하이스트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알수없음) : 아니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김○우 : 나가면양대요

2014년 3월 5일 오후 9:01, 최○민 : ㅇㅇ?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알수없음) : 양대여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김○우 : 양~대여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최○민 : ㅅㅅ 누구?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최○민 : 양~대여! 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알수없음) : 그사람은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김○우 : 나쉬는시간끝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알수없음) : 일단올반일듯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최○민 : 여기서 나가면 먹살잡고 명치를 딱

2014년 3월 5일 오후 9:02, 최○민 : 끝!

2014년 3월 5일 오후 9:03, 최○민님이 권○우님을 초대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03, (알수없음) : 나는청산인디

2014년 3월 5일 오후 9:12, 김○완 : ㅋㅋㅋ나지금학원

2014년 3월 5일 오후 9:13, (알수없음) : 오오오오반톡이다ㅌㅌㅌ

2014년 3월 5일 오후 9:13, 김○은 : ㅋㅋㅋ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14, 김○완 : 갑자기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18, 유○현 : 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18, (알수없음) : 우리반반톡만들었네
 2014년 3월 5일 오후 9:18, (알수없음) : 안만들줄줄알
 2014년 3월 5일 오후 9:21, 최○민 : ㅋ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최○민 : 애들아 빨리 친해집새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유○현 : 그래여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최○민 : 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최○민 : ㅅㅂ 설머 수진?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알수없음) : 올쏘
 2014년 3월 5일 오후 9:29, (알수없음) : 설마가진짜라능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알수없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유○현 : 아내일 학교간다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김○우 : 하to the건끝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김○우 : 내일체육들었다ㄱ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유○현 : 와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알수없음) : 맞아
 2014년 3월 5일 오후 9:59, 유○현 : 굳
 2014년 3월 5일 오후 10:00, (알수없음) : 내일체육이지옥이될수도있다
 2014년 3월 5일 오후 10:00, 김○우 : 내일
 2014년 3월 5일 오후 10:00, 김○우 : 준비운동열심히해야대
 2014년 3월 5일 오후 10:00, (알수없음) : 그렇지않으면45분동안준비운동
 2014년 3월 5일 오후 10:01, 김○우 : 근께
 2014년 3월 5일 오후 10:01, 김○우 : 잘하자
 2014년 3월 5일 오후 10:01, 유○현 : ㅋㅋ
 2014년 3월 5일 오후 10:01, (알수없음) : 오우메시
 2014년 3월 5일 오후 10:01, 유○현 : 리오메시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유○현 : 그웨잇메시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김○우 : 벨코즈개씹사기다...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김○우 : 궁이 움직여ㅡ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유○현 : 벨초즈 충너무 많아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김○우 : 오늘하는애맞는데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김○우 : 초반엔물인데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김○우 : 후반지리더라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유○현 : ㅇㅇ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유○현 : 패시브
 2014년 3월 5일 오후 10:02, 유○현 : 아퍼
 2014년 3월 5일 오후 10:03, 김○우 : 큐가
 2014년 3월 5일 오후 10:03, 김○우 : 막
 2014년 3월 5일 오후 10:04, 김○우 : 옆으로퍼져ㅋㅋ

(7)은 2014년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 구성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명 반톡(반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면서 나눈 표현들이다. 처음 만나는 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략적인 청소년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5) 자료가 친한 친구 세 명이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구어성 구어 표현임에 비해서, (7)은 인터넷 카카오톡 방에서 글로 올린 구어성 문어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언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5)에서 나온 접두사 ‘개-’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벨크즈개씹사기다...’라고 하면서 욕설의 일부로서 ‘개-’가 사용되고 있고, ‘씹’이라는 성적 비속어가 ‘사기다’라는 부정적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카톡 방을 처음 개설하는 마당에 이런 욕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해당 남학생 머릿속에는 ‘개씹사기다’라는 표현이 욕 차원으로 의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방송 유행어로서 ‘앙대요, 앙대여. 앙~대여, 앙~대여!’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이미 학생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다.

셋째, 통신 언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지만 축약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쉽게 ‘ㅋㅋㅋ, ㅂㅂ, ㅇㅇ’ 등 매우 다양한 줄임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ㅋ’의 숫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외래어 혹은 외국어 사용이 매우 많이 나타난다. ‘오우메시, 리오메시, 그뤼잇 메시, 패시브, 큐가’ 등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하to the건’ 같은 혼용 표현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랑성호 하이스트’에서 ‘하이스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⁴⁾

다섯째, 얼마 안 되는 통신 언어 표현이지만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의 후반부에 보면 온통 축구 얘기다. 남학생들만의 통신 대화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반톡을 이제 막 개설했으니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축구 얘기가 나오자 남학생들이 그쪽으로 대화를 몰고 가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남녀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런 반톡 대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여섯째, 통신 언어의 표기는 발음대로 적는 음소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애들아’ 대신에 ‘애드라’로 표기하고 있고, ‘울소’ 대신에 ‘울쑈’로 적고 있다. 물론 형태주의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대개 ‘나쉬는시간 끝’에서처럼 붙여서 적고 있곤 한다. 편의주의가 반영된 소이다.

물론 (7)에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파괴 표현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또한 소위 청소년 통신 언어라고 하는 국어문화 특성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언어 현상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바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볼 것은 통신 언어 표현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 그 자체 오류 표현도 나타난다

4) ‘하이스트’는 학원의 명칭이라고 한다. 또 ‘학원’을 편하게 ‘하건’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하 to the건’은 ‘하건’ 사이에 영어 로마자 ‘to the’를 넣은 것이다. 관습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학원으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런 설명은 이 자료를 제공해 준 중학교 3학년 여 학생한테서 들은 것이다.

는 사실이다. (7)에서 ‘갑자깅ㅋㅋㅋ, 내일체육들었다ㄱㄱ’에서 받침 ‘ㅋ’은 잘못 위치된 것이고 ‘ㄱ’도 ‘ㅋ’로 적어야 할 건데 실수로 표현된 것이다. 청소년 통신 언어가 그들만의 당당한 사회 방언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자체의 이런 오류 표현 존재에 대해서도 오류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조사한 국민들의 언어인식은 대개 현재의 국어문화,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국어문화 상태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상 청소년들의 대화 양상을 살핀 (5)를 통해 볼 때 일부 비속어 등 일탈 언어 표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청소년들의 카카오톡의 대화를 살핀 (7)은 일탈 정도가 크긴 하지만, 그들만의 통신 언어 공간 속에서 사용된 문자 언어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위험할 정도까진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문 규범이나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어문화가 있는데, 일탈의 정도가 크든 작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교정 교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만의 사회 방언으로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할지 국어정책에서든 국어교육에서든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8) 방가-즐겜...‘인터넷 언어’ 논쟁 (조선일보/ 입력 : 2001/07/24 19:43)

- ㄱ. 문제가 있다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일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멜(메일), 방가(반가워), 설녀(서울에 사는 여자), 시러(싫어), -여(-요, 졸려여. 없어여), 열라(매우, 졸라), 쟈난(재미난, 재미있는), 추카추카(축하한다), 토올(토요일)’ 같은 예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미 놀이 공간이 아닌 곳까지도 슬슬 세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할지, 나아가서는 국어사전에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이 된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올려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옥스퍼드 사전의 결단도 바로 같은 논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단어라면 그 양은 ‘새발의 피’다. 오늘날 국어에는 매년 1500여 개가 넘는 신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컴퓨터 통신 언어 관련 신어의 양은 미미하다. 애정을 가지고 보면 이런 언어도 국어의 어휘자산을 풍부하게 해 주는 공급원이다. (김광해 2001)
- ㄴ. 현대 한국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언어 일탈현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언어규범을 오염, 훼손시키고 있다. ‘남친(남자 친구)’, ‘함 가봐(한 번 가보아)’ 처럼 어두를 축약한 경우, 조아(좋아)처럼 언어규범을 무시

한 경우, ‘444444너444444(넌 사로 잡혔어)’ 등 숫자를 사용한 경우 등 유형별로 따져도 10가지가 넘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언어를 교체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지 모른다. 더 이상 귀환불능점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노형남 2001)

(8)은 2001년에 심각하게 인식되었던 인터넷 언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교정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두 전문가가 신문지상에서 뜨겁게 토론을 했던 기사 내용이다. 그런데 2009년에 나온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8ㄱ)에 있는 용례 가운데 ‘추카추카’를 표제어로 선정했으며 나아가 자음자로 구성되어 쓰이는 ‘ㄸㅋㄸㅋ’까지도 표제어에 넣고 있다. (8ㄴ)에 있는 것 가운데 ‘남친’도 표제어에 넣었다. 물론 현재로서는 ‘444444너444444(넌 사로 잡혔어)’ 같은 표현이 사전에 들어 올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어는 자꾸 변하고 새로운 말이 사전에 올라오고 또 있던 것들도 사라지기도 한다.

영국에서 출간되는 옥스퍼드 대사전(OED)에서 많이 쓰이는 통신 언어를 표제어로 올리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언어의 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국어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날이 변하는 국어문화의 언어 표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이다.

특히 청소년 언어에 대한 교정 차원의 국어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이다. 사실 국어문화를 교육하는 문제는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뿐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등도 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국어문화의 주체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국어문화를 염두에 두어서 국어교육을 계획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적 국어문화는 고양하고 부정적 국어문화는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 차원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어과 수업에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통 과목으로서 국어 과목에서 우리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현행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교육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어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흔히 국어문화라 하면 인터넷 통신 언어(매체 언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호주 등 몇몇 나라에서도 매체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체 언어를 국어과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심화 과목으로 ‘매체 언어’라는 것을 선정하기도 하였었다. 2009년에 고교 선택 과목의 단순화라는 제도에 막혀서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국어과의 다른 과목에는 삼투되도록 하였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언어를 어딘가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독립된 과목으로 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다

른 영역 과목에 분산해서 다룰 것인지, 둘 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매체 언어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과 전체에서 국어문화를 신경 써서 다루겠지만, 특히 매체 언어 관련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 관습에서 벗어난 언어 표현을 다루는 걱정스러운 국어문화에 대하여 제도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어과 차원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를 다룰 수도 있다. 특히 언어와 민족 간의 관계를 주목해 보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여러 모임을 통하거나 학교 간, 혹은 학교 밖 기관들과 연합하여 여러 가지 국어문화 행사들을 기획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2년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시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그 결과물을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라는 책자로 제작 및 보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학교와 국가기관이 함께하는 국어문화 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넷째,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이든 일반인 차원이든 국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만 동아리가 있고 일반 회사에서는 없으란 법은 없다. 물론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런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유도 및 권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고 고운말 고운글로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책도 읽고 글도 써 보고, 여러 가지 국어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다섯째, 사실 모든 교육의 근원은 가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신문 만들기라든지 부모님과 아이들, 형제지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국어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35.9%). 모든 교육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장에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말과 글의 가치를 늘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국어문화를 염두에 두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학부모들을 직·간접으로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가정에서의 국어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해 보는 것도 좋은 국어교육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섯째, 직접적인 국어교육 차원은 아니지만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가 문제가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생명력 있는 국어 표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8)에서의 ‘추카추카, 남친’ 같은 표현을 공식적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맞춤법 같은 어문 규범의 현실화도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짜장면’으로 대표되는 실제 언어 표현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현재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언어의 현실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방안 모색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어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말 우리글이 좋은 것이라는 의식, 내 것을 아름다운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반 사회에서든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 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는 선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5. 나아가기

지금까지 국어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국어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유행어, 욕설·비속어, 외래어·외국어 등 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국어문화에 대하여, 특히 청소년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가정·사회 속에서 국어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여 보았다.

발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근본적으로 왜 국어문화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국어문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어른들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 언어는 본래 의사소통의 매개체인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국어문화를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혹시 이 모든 걱정은 기우(杞憂)가 아닐까?

청소년들의 카카오톡 국어문화를 보여준 (7)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적 대화 모습을 보인 (5)는 거의 다 이해가 된다. 몇몇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몇몇 어휘 등 표현적 특성일 뿐인데, 굳이 걱정하면서 언어 파괴 등등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남자들의 세계가 있고 여자들의 세계가 또 따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세계와 청소년의 세계는 또 따로 존재한다. 같은 청소년들이라 해도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 (7)에서 축구 관련 대화는 오로지 남학생들끼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하건, 하이스트’ 등은 그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쉽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국어문화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아름다운 국어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체의 존재 양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국어문화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국어문화도 소중하다는 의식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문헌>

- 강보선(201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
- 국립국어원(2010).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국립국어원(2011).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 국립국어원(2012).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 국립국어원(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 국립국어원/양명희(2005).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stat.korean.go.kr/policy.do?method=detail&murl=sub04_04
- 김규훈(2010). 인터넷 광고의 국어교육적 활용. 국어교육학연구 38.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 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8.
- 김대희(2010).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7.
- 김동환(2002).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5.
- 김성율·이종연(2013).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들 언어문화의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1.
- 김은성(2010).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 김은성(2014). 신문기사의 청소년 언어문화 재현 양상 연구. 초등국어교육연구 54.
- 김정자(2002).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국어교육학연구 15.
- 김정자(2007).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8.
- 김창원(2002). 국어교육과 문화론: '국어문화창조'의 이념은 정당인가. 한국초등국어교육 20.
- 노은희(2002). 대중문화의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15.
- 박갑수(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 박복선(2002). 청소년문화와 국어교육의 소통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15.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 서유경(2013). 융복합 시대의 매체언어교육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 95.
- 소지영(2012). 문화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설계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 우한용 외(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 출판부.
- 윤여탁(2013). 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 -문화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31.
- 이지영(2010). 초등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 이채연(2007). 매체언어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8.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최미숙(2007).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8.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
- 최지현(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탐구 -문화·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 허재영(2003). 통신 언어와 국어과 교육: 7차 교육과정의 표현·이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7.
- Patrick R. Moran(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남은희 외 역(2005). 문화교육. 경문사.)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차 례

- I. 서론
- II.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
- III.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
 - 1. 국어/국문 의식 형성과 교육
 - 2. 보통 지식으로 간주된 언어활동과 교육
 - 3.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교육
- IV.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

조 회 정(조선대)

I. 서론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는 현대 국어교육이 형성되는 과정의 중요한 굴절 지점이자 근대적 시원(始原)이다. 1894년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 형태의 교육이 공식 교육으로 표방된 가운데 국어교육이 근대 교육의 핵심 교과로 부상했던 시기가 근대계몽기이다. 근대계몽기에 형성되었던 근대 국어교육의 움직임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며 강제적 변모를 겪었다.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자면, 일어교육이 국어교육의 위상을 차지하는 대신 조선어교육은 어문교육의 하위 분과로 격하되었고 급기야 1937년 이후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방 이후 다시 수습된 국어교육의 형성 과정은 근대계몽기에 나타났던 근대 국어교육의 회복 과정이자 현대 국어교육의 탄생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실상을 살펴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날로 풍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봉배¹⁾, 조문제²⁾ 등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뒤이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 민족어문교육기초 연구’ 팀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³⁾, 어문교육이

1)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2) 조문제, 「근대교육기에 있어서의 초등국어 교육의 연구」, 『논문집』2집, 서울 교육대학교, 1969.; 조문제, 「개화기 국어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3) 김혜정,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괄적 고찰」, 『국어교육연구』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 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김혜정, 「근대 이후 국어과 교재 개발에 대한 사적 검토」, 『국어교육연구』1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김혜정, 「근대적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과 함의」, 『국어교육』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이 논문들은 근대계몽기 초기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계몽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전반은 윤여탁 외, 『국어교육』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64-283쪽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론4), 어문교육 정책과 어문운동5) 등의 연구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근대계몽기의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 연구6),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인 독서교육7), 작문교육8), 화법교육9), 문학교육10), 교수법11) 등에 대한 분야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삼되,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 자료로 채택하여 근대계몽기에 시행된 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교육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에 국어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은 갑오개혁12) 이후 교육입국조서(1895), 소학교령(1895), 중학교관제(1899), 보통학교령(1906), 고등학교령(1906), 사범학교령(1906), 고등여학교령(1908) 등의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법령의 시행에 따른 규칙과 관련 교과서에 대한 법령이 추가로 공포되었다.13) 근대계몽기에 교육 내용의 선정부터 교재 편찬까지 국가가 개입하였던 교육이 구체화되어 교실 속으로 스며들었던 양상은 국어 교과서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는 교과서 사이에 텍스트의 넘나들이 많아 유사한 제재가 선택되거나 유사 단원

- 4)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개념 및 범주」, 『선청어문』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2.;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6집, 국어교육학회, 2003.;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허재영,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의 성립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53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2005.
- 5)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 『국어교육연구』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1)」, 『한민족문화연구』1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4.
- 6) 서재복, 「한말 개화기 초등용 교과서 분석」, 『교육종합연구』제3권제2호, 교육종합연구소, 2005, 35-39쪽.; 강진호 외,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글』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허재영·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류 교과서의 교재 연구」, 『동방학』24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이상혁·권희주, 「근대계몽기 ‘국어교과 독본류’의 문체 연구」, 『민족문화연구』6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용 독본과 가치 혼재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4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어학회, 2013.; 구자황, 「근대계몽기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 『한민족어문학』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강진호, 「국어과 교과서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 『국제어문』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 7) 김종철, 「근대 초기의 독서론」, 『독서연구』10호, 한국독서학회, 2003.;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 발달 과정 연구」, 『정신문화연구』28권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63-77쪽.
- 8)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쓰기교육 변천 연구」, 『어문논총』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121-126쪽.; 허재영, 「교육과정기 이전의 작문 교재 변천사」, 『한국어학』32집, 한국어학회, 2006, 243-249쪽.; 정우봉, 「근대계몽기 작문 교재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2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9) 허재영, 「근대계몽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화법교육 연구」, 『어문학』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87-94쪽.
- 10) 정호웅, 「근대계몽기 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정충권, 「전통 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배수찬, 「근대 초기 서양문학 수용의 세 국면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김화선, 「아동의 발견과 아동문학의 기원」,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11) 허재영, 「국어과 교수 학습 이론 변천사」, 『어문논총』4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69-75쪽.; 허재영, 「근대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한민족문화연구』3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교과론과 교육학, 교수법 자료 연구」, 『한국민족문화』45호, 2012.
- 12) 갑오개혁 전후의 교육정책과 전개과정은 김경미,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참조.
- 13) 근대계몽기 교육 관련 법령은 박지태 편저, 『대한제국 정책사 자료집 IV - 교육』, 선인문화사, 1999 참조.

이 반복 수록되곤 하였기에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당대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양상 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의 교육이 지녔던 계몽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들은 당대의 언어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인 동시에 근대 교육이 지닌 계몽적 특성에 따라 당대의 언어문화를 견인하고 형성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드러내는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즉,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이미 교육적 행위를 함의하는 동시에 교실 내 교육 활동의 구체적 자료가 된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추출한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은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반영인 동시에 지향적 방향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유지하며 본 논문에서는 언어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한 후,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과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II.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각으로 언어문화교육을 취할 때, 언어문화교육으로 지칭되는 개념과 범주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곤혹스럽게도 ‘언어’, ‘문화’, ‘교육’은 세 가지 용어 모두 의미하는 바가 넓고 포괄적이다. 이로 인해 ‘언어문화교육’으로 지칭하는 바를 한정하기가 꾀까다롭다.

다행히 근대계몽기의 교과서 중 후기 교과서에 해당하는 『국어독본』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어독본』을 자료로 하여 ‘국어 문화’를 살핀 선행 연구¹⁴⁾가 있다. 책의 제목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를 내세웠지만 ‘국어 문화’에 대해 개념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에 논문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국어 문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1907년 『국어독본』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독본』으로 이어지는 국어 교과서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교육 정책과 이데올로기, 국민 만들기와 여성상, 문학 작품 수용 방식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어 문화’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어 교과서를 통해 드러나는 언어 정책, 이데올로기, 텍스트 갈래,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 등을 국어 문화로 간주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계몽기를 검토하는 관점으로 제안된 ‘어문생활사’¹⁵⁾와 유사하다. 김혜정은 어문생활사란 “언어의 내적 구조의 역사적 변화만을 다루는 ‘국어사’와 문학 작품만의 역사적 이해를 다루는 ‘국문학사’를 모두 포함하되, 그 둘을 넘어”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언어 외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하되”, “미시사적인 입장에서 일상적 삶을 기술하고자 하는 입장”¹⁶⁾이라고 규정한바, 언어의 내적 특징, 언

14) 강진호 외,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15) 어문생활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문생활사의 자료로 국어 교과서가 지닌 가치를 고찰한 논의는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어학회, 2013, 77-78쪽 참조.

16)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어학회, 2013, 78쪽.

어로 이루어진 결과물, 언어를 둘러싼 맥락, 언어가 활용되는 일상생활까지 언어와 관련된 총체적 국면의 역사를 어문생활사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공교육 내 국어교육을 설계하는 국가 단위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국어 문화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에 고시된 국어 교육과정에서 교과 의 목표를 살펴보자.

‘국어’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¹⁷⁾

국어 교육과정 상의 국어 문화는 국어 교과로 열거된 분야와 활동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 목표에 서술된 국어 활동, 국어, 문학도 국어 문화이며,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국어 문화이며, 국어의 가치를 알고 능동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것도 국어 문화이다. 즉, 국어 문화는 국어와 관련된 일체의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등장하였던 ‘국어 문화’와 ‘어문생활사’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던 현상에 주목하는 용어로 ‘언어문화’를 사용한다. 근대계몽기는 국어 의식이 막 형성되는 시기이며 한문 문해력과 국문 문해력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한 일본어 능력까지 교육 상황에서 다루어지던 시기인 만큼 국어 문화의 상위 범주로 ‘언어문화’를 설정하고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우한용은 “국어교육학에서는 국어(언어)를 사용하여 이룩하는 제반 활동을 언어문화로 규정한다.”¹⁸⁾고 정의하였던바, 이처럼 ‘언어 사용’ 국면에서 비롯하는 활동의 과정이자 결과를 언어문화로 파악한다면, 언어문화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과 그 활동으로 생겨나는 결과물로 가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에 대한 관점과 태도,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언어와 문학 등은 모두 언어문화라 통칭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는 국어교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오늘날의 국어교육만큼 언어문화교육이라 선별할 만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언어문화교육의 단서를 찾아 재구성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 단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언어문화는 무엇일까? 예컨대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텍스트의 유형과 내적 구조¹⁹⁾는 당시에 그 자체로 계몽 텍스트의 모범적 사례로

1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5], 2011, 3쪽.

18)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쪽.

19) 이에 대한 연구는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 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참조.

간주되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의 국어 교과서에 근대의 계몽 텍스트 갈래를 선택하여 수록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언어문화교육 현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근대 국어 교과서에 중세부터 문학으로 다루어졌던 텍스트 혹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문학의 범주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수록하는 것²⁰⁾ 자체도 근대의 언어문화교육 중 하나의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실상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현상 전반의 특징을 추출해야 하는 거대 작업인바,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특징적 면모를 드러내는 국면으로 언어에 대한 의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비롯한 언어활동에 대한 의식,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의식에 집중하여 몇 가지 현상을 선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 이는 언어에 대한 의식, 즉 언어관에 대한 논의로 정립되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졌다.

둘째, ‘언어활동’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 이는 언어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언어활동을 교과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 언어교육, 특히 국어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 이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채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동하였던바,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가 당대의 언어문화를 반영하고 교육적으로 견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Ⅲ.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

1. 국어/국문 의식의 형성과 교육

먼저, 국어 교과서에 드러나는 ‘언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이는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드러난다.

言語는 互相間에 意思를 表示함이요 文字는 互相間에 言語를 代行하는 者라²¹⁾

언어와 문자를 짝을 이루어 함께 다루되, 언어는 ‘말’을, 문자는 ‘글’을 가리키는 관점은 중세에도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구도²²⁾였다. 그러한 관점이 계승되고 있는 윗글에서 좀 더 주목할 점은 언어를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여 언어가 지닌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을 담당한다는 역할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반면 문자는 ‘상호간에 언어를 대행

20)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92-99쪽 참조.

21)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8권, 1906, 第十九 郵便과傳信.

22) 조희정, 「중세 문헌에 드러난 언어인식과 국어교육의 전사(前史)」, 『국어교육학연구』46집, 국어교육학회, 2013, 188-199쪽 참조.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음성언어를 중심에 두고 문자를 음성언어의 대리물로 파악하면서 언어와 문자를 주종(主從)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음성언어를 중심에 두고 문자가 음성언어를 대행한다는 입장은 음성언어와 글의 일치를 지향하되 특히 음성언어에 가깝게 글을 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언문일치의 바탕이 될 만한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근대계몽기의 국어교육에서 구어 교육의 강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가 독서, 작문, 습자 등으로 나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근대계몽기의 국어교육은 문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어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은 음성언어를 대리하는 문자의 운용 부분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교육적 설계이다.²³⁾ 구어에 대한 교육은 주로 성인의 처세와 관련된 말의 예의범절과 관련되었는데,²⁴⁾ 국어 교과서 내 구어에 대한 인식은 말의 기술적 세련성과는 무관하게 실상을 지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어는 일신에 문채(文彩)나 말이 아니면 나의 뜻을 남에게 통치 못하나 첩첩(捷捷)함에 지나면 실상(實狀)있는 병통이 있는고로 밍즈니 골으샤되 말이 실상이 업스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도하시니 입밖과 혼변 난후에는 비록 것으고져하나 엇지 것으리오 화복(禍福)이 다 입으로 부르느니니 말을 가례하야 가히 말 흘만흔 곳에 말흘지니 츠라히 말에 어눌홀지언정 말흐면 반드시 가케 흘지니라²⁵⁾

말이 아니면 나의 뜻을 남에게 통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앞서 살폈던 언어관과 같이 의사소통에서 말이 담당하는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나와 저 사이의 의사소통에 소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점이 있다. 첩첩(捷捷)은 말을 수다스럽고 거침없이 썩 잘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첩첩(喋喋)의 오기로 보이는바, 말을 수다스럽게 하면 실상이 없으리라는 경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맹자(孟子)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말이 어눌할지언정 많은 말을 삼가고 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 후기 선비들의 말하기 예법에서 한결같이 강조되어왔던 것²⁶⁾이다. 구어에 대한 중세의 관점이 근대계몽기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모습이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언어'라는 문화에 대한 시각 중 국어 의식은 그 시기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국어'는 의심할 여지없는 대상이지만, 근대적 개념들이 도입되고 정착되던 근대계몽기에 '국어'는 새롭게 형성되던 개념이자 사상²⁷⁾이었다. 국어학 연구에서 근대계몽기의 국

23)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6호, 국어교육학회, 2003, 512-523쪽 참조.

24)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6호, 국어교육학회, 2003, 514-517쪽 참조.

25) 鄭崙秀, 『樵牧必知』 상, 1909, 데삼십오장 언어지절 言語之節.

26) 조희정, 「중세 문헌에 드러난 언어인식과 국어교육의 전사(前史)」, 『국어교육학연구』46집, 국어교육학회, 2013, 202-208쪽 참조.

27) 일본 근대의 언어 인식을 다루고 있지만 이연숙 지음,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어 의식에 주목한 선행 연구의 양은 날날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기에²⁸⁾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표방된 국어 의식의 실체를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 다음은 근대계몽기의 초기 국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신정심상소학』의 서문이다.

學하는 者ㅣ 전혀 漢文만 崇尚하야 古를 學할뿐 아니라 時勢를 헤아려 國文을 參互하야 또한
 今도 學하야 智識을 넓힐것이니 我國의 世宗大王게오셔하사대 世界各國은 다 國文이 有하야 人民
 을 開曉하되 我國은 홀로 업다하사 特別히 訓民正音を 지으스 民間에 廣布하심은 婦孺와 興儔라
 도 알고 썩닷기 쉬운 緣故ㅣ라(띄어쓰기는 필자)²⁹⁾

근대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다루어지면서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 의식이 부각되며 국문이 지닌 계몽적 유용성, 즉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옛날[古]과 오늘날[今]의 대립, 한문과 국문의 대립 등 쌍을 이루는 개념들을 대립시킴으로서 오늘날[今]과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음은 근대계몽기에 통용되었던 전형적인 언어관과 국어/국문 의식을 요약해놓은 단원이다.

“우리가, 心에在하事를, 口로能히言하며, 또, 手로能히書하느니, 言語는, 聲音으로耳에感覺케하
 며, 文字는, 形象으로 目에 感覺케하느者라.

我國이, 古代에, 言語는잇스나, 文字는업는故로, 他國의文字를借用하얏스니, 則漢文이라.

이럼으로, 我國이幾千年來로, 漢文을使用하야, 事實上에, 不便함이 實로, 巨大하느니라.

世宗大王게오셔, 此를憂하사, 親히文字를, 製作하시니, 故今日에, 우리가用하느國文이라.

國文은, 母音十日과, 子音十七로, 成하느니, 合二十八音이라, 此로써, 諸子를合成하야, 萬般의聲音
 을, 寫出하느니라.

然함으로, 此를學하기易하며, 또, 用하기도便하야, 或純全히國文을用하며, 又或國文과, 漢文을交
 用도하느니라.

諸子야, 생각하라, 萬國이, 다, 方言과, 文字가, 各有하느니, 我國은, 我國文을, 使用함이, 可하도
 다, 國文은, 實로億萬年에, 獨立自主하느 表跡이니라.³⁰⁾

언어와 문자를 구분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의 특성을 거론하는 언어관으로부터 글은 시작된다. 우리에게 음성언어는 고대부터 존재했던 것이지만, 문자는 없었기에 중국의 문자인 한문을 빌려서 사용한 지 1,000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가중되었다. 세종대왕께서 이를 걱정하여 직접 문자를 만드시니 그것이 국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신정심상소학』의 서문에서와 같이 근대의 관점에서 중세의 언어 환경을 평가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재구성하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문의 모음과 자음 구성 체계와 조어법을 설명하고 국문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국문 사용을 장려하며 단원을 끝맺고 있다.

28) 근대계몽기 국어 인식을 다룬 최근 연구물로 장윤희, 「근대 이행기 한국에서의 자국어 인식」, 『한국학연구』3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참조.

29)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1권, 建陽元年(1896) 二月上澣1, 序.

30)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6권, 1906, 第三 國文.

여성 학습자를 염두에 두어 1908년에 발행되었던 『부유독습』에서도 국문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盖 國文者는 我國之文也오 漢文者는 支那之文也ㅣ라 國文을 崇之하면 我國을 愛하는 者ㅣ오 漢文을 崇之하면 他國을 愛하는 者ㅣ라 大抵家乘이나 國史ㅣ나 政治나 産業을 著述코져하면 非文이면 不可여든 況青年을 教育코져홀진대 先我國文者가 爲今日之急務로다(띄어쓰기는 필자)³¹⁾

국문과 한문을 대립시키고 한문을 중국의 글로 간주하며 국문 사용과 나라 사랑을 곧바로 연결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문이 애국과 연결되었기에 청년들에게 국문을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금일의 급선무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문을 숭상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윗글이 전형적인 한문식 문체로 주장되고 있어 흥미롭다. “國文者는 我國之文也오”와 “漢文者는 支那之文也ㅣ라”, “國文을 崇之하면 我國을 愛하는 者ㅣ오”와 “漢文을 崇之하면 他國을 愛하는 者ㅣ라” 등과 같이 대구(對句)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거나 ‘況’을 포함한 구문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고 이어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한문식 문체를 통해 국문 사용을 주장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념은 국문 사용을 지향하지만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의 식자층에게 익숙한 언어는 여전히 한문이었던 과도기의 양상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근대계몽기의 초기 교과서부터 후기 교과서까지 국어/국문 의식은 거듭 언급되며 국어 교과서 내용의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2. 보통 지식으로 간주된 언어활동과 교육

근대계몽기의 ‘언어활동’이라는 문화에 대한 논의와 그것의 교육 양상을 살펴보자. 근대 계몽기에 언어활동을 하나의 문화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활동을 하나의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발언 속에서 언어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의 교과 중 국어 교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독서(讀書), 작문(作文), 습자(習字)이다. 이러한 제도의 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속으로 진입한 이들에게 독서, 작문, 습자의 필요성과 가치를 설득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공유시킬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계급에게 문해 능력이 집중되어 있던 중세를 비판한 근대계몽기의 계몽 주체들은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문해 능력의 대중화’를 대표적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국어 교과서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스름이 °六七歲가되면 °不可不冊을읽으며 °글시를쓰며 °또數法을 °비울일이오이다 °이런일은 °官員이나百姓이나 °商估나 °다 °緊要흔거시오 °³²⁾

31) 姜華錫, 『婦幼獨習』 下, 1908, 152쪽.

32)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課 運動이라.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三十六課 運動에도 수록되어 있다.

행정관료, 백성, 상인이 모두 읽고 쓰는 일과 산수법을 배워야 한다는 당위적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은 배움을 권장하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 내 단원과 연계될 수 있다.

汝等은 學校에서 卒業하야 다른 事務에 從事하야도 決斷코 讀書를 廢치 말지니 學校의 教育은 智識의 階梯오 또 比하면 집의 基礎라 그 우혜 宏大하 집을 짓기는 汝等の 將來勸勉에 係하니라 汝等이 學校에 잇슬동안은 다만 敎師의 말을 좇츠 勸學할 뿐이느 一朝에 出校하야 訓戒하 敎師 업고 또 汝等이 事物에 應用할 智識이 不足하며 讀書하야 自進하기에 無心하면 事業을 改良치 못 할뿐 아니라 人의 後에 忤러지느니 故로 每日 一二時間을 讀書時로 定하야 그동안 專心하야 讀書 하고 다른 일을 도라보지 아니할지니라³³⁾ (강조는 필자)

배움을 권장하며 학문에 접근할 통로로 독서를 권장하는 글이다. 그런데 윗글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독서의 계속성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교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초에 해당한다는 의의를 부여하며,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개별 학습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독서를 통한 배움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배움을 통해서만 사물에 응용할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자신이 종사하는 일을 개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필요한 지식 사이의 미묘한 구분이 전제되어 있다.

초기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범주 중에서 학교 교육, 특히 초등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과 초등교육에 기대되었던 목표를 수렴하는 개념이 ‘보통 지식’과 ‘보통교육’이다. 초등교육 관련 법령이 1896년 선포된 <소학교령>에서 1906년 <보통교육령>으로 대체되면서 ‘보통교육’은 초등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이 된다.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화하였듯이 초등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은 ‘보통 지식’이라는 범주로 다루어졌다.

今日 文明諸國이 普通教育을 施하 所以도 亦同하리라 今日 文明社會에 欲齒하 者는 普通教育을 必要로 함이 武育의 戰國時代와 如하야 人이 되야 讀書習字算術等 普通教育에 心得이 無하 今日社會에 立함이 無하 戰場에 出함과 不異하니 此普通教育이 有하면 凡事成이라 云함이 아니라 但普通教育이 無하면 社會에 見容치 못하야 其實業에 就하 不能할뿐 不是라 人民이 되야 國家에 對하 義務를 全하 其政治에 參與하 不能하리라 故로 普通教育은 國民의 義務라 할지니라³⁴⁾ (강조는 필자)

<보통학교령>에 따라 교육이 정비되던 즈음인 1907년에 보통교육의 특징과 의의를 밝힌 글이다. 보통교육의 세 가지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첫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둘째,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제의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셋째, 국가의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 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교육이 필요하다. 근대계몽기의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초 교육의 성격을 ‘보통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보통교육에서 ‘보통’의 의미가 느슨하여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우리의 근대 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통감부의 통치 이후에 초등교육의

33) 學部 編輯局, 『國民小學讀本』, 1895, 第十七課 勤學

34) 朴聖欽, 「普通教育은 國民의 義務」, 『西友』 제9호, 西友學會, 光武11年(1907).

성격을 규정하는 ‘보통교육’은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념이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기에 등장한 용어인 ‘보통문(普通文)’에서 ‘보통’의 의미를 “지금 사용되는 것처럼 일반적 또는 평균적이란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또는 표준적이라는 의미”³⁵⁾로 파악하는 관점을 참고한다면, 근대계몽기의 보통교육은 근대계몽기의 사회 구성원이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을 보편화하고 표준화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통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계몽기에 보통교육과 짝을 이루었던 개념인 ‘직업교육’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보통교육은 아동이 장차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밟아야 하는 연습 단계이자 수련 과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직업은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뿐 아니라 계몽 논설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위 논설에서는 ‘실업(實業)’으로 제시되었고, 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직책(職責)이라는 용어³⁶⁾로 등장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직업(職業)이라는 용어로 귀결³⁷⁾되었다. 근대계몽기에 등장하는 ‘직업’은 중세 사회의 신분 계급이었던 사농공상(士農工商)과는 다르게, 근대 국가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개념에 가깝다.³⁸⁾ 국어 교과서에서 ‘직업’을 설명하는 맥락을 살펴보자.

1896년에 발행되었던 『신정심성소학』에서부터 모든 직업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직업을 국민이 되는 장치³⁹⁾로 파악하였다. “흔번. 定흔職業은. 아모리. 어려울지라도. 춤고. 춤아. 中途에. 變치말고. 始終을힘쓰는것시. 올스오이다.”⁴⁰⁾라고 하여 평생 직업의 개념을 제안하고, 중세에도 존재했던 ‘집신(짚신)장수’, ‘담배(담배)장수’ 등도 국어 교과서 내 직업의 사례로 제시⁴¹⁾되었다. 1907년에 발행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에서도 직업에 대한 관점은 지속된다. 농부, 어부, 목수, 니장(泥匠) 등을 직업의 사례로 제시하며 사람은 장기(長技)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물물교환 입장에서 서로의 산물과 노동을 교환하여 상부상조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⁴²⁾고 설명한다.⁴³⁾

현대 서구의 ‘general education’을 의미하는 보통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35) 사이토 마레스(齋藤希史),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 2010, 116쪽.

36) 우리들은. 農工商. 세가지中에. ㅎ가지業이잇서야. 스람이된職責이라. 稱ㅎ스름이다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八課 農工商.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十七課 農工商에도 수록되어 있다.

37)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4권, 1906, 第十 職業.;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十六 人的職業 등.

38) 보통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보충 설명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93-95쪽 참조.

39)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十六課 無識ㅎ스름이라一.

40)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十六課 無識ㅎ스름이라二.

41)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十四課 職業에는貴賤이업는것시라.

42) 學部 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3권, 1907, 第十六課 職業.

43) 그런데 근대계몽기에는 ‘직업’의 개념이 정립되는 단계였던바, ‘직업’이라는 용어도 의미가 뒤섞인 채 사용되곤 하였다. 앞서 살펴본 맥락에서 직업은 생업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직업의 하나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지금, 여러學員들이, 工夫ㅎ는것도, 또ㅎ 각히, 職業이, 되느니라.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4권, 1906, 第十 職業.) 공부하는 것(지금, 여러學員들이, 工夫ㅎ는것도, 또ㅎ 각히, 職業이, 되느니라.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4권, 1906, 第十 職業.)을 설정하는 경우 직업은 ‘종사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람이 당면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보람을 거두는 교육”⁴⁴⁾으로 정의된다. 이때 보통교육은 인문교양교육[liberal education]과 연계되며, 직업기술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과 대비⁴⁵⁾되기 때문에 “보통교육의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화제는 Spencer(1895)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가?(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라는 문제로 귀결”⁴⁶⁾된다.

그런데 근대계몽기에 제안된 보통교육은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일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보통교육’은 ‘직업교육’과 짝을 이루고 대비된다는 점에서는 앞서 거론한 보통교육과 유사하지만, ‘인문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성격보다는 직업교육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기초 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대계몽기의 보통교육은 보편화하고 표준화시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교육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근대계몽기에 보통교육의 하위 교과로 제안된 바를 통해 이 점은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보통교육의 핵심 교과는 독서, 습자, 산술이었다. 보통 지식의 핵심에 언어활동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국어 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 독법, 서법, 습자 등으로 구체화된 언어활동에 대한 언급을 국어 교과서 내에서 살펴보자.

勤勉^하 人은 言^하되 書를 讀^하면 書中으로부터 弘大^하 學問과 廣濶^하 知慧는 晝夜로 繼續^하며 歲月을 積累^하야 我로 幸^하야금 世界上에 博學家와 有名人이 되게^하다 幸^하니라.

讀書^하는 諸君아 諸君의 讀書^하는 目的은 何에 在^하가 오직 國家와 社會에 福利가 되는 事를 作^하기로 힘쓸지어다.

國家는 一人으로 成치 못^하고 多數^하 人의 集合力으로 成^하느니 諸君이 國家를 構成^하얏신則 諸君은 各其勉勵^하야 幼時에 在^하야 將來에 負荷^하 國民의 義務를 盡^하 豫備를 作^하지어다.⁴⁷⁾ (강조는 필자)

독서의 목적이 오직 국가와 사회의 복리가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학습에 공적 성격이 부여되고 독서도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 간주되는 공적 독서 관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공적 학습과 공적 독서는 국민의 의무로 승격된다. 학습과 독서가 등치되면서 학습의 핵심 방법인 독서법에 대한 인식이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다. “順明이 福童의 ㅁ음을 感動^하야 저 녁마다 福童의게 讀書^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⁴⁸⁾라는 진술에서는 독서의 방법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알려줄 만한 가치를 지녔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다는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학습이 곧 독서이니 독서법은 곧 학습법이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독본 텍스트였기에 독서법은 곧 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어 교과서에서 책을 읽는 방법을 다룬 단원이 1896년에 발행된 『신정심상소학』과 1909

4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1994.

45) 김복영, 「보통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1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1996, 144쪽.

46) 김복영, 「보통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1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1996, 147쪽.

47)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7권, 1906, 第二十六 勤勉의三課.

48) 學部 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3권, 1907, 第二課 童子二.

년에 발행된 『신찬초등소학』에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구절이 변화하여 두 교과서 사이의 관점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후기 교과서인 『신찬초등소학』의 단원을 제시하고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다.

書冊은 速히 讀지 °말것시오 聲音을 淸楚케 °하야 徐徐히 讀함이 °올소이다 °

書冊을 速히 讀하느 것이 能하줄노 知하느者ㅣ °잇스나 此는 大不可하니 萬若過速하면 誤錯이 多할 것이오이다

또 書冊을 讀하되 書字의 音節만 操心하야 人이 聽기에 快樂케 °하고 書意를 料量치아니하면 此亦大不可하오이다 °

文字란 것은 事物을 記하느 것이오 書冊이란 것은 文字의 뜻을 知코자 °함이니 故로 書冊을 讀하느 法은 °그 辭義를 自己도 十分알녀니와 °그 傍에 °듯느者도 °그뜻을 °知하도록 ° 읽는 것을 善讀者라 稱하옵느이다” 49)

책 읽는 방법의 첫 번째 전략으로 책을 천천히 읽으라 권고하고 있다. 이때의 책 읽기는 낭독을 가리킨다.⁵⁰⁾ 그 곁에서 듣는 이도 그 뜻을 알도록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라 하였으니 소리 내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제언이다.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로 천천히 책을 낭독하라고 하였으니 급하게 책을 읽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빠르게 읽는 능력은 독서법에서 중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략으로 책의 뜻을 헤아려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책을 낭독하는 경우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칫 글의 내용을 놓칠 위험이 있기에 천천히 내용을 궁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찬초등소학』에서 “人이 聽기에 快樂케. 하고”를 추가하여 글자가 지닌 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대체로 다른 이가 듣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부연 설명하였다. 책을 낭독하는 이가 책을 읽는 소리에만 신경을 쓰느라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읽는다면 낭독을 듣는 이는 더더욱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자에 대한 관점을 통해 책의 뜻에 주목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를 추출하고 있다. 문자는 사물을 기록하는 것이고 책이란 문자의 뜻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신정심상소학』에서는 “文字란거슨. 本來. 그生覺을. 表하느거시요.”라고 하여 문자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정심상소학』에서는 문자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찬초등소학』에서는 사람의 바깥 사물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니 사뭇 대조적이기까지 하다. 문자를 통해 사물을 기록한다는 의식은 중세의 기록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관점인 반면, 문자가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관점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1909년에 발행된 현재의 『신찬초등소학』은 근대계몽기의 이전 교과서와 유사한 단원이 많다. 후기 교과서가 전대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을 취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49) 玄采, 『新纂初等小學』 6권, 1909, 第十一課 書冊을讀하느法.

50) 묵독(默讀)은 1920년대 즈음부터 근대의 대표적 글 읽기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관련 내용은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120-127쪽 참조.

변형시켰을 때에는 교과서 집필자나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령 위에서 인용한 『신찬초등소학』 11과에서는 『신정심상소학』의 관련 단원 중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한 문장과 의미가 애매한 문장을 삭제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⁵¹⁾

『신정심상소학』은 서(序)에서 “茲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와 麻川松次郎으로 더부러 小學의 教科書를 編輯 할시”라 하여 일본인 편찬자의 존재를 밝혀두고 있는바, 『신정심상소학』의 단원은 일본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문자에 대한 관점은 일본의 교과서와 근대적 글에 대한 관점이 도입된 것일 터이다. 『신찬초등소학』의 집필자인 현재는 『신정심상소학』 교과서의 단원을 취하되 문자에 대한 중세적 관점의 문자관을 유지하며 단원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⁵²⁾

한편 낭독이 주를 이루었던 근대계몽기에는 책 읽기의 장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독서법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다음 단원은 책 읽기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앵무새의 말하기를 비교 사례로 거론하였다.

이 그림 은 한 아해 가, 글 을, 읽는 것이다.
이 아해 는, 교의 예, 안저, 책을, 정신되려, 읽는다.
이 아해 왼편 예, 한 앵무새가, 잇는디, 그 글 읽는 소리 툼, 입내 낸다.
너의 는, 앵무새 툼, 구경 하여라.
앵무새 는, 툼히 사람 의 말소래 는, 입내 내나, 그뜻 은, 아지 못하느니라.
我 의 사랑 하느 족하들아, 너의 는, 글을, 읽을쎄에, 저 앵무새 와, 갓치, 말지어다.⁵³⁾

글 읽기에서 소리와 뜻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가 글을 읽는 활동과 앵무새가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하는 행위를 비교하고 있다. 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앵무새는 소리의 뜻을 모른 채 성대를 울려 유사한 음향을 만들어낼 뿐이다. 아이의 글 읽기가 앵무새의 행위와 달라지려면 소리 내어 읽고 있는 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 책을 읽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소리에만 주목하며 책을 읽는 방식을 유독 경계한 이유는 독서 교과의 시험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今日은學校에서, 어러, 學徒에게, 試驗하랴고, 슈유를, 주엇소.
정길과, 갑길이, 갓치, 와서, 도강홀, 예비를, 생각하느이다.
정길이, 갑길더러, 말하되, 우리가,今夜에, 밋글을, 함기, 읽자하얏소.
그래서, 갑길은, 저녁밥을, 먹고, 정길에게로, 冊을, 가지고, 왓소.
지금, 이, 두, 兒孩는, 燈火를밝히고, 冊床우에, 冊을, 펴, 노코, 읽느이다.⁵⁴⁾

51) 추가한 문장은 “人이 聽기에 快樂케.”이며 삭제한 문장은 “그런故로. 文字는. 그뜻을. 잊지말고. 生覺하거시오이다. 萬一. 許多호書籍을. 읽을지라도. 그事蹟을不知하면. 一毫라도. 찢디업느이다.”이다.

52) 『신찬초등소학』의 11과에서는 『신정심상소학』의

53)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2권, 1906, 第十五 그림이야기 二.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제15과 ‘그림이야기’에도 수록되어 있다.

54)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3권, 1906, 第二十九 밋글읽기.

시험이 다가오자 학교에서 일종의 가정학습을 허용하였다. 친척 관계인 정길이와 갑길이는 함께 모여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한다. 시험공부가 도강(都講), 즉 “여러 날에 걸쳐 배우고 익힌 글을 선생 앞에서 한꺼번에 외는 일”⁵⁵⁾을 예비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교사 앞에서 학습자들이 주어진 글을 큰 소리로 외며 시험을 보았을 것이다. 1900년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입학시험 중 독서 시험에서 “七書 가운데 어느중 에서나 읽혀보았다. 나는 그때 大學序文을 읽히웠다.”⁵⁶⁾는 기록처럼 당시 독서 교과목의 시험은 한문 텍스트이든 국문 텍스트이든 주어진 글을 큰 소리로 읽거나 외는 중세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큰 소리로 읽거나 외는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면 학습자들은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학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 방식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 경향을 진단하고 우려하였기에 낭독의 관습 하에서 제안되었던 책 읽기의 방법은 읽기의 장면에 포함된 소리보다도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3.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교육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에 전제되어 있는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논의를 위해 국어 교과서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일반적 성격부터 고찰한다. 국어 교과서 단원의 다수는 근대에 도입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학습자들에게 근대 지식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계몽기의 초기 교과서에서는 근대 지식의 성격을 ‘실용적 지식’으로 규정하며 근대 지식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근대 지식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근대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에게 설득해야 근대 지식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日은 孫 兒孩가 老人을 對하야曰 方今兒孩는 七八歲되면 古人의 모르던 일을 能히 知히니 方今世上에 智識이 古昔보다 富히든 各色冊을 보고 各色일을 發明함미 아니잇가
老人이 答曰 너는 아즉 一을 알고 二를 모르노도다 凡智識의 貴히기는 實地應用에 잇슬뿐이니 實地에 應用하면 惡한 力도 良한 力이 되고 應用치 못하면 良한 力도 惡한 力이 되느니라⁵⁷⁾

지식의 내용과 성격을 주제로 아이와 노인이 나누는 대화가 국어 교과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는 근대에 접어들어 증가한 지식의 양과 지식의 습득 방법을 거론하였다. 당시의 아이들이 7-8세가 되면 옛날 사람들은 모르던 일을 알게 되니 이는 예전에 비해 세상에 통용되던 지식이 많아졌고, 그것을 책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이는 문해 능력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다룬 책과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 아이들의 일반적 상황을 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 교육이 지향하는 아이의 모습을 밝혀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인은 근대 지식의 가치로 실지 응용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 지식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보다는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될 때 가치

55) 다음(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65099&q=%EB%8F%84%EA%B0%95>

56) 김창제, 『한성사범학교와은사』, 『삼천리』신년호, 소화7년(1932) 1월 1일.

57) 學部 編輯局, 『國民小學讀本』, 1895, 第十三課 知識一話.

가 발휘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여기서 노인은 교과서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교과서 독자들에게 직접 근대 지식의 가치를 서술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국어 교과서들의 단원에서 근대 문물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근대 지식 관련 단원들을 구성하는 기본 관점이 되었다.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근대의 지식들은 숫자, 지리적 지식, 과학적 지식 등을 다룬 단원으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수를 읽고 쓰는 법, 특히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정보⁵⁸⁾를 알려주는 단원, 시계를 보는 법을 제시한 단원⁵⁹⁾, 세계의 지리 지식⁶⁰⁾뿐만 아니라 대한제국⁶¹⁾, 한양에 대한 정보⁶²⁾와 자부심⁶³⁾ 등이 제시된 단원, 물의 순환 원리,⁶⁴⁾ 식물의 성장 원리,⁶⁵⁾ 인간의 신체⁶⁶⁾ 등 과학 지식을 다룬 단원 등이 해당한다.

각종 근대적 지식을 제시한 단원은 산술 교과서,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 이과 교과서의 단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당 내용의 정보와 지식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교과서의 한 단원을 옮겨 놓은 듯한 단원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대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들이 이상의 내용을 국어 교과서에서 다룰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어 교과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할 터인데, 여기에는 국어 교과를 기초 교과로 파악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즉, 보통교육의 핵심 교과로 독법, 작문, 습자 등을 설정할 때,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일종의 독서 방법, 작문의 방법, 습자의 방법 등을 알고, 이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능력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습자는 서법이라 하여 일종의 기능 교과로 파악되기도⁶⁷⁾ 하였다. 이때 반복적인 연습에 동원되는 텍스트의 성격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은 독법의 경우라면 독본의 제재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작문의 경우라면 무슨 종류의 글을 쓰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될 터이다. 이에 대해 당대 국어 교과서의 집필자와 편찬자들은 당대의 근대 지식을 다룬 텍스트 전반을 독본의 제재로 선별하였고, 이로 인해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수록된 텍스트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범 교과의 텍스트가 골고루 수록된 종합 교과 교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텍스트 중 국어교육과 좀 더 밀접한 텍스트, 다시 말해

58)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2권, 1906, 第七 혜는것 유사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五課 ‘혜는법문답一’ 第六課 ‘혜는법문답二’에 수록되었다.

59)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十二課 時計를보는法이라一 第二十三課 時計를보는法이라二.

60) 세계 주에 국가와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61)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5권, 1906, 第一 大韓帝國.

62) 學部 編輯局, 『國民小學讀本』, 1895, 第三課 ‘漢陽’.

63)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5권, 1906, 第二十五 漢陽, 유사한 내용이 鄭寅琥, 『最新初等小學』 4권, 1908, 第十三 漢陽, 玄采, 『幼年必讀』 3권, 1907, 第一課 本朝歷代一 第二課 本朝歷代二, 玄采, 『新纂初等小學』, 3권, 1909, 第二十九課 漢陽一, 第三十課 漢陽二에 수록되었다.

64)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6권, 1906, 第十二 水의去處; 玄采, 『新纂初等小學』 5권, 1909, 第三十二課 水의變化一 水氷蒸氣雲霧雨, 第三十三課 水의變化二 雹霰雪露霜.

65)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二 草木의生長及蕃殖.

66)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三 身體의健康.

67) 學部 編纂, 『普通教育學』, 韓國政府印刷局印刷, 1909, 64쪽.

당대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무엇일까? 아마도 문학 텍스트가 주요 후보 중 하나일 것이다. 근대계몽기에는 교과와 차원에서 문학 과목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당시에 ‘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던 대상은 중세의 문장지학(文章之學)에 가까웠다. 단원의 제재로 채택된 텍스트 중 중세의 문학은 극히 소수였던 반면, 근대의 문학 범주는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였기에 현대와 같은 문학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현대의 문학교육과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문학 텍스트의 속성을 지닌 텍스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⁶⁸⁾

하나의 사례로 국어 교과서 내 단원에서 활용된 서사적 속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신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윤리를 강조하는 단원들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방식은 앞서 정보 혹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단원의 서술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에게 직접 윤리적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언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간단한 에피소드를 포함한 짧은 이야기를 제시한 후, 그로부터 윤리적 교훈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이야기+교훈’의 구조가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는 단원의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때 이야기에는 이솝우화를 비롯한 각종 우화⁶⁹⁾, 동아시아와 서구 위인의 이야기⁷⁰⁾, ‘근대식 학교에 다니는 10대 전후 학습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인 토래 서사⁷¹⁾ 등 다양한 속성의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당대의 일상 속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삽화를 종종 활용하였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중 삽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학부 편집국에서 1896년에 발행한 『신정심상소학』이다. 이 교과서의 서문에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화를 포함시켰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⁷²⁾ 이런 관점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 속 삽화를 통해 근대계몽기의 언어문화교육에 대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1]은 단원 본문의 첫머리에 제시된 “順姬란女子”。冊床압히서. 혼즈. 冊을.

68) 근대계몽기의 문학교육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를 참조할 것.

69) 예컨대 ‘욕심 많은 개’로 알려진 이솝우화는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1권, 1896, 第二十課 貪心잇는개라에 수록된 이후, 동일한 내용이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5권, 1906, 第八 개의 그림자, 鄭寅琥, 『最新初等小學』 2권, 1908, 第十四 탐心만흔犬, 玄采, 『新纂初等小學』, 3권, 1909, 第二課 貪心잇는犬, 學部 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2권, 1907, 第十八課 慾心이만흔犬 등에 반복하여 채택되었다. 관련 연구로 김태준,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7집 3호, 일지사, 1981.;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3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글』55집, 우리말글학회, 2012을 참조할 수 있다.

70) 위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06-107쪽; 허재영·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류 교과서의 교재 연구」, 『동방학』24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참조.

71) 토래 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는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08-10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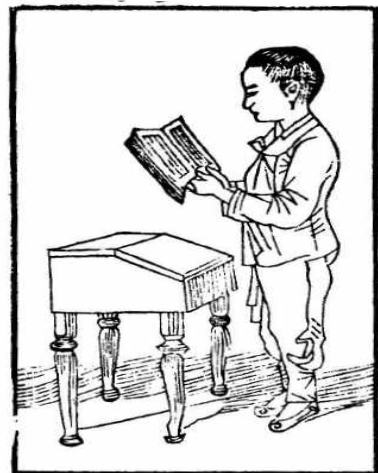
72) 物象으로 譬喩하며 或 畫圖로 形容하여 國文을 尙用함은 여러 兒孩들을 위선 씨닷기 쉽고즈힘이오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1권, 建陽元年(1896) 二月上澣1, 序.



[그림83] 학부 편집국, 『신정심상소학』 3권, 1896, 第九課 孝順의 이야기라 삽화

[그림1]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내 삽화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장면을 담고 있다. 여성의 독서이자 개인의 독서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1886년에 개교하였지만, 위 삽화 속 순희는 근대식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학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근대계몽기 교과서 삽화에 등장하는 근대식 학교의 학습자는 법령에 제시된 학령으로 보이는 8-9세의 아동으로 그려지고, 그 아동들이 교과서를 읽는 상황이라면 본문 내에서 그들이 교과서를 읽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그림2]를 보자. [그림2]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한 단원에 제시된 삽화이다. 단원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그림2]는 단원 내용의 직접적 이해를 위한 삽화라기보다는 아동이 책을 읽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서의 태도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제시되었을 것이다. 9-10세로 보이는, 머리를 짧게 깎았고 한복을 입은 아동이 책상 앞에서 책을 들고 선 채로 책을 읽고 있다. 깔끔하게 외형을 가다듬고 정자세로 책상 앞에 선 채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건대, 교실 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책을 낭독하는 모습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신정심상소학』이 발행된 시기(1896년)를 고려한다면, [그림1]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책을 읽는 여성

[그림84] 학부 편집국, 『신정심상소학』 3권, 1896, 第十八課 書冊을 읽는 법이라 삽화

은 아마도 일정한 재력을 갖춘 집안의 안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1]에서 순희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은 가늠할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소설 독자층의 주요 구성원이 사대부 여성들을 비롯한 상층 여성들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 후기부터 상층 여성들의 독서 문화가 근대계몽기 들어 변모되고 계승된 양

볼시.”라는 문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단원의 중심 내용은 삽화의 오른쪽 하단에 등장하는 쥐들의 이야기이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즉 순희가 쪽을 지고 한복을 입은 채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순희는 아마도 결혼한 여성일 것이다. 책상 위에는 남포등이 놓여 있으며 순희가 읽는 책은 중세의 제책 방식에 따라 제작되었다. 책상 위에 순희가 읽고 있는 책 이외에도 두 권의 책이 무심히 놓여 있고 방 안 가구 위에도 몇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상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역할을 [그림1]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는 당시 막 생겨나던 근대 학교에서 아동 학습자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그림1]과 [그림2]와는 달리 독서와는 무관하였을 상황에 처해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1]과 [그림2]는 당대의 독서 문화를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당시의 국어교육이 지향하고 있던 독서 문화의 한 장면에 가까워 보인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아동의 형상조차도 ‘학교-독서-산술-작문-습자-교장-운동장-공부-명랑.오락’으로 이어지는 아동 학습자 계열과 ‘밥-반찬-고춧가루-간장-술-안주-물-송늬-냉수-술상’으로 이어지는 가정 노동자 계열로 나뉜다는⁷³⁾ 점을 생각한다면, 위 삽화들이 근대계몽기의 현실 속 언어문화에 대한 보편적 반영이 아니라 미래의 언어문화에 대한 계몽적 지향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당대의 계몽 텍스트와 근대 문학의 단서를 지닌 텍스트 혹은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삽화 등을 수록함으로써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적 견인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

근대계몽기는 중세의 문해 교육에 대한 부정을 천명하고 중국과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의 문해 교육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근대 국어교육의 기본 뼈대와 관점을 형성하였던 시기이다. 중세의 문해 교육을 부정하였지만 독법, 작문법, 문체 등에서 그 영향력이 여전하였고, 한편으로는 근대 국어교육에 대한 이념이 지향점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이미 교육적 행위를 함의하는 동시에 교실 내 교육 활동의 구체적 자료가 된다는 관점에 따라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당대의 언어문화교육 양상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근대계몽기의 언어문화교육의 양상 중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현상에 주목하였다. 앞서 살핀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이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면모를 통해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에 형성되고 있던 국어 의식/국문 의식을 비롯한 언어관은 현대 국어교육의 기반이 되는 언어관으로 자리 잡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보통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국민-되기에 대한 국어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며 해방 이후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국어 교과를 구성하는 핵심적 이념이 되었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의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록하면서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지녔지만 당대에 싹트고 있었던 문학적 단서를 반영한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삽화 등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거나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되

73) 관련 내용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초기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1호,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146-149쪽 참조.

견인하는 역할은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며,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띠던 국어 교과서의 중심 제재는 국어에 대한 이론, 학습자의 언어생활, 근대문학 범주에 부합하는 문학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 혜 정(경북대)

연구자와는 한때(2003-2004) 한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라 그런지, 논문이 걸림 없이 잘 이해되고 대체로 공감되었다. 시대를 개관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결코 쉽지 않은데 내용이 체계적이고 풍부한 것을 보면, 연구자가 그동안 불모지라 할 만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들에 심혈을 기울인 내공이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자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근대계몽기의 언어문화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붙인다.

1.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을 그 이전과 비교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연구를 요약하면, 당시는 국어의식/국문의식이 발아했고, 보통교육이 핵심이념이 되었으며 교과서가 언어생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오히려 근대계몽기(이 연구의 구분을 따라,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를 뜻함)의 언어문화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언문일치 문체의 보급과 저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언문일치 이념의 강력한 힘은 막 생기기 시작한 근대 언론(신문, 잡지), 근대 문예(시, 소설), 그리고 특히 학교의 교과서 발행 등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언론들이 국한문체를 따르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글(소설)을 쓰며, 낯선 긴 문단으로 쓰인 교과서들을 발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언문일치는 소위 요즘 말하는 문식성(연구자 용어로는 문해력)의 주요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논문에 제시된 용어를 빌자면, ‘한문 문해력’과 ‘국문 문해력’ 중에서 특히 국문 문해력이 매우 중요한 언어문화교육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한문 문해력이란 한문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말하자면 비-언문일치체(언문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다른 상황이며, 설사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리로 먼저 읽고, 다음엔 뜻을 풀어서 말해야 하는 2단계 읽기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문 문해력이란 언문일치 능력으로서, 말한 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며, 소리내어 읽으면서 바로 뜻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읽기이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간단한 기능(skill)에 불과한데, 이것이 근대의 국어문화에 있어서는 익숙지 않은 어려운 능력이면서 중요한 하나의 국어능력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독본’이란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교육 방법이 죄다 일단은 읽는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과서가 바로 언문일치의 보급과 저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우선 독본으로 읽고 쓰고 독본처럼 말하게 되면서, 점차 근대의 표준이 되는 구어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 이로써 기존의 기술(記述) 중심의 언어로부터 탈피하는 사고의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던 때이다. 이와 같이 시대를 개관하는 특징을 말한다면 무엇일까?

2. 언어관(국어의식), 언어생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과서 등 언어문화의 제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킨 근본적 동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위의 언문일치에의 노력은 근대 국가관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문일치의 완성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자각과 밖으로부터의 요구로부터 나왔다. 갑작스레 근대 학교 제도나 근대 지식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오랜 동안 써왔던 기존의 한문 문장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중세로의 퇴행을 의미하고 당시 팽배해있던 중국에 대한 대타의식 때문에라도 한문을 중심으로 한 어문생활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의식했을 것이다. 또한 옆에서 가만히 일본의 변화를 주목했던 당시 지식인들은 이미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화 운동을 통해 서양에서는 구어와 문장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880년대 말부터 일본이 언문일치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언문일치 움직임이 선구적 사상가나 문학가의 자발적인 의지라 하더라도,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근대 국가 건설 시기와 겹쳐져 있다. 매일매일 대외 침략이 가세되고, 그에 따라 독립 국가에 대한 열망과 그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국어와 국문 문체에 대한 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언문일치와 구어체에 대한 자각과 움직임은 그동안 구어와 쓰기(문장)가 달랐던 오랜 동안의 한문 문장체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근대성을 달성하려는 하나의 중요한 시도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 와중에서, 국어 교과서는 바로 그 구어와 쓰기(문장)가 달랐던 언어문화를 변화시키려는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은 문자로서의, ‘한글’이다. 독립 국가에 대한 요구는 당시 우리의 문자인 ‘한글’에 대한 근대적 재발견을 가능하게 했고 자부심을 생기도록 만들었다. 소학교 수준(고등과로 가면서는 한문)의 국어 과목 교과서는 대부분 한글 전용인데, 교과서를 통해 한글이라는 문자가 더 익숙하게 되고, 의사소통 도구로서 원활하게(=쉽게) 쓰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렇지만 한글 표기는 197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한주국종체에 묻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대계몽기는 오랜 어문생활사에서 비로소 국문 중심의 언어생활로 재편되는 변화의 고민과 좌충우돌이 담겨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당시의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에 긴밀히 반영되어 있다.

3. ‘제도 속으로 진입한 독서, 작문, 습자(7쪽)’를 현대적 개념의 국어교육으로 볼 수 있나?

근대 계몽기에는 아직 교과 개념이 애매하고, 오히려 ‘독서(후에 ‘국문’, ‘국어’), 작문, 습자’와 같은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봉배 교수님의 국어교육전사

(상)에 의하면, 불행히도 과목마다 교과서가 모두 발간되었던 것은 아니며, 그나마 있는 교과서도 학교마다 다 구비되지 못하여 구술(口述)에 의존하곤 했다고 한다. 더구나 ‘작문’과 ‘습자’(심지어 ‘독서’도 마찬가지지)는 그 교육 내용 전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행여 작문을 오늘날의 장르 쓰기로, 습자를 글씨 쓰기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소학교령(1895), 한성사범학교규칙(1895) 등의 교육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근대 계몽기에 ‘경전(사서삼경)’이나 ‘해행초서’ 쓰기가 여전히 작문과 습자의 중요 내용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근대 보통교육으로서 ‘독법, 작문, 습자’를 설정한다거나, ‘서법을 기능으로 간주하고 반복 연습으로 습득되는 훈련으로 간주했으며, ... 작문의 경우라면 무슨 종류의 글을 쓰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점은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습자는 1930년대까지도 해서행서초서를 쓰는 서가의 전 단계를 뜻하는 과목이다(동아일보, 1935.6.11.). 나아가 작문이 지금과 같은 ‘갈래별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근대적 문체와 장르 개념이 먼저 확립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당시 교과서는 대부분 ‘ㅎ읍ㄴ이다(신찬초등소학, 1909), 發明ㅎ미 아니잇가(국민소학독본, 1895)’ 등의 중세적 문장 어미를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었다(이는 물론 구어체에 가까운 언문일치체이겠지만 근대적 문장체는 아니다,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이다). 근대 소설의 문장 형태를 확립하는 데 큰 획을 그었다는 김동인은 소설을 구상하거나 쓸 때 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먼저 쓰고 이를 번역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불과 1919년 ‘창조’ 창간호에서 처음으로 쓴 ‘-었다’의 등장이라면 그 이전에는 근대 문장체나 근대 갈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신소설이 1906년, 신체시가 1908년에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근대 계몽기는 근대적 문체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불안정한 시기였을 것이다. 따라서 1910년 이전의 작문 교육에서, 근대 문장과 근대적 장르 개념이 교과서에 반영, 발행되거나 작문의 교육 내용으로 들어올 만큼 앞서갔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 계몽기에 국문의 위상이 높아지고, 언문일치 문체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지고, 학교는 근대 과목을 설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한자(한문)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과목명으로 존재하지는 않더라도(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의 한문 과목, 성균관 경학과의 사서삼경 과목이 존재했다. 또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어급한문’이나 수의과목 한문이 생긴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학교 고등과나 중학교 이상의 단계에서는 교재들이 한자 표기로 이루어졌다), 여전히 학교 안에서도 한자 및 한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문이나 습자 과목에서 말하는 작문과 습자가 오늘날과 같은 국어교육의 쓰기 개념으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들을 당시 언어문화교육의 별개 양상(‘이중적 언어생활’)으로 간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 ‘보통 지식’과 ‘보통 교육’에서 ‘보통’의 개념을 순수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논문에서는 보통교육(1906-)은 직업교육과 짝을 이루고 대비되며 직업교육으로 나아가기 전의 기초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보통교육의 교과를 ‘독서, 습자, 산술’로 제시한 것을 들었다. 소위 서양전통의 3R을 뽑은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보통 교육의 핵심 교과라고 동일하게 배열할 수 있는가? 각각의 교육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선 논의와 관련되기에 이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보통’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부터 쓰인 것이 아니라, ‘보통학교령(1906)’으로의 전환과 함께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보통 교육’이 지향하는 ‘보통 지식’이 과연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지녀야 할 지식으로서의 보편성에 기초한 것일까(8쪽)? 오히려 보통학교령은 일제의 내정 간섭이 이미 시작된 통감부 아래 의도적으로 개정된 교육령이다. 소학교 6년을 4년으로 단축하고, 일어를 국어와 동일한 시수로 배정한 것이 주 변화이다. 따라서 적어도 근대 계몽기에 쓰인 ‘보통’이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간이, 실용’을 내세운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일제가 본국과의 차별된 교육을 하려는 식민 준비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통 교육’이 순수하게 기초 교육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설사 아무리 객관적으로 식민지 담론의 양가성을 인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연구자가 ‘문해 능력의 대중화’를 언급하였다), 소학교 교육에서도 똑같이 3R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굳이 학년을 줄이고 과목을 줄인 보통학교 교육을 기초 교육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갑오경장 100주년자료, 1994)에 의하면, 1906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73개, 학생수 2만명 수준이며, 문맹률은 70%를 상회했는데, 이 때 상황에서 보통교육은 실상, 누구나 학교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더구나 아니었기 때문이다.

5. 제재의 반복, 삽화 해설과 관련하여, 교과서 안과 밖의 자료 분석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에서 통용된 교재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그 자료는 수적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계몽기의 교과서(약 40여종, 100여권의 국어 교재)의 단원은 대부분 그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계몽적이며 당시 언어문화교육을 이끄는 표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면 당대의 ‘양상’보다는 ‘지향’하는 바를 기술하는 데 더 적절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과서 제작과 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근대계몽기의 교과서는 오늘날처럼 당대의 언어문화상황을 반영할 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요즘은 교과서를 만들 때 학생들의 관심사, 흥미, 사회문화의 쟁점과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한다). 그렇다면 교과서 단원(안)에 실린 제재의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의 언어문화교육이 반영된 ‘양상’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원 제재 중 언어생활을 보여주는 일화나 언어생활을 그린 삽화의 예시가 특히 그렇다.

예컨대, 당대의 쪽진 머리를 한 전통 여성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당대의 보편적 언어문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쥐가 나오는 가난 속에서도 독서하는 바람직한 상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가 책보는 아녀자의 자세를 계몽하려는 목적으로 발행,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교과서 ‘내’의 단원이 당시의 언어문화교육을 직접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가 기록물(다큐멘터리)이 아닌 이상 당시 어떤 교과서들이 발행되고 그 교과서들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른 자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당대 언어문화 교육 양상을 기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분야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촉을 가지고 이리도 꼼꼼히 써내려간 논문을 던져 준 연구자에게 다소 성의 있게 보이기 위해서 몇 자 적었는데, 마치 오랜 만에 공부 새로 하는 사람처럼, 쓸데없이 질문이 길어졌다. 그건 아마도 내가 살지 않았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여전히 흥미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느낌도 받았다. 학회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였다.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에 대한 토론문

전 은 주(부산대)

이 논문에서는 국어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대화를 통하여 국어문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어교육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국어문화의 실태를, 청소년들의 대화 전사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청소년 간의 실제 의사소통 양상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국어문화는 고양하고 부정적 국어문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은 매우 지당한 것이라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 문화를 존재 양상 그대로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논문을 읽어가며 들었던 의문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어생활에서 외래어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시행된 언어 의식 조사 중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대하여 걱정하는 견해에 해당하는 3(ㄷ)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질문은 결국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하여 언중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버스, 컴퓨터, 피아노 등과 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국어처럼 쓰이는 말인 ‘외래어’의 사용을 ‘외국어’ 사용과 동일한 차원으로 보고 조사하였다는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중의 언어의식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중들의 외래어 사용이 우려해야 하는 현상인지요?

둘째, 매체 언어에 대한 교육 이외에 자국어 문화 고양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과 교육을 펼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언어가 발달하면서 일상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이를 통한 의사소통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인 의사소통과 공식적인 문자 언어 의사소통, 특히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끼치는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것 역시 디지털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언어와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언어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적 대응 모색에 도움이 되

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이질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한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이상의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잘 소통하고 싶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따라 써봤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만큼 좋지 않고 오히려 교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것 같더라하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 사용으로 보고, 이를 존재 양상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대 간의 언어 사용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는 교육적 대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국어문화 고양을 위한 교육은 청소년 대상의 학교 국어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일반인 대상의 국어교육 등도 필요하다는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언어 사용이 곧 의사소통의 과정임을 생각해 본다면 국어 문화의 고양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역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국어교육에서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좋은 발표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는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한국어문학회단체연합회

특별기고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권재일 (서울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권재일(서울대)

1.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면서

2014년 7월 25일 낮, 우리 일행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자리 잡은 주시경 선생 묘소에 섰다. 한강이 뒤로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다. 장마철인데 마침 이 날은 햇살이 가득하다. 우리는 주시경 선생 묘소에 꽃을 바치고 큰절을 두 번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은상 선생이 짓고 김충현 선생이 쓴 묘비명을 함께 읽었다.

“한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 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우 서른 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는 것을 자갸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¹⁾

이렇듯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 온 힘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은 1876년에 태어나 1914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 올해가 바로 돌아가신 지 100돌이 되는 해이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국어문법》(1910)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은 국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은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선생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지닌 학문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 연구를 언어 과학으로 승화시킨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국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깨끗하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 이 글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새국어생활” 2014년 가을(제24권 제3호)호, 61~75쪽에 실린 내용으로서 국립국어원과 저자의 허락 하에 다시 실는다.

1) 묘비명은 원문대로 띄어쓰기하였다.

이제 주시경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의 삶과 학문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과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말글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전적으로 글쓴이에게 주시경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일깨워 준 허웅 선생의 글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1980)과 글쓴이의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힌샘 주시경 선생”(2008)에 바탕을 두고,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여, 고치고 덧붙여서 다시 쓴 글이다.

2.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

선생이 태어나신 1876년은 외세의 침략이 잦아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였고, 농사도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음력 11월 7일, 주시경 선생은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무릉골에서 아버지 주학원 님과 어머니 전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 고향에서 서당에 다닐 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깨달으려 하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다고 한다. 열 살이 넘어 1887년, 주시경 선생은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게 된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서당 생활은 열일곱 살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그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배우려 하는 것은 결국 한문으로 쓰인 뜻, 그 교훈이 아닌가? 말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한문도 결국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어려운 한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우리말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저 교훈을 우리말로 적어 놓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깨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주시경 선생은 서당 공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옳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이 있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문만을 글이라 하고 훈민정음은 돌보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한문은 중국말을 적는 것이 아닌가? 우리말이 중국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며,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눈은 희망에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그 어렵고 배우기 힘든 한자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얼마나 알기 쉽고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훈민정음을 내가 빛내어 보리라.’

주시경 선생은 이와 같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말과 글자 생활의 바른 길을 열기 시작하였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문 중심의 글자 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비로소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3. 한글 사랑을 위해 바친 짧은 생애

한문의 마술에서 깨어난 주시경 선생은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헐버트 선생과 함께 참여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로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문법을 공동 연구하였다. 그러는 사이 스물다섯 살 때에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신학문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갈망은 계속되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항해술을 배우기도 하고 측량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영국인 의사에게 영어와 의학을 배우면서 국어를 가르쳤고, 또한 독학으로 기계학, 종교학까지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중심이 국어에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국어 연구에 골몰하는 한편, 학문 연구는 민중 교화를 실천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민중 교화를 위해 국어의 정리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신념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 안에 국어 강의 시간이나 국어 강습소에 나가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교육에 열중하였는지는, 서른 살을 전후하여 그가 교편을 잡은 학교나 강습소가 무려 스무 곳이나 됨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서울 시내 각 학교의 국어를 도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교재는 등사판에 인쇄하여 보자기에 싸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의하였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윤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은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신용하 2014 참조).

“그러나 당시 학교로서 든든한 터가 잡힌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선생에게 주는 보수는 박하였고, 그나마 몇 달씩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극히 곤궁한 살림이어서 무명옷을 입고 짚신을 신으면서도 끼니를 곱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창동 그의 사택은 용신하기도 불편한 데다가 햇빛조차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등불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강은커녕 지참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로 거치어 올 시간도 없어서 바로 교실로 걸음을 빨리하는 것이 상례였다.”(김윤경)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미 없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고 질긴 스승의 의지였다. 눈물을 머금은 ‘주 보파리’는 예나 다름없이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 서시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면서,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였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치었다.”(최현배)

주시경 선생의 학문은 점차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나라의 운명은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그는 원통함의 눈물이 채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족 갱생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렇지만 일본 침략자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 갔다. 동지들은 하나씩 둘씩 국외로 망명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1914년 서른여덟 살 되던 해, 국외 망명을 결심

하고 7월 방학에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에게 하직하고 서울로 돌아와 준비하던 중, 갑자기 체중에 걸리며칠 후 7월 27일, 내수동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는 품은 포부를 반도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비분 속에서 고귀한 한 생애를 마쳤다.

짧은 생애를 마치며 주시경 선생은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가 홀로 섬의 특별한 빛이라”는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에 대해 신용하 선생은 지난 5월 한글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신용하 2014 참조).

“주시경 선생이 비록 짧은 기간에 우리 말글 운동에 큰 업적을 낸 사상적 배경에는 ‘민족은 본질적으로 언어 공동체이며, 언어가 흥하면 민족도 흥하고 언어가 소멸되면 민족도 소멸된다’라는 사회학적 사상과, 민족과 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학문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길은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함에 있고,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이 어떤 나라의 말과 글만 같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갖고 닦아, 기어이 만국과 같아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단군 이래로 덕정을 베풀던 그 훌륭한 말과 글자를 연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그의 국어 연구는 《국어문법》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전개는 우리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어문법》은 일찍이 그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1893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스물두 살 때인 1898년 12월에 초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이후 다듬고 고쳐 1910년 4월에 발간하였다.

《국어문법》에서는 학술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썼다. 지금 말로 품사를 ‘기’라 하였는데(나중에 ‘씨’로 고침), “기의 갈래 아홉의 이름은 조선어로 만든 것이니, 한자로 만들면 그 문자의 뜻으로만 풀이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 그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기 갈래를 ‘임, 엇, 움, 겹, 잇, 언, 억, 놀, 꺾’이라 하였는데, 지금말로 옮기자면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종결사’이다.

《국어문법》에서 다루는 큰 갈래는 ‘기난갈’과 ‘짚듬갈’이다. 기난갈의 ‘기’는 낱말, ‘난’은 나눈다, ‘갈’은 연구의 뜻으로 ‘품사분류론’이란 뜻이며, 짚듬갈의 ‘짚’은 짜서 꾸민다, ‘듬’은 말이 구성되는 법의 뜻으로 ‘문장론’이란 뜻이다.

말은 밖으로 나타난 표면구조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결정하는 심층구조가 있다는 것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인데, 주시경 선생의 문법에서 이러한 이론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먹는 다’란 말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은, 말 밖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말의 환경을 말한다. 그는 이 말의 그림폴이에서 주어

와 목적어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ㅅ’을 표시하고서 그 자리에 숨은 성분 곧 속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속뜻이 숨어 있다는 설명은 심층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다. 속뜻으로 있는 것이 겉으로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설명 방식 그대로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주시경 선생은 이러한 문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술언어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형태소’가 있다. 일정한 음성 형식과 일정한 의미 형식을 갖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1926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똑 같은 개념으로 ‘낫씨’라는 개념을 이미 1914년의 《말의 소리》에서 주시경 선생이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로 형태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주시경 선생은 형태소 분석을 철저히 추진해 나간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맞춤법에 반영하고, 원형을 고정시켜 글 읽기에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자음 글자를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 발음대로 적되 형태음소적으로 분철 표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리는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으로 이어졌다(송철의 2010 참조). 이를 근본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을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

주시경 선생이 처음 우리말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표기법을 바로 잡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의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문법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모든 조건들, 이어받을 만한 학문의 토대가 전혀 없었던 점, 나라 형편이 매우 혼란 상태에 있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갔다는 점, 개인적인 생활이 극도로 가난했다는 점, 그의 학문 활동의 헛수가 그리 길지 못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그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 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이 시작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국어 정책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선생이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문화사에, 민족 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000여 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만 명이 넘어선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0위라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같아야 한다. 발음이 같아야 하고, 단어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발음으로 말한다든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결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개업식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의 ‘와중’은 소용돌이 속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쁘신 중에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친절히 자문해 주었다’에서 ‘자문하다’는 ‘묻다’의 뜻이다. 내용으로 보면 ‘자문한 것에 대해 친절히 응해 주었다’, 또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삶에 힘든 애환이 스며 있다’의 ‘애환’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흔히 슬픔의 뜻으로만 쓰고 있어 혼돈스럽다.

잘못 쓰이는 말이 이것뿐이라. ‘편집하다’는 신문, 잡지, 책, 영화, 드라마 등의 본래의 자료에 덧붙이거나 잘라 내거나 또는 차례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방송에서는 잘라 내 없애는 것을 뜻하는 말로만 쓰고 있다. ‘예능’이란 말도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재능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방송에서는 쫓고 까부는 오락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어 본래 뜻의 예능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의 부인을 높여 두루 부르는 말 ‘영부인’도 대통령 영부인을 뜻하는 말로 한정하여 잘못 쓰인 지 벌써 삼십 년이 더 지났다. 그래서 영부인이라 하면 으레 대통령 부인만 가리키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시험에서 흔히 듣는 말 ‘컨닝’이란 말의 올바른 영어는 cheating이다. 백화점에 명품 구경 가는 것을 ‘아이쇼핑’이라 하는 것도 올바른 영어는 window shopping일 것이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외치는 한마디, ‘원샷!’도 Bottoms up이 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의 ‘알바’ 역시 독일어 ‘아르바이트’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맥주회사에서 직영하는 생맥줏집 이름에 독일어를 썼다. 뜯이나 정원, 마당을 뜻하는 독일어가 바로 호프(Hof)이다. 생맥주를 마시는 뜯, 정원이라는 의미로 ‘생맥주 전문점 오비 호프(OB Hof)’로 이름 붙였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호프(Hof)라 하면 생맥줏집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호프(Hof)는 생맥줏집뿐만 아니라 생맥주 자체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호프 & 소주’를 판다고 간판에 써 놓은 집도 많다. 독일어의 정원을 생맥주라 부르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결과이다.

그뿐 아니다. 공공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업사이클’이란 말도 등장한다. ‘리사이클’이 ‘재활용품’이라는데 그것을 ‘업(up)’ 시킨다는 뜻이란다. ‘힘내自! 중소氣UP, 공공구매路’라는 어느 행정 기관의 구호는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미투데이’라는 정책 설명을 대하게 되면 정말 행정 기관의 우리말 사용이 이렇게 까지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서민 정책인 ‘농촌 어메니티 체험’, ‘마이크로크레딧’, ‘패스트 트랙(Fast Track)’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맘프러너창업스쿨’이란 용어도 일반 국민이 선뜻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섞어 쓴 일은 없는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은 없는지, 공직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온갖 가게 이름, 상품 이름, 심지어는 모임 이름, 사람 이름에까지 서양식 이름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영어 정관사 the에 우리말을 덧붙인 혼합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연예인 이름을 영문자 한 글자로 지은 경우도 있다. 연예인 이름, 그리고 민간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멸칭한 이름을 영문자 약자로 앞다투어 고치고 있다. LH, IBK, K-Water처럼 한둘이 아니지만, 외국인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기를 자꾸 늘려 가야만 할 것인가?

또한 대표적인 공공 언어인 방송 언어도 그러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들인다.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쉽고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방송 언어가 생활의 생생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해도 언어 예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방송에서 계속하여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에게 이런 언어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언어는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언어 사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통신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생활이란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작년에 발족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이 기획하고 펼치는 다양한 사업은,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6.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 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에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게 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규범적인 발음, 어휘,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이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들이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국어를 지켜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길이다.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주시경 선생의 ‘어록비’에 담긴 글, “한나라말”의 한 부분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텃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참고문헌

- 권재일(2008),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힌샘 주시경 선생, 김태준·소재영 엮음 《스승》, 31~44, 논형.
- 문화체육관광부(2013),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용하(2014), 주 시경 선생의 애국계몽사상과 한글, 《617돌 세종날 기념 주 시경 선생 100주기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7~19, 한글학회.
- 허 웅(1986), 주 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허웅·박지홍 엮음 《주 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197~306, 과학사.